

전발연 2005-R-13

#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005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진

---

연구책임 박재규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이윤애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

연구자문 김홍주 • 원광대학교 교수

나영숙 • 전북여성농민회 간사

이영세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조경욱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목적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 국내 유입과정 및 현지 적응과정 조사,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입국을 위한 준비 실태, 현지 적응노력, 배우자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실태,
- 이주여성 가족의 자녀양육과 교육 실태,
- 가정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적응,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사회단체의 사업 및 활동,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

### 2. 연구방법

-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를 위한 분석틀과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 구성
- 전라북도 13개 시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표본조사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13개 시군에서 이주여성의 규모와 국적을 고려하여 실시
- 자료수집은 2005년 8월 17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사용 한계 때문에 영어, 일어, 베트남어 질문지 사용
- 수집된 자료는 편집과 코딩을 거쳐 SPSS 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

- 2000년 이후 결혼한 여성이 50.9%, 1990년대 후반 36.5%,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전이 12.6%를 차지하여 국제결혼이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됨
- 이주여성의 현재 평균 연령은 34세, 결혼 당시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80%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고, 종교가 없는 여성이 20%를, 반면 종교가 있는 여성이 80%로 높았고, 통일교 37%, 개신기독교 23.4%, 불교와 원불교가 9.0%, 기타 9.6% 차지
- 가정생활의 경우 부유한 여성이 25.5%, 어려운 경우는 23.2%, 그리고 본국 경제생활과 비교할 경우 좋아졌다고 평가한 여성이 34.5%를 차지한 반면에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여성은 28.5%를 차지함
- 이주여성의 국적 중에는 필리핀 국적 여성이 34.9%, 조선족 31.2%, 일본 24.2%, 그리고 베트남과 기타가 각각 5.3%와 4.3%를 차지함
-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관련해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46.1%, 향후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이 34.2%, 국적 취득 계획이 없는 여성이 19.7%

####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

- 한국 남성 배우자와의 만남은 종교단체의 주선이 50%, 친구나 이웃 등 아는 사람이 21.5%, 부모 형제 친척에 의한 가족소개가 12.5%, 결혼정보업체가 9.2%, 행정기관 3.1%, 배우자의 직접 만남이 2.3%를 차지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교제기간이 매우 짧았고, 종교단체가 주선한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 여성이, 가족이나 지인이 소개한 경우는 조선족, 결혼업체의 경우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많음
- 국제결혼 원인분석에 의하면, 종교적 이유가 29.4%, 배우자 사랑이 25.5%, 경제적 향상과 본국 가정에 대한 경제 지원이 22.9%와 7.9%, 기타 5.9%
- 결혼과정에서 남편 배우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여성은 20% 정도로, 이들 중에는 최근에 결혼했거나,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베트남 국적 및 조선족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음
- 남편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결혼 이전과 이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본국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약속과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50%와 54%로 높고, 배우자의 성격과 재산도 약 40%, 직업과 학력이 약 35%, 그리고 가족관계나 나이, 그리고 건강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입국준비와 국내 적응 노력

- 입국 전에 국내에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무도 없었던 이주여성이 40%, 친구나 이웃 등 아는 사람 45%, 가족이 15%로 밝혀졌고, 아무도 없는 경우는 일본이나 베트남 국적 여성과 통일교를 믿는 여성, 그리고 국적 취득계획이 없는 여성이 많음
- 국내 입국 전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준비한 여성이 15% 정도인 반면 40%는 준비 못함
- 입국 당시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여성이 15%,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이 45%를 차지함
-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가운데 여성의 경우 과반수가 참여한 적이 없었고, 특히 직업기술 교육이나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교육 관련 교육 참여가 매우 낮았으며, 반면에 한국문화 이해 및 한국어 교육,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에 참여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국내 각종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원인 분석에 의하면,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가 45.6%, 바쁜 생활이나 자녀돌봄 때문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24.2%와 18.6%, 일부 여성은 교육비용이나 가족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함

## 6.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지원 실태

- 결혼 후 국내 입국 당시 이주여성은 남편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반면 마을 주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여성은 많지 않음
- 남편 배우자의 이주여성 모국에 대한 이해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여성 중에 모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여성이 80%, 18.6%는 아직 경험이 없었고,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최근 결혼한 여성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음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중에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44%, 반면에 56.1%는 아직 경험 없고,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원인에는 초청비용이 없거나 초청 생각이 없는 경우가 각각 34.7%와 24.0%, 초청할 자격이 부족한 경우도 12.5%, 반면에 현재 초청상태에 있는 경우는 14.8%
- 이주여성이 외부활동이나 교육 참여, 본국 가족과의 연락과정에서 가족으로

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는 평균 40% 수준이며, 가족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약 20% 수준을 차지함

#### 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단체 활동참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단체 참여가 40%로, 여성단체의 경우 14.6%, 자조모임의 경우 28.3%
- ‘종합적인 사회단체’ 참여 분석에 의하면, 사회단체 참여가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여성이,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나 종교가 없거나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부부가족이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열악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음
- 본국 출신 조직인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49%를 차지하였고, 자조모임 중에 국내 사회단체 및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19.1%에 불과하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29.9%를 차지하며, 자조모임 가운데 지역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우가 19.8%를 차지함
-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문제에 직면할 경우 상의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자국 출신 상담자가 75%, 한국인의 경우 40%, 타국 출신이 20% 수준임
- ‘종합적인 상담 자원’ 분석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상담자원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교육수준이 낮고,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자녀가 있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여성, 취업임금 노동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음

#### 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균 자녀는 1.54명으로 한국사회 평균보다 높고,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 77.3%를 차지한 반면, 22.7%는 자녀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에는 최근 결혼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함
- 자녀 출산과정에서 이주여성의 50% 이상은 병원에 가거나 혹은 진찰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지만 산후조리나 혹은 자녀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경우가 30-35% 수준으로 많지 않음

- 특히 출산 이후 산후조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나 불교 및 원불교를 믿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많음
-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46.7%를 차지하였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각각 19.4%와 19.7%를 차지함
- 자녀와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여성이 59.8%를 차지하였지만, 나머지 40.2%는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들 이주여성 중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의, 통일교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열악하고,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많음
- 자녀 학습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15.7%를 차지한 반면 자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은 35%,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여성이 18%를 차지함
-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30.7%, 숙제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 23.2%, 반면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이 33.1%를 차지함
- 이주여성의 자녀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우는 24.0%를 차지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외모가 달라서 5.1%,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4.8%,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9.3%, 그리고 기타가 4.8%를 차지하였고, 자녀의 따돌림을 경험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열악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음

## 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 및 가족관계

-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조사 참여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생필품 빌려 사용하기가 35%를 차지한 반면, 바쁜 경우 아이를 돌봐주거나 금전 유통의 경우가 약 20-25%를 차지하였음
- 이웃과 거래가 없는 전혀 없는 여성이 40.1%를 차지하였고, 이들 여성들 중에는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의,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고, 가정생활이 가난하거나, 한국어 사용능력이 열악하고, 외부활동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많았음

-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30%를 차지하였고,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약 15%,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은 경우가 5%, 그리고 기타 6%로 나타났고, 30% 이상은 문제가 없거나 혹은 시부모가 없었음
- 이주여성 가운데 53%는 부부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반면 30% 정도는 그저 그렇다고, 17% 정도는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고, 특히 부부생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과 조선족 여성이, 종교가 없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열악한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외부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많음
- 남편 배우자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한 여성이 30%,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이 24%, 밀치거나 넘어뜨리거나 혹은 때리겠다고 위협을 받은 경우가 15%, 실제 폭력을 당한 경우가 10%, 그리고 외부출입 금지 위협이나 성행위 강요, 흥기사용 위협을 당한 경우가 각각 5-10%를 차지하였음
-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50% 정도, 가끔 하는 경우가 35%, 자주하는 경우가 15%를 차지하였고, 부부싸움 원인으로서는 배우자와의 성격이나 생활방식 차이가 50%를 차지하였고, 경제적 문제가 약 16%, 배우자의 음주 및 가족문제가 20%를 차지함
- 이주여성 가운데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35%를 차지하였고, 그 원인으로서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 문제가 12%,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혼 이전과 다른 생활 때문인 경우가 22%를 차지함

## 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분석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0% 정도는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20%는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고, 특히 주거환경과 농촌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각각 24.8%와 23.2%, 소비생활과 전반적인 생활의 경우도 20%, 그밖에 다른 내용의 경우 20% 이하로 나타남



-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외부활동과 관련해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부부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여성이 많음

## 11.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 2004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조사’를 토대로 2005년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가 도입되었고, 특히 여성부는 이주여성의 한국문화와 결혼생활 정착지원을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제결혼 부부교육”을 추진하였고, (주)태평양이 출연한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하여 생활 속의 한글교재를 개발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60명에게 출산 전후 출산 가사도우미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음
-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주여성의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문화탐방, 장기자랑과 본국 전통요리 품평회, 한식조리교실 등을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원사업이 양적 및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이주여성의 법률지원 및 건강관리 사업,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등 다양하게 추진됨
- 2004년 여성단체가 추진한 지원사업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이 자체 사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고, 사업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실이나 여성단체와 결연활동, 중국인 위안잔치가 있었고, 일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2005년 여성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은 크게 활성화되었고, 특히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역에서,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며, 이주여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 또한 크게 확대되었음
- 2005년 지원 사업 내용 중에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이주여성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북여성농민회는 이주여성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여성의 전화와 여성긴급전화 1366의 가정 폭력상담 및 예방활동, 이주여성의 가족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 제공 등

## II. 정책건의

### 1. 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책

- 여성가족부에 전담 부서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한국사회 국제결혼 증가 및 국제결혼의 여성화 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설치와 전문인력 배치,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 남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이나 별거 중인 이주여성의 경우 한시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적 완전 부여
-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확대
-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 강화를 통해 한국인의 다문화시대 적응력 향상
- 국제결혼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성공 사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특히 국제결혼 부부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교육도 강화시킴

###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책

- 지자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 강화 및 창구의 일원화 -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재정보호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예를 들면, 여성농업인센터)을 선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이주여성의 경우 지역적 분산성 때문에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농한기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동교육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편의 및 서비스 제공
-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체를 선정할 경우 단체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함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사업(자녀교육 문제) 추진
- 저소득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하고, 상담소 지원 강화

### 3. 여성시민사회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책

- 지역시민사회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확대 필요성  
지역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 강화 행사 마련
- 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자매결연을 통해 이주여성의 정신적 안정을 비롯한 이주여성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법 제시, 대외활동 참여 유도 등



# 목 차

<b>제 1 장 서론</b>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 2 절 연구의 목적 .....	9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	10
제 4 절 연구의 구성 .....	11
<b>제 2 장 한국농촌의 변화와 국제결혼에 관한 문헌검토</b> .....	13
제 1 절 한국농촌의 구조적 변화 .....	15
1.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 .....	15
2. 한국농촌의 구조적 변화 분석 .....	18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와 국내 적응문제 .....	33
1. 국제결혼의 역사와 현황 .....	33
2. 한국사회 국제결혼 이주여성 증가와 그 원인 .....	35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과정 및 문제점 .....	39
<b>제 3 장 연구방법론</b> .....	47
제 1 절 연구방법 .....	49
1. 문헌연구 .....	49
2. 실태조사 .....	49
3. 분석방법 .....	52
4. 자료수집 진행 절차 .....	5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54
1. 연구범위 .....	54
2. 연구의 주요 내용 .....	54
<b>제 4 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과 결혼과정</b> .....	57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9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59
2. 경제적 및 국적 관련 특성 .....	62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 분석	65
1.	배우자의 만남과 결혼	65
2.	국제결혼의 원인과 금전 지불 분석	74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식한 배우자 관련 정보 분석	81
<b>제 5 장</b>	<b>이주여성의 국내 입국과 적응과정 분석</b>	<b>89</b>
제 1 절	국내 입국을 위한 사전준비 현황 분석	91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적 네트워크 분석	91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문화) 준비 상황	95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적응노력 분석	102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 참여	102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교육 불참 원인 분석	122
제 3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의 지원 실태	126
1.	배우자 가족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해 노력 실태	126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관련 가족 지지 분석	140
제 4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 실태	150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단체 참여 실태	150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실태	164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제 상담 자원 실태 분석	168
<b>제 6 장</b>	<b>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b>	<b>177</b>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출산	179
1.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실태	179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 관련 행위 분석	182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돌봄과 교육 문제	193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돌봄 문제	193
2.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 분석	194
3.	자녀와의 학습 지원 및 학교생활 분석	198
<b>제 7 장</b>	<b>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생활 분석</b>	<b>207</b>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과 가족관계	209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관계	209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과 부부관계 만족 분석	226
3.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불합리한 행위 분석	248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분석 .....	277
<b>제 8 장</b>	<b>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검토 .....</b>	<b>291</b>
제 1 절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프로그램 내용 .....	293
1.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	293
2.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	295
3.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	297
제 2 절	여성사회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내용 .....	300
<b>제 9 장</b>	<b>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제언 .....</b>	<b>305</b>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307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	307
2.	국제결혼 이주여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08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 분석 .....	309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입국 준비와 국내 적응노력 실태 .....	310
5.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의 지원 실태 .....	312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 실태 .....	314
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 .....	316
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 및 가족관계 .....	317
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분석 .....	320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	320
제 2 절	정책제언 및 시사점 .....	322
1.	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책 .....	322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책 .....	323
3.	여성시민사회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책 .....	326
■	<b>참고문헌 .....</b>	<b>327</b>
■	<b>부록 .....</b>	<b>333</b>





## 표 목 차

<표 2-1> 전국 농가수의 변화, 1960-2004 .....	19
<표 2-2> 전국 시도별 농가수 변화, 1995-2004 .....	20
<표 2-3> 전국 농가와 농가인구 변화, 1970-2004 .....	22
<표 2-4> 전국 농가인구의 변화 추이, 1960-2004 .....	23
<표 2-5> 전국 농가인구의 지역별 분포, 1995-2004 .....	24
<표 2-6> 전국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 1975-2004 .....	25
<표 2-7> 농가인구 및 전국 고령인구 분포, 1995-2004 .....	26
<표 2-8> 연령별 농가 경영주 분포 변화, 1990-2004 .....	28
<표 2-9>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 1990-2004 .....	29
<표 2-10> 연령별 농가 경영주 분포 변화, 2002 .....	30
<표 2-11> 농촌인구의 성별 연령별 변화, 1980 - 2003 .....	31
<표 2-12> 한국사회 국제결혼 추이, 1991-2004 .....	36
<표 2-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획득 경로 및 문제점 .....	43
<표 3-1> 전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분포, 2001-2003 .....	51
<표 3-2>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역별 표본추출 .....	52
<표 3-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유입 및 현지 적응과정 연구 내용 .....	55
<표 4-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시점 분석 .....	59
<표 4-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 분포 .....	60
<표 4-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 분포 .....	60
<표 4-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당시 연령 분포 .....	61
<표 4-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	61
<표 4-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 현황 .....	62
<표 4-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 생활에 비해 현재 생활 평가 .....	63
<표 4-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 .....	64
<표 4-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 .....	64
<표 4-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향후 국내 거주 여부 분석 .....	65
<표 4-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시점 재분석 .....	66
<표 4-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결혼 시점 분석 .....	67
<표 4-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본국 및 국내 결혼 분석 .....	68
<표 4-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남성 배우자와의 만남 계기 분석 .....	68
<표 4-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및 결혼시점에 따른 배우자 만남 계기 분석 ..	71
<표 4-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및 배우자 소개별 만남 횟수 분석 .....	73

<표 4-18>	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의 결혼 유형	73
<표 4-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원인 분석	74
<표 4-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결혼 이유 차이 분석	76
<표 4-2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남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여부	77
<표 4-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받은 금전적 지원 규모 분석	77
<표 4-2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결혼과정에서 금전적 지원 관계 분석	79
<표 4-24>	한국 남성 배우자 관련 정보의 정확도 차이 분석	81
<표 4-2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남편 가족 정보 차입 분석	83
<표 4-2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 직업 정보 차이 분석	84
<표 4-2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배우자 소득 정보 차이 분석	86
<표 4-2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본국 경제적 지원 인식 분석	88
<표 5-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입국 전 사적 네트워크 실태 분석	91
<표 5-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부모가족 사적 네트워크 분석	93
<표 5-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친구이웃 사적 네트워크 분석	95
<표 5-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입국에 앞서 한국문화 및 한국어 준비 실태	96
<표 5-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 준비 차이 분석	98
<표 5-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입국 당시 한국어 이해 수준 실태	99
<표 5-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어 능력 차이 분석	101
<표 5-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입국 이후 한국사회 이해 교육참여 실태	103
<표 5-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어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05
<표 5-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한국어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06
<표 5-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08
<표 5-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09
<표 5-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11
<표 5-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12
<표 5-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지도 관련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14
<표 5-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자녀지도 관련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15
<표 5-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교육 참여 차이 분석	117
<표 5-1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부부교육 참여 차이 분석	118
<표 5-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직업기술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20
<표 5-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직업기술 교육 참여 차이 분석	121
<표 5-2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 불참 원인 분석	123
<표 5-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 불참 원인 차이 분석	125
<표 5-2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 불참 원인 분석	126
<표 5-2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 가족의 환대 차이 분석	128
<표 5-2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마을 주민의 환대 차이 분석	130
<표 5-26>	남편 배우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어에 대한 이해 노력 분석	131
<표 5-27>	남편 배우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 문화 이해 노력 분석	132

<표 5-2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 방문 경험 분석	132
<표 5-2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모국 방문 경험 분석	134
<표 5-30>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 분석	135
<표 5-3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 분석	137
<표 5-3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 가족원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원인 분석	138
<표 5-3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모국 가족 한국방문 못한 원인 분석	139
<표 5-3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각종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분석	140
<표 5-3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외부활동 참여 지지 차이 분석	142
<표 5-3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외부 교육 참여 지지 차이 분석	144
<표 5-3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본국 가족 연락 지지 차이 분석	146
<표 5-3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에 대한 남편 가족의 물질적 지원 분석	147
<표 5-3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본국 가족에 대한 지원 차이 분석	149
<표 5-40>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	150
<표 5-4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여성단체 참여 여부 분석	152
<표 5-4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성단체 참여 여부 분석	153
<표 5-4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교단체 참여 여부 분석	155
<표 5-4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교단체 참여 여부 분석	156
<표 5-4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자조모임 참여 여부 분석	158
<표 5-4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조모임 참여 여부 분석	159
<표 5-47>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합적 참여 실태	160
<표 5-4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합적 사회단체 참여 실태 분석	162
<표 5-4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사회단체 참여 분석	163
<표 5-5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참여 수의 범주	164
<표 5-5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조모임 참여 차이 분석	166
<표 5-5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지원단체 현황	167
<표 5-5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의 지역사회단체와 자매결연 실태	168
<표 5-5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자원 실태 분석	169
<표 5-5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자국 상담 규모 차이 분석	170
<표 5-5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국 상담 규모 차이 분석	171
<표 5-5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인 상담 자원 규모 차이 분석	172
<표 5-5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한국인 상담 자원 규모 분석	173
<표 5-5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합적 상담자원 규모 분석	174
<표 5-6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상담자원 차이 분석	175
<표 6-1>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실태 분석	180
<표 6-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 자녀 수 관계 분석	181
<표 6-3>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출생 순서에 의한 자녀 실태 분석	181
<표 6-4>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연령 실태 분석	182
<표 6-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행위 분석	183

<표 6-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병원 찾아가기 어려움 차이 분석	· 185
<표 6-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병원 찾아가기 어려움 차이 분석	186
<표 6-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의사의 진찰설명 이해 분석	· 188
<표 6-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의사의 진찰설명 이해 분석	· 189
<표 6-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산후조리 어려움 차이 분석	· 191
<표 6-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상담자원 분석	· 192
<표 6-12>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돌봄 분석	· 193
<표 6-13>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 사이의 대화 어려움 실태	· 194
<표 6-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 분석	· 196
<표 6-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 분석	197
<표 6-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숙제 도움 분석	· 198
<표 6-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학습 지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원인	· 199
<표 6-1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 학습지원 어려움 분석	· 200
<표 6-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녀 학습지원 어려움 분석	· 202
<표 6-20>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따돌림 당한 원인 분석	· 203
<표 6-2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의 따돌림경험 분석	· 205
<표 6-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녀의 따돌림 경험 분석	· 206
<표 7-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관계 분석	· 209
<표 7-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 돌봐주기 차이 분석	· 211
<표 7-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녀 돌봐주기 차이 분석	· 212
<표 7-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경조사 참여하기 차이 분석	· 214
<표 7-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경조사 참여하기 차이 분석	· 215
<표 7-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생활필수품 빌려 사용하기 차이 분석	· 217
<표 7-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활필수품 빌리기 차이 분석	· 218
<표 7-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문제 논의하기 차이 분석	· 219
<표 7-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제 논의하기 차이 분석	· 221
<표 7-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합적인 이웃관계 차이 분석	· 223
<표 7-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이웃관계 차이 분석	· 225
<표 7-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 분석	· 226
<표 7-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만족 차이 분석	· 227
<표 7-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족관계 만족 차이 분석	· 229
<표 7-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시부모 관계 평가	· 230
<표 7-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시부모 관계 만족 차이 분석	· 232
<표 7-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시부모 관계 만족 차이 분석	234
<표 7-1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친척관계 만족 차이 분석	· 236
<표 7-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친척관계 만족 차이 분석	· 237
<표 7-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관계 평가	· 238
<표 7-2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 이해 만족 차이 분석	· 240

<표 7-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 이해 만족 차이 분석	241
<표 7-2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대화 만족 차이 분석	243
<표 7-2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부대화 만족 차이 분석	244
<표 7-2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전반적 부부생활 만족 차이 분석	246
<표 7-2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전반적 부부생활 만족 분석	247
<표 7-2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관계 평가	249
<표 7-2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욕설 듣기 차이 분석	251
<표 7-2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의 욕설 듣기 차이 분석	252
<표 7-3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폭력 위협 차이 분석	254
<표 7-3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의 폭력 위협 차이 분석	255
<표 7-3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폭력 행사 차이 분석	257
<표 7-3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출입금지 위협 차이 분석	260
<표 7-3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의 출입금지 위협 차이 분석	261
<표 7-3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흥기사용 위협 차이 분석	263
<표 7-3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의 흥기사용 위협 분석	264
<표 7-38>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배우자의 부부싸움 빈도 분석	265
<표 7-3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싸움 정도 차이 분석	267
<표 7-4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부싸움 분석	268
<표 7-41>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배우자의 부부싸움 원인 분석	269
<표 7-4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싸움 원인 차이 분석	271
<표 7-4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부싸움 원인 분석	272
<표 7-4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고려와 그 주요 원인 분석	273
<표 7-4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이혼 고려와 그 원인 분석	275
<표 7-4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혼 고려와 그 원인 분석	276
<표 7-4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내용 문항 분석	277
<표 7-4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농촌거주 만족 차이 분석	279
<표 7-4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농촌거주 만족 분석	280
<표 7-5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소비생활 만족 분석	282
<표 7-5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소비생활 만족	283
<표 7-5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만족 분석	285
<표 7-5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심리적 만족 분석	286
<표 7-5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합적 생활만족 분석	288
<표 7-5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생활만족 분석	289
<표 8-1> 정부 부처별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추진방안	294
<표 8-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및 가족생활 지원 사업기관 및 역할	296
<표 8-3> 2004년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내용	298
<표 8-4> 2005년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내용	299
<표 8-5> 2004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내용	300

<표 8-6>	2005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내용 .....	302
<표 8-7>	여성부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교육 내용 .....	303

## 그림 목 차

---

<그림 2-1> 전국 전체가구 및 농가수의 변화, 1960-2000 .....	19
<그림 2-2> 전국 시도별 농가 수, 1995-2000 .....	21
<그림 2-3> 전국 농가인구의 변화 추이, 1960-2000 .....	23
<그림 2-4> 한국사회 국제결혼 성별 추이 분포, 1990-2004 .....	37





# 제 1 장

##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 제 4 절 연구의 구성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국제화·지구화(globalization) 추세와 맞물려 최근 국제결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35,447건으로서 2003년 25,658건보다 38.2%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한국사회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에 잘 반영되고 있다. 즉 2003년 국제결혼은 한국사회 전체 결혼 304,932건에서 8.4%를 차지하였지만 2004년의 경우 310,944건 가운데 11.4%까지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결혼형태는 노동시장에서 남녀간의 만남에 의한 것이다. 즉 한국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편입되면서 한국인의 국제 노동시장 진출이나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만남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국제결혼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면서 제조업 등 일부 산업영역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국제결혼 형태는 한국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으로 노총각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도시 빈민지역 미혼 남성이 배우자를 차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상업화된’ 결혼전문업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혼 형태이다.<sup>1)</sup>

비록 이러한 2가지 결혼 형태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들 결혼 유형 가운데 국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후자인데, 그 일차적 이유는 한국사회 국제결혼에서 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후자의 경우 한국사회의 지역별 혹은 계층별 ‘성비 불균형’이라는 구조

---

1)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을 유입과정과 일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1) 산업연수나 개인적 인맥을 통하여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2) 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국제결혼의 형태로 유입된 이주여성, 3) 연예인 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등이 있다(최진영, 2004)

적 문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후자의 결혼결과가 한국사회에 갖게 될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근 들어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비 불균형은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즉 한국에서 여성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면서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03년 국제결혼 25,658건 가운데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74.9%(19,214건)로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 25.1%(6,444건)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편이며, 2004년의 경우에도 국제결혼 35,447건 가운데 전자가 71.8%(25,592건)로 후자의 28.2%(9,853건)에 비해 약 2.6배 높은 편이다(통계청, 2005).

한국사회 성비 불균형에 의한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보다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의 경우 한국사회 지역간 불균형발전과정에서 여성의 도시이주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촌인구의 성차별적 도시이주 현상은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특히 결혼 적령기 혹은 적령기를 넘긴 연령대에서 성비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농촌지역 노총각 증가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노총각 문제가 지역사회 혹은 한국사회 내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 해소방안으로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한국사회 국제결혼이 여성화 현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박재규, 2005).

도시-농촌 지역간의 성비 불균형 심화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정부의 지역간 불균형 경제발전정책에 따른 농촌인구의 남녀차별적인 도시이주와 함께 농촌지역의 저발전으로 인한 정주 공간 기능이 약화된 데 따른 결과이다. 예를 들면, 농촌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아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도시이주를 포하고 농촌에 정주하거나 혹은 농업을 물려받아 농촌지역 정주기반을 갖게 되어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성향이 있다. 반면에 농촌지역 여성은 도시지역 제조업 확대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보다 쉽게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고,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여성은 농촌으로 되돌아오지 않은 성향이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도시이주 현상은 농촌지역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지역 미혼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여성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

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전북지역의 경우 2002년 성비는 98.9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연령별 성비구성을 보면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의 경우 그 성비가 매우 불균형적이다. 즉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성비는 약 110 수준으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다. 그런데 이러한 성비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지역의 경우 20-30대 연령층의 성비가 약 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농촌지역의 성비는 130에서부터 최고 150 이상까지(임실, 순창, 고창 지역 등)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전라북도, 2003). 다른 한편, 이러한 차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남녀 미혼자 비율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북지역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비교적 진척된 전주와 익산 및 군산지역의 경우 15세 이상 미혼 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약 10% 정도 높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촌지역의 경우 미혼 남성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전라북도, 2003).

이처럼 농촌지역 노총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인 까닭에 농촌지역사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는 타 지역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선택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한국사회 내부적 해결방안으로서 도시지역 여성과의 결혼이다. 그러나 농촌 남성과 도시 여성간의 결혼은 도시여성이 자신의 배우자로서 농촌지역 남성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낙후성과 각종 교육 및 문화시설 부족, 농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이중 삼중의 어려운 생활을 고려할 경우(박재규, 2003), 도시여성이 정주 공간으로서 혹은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농촌지역 노총각 문제가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탈출구로 선택된 것이 바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다. 즉 농촌지역 노총각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농촌지역 노총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

정보업체와 지자체 남성의 국제결혼을 알선 지원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경북매일신문, 2005; 이윤애, 2004).<sup>2)</sup>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은 2005년 현재 66,91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그렇지만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8,762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며, 1990년대 이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까지 합하면 그 차이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단 통계자료 집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혹은 통계자료 작성 기준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차이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이탈에 의한 것이라면 국제결혼 자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절반 정도가 국내를 떠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통계자료는 여전히 신뢰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 통계자료가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어 그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전북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규모 파악은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최근 법무부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2005년 2,955명으로 보고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그렇지만 최근 전라북도과 각 시군이 파악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료에 의하면 약 1,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전라북도 자료, 2005). 다른 한편, 통계청 인구동태 자료에 의하면, 2001-2003년 동안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전북지역에 정착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약 1,600명 정도로 나타났고, 여기에 2004년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한 사실과 2001년 이전에 정착한 이주여성을 고려하면 최소 2,3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북의 농촌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북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농촌지역 미혼남성의 경우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 그 대안으로 외국여성

---

2) 담양군 경우 2003년에 필리핀 카멜링시와 협약을 추진하여 군내의 농촌 총각들과 필리핀 여성들 간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나주시의 경우 시 차원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협의회'를 구성, 베트남 참전전우회에 의한 국제결혼 알선 경우 등이 있다(한국염, 2004).

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당분간 확대될 것이며, 더욱이 농촌 지역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농촌지역 정주 인구 및 발전을 위한 동력원 확보 차원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중요성이나 역할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은 전북 농촌지역 발전이나 나아가서 전북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지역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향후 그 규모와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응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정착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노동 환경과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지역의 경우도 대체로 빈민층에 속하기 때문에 적응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그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이들의 정착이나 적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즉 이들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이해부족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귀화 이전까지 외국인 신분 지속에 따른 차별이나 소외감, 인권유린을 밝혀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지원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김상임, 2004; 소라미, 2004; 이금연, 2003; 이윤애, 2004; 정현욱, 1999; 한국염, 2004). 이러한 연구는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사회관계 형성 및 유지, 사회활동참여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각종 가정폭력이나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생활로 인해 그 해소방안을 찾지 못하는 문제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폭로하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지원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아직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실태파악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인권단체와 지역 여성단체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성부 또한 2005년 처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실과 산후도우미지원’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고(여성부, 2005), 복지

부 또한 2004년에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실체가 부분적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즉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 결과 이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여기에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내용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유린 현상인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유입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즉 농촌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상업화된 결혼전문업체에 의해서 중개되면서 막대한 결혼비용이 수반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결혼비용이 주로 농촌지역 남성 혼자 의해서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이 ‘매매혼’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 결혼생활과정에서 많은 한국남성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평등관계의 배우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소유물 성격을 띤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김상임, 2004; 이윤애, 2004; 최진영, 2004). 이러한 인신매매 성격을 내포한 국제결혼은 인권억압으로 이어져서 배우자 여성의 경우 구타와 외출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경제를 위한 강제적 노동활동 참여와 같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한국염, 2004).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및 파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지 정착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지 정착과정을 지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가 국제결혼 이주여



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에 착수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복지부는 지난 12월부터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지원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성부는 최근 시범사업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과 산후도우미 지원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일회성 행사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일단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이들 가족의 각종 문제를 이대로 덮어둘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사회가 지불하게 될 비용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전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내 적응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과정 및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사회 국제결혼의 추세를 비롯하여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불가피성을 검토하며,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을 비롯하여 국내 입국과정 및 적응과정과 관련한 것으로서 입국을 위한 준비 실태, 적응을 위한 이주여성 자신의 노력과 함께 그 배우자와 가족의 지원 실태를 검토하며,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돌봄, 그리고 교육 등과 관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며,

넷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및 이웃관계, 그리고 부부생활 등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을 분석하며,

다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 그리고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지원활동을 검토하며,

여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경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향후 이들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 및 자녀양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농촌지역사회 정착은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농촌지역사회 및 전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넷째, 농촌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농촌지역과 한국사회를 자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적 장애문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한계이다. 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적 장애를 고려하여 질문지를 몇 개의 외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지만, 번역과정에서 내재할 수 있는 의미 전달의 한계를 비롯하여 문화적 차이점에 따른 이해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역별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황

에서 본 연구의 표본추출이 갖게 될 대표성 문제이다. 본 연구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표본추출은 현재 행정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및 국가별 분포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료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며 본 연구도 그런 문제점을 확인한바 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및 국가별 분포 현황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료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 가운데 유일한 자료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익명성에 따른 자료수집의 한계점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 질문지 조사에 응한 이주여성과 응하지 않은 이주여성 사이에 일차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부 극단적인 경우 외부 출입조차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기회마저 차단된 여성의 경우 국내 정착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 4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기대효과 한계에 관해서 기술하고,

제2장은 본 연구의 분석틀 구성 차원에서 한국 농촌지역의 구조적 변동과 국제결혼의 흐름을 검토하였다. 즉 한국 농촌지역의 구조변동 속에서 나타난 성비 불균형과 노층각 증가 문제, 그리고 국제결혼의 국제적 흐름과 그 과정에서 이주여성이 직면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모집단, 표본추출, 자료수집, 그리고 연구내용을 소개하였고,

제4장은 행정기관의 통계자료와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과정을 검토하였고,

제5장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입국과 정착과정을 비롯하여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애로사항에 분석하였고,

제6장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와 교육문제를 부분적으로 검토하였고,

제7장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분석으로서 이웃관계와 친척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검토하였고,

제8장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 그 가족의 성공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할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제9장은 연구의 요약 및 결론으로서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 한국 농촌지역의 변화와 국제결혼 문헌검토

- 제 1 절 한국농촌의 구조적 변화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와 국내 적응문제



## 제 2 장 한국 농촌지역의 변화와 국제결혼 문헌검토

### 제 1 절 한국농촌의 구조적 변화

#### 1.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서구사회 변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하였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의 확산에 따른 기존의 안정적인/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사회질서가 와해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 요소들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시간과 공간, 삶의 개념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농촌보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도시사회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Choldin, 1985). 이들의 관심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계급, 여성, 이민자, 그들의 가족문제와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그리고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박준식, 1997). 예를 들면, 19세기 영국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The Conditions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그 후 도시와 지역사회의 변동 및 해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학적 연구들이 제시되었다(Toennis, 1887; Durkheim, 1893; Simmel, 1902; Park, 1916; Warren, 1972). 자본주의의 성숙과 도시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 하에서 도시지역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적 안정성을 회복하였고, 그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었던 농촌지역사회의 인구감소와 해체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서구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된 반면 한국사회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사회문제가 신속하게 발생하였다. 그런 관계로 한국사회는 도시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몰두한 반면에 농촌지역에 남겨진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원하였다. 특히

한국정부는 경제발전의 “후발 주자”로서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한 노동-집약적이며,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가 필요하였고, 그 결과 “농산물 저곡가” 정책을 통한 농업과 농촌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한국정부는 또한 지역(도시-농촌)간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자본과 산업시설을 특정 도시 지역에 집중시켰고, 그 결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대량 이주를 촉발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기능적 연관성은 증대하였지만, 농촌의 폐쇄성과 동질성이 붕괴되어 구성원들 사이에 이질성이 증가하면서 농촌지역은 종래의 일차적인 인간관계가 점차 상실하여 이른바 “지역사회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었다(김영정, 1989; 김왕배, 1991; 김영기·윤근섭, 1990; 권태환, 1992).

이와 같이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대량 이주에 따른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혹은 해체 현상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주원인과 이주자들의 이주유형 및 도시지역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제반 여건탐구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면, 농촌 사람들은 왜 도시로 이주하는가? 농촌 사람들은 어떻게 혹은 누구의 도움으로 도시로 이주하는가? 그리고 농촌 사람들은 도시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가?(김영기·윤근섭, 1990; 박재규, 1986; 양종희, 1983; 윤근섭, 1987; ; Green, 1978; Melville, 1978).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농촌지역사회의 급격한 인구유출과 투자부적에 따른 제반 구조적 문제를 “과소현상” 개념을 도입하여 접근하려는 연구가 출현하였다. 이들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해체 현상을 인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들 연구들은 과소현상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계량화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황하연, 1987; 윤근섭·최낙필, 1994, 윤근섭·송정기, 1994).

한국정부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대량이출은 일반적으로 청·장년층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그 결과 농촌지역은 노령화·여성화 현상과 함께 농업 인력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겪게 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농산물 저곡가 정책과 수입개방은 농가의 상대적인 소득감소와 빈곤층 증가, 부채 증가, 생활환경의 악화, 그리고 그에 따른 농민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등 이른바 농촌지역사회의 구조적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이주재, 1992; 송정기·박재규, 2000).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촌사회와 농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는 1993년부터 5년 동안 60조



원에 이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부의 신농정정책은 농촌지역사회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 검증 부재와 실천과정의 부실화는 오히려 농촌지역사회의 농가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던 신농정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그 후 보다 심화된 사회-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농촌지역사회의 구조적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의 신농정 사업 하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던 농가의 부채는 크게 증가한 반면 농가의 상환능력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가토 고이치, 1999), 사회-경제적 위기 하에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농가들은 야밤 도주하거나 혹은 파산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대보증에 참여한 이웃까지 연쇄적 파산으로 몰아감으로써 농촌지역사회가 최대 위기 국면으로 내닫고 있다(김홍주, 2000; 박성재, 2000; 송정기·박재규, 2000; 황만길, 2000).

경제위기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 하면 경제위기는 기업부도와 그에 따른 실직자의 양산, 기업환경의 악화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삭감, 가족의 소득감소와 가족생활 위축,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의 경제생활 악화는 스트레스로 발전하면서 신경과민, 심리분열, 위궤양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육체적 질병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관계, 연결망의 단절과 지역사회활동 및 여가생활의 축소를 초래하며, 보다 심각한 것은 사회/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켜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 및 좌절과 지역사회로부터 괴리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김광기, 1999; 김영기·박재규, 2000; Brenner and Levi, 1987; Hall and Johnson, 1988; Johda, et al, 1971; Karasek, 1991). 이와 같이 경제적 위기에 따른 사회적 해체현상은 최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 하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위기에 따른 물질적 생활조건의 악화는 생활고 비판과 함께 가끔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거나, 이들 가운데는 전 가족이 함께 희생의 희망을 포기하여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이른바 동반자살도 발견되고 있다. 그밖에도 노숙자의 증가와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원의 가출이나 아동유기와 같은 가족해체가 속출하고 있다(정무성, 1999; 윤일성, 2000).

이와 같은 형태의 사회적 해체는 농촌지역에서도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의 해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주민들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경제적 위기 하에서 농산물가격의 폭락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로 일상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을 믿고 각종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지만, 그 결과는 막대한 농가부채의 누적으로 귀결되면서 농업 종사자들은 사업자금의 이자와 원금상환에 대한 심리적 압력으로 영농의욕과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안성·오재균, 2000; 황만길, 2000).

## 2. 한국농촌의 구조적 변화 분석

비록 외환위기가 농촌지역사회와 농촌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 요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1960년대 이후 한국정부의 지역(도시-농촌)간 불균형 발전 전략, 1990년대 급변하는 국제 투기자본의 상황논리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 그리고 1993년 문민정부가 추진한 신농정 사업의 부실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농촌지역사회는 그 지지기반을 급속하게 상실하였으며, 농촌지역사회의 저발전 현실은 다시 농업인구의 탈농과 함께 농촌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크게 약화시켜 농촌지역사회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김동일·라선영, 1994; 김태호 외, 1994; 윤수종, 19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에서 농촌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 내용으로 농가인구 및 농업형태의 변화를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1960년대 이후 한국농촌사회의 농가구성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표 2-1> 및 <그림 2-1>과 같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 말 현재 한국 농가 수는 1,240천 가구로서 전체 15,539천 가구 가운데 8.0%를 차지하여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 한국 농가 수는 한국 전체 가구의 53.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어 1970년과 1980년 각각 42.4%와 27.0%로 줄어들어 20년 사이에 1/2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1980년대 10년 동안에도 크게 줄어 1990년 15.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 농가 비율은 9.7%로 1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농가수의 감소와 대조적으로 한국사회 전체 가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농가수의 감소와 달리 비농가의 증가는 특히 1970년대 급속하게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비농가의 비중은 1960년 46.6%에서 1970년 57.6%로 약 10% 증가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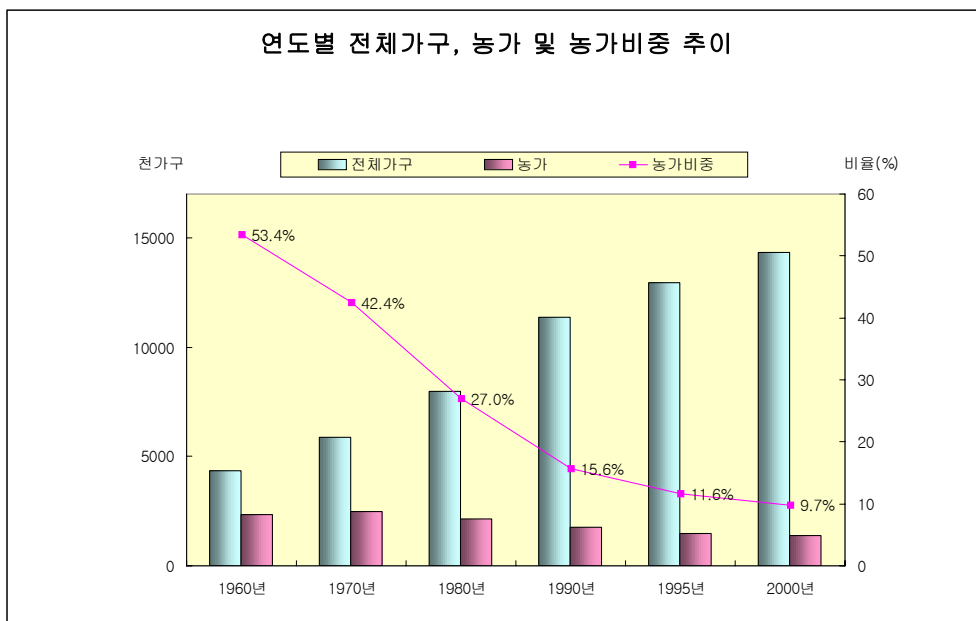
1970-1980년 사이에는 약 16%가 증가하여 비농가 비중이 73%를 차지하였고, 2000년 90.3%를 기록하였고, 2004년 다시 92%까지 증가하였다.

<표 2-1> 전국 농가수의 변화, 1960-2004

구분	년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4
농가수(천가구)		2,329	2,483	2,155	1,767	1,501	1,383	1,240
농가수 비중(%)		53.4	42.4	27.0	15.6	11.6	9.7	8.0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 (2003); 「2004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 (2005)

<그림 2-1> 전국 전체가구 및 농가수의 변화, 1960-2000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 (2003)

다른 한편, 전국 시도별로 농가 구성 및 그 변화를 살펴보면 <표 2-2> 및 <그림 2-2>와 같다. 2004년 현재 시도별 농가 구성비에 의하면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17.2%(213천 가구)와 16.0%(199천 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도 각각 13.0%(161천 가구)와 12.1%(150천 가구)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전라북도는 전체

농가 가운데 9.5%(118천 가구)로 경기도 (11.5%) 다음으로 6위를 차지하였는데, 이상의 순위는 2000년과 비교할 경우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농가 감소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편이다. 즉 1995-2004년 동안 전라북도 농가는 34천 가구가 줄어들었고, 이는 경남, 전남, 그리고 경북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전라북도 농가의 감소 비율은 22.4%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고, 평균 감소율 17.4%에 비해 5.0% 높은 것이다. 이처럼 전라북도의 농가 감소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런 결과는 바로 전북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전북 농도의 위상은 물론 전라북도 세력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표 2-2> 전국 시도별 농가수 변화, 1995-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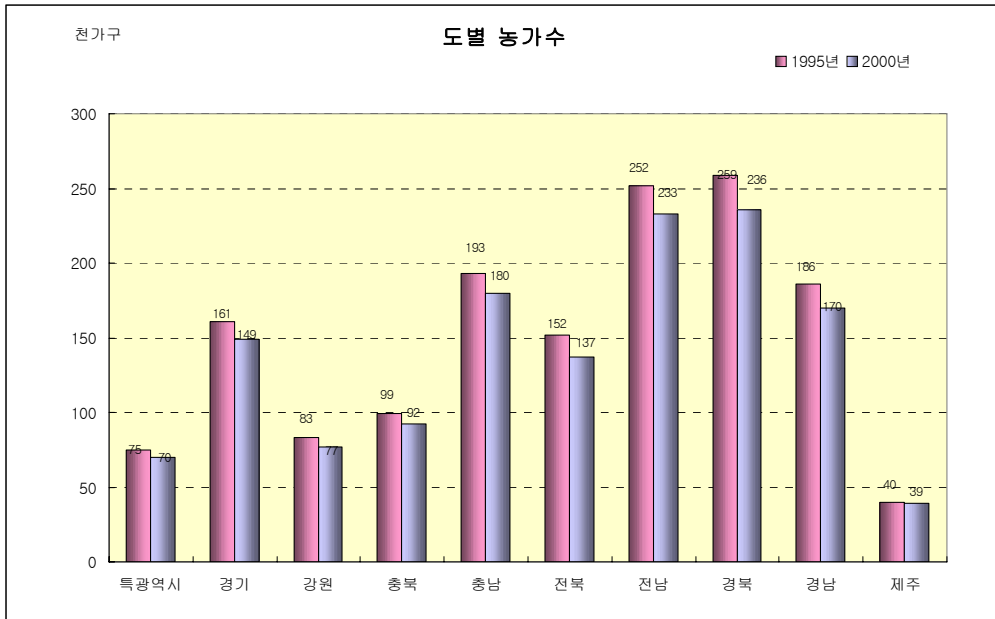
단위 : 천가구, %

시 도	년도	1995년	2000년	2004		1995-2004		
				구성비	구성비	증감	감소율	
전국		1,501	1,383	100.0	1,240	100.0	-261	-17.4
광역시		75	70	5.1	62	5.0	-13	-17.3
경기		161	149	10.7	142	11.5	-19	-11.8
강원		83	77	5.6	75	6.0	-8	-9.6
충북		99	92	6.7	84	6.8	-15	-15.2
충남		193	180	13.0	161	13.0	-32	-16.6
전북		152	137	9.9	118	9.5	-34	-22.4
전남		252	233	16.8	199	16.0	-53	-21.0
경북		259	236	17.1	213	17.2	-46	-17.8
경남		186	170	12.3	150	12.1	-36	-19.4
제주		40	39	2.8	36	2.9	-4	-10.0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2003); 「2004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2005)

<그림 2-2> 전국 시도별 농가 수, 1995-2000

단위: 천가구, %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2003)

그리고 농가 인구와 가구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농가의 가구원 수 감소는 농가의 감소 비율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즉 지난 30년 동안 농가 수는 연평균 2.0%씩 감소한 반면에 농가인구는 연평균 3.1%씩 감소하였다. 농가인구의 감소 확대는 곧 바로 농가의 평균 가구원의 감소로 이어졌는데, 예를 들면, 1970년의 경우 농가의 평균 가구원 수가 5.81명이었는데 1980년 5.02명으로 감소하였고, 1990년 2.77명으로, 2000년 2.91명으로, 2004년 2.7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농가인구 감소와 함께 진행된 농가의 평균 가구원 감소는 한국사회 전체 평균 가구원 수의 변화와 비교하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한국사회 비농가 평균 가구원은 1990년 3.71명에서 2000년 3.12명으로 줄어 지난 10년 사이에 약 0.59명이 감소하였지만(통계청, 2000), 같은 기간에 농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0.86명이나 감소하였다.

<표 2-3> 전국 농가와 농가인구 변화, 1970-2004

단위: 천 가구, %

	농 가		농 가 인 구		가구당 농가인구
		전년대비		전년대비	
1970	2,483,318	-2.5	14,421,730	-7.5	5.81
1980	2,155,073	-0.3	10,826,748	-0.5	5.02
1985	1,925,869	-2.4	8,521,073	-5.5	4.42
1986	1,905,984	-1.0	8,179,560	-4.0	4.29
1989	1,771,856	-3.0	6,785,542	-6.7	3.83
1990	1,767,033	-0.3	6,661,322	-1.8	3.77
1991	1,702,307	-3.7	6,068,262	-8.9	3.56
1992	1,640,853	-3.6	5,706,793	-6.0	3.48
1993	1,592,478	-2.9	5,407,024	-5.3	3.40
1994	1,557,989	-2.2	5,167,420	-4.4	3.32
1995	1,500,745	-3.7	4,851,080	-6.1	3.23
1996	1,479,602	-1.4	4,692,040	-3.3	3.17
1999	1,381,637	-2.2	4,209,799	-4.3	3.05
2000	1,383,468	0.1	4,031,065	-4.2	2.91
2001	1,353,687	-2.2	3,933,250	-2.4	2.91
2002	1,280,462	-5.4	3,590,523	-8.7	2.80
2003	1,264,431	-1.3	3,530,102	-1.7	2.79
2004	1,240,406	-1.9	3,414,551	-3.3	2.75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2003); 「2004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2005)

<표 2-3>이 보여주고 있듯이, 농가인구는 지난 25년 동안 매년 평균 3.1%씩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 현상은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표 2-4>와 <그림 2-3>에 의하면, 1960년에 농가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56.9%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 53.4%보다도 높았다. 그렇지만 1970년에 44.7%까지 감소하였고, 1980년과 1990년 각각 28.4%와 15.5%로 하락하였으며, 그리고 2000년과 2004년에 각각 8.6%와 7.1%를 기록하여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표 2-4> 전국 농가인구의 변화 추이, 196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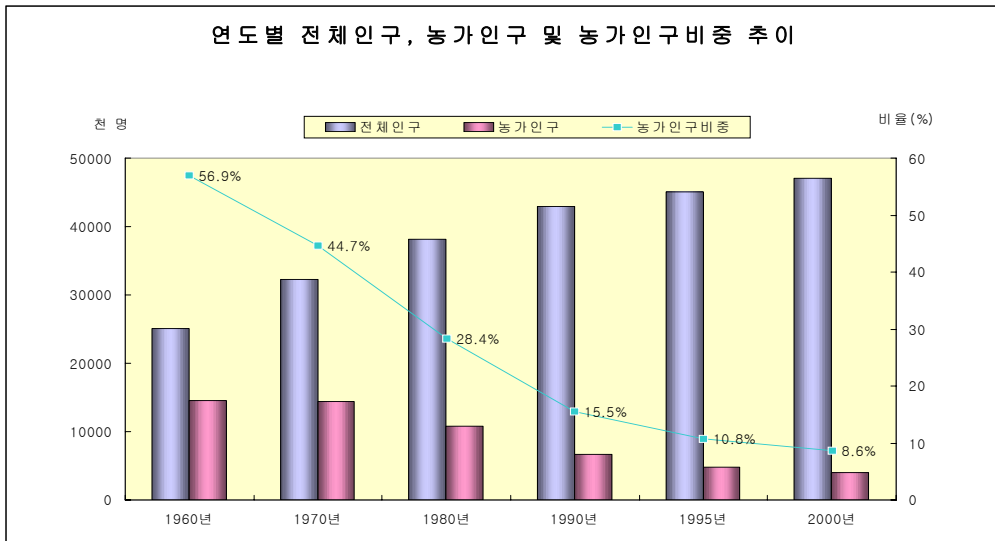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분	년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4년
농가인구		14,242	14,422	10,827	6,661	4,031	3,415
농가인구 비중		56.9	44.7	28.4	15.5	8.6	7.1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2003); 「2004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2005)

<그림 2-3> 전국 농가인구의 변화 추이, 1960-2000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2003)

이처럼 지난 30년 동안 농가인구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5>에 의하면, 경북과 전남지역이 전체 농가인구의 15.7%와 14.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전북 농가인구는 9.3%로 충남, 경기, 경남에 이어 6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5-2004년 동안 농가인구 감소 비율에서는 34.8%로 광역시 다음으로 높았고, 그 다음 전남지역으로 34.1%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호남지역에서 농가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호남지역의 저발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표 2-5> 전국 농가인구의 지역별 분포, 1995-2004

단위 : 천명, %

지역	년도	1995년	2004년	증 감	
				비중	비율
전 국		4,851	3,415	100.0	-1,436
광역시		271	160	4.7	-111
경 기		600	476	13.9	-124
강 원		281	216	6.3	-65
충 북		326	236	7.2	-90
충 남		642	453	13.3	-189
전 북		485	316	9.3	-169
전 남		748	493	14.4	-255
경 북		787	537	15.7	-250
경 남		564	388	11.4	-176
제 주		146	110	3.2	-36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2003); 「2004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2005)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농가의 변화를 농가인구의 연령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인 <표 2-6>에 의하면, 1975년 이후 40대 미만의 농가인구는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40대 미만의 농가인구 중에서도 20대 미만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5세 미만의 농가인구는 1975년 39.3%를 차지하였지만, 2004년 10.3%로 줄어 약 4배 정도 감소하였고, 15-19세 농가인구 또한 같은 기간에 11.8%에서 4.6%로 2배 이상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9세와 30-39세의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10.2%와 10.5%에서 7.9%와 7.2%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4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즉 6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1975년 8.8%에서 2004년 40.3%로 약 5배 정도 증가하였고, 65세 농가인구 또한 5.6%에서 29.4%로 증가하여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50대 농가인구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8.4%에서 16.6%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40대 농가인구는 10.5%에서 13.1%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농가인구의 연령별 변화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청소년 및 유년인구가 크게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경우 2000년 21.7%로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04년에 전체 농가인구의 1/3 수준인 29.4%까지 증가하였고, 최근의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멀지 않아 농가의 노인인구가 과반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전국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 1975-2004

단위 : 천명, %

연령 년도	합 계	0~	15~	20~	30~	40~	50~	60세	65세 이상
		14 <sup>1)</sup>	19 <sup>2)</sup>	29	39	49	59	이상	
1975	13,244 (100.0)	5,200 (39.3)	1,560 (11.8)	1,455 (11.0)	1,354 (10.2)	1,403 (10.5)	1,108 (8.4)	1,164 (8.8)	738 (5.6)
1980	10,827 (100.0)	3,230 (29.8)	1,684 (15.6)	1,371 (12.7)	957 (8.8)	1,372 (12.7)	1,074 (9.9)	1,138 (10.5)	728 (6.7)
1985	8,521 (100.0)	2,114 (24.8)	1,271 (14.9)	983 (11.5)	770 (9.0)	1,077 (12.7)	1,129 (13.3)	1,177 (13.8)	-
1986	8,180 (100.0)	1,918 (23.5)	1,231 (15.0)	922 (11.3)	746 (9.1)	1,013 (12.4)	1,148 (14.0)	1,200 (14.7)	782 (9.6)
1990	6,661 (100.0)	1,370 (20.6)	734 (11.0)	810 (12.2)	662 (9.9)	787 (11.8)	1,111 (16.7)	1,187 (17.8)	769 (11.5)
1991	6,068 (100.0)	1,175 (19.3)	647 (10.6)	581 (9.6)	593 (9.8)	702 (11.6)	1,115 (18.4)	1,255 (20.7)	815 (13.4)
1994	5,167 (100.0)	839 (16.3)	474 (9.2)	497 (9.6)	500 (9.7)	606 (11.7)	947 (18.3)	1,304 (25.2)	827 (16.0)
1995	4,851 (100.0)	680 (14.0)	423 (8.7)	574 (11.8)	465 (9.6)	587 (12.1)	867 (17.9)	1,255 (25.9)	785 (16.2)
1996	4,692 (100.0)	650 (13.8)	412 (8.8)	454 (9.7)	430 (9.2)	573 (12.2)	831 (17.7)	1,342 (28.6)	853 (18.2)
1997	4,468 (100.0)	574 (12.9)	380 (8.5)	440 (9.8)	406 (9.1)	550 (12.3)	782 (17.5)	1,336 (29.9)	856 (19.2)
1998	4,400 (100.0)	567 (12.9)	353 (8.0)	450 (10.2)	399 (9.1)	544 (12.4)	743 (16.9)	1,343 (30.5)	862 (19.6)
1999	4,210 (100.0)	509 (12.1)	312 (7.4)	432 (10.3)	363 (8.6)	528 (12.5)	710 (16.9)	1,356 (32.2)	887 (21.1)
2000	4,031 (100.0)	459 (11.4)	262 (6.5)	417 (10.3)	352 (8.7)	532 (13.2)	676 (16.8)	1,333 (33.1)	876 (21.7)
2002	3,591 (100.0)	384 (10.7)	193 (5.4)	310 (8.6)	270 (7.5)	472 (13.1)	590 (16.4)	1,372 (38.2)	940 (26.2)
2004	3,415 (100.0)	353 (10.3)	159 (4.6)	270 (7.9)	245 (7.2)	448 (13.1)	566 (16.6)	1,375 (40.3)	1,002 (29.4)

주 1) 1970~1987년도는 0 ~13 세임

2) 1970~1987년도는 14 ~19 세임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2003); 「2004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2005)

이상과 같이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증가는 노년부양비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거는 <표 2-7>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2004년 한국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8.7%인데 비해 농가인구의 고령층 비중은 29.4%로 3.4배 정도 높고, 그것은 또한 1995년 16.2%에 비해 13.2% 증가한 것이다. 농가의 노인인구 증가와 달리 15-64세 생산인구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농촌지역에서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지수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농가인구의 노년부양비는 2000년 48.6으로서 전국 인구 노년부양비 12.1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이며, 그리고 노령화지수 또한 2004년 283.9로서 전국 인구의 노령화 지수 44.4보다 7배 정도 높은 것이다.

<표 2-7> 농가인구 및 전국 고령인구 분포, 1995-2004

단위 : 천명, %

구 성	1995년		2004년		전체인구 (2004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전 국	4,851	100.0	3,415	100.0	48,082	100.0
0 ~ 14세	680	14.0	353	10.3	9,417	19.6
15 ~ 64세	3,386	69.8	2,060	60.3	34,483	71.7
65세 이상	785	16.2	1,002	29.4	4,182	8.7
유소년부양비 <sub>1)</sub>	20.1		17.1		27.3	
노년부양비 <sub>2)</sub>	23.2		48.6		12.1	
노령화지수 <sub>3)</sub>	115.4		283.9		44.4	

1)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청장년인구(15~64세)×100

2) 노년부양비 = 노년인구(65세이상)/청장년인구(15~64세)×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 (2003); 「2004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 (2005)

농가의 고령화 현상은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젊은 청장년층 농가 경영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의 경영주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표 2-8>에 의하면, 1990년까지 60세 미만 경영주 비중은 68.7%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2004년 그 비중은 40.8%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4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1990년 40세 미만의 경영주 비율은 14.6%를 기록하였는데 2004년 3.0%로 약 5배 정도 감소하였다. 40세 미만의 농가 경영주가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젊은 청년층이 새롭게 농가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30년 이후 한국 농가인구는 현재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초과소화'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바로 농촌사회의 존재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50-59세 연령의 농가 경영주 또한 같은 기간에 33.0%에서 23.1%로 약 10% 감소하였고, 40-49세 연령 농가 경영주 또한 21.1%에서 14.7%로 6.4% 감소하였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경영주는 1990년 31.3%에서 2004년 59.2%로 증가하여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6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50대 경영주의 비율이 23.3%로 60대 경영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중이 17.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0세 이상 경영주 가운데 70대 이상 경영주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 8.5%를 차지하던 70대 이상의 경영주는 2004년 23.0%로 지난 14년 동안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런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60대 농가 경영주는 1990년 22.8%로 50대 경영주 다음으로 높았지만 2004년 3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2002년 50대 경영주 비율이 60대 다음으로 높은 23.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8> 연령별 농가 경영주 분포 변화, 1990-2004

단위 : 천명, %

연령 년도	합 계	경 영 주 연 령				
		40세미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
1990	1,767 (100.0)	258 (14.6)	373 (21.1)	584 (33.0)	403 (22.8)	150 (8.5)
1991	1,702 (100.0)	207 (12.2)	327 (19.2)	583 (34.2)	428 (25.2)	157 (9.2)
1992	1,641 (100.0)	192 (11.7)	306 (18.6)	555 (33.8)	424 (25.9)	164 (10.0)
1993	1,592 (100.0)	171 (10.7)	288 (18.1)	521 (32.7)	440 (27.6)	173 (10.9)
1994	1,558 (100.0)	150 (9.6)	278 (17.9)	489 (31.4)	455 (29.2)	185 (11.9)
1995	1,501 (100.0)	146 (9.7)	272 (18.2)	447 (29.8)	445 (29.6)	190 (12.7)
1996	1,480 (100.0)	117 (7.9)	260 (17.6)	427 (28.9)	474 (32.0)	202 (13.6)
1997	1,440 (100.0)	107 (7.5)	248 (17.2)	405 (28.1)	475 (33.0)	205 (14.2)
1998	1,413 (100.0)	98 (6.9)	243 (17.2)	384 (27.2)	484 (34.2)	205 (14.5)
1999	1,382 (100.0)	85 (6.2)	230 (16.6)	363 (26.2)	487 (35.3)	217 (15.7)
2000	1,383 (100.0)	92 (6.6)	238 (17.2)	348 (25.2)	479 (34.7)	227 (16.4)
2001	1,354 (100.0)	63 (4.6)	215 (15.9)	326 (24.1)	504 (37.2)	246 (18.2)
2002	1,280 (100.0)	53 (4.1)	202 (15.8)	299 (23.3)	478 (37.4)	248 (19.4)
2004	1,240 (100.0)	38 (3.0)	182 (14.7)	286 (23.1)	449 (36.2)	285 (23.0)

자료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자료」(2003)

농촌사회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영농형태의 변화이다.

먼저 과거 한국농촌의 주요 영농형태는 논벼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지만 최근 그 위상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표 2-9>에 의하면, 1990년 논벼 농가는 69.7%를 차지하였지만 2004년 51.5%로 18.2%가 감소하였다. 논벼 농가의 감소와 달리 과수와 채소 농가는 크게 증가하였다. 즉 같은 기간에 과수 농가는 6.1%에서 11.0%로 4.9% 증가하였고, 채소 농가는 9.7%에서 21.1%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밖에 특용, 화훼, 그리고 축산에 종사하는 농가는 0.4-0.5%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표 2-9>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 1990-2004

단위 : 천 가구, %

년도	합 계	영 농 형태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기타
1990	1,767 (100.0)	1,232 (69.7)	107 (6.1)	172 (9.7)	39 (2.2)	6 (0.3)	114 (6.5)	89 (5.0)	8 (0.5)
1991	1,702 (100.0)	1,177 (69.2)	108 (6.3)	182 (10.7)	31 (1.8)	5 (0.3)	108 (6.3)	88 (5.2)	4 (0.2)
1992	1,641 (100.0)	1,106 (67.4)	121 (7.4)	192 (11.7)	35 (2.1)	8 (0.5)	96 (5.9)	78 (4.8)	4 (0.2)
1993	1,592 (100.0)	1,013 (63.6)	129 (8.1)	209 (13.1)	43 (2.7)	9 (0.6)	97 (6.1)	89 (5.6)	4 (0.2)
1994	1,558 (100.0)	910 (58.4)	133 (8.5)	240 (15.4)	52 (3.3)	11 (0.7)	81 (5.2)	129 (8.3)	3 (0.2)
1995	1,501 (100.0)	823 (54.8)	144 (9.6)	247 (16.4)	46 (3.0)	10 (0.7)	70 (4.7)	156 (10.4)	5 (0.4)
1996	1,480 (100.0)	851 (57.5)	150 (10.1)	244 (16.5)	38 (2.5)	11 (0.7)	69 (4.7)	115 (7.8)	3 (0.2)
1997	1,440 (100.0)	849 (59.0)	158 (11.0)	234 (16.2)	31 (2.2)	9 (0.6)	72 (5.0)	84 (5.8)	3 (0.2)
1998	1,413 (100.0)	820 (58.0)	151 (10.7)	252 (17.8)	40 (2.8)	10 (0.7)	66 (4.7)	72 (5.1)	3 (0.2)
1999	1,382 (100.0)	790 (57.2)	151 (10.9)	253 (18.3)	39 (2.8)	9 (0.7)	63 (4.5)	75 (5.4)	3 (0.2)
2000	1,383 (100.0)	787 (56.9)	143 (10.4)	238 (17.2)	38 (2.7)	8 (0.6)	92 (6.6)	72 (5.2)	5 (0.3)
2001	1,354 (100.0)	766 (56.6)	146 (10.8)	251 (18.5)	39 (2.9)	9 (0.7)	62 (4.6)	76 (5.6)	5 (0.4)
2002	1,280 (100.0)	705 (55.1)	137 (10.7)	241 (18.8)	33 (2.6)	10 (0.8)	78 (6.1)	70 (5.5)	6 (0.4)
2004	1,240 (100.0)	640 (51.5)	136 (11.0)	262 (21.1)	36 (2.9)	11 (0.9)	69 (5.6)	83 (6.7)	4 (0.3)

자료 : 통계청, 「2004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 (2005)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젊은 연령층 경영주가 논벼보다는 다른 형태의 영농형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2-10>에 의하면, 2002년 전체 농가 가운데 논벼 형태의 경영주가 55.1%를 차지한 반면 40대 이하 젊은

농가 경영주 가운데 논벼에 종사하는 경영주는 45.9%로 약 10% 정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논벼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40대 이하의 경영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축산에 종사하는 40대 이하의 경영주는 10.6%로 전체 농가 중에서 축산에 종사하는 경영주 5.5%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나머지 영농형태에서는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즉 채소와 과수에 종사하는 사람이 각각 21.2%와 12.2%로 약간 높았고, 특용과 화훼 또한 약간 높았다. 반면에 밭작물의 경우는 오히려 40대 이하의 경영주에서 조금 낮게 나타났다.

<표 2-10> 연령별 농가 경영주 분포 변화, 2002

단위 : 천명, %

영농형태 농가구분	합계	영 농 형 태 별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밭작물	축산	기타
전체농가	1,280 (100.0)	705 (55.1)	137 (10.7)	241 (18.8)	33 (2.6)	10 (0.7)	78 (6.1)	70 (5.5)	6 (4.7)
40대이하 경영주	255 (100.0)	117 (45.9)	31 (12.2)	54 (21.2)	8 (3.1)	4 (1.6)	13 (5.1)	27 (10.6)	1 (0.4)

자료 : 통계청, 「2002 농업기본통계조사 결과」(2003)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는 영농활동 참여과정에서 성별 구성과 지역사회 인적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1960년대 이후 농촌지역 청장년층의 도시이주는 농촌지역에 성비 불균형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였고, 특히 후자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를 강요하였다.

<표 2-11>은 농촌인구의 성별구성 변화를 검토한 것인데, 농촌지역 남성 청장년층 중심의 도시이주가 시작된 이후 농촌지역에는 여성인구와 여성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80년에 남녀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남성 5,415천명 vs 5,412천명). 그러나 20년이 지난 2003년에 농촌지역 여성인구가 1,815천명(약 52%)으로서 남성인구 1,715천명(약 48%)보다 약 10만명 이상 많아졌다. 이러한 차이는 30세 이상 연령층, 특히 60세 이상에서 보다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즉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이 54.5%(753천명)로 남성 45.5%(625천명)보다 약 10% 정도 많은 편이다. 특히 30-59세 연령층의 경우 남녀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0년 30-59세 남성인구가 2,051천명으로 여성인구 1,808천명보다 많았지만 2003년 여성인구가 670천명(51.4%)으로 남성인구 634천명(48.6%)보다 많아졌다.

<표 2-11> 농촌인구의 성별 연령별 변화, 1980 - 2003

단위 : 천명

연령	1980			1990			2003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0-4	646	332	314	217	115	102	88	47	41
5-14	2,917	1,499	1,428	1,052	583	569	290	155	135
15-29	1,713	1,482	1,231	1,544	842	702	467	254	213
30-59	3,859	2,051	1,808	2,660	1,208	1,352	1,304	634	670
60-64	411	202	209	418	192	226	395	177	218
65-69	299	142	157	318	154	164	427	202	225
70-74	208	89	119	207	99	108	280	133	147
75-79	119	44	75	130	54	76	147	68	79
80이상	101	29	72	114	32	82	129	45	84
합 계	10,827	5,415	5,412	6,661	3,279	3,382	3,530	1,715	1,815

자료 : 통계청, 「2004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2005)

농촌지역 여성인구의 증가는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현상과 맞물리면서 여성의 영농 활동참여를 강제하였고, 최근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영농활동과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박재규, 2005).

먼저 농업에서 주요 종사자로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농활동 참여시간도 크게 증가하였다.<sup>3)</sup> 예를 들면, 농업의 주종사자로서 남성농업인 비율은 1970년 71.7%를 차지하였지만 2002년 47.5%까지 감소하였지만 여성농업인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28.3%에서 52.5%로 2배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농업인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김경미, 2004).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 시간도 남성농업인에 비하면

3) 농업주종사자 : 농가의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으로 농사에만 종사하였거나 농사와 더불어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하였어도 농사종사기간(혹은 농업수입)이 농사이외의 일 종사기간(혹은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인구(농림부, 1999)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남성농업인의 경우 연간 노동투하시간 비중이 1970년 67.4%에서 2002년 52.1%로 감소한 반면 여성농업인은 같은 기간에 32.6%에서 47.9%까지 증가하여 남성농업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농림부, 1999; 통계청, 2003). 더욱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 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하루 평균 13.4시간으로 다른 영역의 여성노동자 7.5시간에 비하면 2배 정도 긴 편이다(농림부, 2004). 그리고 최근 정보와 기술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농업분야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신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도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는 농업생산자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 판매자, 사이버 판매 및 관리자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경미, 2004).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그들의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과정에서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전담하고 있다(박재규, 2004).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 시간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약 1-3시간 정도 짧은 편이지만,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평균 3-5시간으로 남성농업인의 30분 미만에 비해 길기 때문에 결국 여성농업인의 평균 노동시간이 길다고 하겠다(농촌연구소, 1999).

농촌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였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는 여성노인의 수적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즉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이와 같이 농촌인구의 연령별 및 성별구성 불균형 현상은 농촌인구의 도시이주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촌 청장년층 인구가동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농촌지역을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 직면하게 되었고, 농촌남성은 지역사회 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농촌지역 노총각 문제를 심화시켰다. 농촌지역 노총각 문제가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존재는 농촌지역사회 성비 불균형 해소, 농촌지역 노인인구 부양부담 완화, 그리고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족속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와 국내 적응문제

### 1. 국제결혼의 역사와 현황

국제결혼의 역사가 국제사회 노동력 이동과정과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결혼 그 배후에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양국 사이의 사회-경제적 연관성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결혼에서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또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간의 불균형 발전 및 여성의 상품화 현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통합되면서 자본과 상품, 그리고 사람도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다. 국가간의 불균형 발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동 중에 특히 노동력의 이동은 경제적 낙후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이루어지며, 세계화로 국가간 자본과 노동의 이주가 더 자유로워지면서 노동력의 세계적인 이주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간 노동력의 이주의 형태와 성격 및 규모는 노동력 송출국과 노동력 수입국의 내부사정과 이주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경우 1970년대 경제적 침체와 높은 실업률,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노동력 수출정책”을 추진하였고, 노동력의 해외 이주는 필리핀에 존재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며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필리핀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

해외 이주노동에는 남녀 모두가 참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nt workers)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Castle and Miller, 1998; Kofman, 1999),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설동훈 외, 2005). 이런 현상은 필리핀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최근의 필리핀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해외이주 노동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능가하고 있다고 한다(백재희 2000).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는 가내노동, 간호원, 엔터테이너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업종이나 성 관련 사업 중심의 ‘성별화된 세계노동시장’을 국제이주 노동자에게 개방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여기에 서비스 노동시장의 성장

으로 여성의 국제이주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을 비롯한 감정 노동 영역이 상품화되면서 가사 서비스 노동자가 등장하였고, 이런 결과는 전지구화 부산물로서 권력과 돈과 지위가 누구에게 집중되며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분화될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김현미, 2001).

노동력 이주과정에서 국제결혼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 왔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설동훈 외, 2005; 이해경, 2005). 즉 20세기 초 ‘사진신부(picture brides),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신부(war brides, military brides 또는 GI brides)’ 그리고 1970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가 있으며, 우편주문신부는 최근의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주문신부(internet order brides)’ 또는 ‘사이버주문신부(cyber order brides)’라 부르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사진신부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인들이 몇 장의 고국 여성사진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초청한 것으로, 고국 땅의 여성도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멀리 하와이로 또는 미국본토로 태평양을 건너간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인종차별적인 미국의 법이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서, 유럽으로부터의 이주자를 제외한 멕시코인이나 아시아인들은 미국내 백인과 혼인할 수 없으므로, 고국으로부터 여성을 불러와 결혼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국가를 건너간 국제결혼이기는 하나, 같은 인종내의 결혼이었다. 이러한 사진신부 현상은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해외 이주민 사회에서 주로 남성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신부감을 찾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인 전쟁신부 또는 미군아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필리핀 등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이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가리킨다. 전쟁신부 유형은 혼인이주로서의 인종간의 결혼인 국제결혼의 효시이나, 이들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주자가 아니라 가족재결합을 위해서 남편을 ‘따라가는 자(tied-movers)’로 이해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한편, 송출국에서도 이들 여성을 기지춘 매춘여성의 결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인 우편주문신부란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국가간 이주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중매기관이 상업화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해 이 역시 매스컴의 선정적인 또는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주목만

받았지, 학계로부터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매스컴은 물론 시민단체와 일부 여성주의 학자들은 우편주문신부를 제3세계 여성들이 경제적인 동기에서 또는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위장결혼자’로, 또는 상업화된 국제중매기관의 ‘희생자’, 또는 국제적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묘사해 왔다. 그러나 ‘우편주문신부’란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을 ‘희생자’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

## 2. 한국사회 국제결혼 이주여성 증가와 그 원인<sup>4)</sup>

### 1) 국제결혼의 증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일반적’ 현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은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흐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반전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초기 국제결혼은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 진입하여 주둔하게 된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미군기지촌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1980년대 통일교가 국제결혼을 교단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국제결혼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한국사회 전문직 종사자의 국제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지역의 농촌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촌 농촌각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면서 국제결혼이 크게 활성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났다.

<표 2-12>와 <그림 2-4>에 의하면, 지난 15년 동안 192,924명의 한국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그 가운데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128,143건에 66.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여성화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91년 국제결혼이 5,001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4,349건에 87.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그 비중에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1994년까지 지속되었

---

4) 이하의 내용은 박재규가 2005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다. 그러나 1995년부터 그 흐름이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1995년 국제결혼이 13,494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10,365건에 76.8%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은 국제결혼에서 과거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여성이 대신하게 되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베트남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중국 여성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여성이 선택하는 결혼 대상자로서 외국인 남성의 경우는 일본과 미국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남성이 계속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남성이 일본남성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 동남아시아 남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통계청, 2005).

<표 2-12> 한국사회 국제결혼 추이, 1991-2004

구분 년도	한국남자 + 외국여자					한국여자 + 외국남자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1991	663	224	106	232	101	4,349	2,297	156	1,680	216
1992	2,057	1,223	429	249	156	3,477	1,747	137	1,335	258
1993	3,109	826	1,851	230	202	3,436	1,818	185	1,127	306
1994	3,072	561	2,043	227	241	3,544	1,978	141	1,109	316
1995	10,365	1,412	8,450	188	315	3,129	1,751	207	891	280
1996	12,647	2,370	9,271	228	778	3,299	1,789	191	965	354
1997	9,266	1,075	7,362	213	616	3,182	1,670	151	902	459
1998	8,054	1,004	4,688	1,514	848	4,134	1,818	514	981	821
1999	5,775	1,248	2,883	280	1,364	4,795	2,649	234	1,190	722
2000	7,304	1,131	3,586	235	2,352	5,015	2,941	218	1,095	761
2001	10,006	976	7,001	265	1,764	5,228	3,011	222	1,132	863
2002	11,017	959	7,041	267	2,750	4,896	2,377	272	1,210	1,037
2003	19,214	1,242	13,373	323	4,276	6,444	2,613	1,199	1,237	1,395
2004	25,594	2,462	18,527	344	4,261	9,853	3,378	3,621	1,348	1,506
합 계	128,143	16,713	86,611	4,795	20,024	64,781	31,837	7,448	16,202	9,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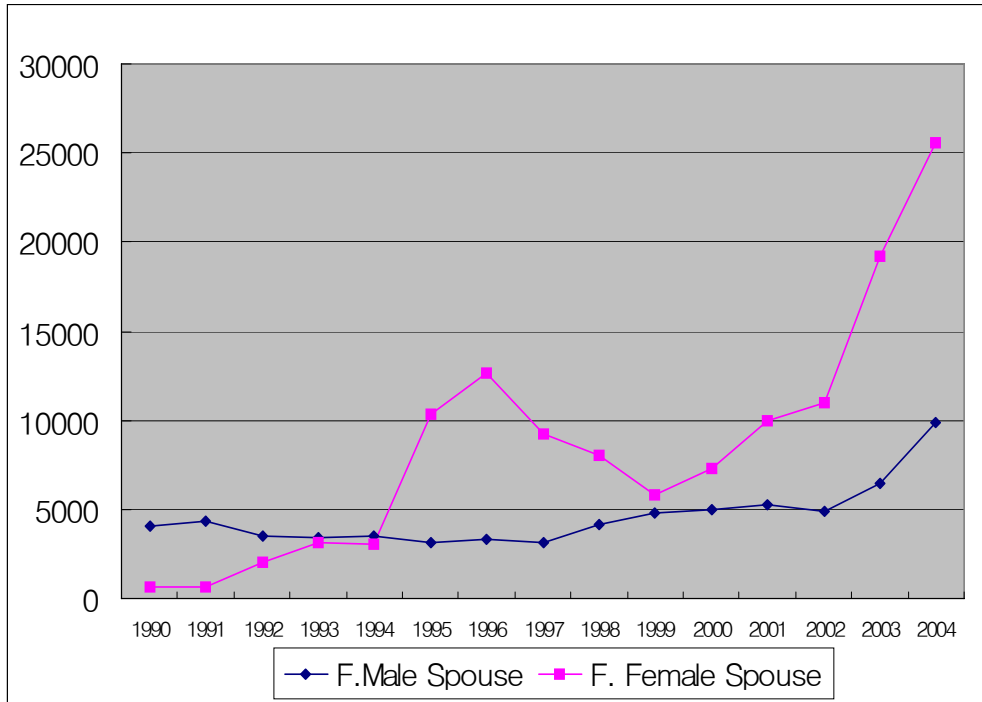
1) 베트남 1,403, 필리핀 944, 태국 346, 우즈베키스탄 329, 몽고 318, 러시아 297, 기타 639

2) 베트남 2,462, 필리핀 964, 몽골 504, 태국 326, 러시아 318, 우즈베키스탄 247, 기타 678

자료 : 박재규(2005)

<그림 2-4> 한국사회 국제결혼 성별 추이 분포, 1990-2004

단위 : 명



## 2) 한국사회 국제결혼 증가 원인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변에 정착한 한국여성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심각하였으며, 아직도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사회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국제결혼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부정적인 편이다. 이처럼 국제결혼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국제결혼이 우리사회 특수한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우리사회 국제결혼 증가 원인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 국제결혼 증가와 관련 주요 원인으로서는 한국여성의 결혼기피 및 만혼, 배우자 선택의 차별성 강화, 남성의 경제력 약화, 그리고 남녀 성비의 불균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염, 2004).

먼저 한국사회의 성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2004년 한국사회 성비는 116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6명으로 남성인구가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혼 남성의 증가를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여성의 결혼기피 및 만혼 현상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많은 여성은 과거 관습적 결혼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선호하게 되었고, 직장여성의 경우 결혼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은 결혼적령기를 넘기게 되거나 혹은 그 탈출구로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이해를 중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남성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력이 부족한 남성의 경우 국내 여성과의 결혼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탈출구로 국제결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또한 실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sup>

그런데 농촌지역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선택은 한국사회가 만들어 낸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내적 모순이란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한 지역간 불균형 산업화 정책은 농촌지역 남녀인구의 차별적인 도시이주를 촉발시켰으며, 농촌지역의 저발전 현상은 정주공간으로서 기피현상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농촌여성은 도시지역 산업시설 발달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쉽게 이주할 수 있었고, 이들은 농촌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반면에 농촌지역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아 도시지역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도시생활 적응 또한 어려움이 있어 도시이주를 기피하고 농촌에 정주하거나 혹은 농업을 물려받아 농촌에 정주기반을 갖고 있어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는 성향이 있다.

---

5) 예를 들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데 약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염, 2004).

이처럼 농촌지역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도시이주는 농촌지역 성비 불균형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저발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농촌지역 청·장년층 인구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1985년에 농촌지역 남성 전체 인구에서 25-50세 연령층 남성인구는 58.0%로 여성의 경우 29.8%에 비해 1.95배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격차는 그 이후 계속되어 확대되었다. 비록 농촌지역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으로 청·장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남녀비중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즉 2000년에 전체 남성인구에서 25-50세 연령층 인구는 49.8%로 줄어들었지만, 여성의 경우 그 비율도 19.0%까지 감소하여 청장년층 남녀 비율 격차는 오히려 2.62배로 확대되었다(통계청, 2005). 더욱이 농촌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적 저발전은 도시여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기피하게 만들어 오늘날 농촌지역 미혼남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전북지역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비교적 진척된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의 경우 15세 이상 미혼 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약 10% 정도 높은 편이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아 농촌지역 미혼남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전라북도, 2003).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과정 및 문제점

#### 1) 국제결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한국사회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부재하다. 그런 까닭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농촌지역에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이 결혼정보회사, 종교단체, 개인 브로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의한 소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종교기관의 주선으로 결혼한 이주여성이 46.8%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친척이나 이웃의 소개가 34.8%, 결혼정보회사, 13.4%, 기타 5.0% 순으로

나타났다.<sup>6)</sup>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다수가 전통적 개념의 혼인보다는 ‘매매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제3세계 빈곤가정 출신으로 가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찾아 국제결혼에 나서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러한 입지를 상업화된 결혼정보업체가 이용하여 국제결혼을 금전 거래관계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결혼 정보업체 혹은 특정 종교기관을 통해 국제결혼에 참여하게 되는 한국남성은 결혼비용이나 선물비, 혹은 외국인 여성 가족에 일정액의 생활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결혼과정에 적잖은 금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외국인 여성 부모는 일시불로 돈을 챙길 목적으로 딸의 결혼을 성사시켜 때로는 원하지 않은 결혼에 외국인 여성을 몰아넣기도 한다(이윤애, 2004; 조선닷컴, 2005.3.21).

그리고 결혼정보업체는 국제결혼을 성사시킬 목적에서 한국남성에 대한 정보를 과대포장하거나 혹은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대체로 대규모 영농인으로 포장하거나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를 건설업 운영자로, 트럭 야채상을 엔지니어로 속이기도 한다. 더욱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연령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농촌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 적령기를 넘겨 40대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여성은 대부분 20대 초반인 까닭에 그 연령 차이가 15-20세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 차이는 기본적인데, 심한 경우 연령 차이가 30세를 넘기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sup>7)</sup> 여기에 결혼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3일에 불과하며, 맞선을 보고 결혼까지 5-6일로 매우 짧아 국제결혼이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조건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새전북신문, 2005.1.25; 조선닷컴, 2005.3.21).

이처럼 많은 결혼비용이 수반되는 국제결혼은 ‘매매혼’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

---

6) 인용한 자료의 경우 종교기관의 소개에 의한 국제결혼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종교기관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집단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7) 이주여성인권센터 김민정 사회복지사는 “극단적으로 64세의 한국남성이 19세 동남아 여성을 신부로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조선닷컴, 2005.3.21)



결혼생활과정에서 많은 한국남성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평등관계의 배우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소유물 성격을 띤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김상임, 2004; 최진영, 2004). 매매혼 성격을 띤고 있는 국제결혼은 인권억압으로 이어져서 배우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언어 폭언, 외출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한국염, 2004). 더욱이 결혼정보업체나 혹은 특정 종교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아닌 금전관계나 허위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어 건강한 결혼생활로 지속되지 못하고 해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한 뒤 별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20%를 넘고, 인권단체의 경우 50%까지 추산하고 있다. 특히 결혼관계가 신뢰보다 조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부족하며, 여기에 위장결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불신의 벽이 높아져 원만한 가족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새전북신문, 2005.1.25; 조선일보, 2004.10.6).

다른 한편,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노총각 결혼 보내기 차원에서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업화된 결혼정보업체와 성격은 크게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농촌지역 노총각의 경우 국제결혼과정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지라도, 국제결혼 준비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결혼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 또한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외국인 여성 신부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상대 여성을 이해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농촌 노총각 결혼 성사에만 관심을 쏟았을 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국내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소홀하여 국제결혼 가정의 해체를 방치하고 있다.<sup>8)</sup>

---

8) 경상북도 예천군은 2005년 농촌 노총각 18명에게 1인당 국제결혼 사업비용으로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천군은 군내 노총각과 동남아 미혼여성 간의 만남에서 결혼,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예천군은 또한 앞으로 3년간 군내에 시집 온 동남아 여성들의 국내적응 교육사업을 3개월 과정의 한국교육과 음식 전통예절 교육, 남편을 위한 타 문화 이해,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양육 및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조사 및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경북매일신문, 2005).

## 2) 국내 정착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그 결과 결혼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결혼과 함께 한국 국적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증가하는 위장결혼과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획득하기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2년 동안 체류비자(F2)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sup>9)</sup> 그런데 체류비자로 거주하는 2년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외국인 신분인 까닭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년 마다 남편의 신원보증을 조건으로 체류비자를 갱신해야 하며, 결혼사유가 해소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인권유린 및 불안정 생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국적법을 다시 개정하였고, 이때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 두었다. 그렇지만 그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어에 아직 능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2가지 방법과 그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 2-13>과 같다.

---

9) 1997년 개정된 국적법은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에 대해 보다 가혹한 편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남성의 경우 3개월에서 1년 단기체류 비자를 얻게 되며 취업도 불허하고 있어 결국 가족해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정된 국적법은 한국여성에게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2-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획득 경로 및 문제점

특성	방법	혼인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실종
조건 (간이귀화)		① 배우자와 혼인상태로 2년 이상거주 ② 혼인 후 3년 경과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	① 혼인상태에서 배우자 사망 실종 ② 배우자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불가 상태에서 거주기간 충족한 자나 ③ 혼인에 의한 출생 미성년자의 양육자로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법무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국적취득 신청서류		① 귀화허가 신청서, 결혼증서, 시원진술서, 배우자의 신원보증(필수), 독립적 생계유지 입증 서류 ② 서류 제출시 배우자 동행(필수)	① 귀화허가신청서, 결혼증서, 신원진술서, 독립적 생계유지 입증서류 ② 추가서류 - 귀책사유 서류 1종 배우자 귀책 사유 판결문, 구타 입증진단서, 배우자 파산결정문, 가출신고 혼인관계 중단원인 확인서
귀화신청 자격조사		① 서류심사 ② 신원조회 및 체류동향 조사	① 서류심사, ② 신원조회 및 체류동향조사
적격심사		① 필기시험 - 면제 ② 면접	① 필기시험 - 면제되지 않음 ② 면접시험
문제점		① 국적취득 신청과정 - 남편동행 의무화 - 남편의 통제력 내포 ② 비자갱신(체류연장)할 때 남편 동행 의무 ③ 배우자의 신원보증 필수	① 귀책사유 입증의 책임 어려움 - 한국어가 미흡하고, 법률지식이 부족,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여성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 ②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 불허 ③ 필기시험 통과 어려움

자료 : 박재규(2005)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의사소통 어려움과 문화적 이해부족에 따른 한계점이다. 중국 조선족이나 특정 종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제외한 다른 국적의 이주여성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이 매우 짧은 시일에 결혼이 이루어지고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국내에 정착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위장결혼’을 우려하는 가족에 의해 외부활동을 엄격하게 통제당하기 때문에 외부의 한국어교육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어려움은 남편이나 가족원과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부부갈등과 가족갈등으로 이어져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한국의 가부장제적 성역할 및 사회문화와 남성중심의 가족관계를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제3세계 국가의 문화에 대한 경시는 인종차별과 성차별로 연결되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남편과 가족원의 타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갈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이윤애, 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 편견과 함께 경제적 빈곤이 정착과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평가는 양극적이다. 특히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사회적 편견과 타 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백인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반면에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제3세계의 여성에 대해서는 매우 냉담한 편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남편이나 가족원으로 하여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외부세계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며, 이런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하층계급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또한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조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혜택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정착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계적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우리사회의 이들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물론 국내 노동시장에 진출할 목적에서 결혼을 이용하는 이른바 '위장결혼' 사례가 발견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경계가 사회적 의혹이나 편견을 강화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의미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며 지원 또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남성의 가정폭력과 인격모독, 그리고 출산이나 양육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앞에서 언급한 국제결혼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서로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높다. 특히 국제결혼이 사랑보다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제결혼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크데다 위장결혼에 대한 의혹마저 갖게 되면서 의처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김승권, 2000; 박영의, 2003).

그리고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경우 국제결혼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평등관계의 배우자로 간주하기보다 소유물 개념이 각인되어 있어 인격모독을 자주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상담기관에 호소하는 상담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나가라고 하거나 팔아 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이주여성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언어소통이 어렵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더욱이 산후조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녀양육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향후 자녀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여성부는 2005년 처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여성부, 2005).



# 제 3 장

## 연구방법론

- 제 1 절 연구방법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제 3 장 연구방법론

### 제 1 절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그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 및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이와 관련된 문헌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문제가 동아시아 국가에서 부각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연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의 역사적 배경, 흐름 등을 거시적으로 조명하는 동시에 국내 상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유입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외국인 여성)에 관한 국내 유입 및 정착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정책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활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지 구성은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 2. 실태조사

본 연구는 전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내 유입과정을 비롯하여 정착과정, 적응실태,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여성단체의 활동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조사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범위는 읍지역과 면지역이라는 행정구역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때 전라북도에는 14개 읍지역과 145개 면지역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범위는 일단 14개 읍지역과 145개 면지역으로 한정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축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길이 없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전북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 위한 지원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 마련은 무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며, 그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또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그 규모 파악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A군을 사례로 선정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였다. 즉 본 연구는 A군의 각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몇 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마을에 유입되었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정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어디로 어떤 이유에서 이주하였는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up>10)</sup>

다음으로 본 연구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규모를 기초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규모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1-2003년 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3-1>에 의하면, 전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2002-200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예를 들면, 2001년 442명에서 2002년 452명으로 거의 비슷하였지만, 2003년 719명으로 59.0%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 약 1,600명이 전북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여기에 2002년 이전과 최근 결혼을 통해 전북지역에 정착한 이주여성을 합하면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측은 최근 법무부 여성 결혼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955명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자료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전라북도에 처음 정착할 당시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정착한 이후 떠난 이주여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과다하게 추정된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

---

10) 이와 관련된 자료는 부록에 정리하였음.

<표 3-1> 전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분포, 2001-2003

단위 : 명

출신국가	년도	합 계	2003	2002	2001
합 계		1,613	719	452	442
중 국		1,031	450	292	289
필 리 핀		208	88	60	60
베 트 남		87	67	16	4
일 본		100	33	35	32
태 국		41	23	8	10
러 시 아		17	7	7	3
몽 고		20	8	8	4
기 타		109	43	26	40

자료 : 통계청(2004).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전북지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이들 가운데 농촌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고창군의 경우 112명, 장수 88명, 순창 73명 등 각 군지역마다 약 100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거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않은 일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각 시·군 행정기관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 성격으로 파악한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행정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행정기관의 비공시적 집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1,381명이며 이들 가운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1,035명으로 전체 74.9%를 차지하였다. 행정기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료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표 3-2>와 같이 표본추출안을 마련하였다. 즉 전라북도 13개 시·군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규모와 이주여성 국적을 고려하여 최소 24명에서 최근 75명까지 전체 700명을 표집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현황을 고려하여 조선족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 국적의 여성이 다소 표집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족의 경우 전체 표본의 38%를 차지하는 269명이며, 다음으로 필리핀과 일본 국적의 이주여성이 각각 29.5%와 22.1%를 차지하여 이들 3개 국적의 이주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태국, 그리고 구소련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일부 포함되도록 표집하였다.

<표 3-2>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역별 표본추출

단위 : 명

행정구역	표본 크기					
	계	조선족	필리핀	일본	베트남	태국
군산시	24	15	5	4	-	-
익산시	68	21	17	20	6	4
정읍시	75	38	20	10	5	2
남원시	61	24	20	12	2	3
김제시	61	25	23	8	5	-
완주군	58	22	18	6	10	2
진안군	48	14	16	15	-	3
무주군	22	8	6	7	-	1
장수군	52	12	26	12	-	2
임실군	47	24	11	7	3	2
순창군	65	16	18	23	3	5
고창군	70	23	16	23	7	1
부안군	49	27	11	8	3	-
합 계	700	269	207	155	44	25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표 3-1>과 같은 규모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일부 지역의 자료수집이 제약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이 조사되었고, 편집과 코딩을 걸쳐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분석과정은 먼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모든 변수의 분포를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포 분석을 하였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과 적응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보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단체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생활과 현지 적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을 위해 여성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특히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함께 수집하여 향후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 4. 자료수집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처럼 조사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소요된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만나기 쉽지 않았고, 만난 경우에도 질문지 조사에 대한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현지 활동 국제결혼 이주여성 당사자를 조사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유입과 정착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에서 이주여성의 한글 이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관계로 본 연구는 질문지를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하여 동시에 사용하였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전라북도 농촌지역에 한정시켰으며, 구체적으로 13개 시·군 지역으로 한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13개 읍지역과 145개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한정시켰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대부분이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중요성은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서술한바 있다.

### 2.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을 비롯하여 국내 유입과정, 그리고 현지 정착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만들었고, 그 주요 내용은 <표 3-3>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일차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로서 출신 국가, 연령, 학력, 결혼 경력, 결혼시기, 종교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국제결혼과 한국 농촌지역 유입과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된 과정을 비롯하여 국내 유입, 국내 농촌지역 정착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준비 및 남편의 가족이나 친척의 대접 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지 적응과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남편이나 그 가족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각종 적응을 위한 교육이나 단체 활동 참여 실태, 그리고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도 함께 조사하였다.

<표 3-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유입 및 현지 적응과정 연구 내용

분 류	조사 항목	조사내용
인구-사회적 특성	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출신국가, 연령, 교육수준, 자국 가족생활 수준, 결혼경력, 결혼시기, 출산자녀
국제결혼과 농촌지역 유입과정	결혼과정	결혼 연결과정 및 동기 결혼 과정에서 금전 받기 및 그 규모 결혼 전 기대와 결혼 후 현실 차이
	농촌지역 정착과정	유입시기, 주변사람의 호감 및 편견 유입시기 한국어 사용 능력 유입과정에서 한국어, 문화교육, 등 사전교육의 적창과정 기여 정도
농촌지역 현지 적응과정	남편 및 가족의 정착지원 노력	배우자 국가의 문화 이해 노력, 국제결혼 관련 소양교육, 남편과 가족의 이주여성 배려, 마을활동, 지역사회활동 참여 배려 처가에 대한 배려(전화, 송금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복지욕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식, 참여경험, 프로그램 욕구
	정체성	한국인 국적 취득요구 및 결과 한국인으로 계속 살 것인가? 한국말 구사 정도,
	가족경제생활	직업활동, 생활수준, 소비생활 만족, 등
	사회관계 만족	부부생활, 가족구성원 관계, 이웃 및 친척관계, 친구관계
	지역사회활동	동료(자조모임 결성 및 참석), 동네 행사 참여, 지역사회단체 참여 지역 공공기관 방문 등
영농활동 가사노동 참여	영농활동참여 시간	노동시간, 노동활동에 대한 평가
	가사노동	가사노동 참여시간
일상생활의 애로사항	가족관계에서 애로점	남편,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및 구타 친척의 배척, 이웃의 무시,
	자녀출산 및 양육	자녀출산 경험, 임신 및 출산과정에 어려움, 자녀양육과정의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 제 4 장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과 결혼과정

-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 분석



## 제 4 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과 결혼과정

###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북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본 연구의 경우 응답자의 국제결혼 시점을 분석하면 <표 4-1>과 같다.

응답자의 결혼시점을 보면 국제결혼이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0% 정도는 1990년대 전반에 결혼한 반면에 90% 정도가 1990년대 후반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시점을 살펴보면, 1980년대 결혼한 경우 3.2%로 매우 낮았으며 1990년대 전반에 결혼 여성 또한 9.4%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1990년대 후반 결혼한 여성은 36.5%를 차지하였고, 2000년 이후 결혼한 여성의 경우 50.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4-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시점 분석

단위 : 명, %

결혼 시기 구 분	빈 도	비 율
1980년대	19	3.2
1990 - 1994	57	9.4
1995 - 1999	219	36.5
2000	66	11.0
2001	42	7.0
2002	42	7.0
2003	51	8.5
2004	69	11.5
2005	36	6.0
합 계	601	100.0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이주 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은 국제결혼 시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결혼 후 국내에 들어오는 시간 사이에는 시차가 있는 관계로 약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먼저 국내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와 3-5년인 경우가 각각 23.7%와 24.2%를 차지하였고, 6-9년 거주한 여성이 29.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도 22.9%를 차지하였다.

<표 4-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 분포

단위 : 명, %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내 거주	빈도	비율
2년 이하	144	23.7
3-5년	147	24.2
6-9년	178	29.3
10년 이상	139	22.9
합 계	608	100.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재 연령은 <표 4-3>과 같이 평균 연령은 34세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24.5%,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각각 29.6%와 25.7%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40대 이상은 20.2%를 차지하였다.

<표 4-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 분포

단위 : 명, %

현재나이	빈도	비율	평균
29세 이하	149	24.5	34.3세
30-34세	180	29.6	
35-39세	156	25.7	
40세 이상	123	20.2	
합 계	608	100.0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결혼 당시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4>와 같이 평균 28.2세로 현재 연령에 비해 약 6세 정도 적은 편이다. 이런 차이는 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이 평균 6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결혼 당시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이 각각 22.4세와 45.2%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30대와 40세 이상이 각각 29.2%와 3.2%를 차지하였다.

<표 4-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당시 연령 분포

단위 : 명, %

국제결혼 당시 나이	빈도	비율	평균
24세 이하	132	22.4	28.2세
25 - 29	266	45.2	
30 - 39	171	29.2	
40세 이상	19	3.2	
합 계		100.0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이 42.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이하가 20.4%, 그리고 전문대학교 대학교 이상이 각각 19.1%와 17.6%를 차지하였다.

<표 4-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 명, %

교육 수준	빈도	비율
중학이하	124	20.4
고등학교	260	42.8
전문대학	116	19.1
대학교이상	107	17.6
합 계	607	100.0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 실태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약 80%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종교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종교를 매개로 결혼에 참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통일교가 단일 범주로 가장 많은 37.4%를 차지하였고, 개신교와 기독교를 갖고 있는 이주여성이 23.4%를 차지하였고, 불교 및 원불교가 9.0%, 그리고 기타 종교가 9.6%를 차지하였다.

<표 4-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 현황

단위 : 명, %

종 교	빈도	비율
종교 없음	121	20.6
개신교와 기독교	137	23.4
불교와 원불교	53	9.0
통일교	219	37.4
기 타	56	9.6
합 계	586	100.0

## 2. 경제적 및 국적 관련 특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제적 특성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생활 수준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 생활에 비해 현재 생활이 어느 수준인지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표 4-7>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정경제생활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1.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자신의 가정생활이 비교적 부유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25.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어렵게 살고 있다고 응답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23.2%를 차지하였다.

<표 4-7>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생활수준 분포

단위 : 명, %

가정의 생활수준	빈도	비율
부유하다	155	25.5
보 통	312	51.3
어렵다	141	23.2
합 계	608	100.0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 생활에 비해 현재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교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먼저 현재의 생활이 본국 생활과 비슷하다고 평가한 여성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본국 생활에 비해 현재의 생활이 좀 더 좋아졌다고 평가한 여성이 34.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본국생활에 비해 현재 생활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28.5%를 차지하였다.

<표 4-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 생활에 비해 현재 생활 평가

단위 : 명, %

본국 생활에 비해 현재의 생활수준	빈도	비율
좋아졌다	210	34.5
비슷하다	225	37.0
어려워졌다	173	28.5
합 계	608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출신국가에 대한 분석을 비롯하여 한국 국적 취득 여부 및 향후 한국사회 지속 거주 여부를 살펴 보았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표 4-9>와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필리핀, 조선족, 그리고 일본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각각 31.1%, 34.9%, 그리고 24.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설계에 의한 것으로

최근까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를 반영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다른 나라 출신은 베트남이 5.3%, 그리고 기타가 4.3%를 차지하였다.

<표 4-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

단위 : 명,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빈도	비율
일본	145	24.2
필리핀	209	34.9
베트남	32	5.3
조선족	187	31.2
기타	26	4.3
합 계	599	100.0

<4-1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를 분석한 것인데, 전체 이주여성 가운데 현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여성은 46.1%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53.9% 가운데 34.2%는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나머지 19.7%는 취득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

단위 : 명, %

한국 국적 취득 여부	빈도	비율
국적 있음	267	46.1
계획 있음	198	34.2
계획 없음	114	19.7
합 계	579	100.0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향후 한국사회 거주여부에 대한 분석은 <표 4-11>과 같은데 과반수에 해당하는 72.4%가 계속해서 한국사회에 살 것이라고 밝힌 반면 3.2%



는 본국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4.4%는 한국사회에 거주할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표 4-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향후 국내 거주 여부 분석

단위 : 명, %

한국인거주여부	빈도	비율
그렇다	428	72.4
본국귀환	19	3.2
모르겠다	144	24.4
합 계	591	100.0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 분석

### 1. 배우자의 만남과 결혼

최근 들어 한국사회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간의 결혼이 다수를 차지하여 이른바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에 비해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촌지역 및 도시 빈민지역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해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런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탈출구의 하나가 바로 국제결혼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표 4-1>에서 제시했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시점을 다시 재분류하였다.

<표 4-12>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시점 재분류에 의하면, 한국남성의 국제결

혼이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0% 정도는 1990년대 전반에 결혼한 반면에 90% 정도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시점을 살펴보면, 1995년 이전에 결혼한 응답자가 12.8%를 차지하였고, 1995-1999년 사이에 결혼한 응답자는 36.3%, 그리고 2000년 이후 결혼한 여성이 50.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4-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시점 재분석

단위 : %

결혼 시기 구 분	빈 도	비 율
1995년 이전	76	12.8
1995-1999	215	36.3
2000년 이후	301	50.9
합 계	601	100.0

한국 남성이 선택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의 경우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본 연구의 경우 이러한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즉 <표 4-13>에 의하면, 1990년대 초반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로는 일본과 조선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듯이 본 연구결과 또한 일본이 34.7%를, 조선족이 13.5%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남성의 결혼 배우자로서 조선족과 필리핀 여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 후반 결혼여성 중에 조선족이 42.2%를, 필리핀 여성이 28.8%로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일본 여성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기에 1990년대 후반에도 50.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배우자 출신국 분포는 2000년에 들어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베트남 여성과 기타 범주에 포함된 태국, 몽골, 구소련 등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00년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 출신 국가 중에는 베트남 여성이 9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범주가

87.0%를, 그리고 필리핀이 71.2%를 차지하였다. 물론 2000년대에도 조선족의 경우는 비교적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결혼 시점 분석

단위 : %, 명

결혼 시점	국적 일본	필리핀	베트남	조선족	기 타	합 계	
						비율	빈도
1995년 이전	34.7	-	3.1	13.5	-	12.8	76
1995 -1999	50.7	28.8	3.1	42.2	13.0	36.3	215
2000년 이후	14.6	71.2	93.8	44.3	87.0	50.8	3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92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관행이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기 위해 모국에서 결혼, 국내에서 결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4-14>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보다 국내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국내에서 한번만 결혼 경우가 50.9%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에서 한번 결혼한 경우는 20.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과 국내에서 동시에 결혼한 경우는 28.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혼 유형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여성의 경우 본국에서 한번 결혼한 사람이 6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필리핀 여성으로 34.1%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한국에서 한번만 결혼한 경우는 일본과 조선족이 각각 88.0%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 여성의 경우 25.4%를 차지하였고, 기타의 경우도 47.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결혼식을 올린 여성은 필리핀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 국적(3.5%)을 제외한 다른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는 약 30%를 차지하였다.

<표 4-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본국 및 국내 결혼 분석

단위 : 명, %

결혼 유형	국적 일본	필리핀	베트남	조선족	기 타	합 계	
						비율	빈도
본국결혼	8.5	34.1	64.5	8.7	17.4	20.9	122
국내결혼	88.0	25.4	6.5	57.9	47.8	50.9	296
양국결혼	3.5	40.5	29.0	33.3	34.8	28.4	16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84

<표 4-1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배우자인 한국 남성을 어떤 통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분석한 것이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무려 50.2%가 종교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각각 21.5%와 12.5%를 차지하였고,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도 9.2%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행정기관의 주선이나 결혼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 경우가 각각 3.1%와 2.3%를 차지하였다.

<표 4-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남성 배우자와의 만남 계기 분석

단위 : 명, %

한국 남성 배우자와의 만남 계기	빈도	비율
가족의 소개(부모, 형제, 친척)	76	12.5
지인의 소개(이웃, 친구, 선후배)	131	21.5
결혼정보업체의 소개	56	9.2
행정기관의 주선	19	3.1
종교단체의 소개	305	50.2
직접 배우자 만남	14	2.3
기 타	7	1.2
합 계	608	100.0

<표 4-1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남성인 배우자를 만나는 계기가 국적이거나, 결혼시점,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남성을 만나는 계기를 국적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이나 지인 등과 같이 사적인 연결망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조선족이 68.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의 경우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아는 친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소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필리핀과 기타 국적의 경우도 25%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결혼업체의 매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베트남 처녀와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국이나 구소련 등과 같은 국가의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듯 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종교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소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는 일본여성과 필리핀 여성이 각각 98.6%와 6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종교단체의 소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종교와의 연계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며, 필리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남성 배우자를 만난 계기를 결혼시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개인적 소개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최근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00년 이후 개인적 소개로 만난 사람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1990년 후반의 경우 30.1%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점차 사적인 연결망이 발전하게 되고, 연결망을 통해 서로 소개받는 기회가 확대되어 그 결과 결혼하는 기회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 또한 최근에 활성화되었듯이 2000년 이후의 경우 1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종교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는 1990년대 전반기 이전과 이후가 각각 73.7%와 60.7%를 차지하여 2000년 이후 42.8%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2000년 이전에 활성화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라서 배우자를 만난 계기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나이가 적은 여성일수록 사적 소개 혹은 결혼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난 반면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는 기관의 소개를 통해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사적 연결망을 통해 남편을 소개받은 여성 중에는 20대와 30대 초반이 각각 46.3%와 40.0%로 다른 연령의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결혼업체의 소개를 받은 경우도 20대가 18.8%로 다른 여성에 비해 2-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종교기관의 소개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과 40대 여성이 각각 62.8%와 74.8%로 20대 여성의 29.5%에 비해 2-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의 경우에서도 학력이 낮은 여성의 경우 사적 연결망이나 결혼업체의 소개를 통해 남편과 결혼한 반면 학력이 높은 여성은 종교단체의 소개를 통해 결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가운데 개인적 연결망을 통해 남편과 결혼한 여성이 47.6%로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 25.2%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반면 종교기관의 소개를 통해 남편과 결혼한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70% 수준으로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28.2%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에 따라서 한국 남편을 만난 계기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종교가 없거나 기독교/개신교를 갖고 있는 여성은 사적 소개를 통해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불교나 원불교의 경우는 결혼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통일교의 경우는 종교기관의 주선에 의해서 남편을 만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사적 연결망을 통해 남편과 결혼한 여성이 65.3%로 통일교의 3.7%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의 35.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기관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통일교를 갖고 있는 여성이 94.5%로 종교가 없는 여성이나 불교 및 원불교를 갖고 있는 여성의 13.2%와 26.5%에 비해 7배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4-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및 결혼시점에 따른 배우자 만남 계기 분석

단위 : 명, %

배우자 만남 계기		개인적 소개	결혼업체 소개	기관 소개	기타	합 계		검증
변수	범 주					비율	빈도	
국적	일 본	1.4	-	98.6	-	100.0	145	X <sup>2</sup> =331.08, p<.001
	필리핀	28.2	5.3	64.6	1.9	100.0	209	
	베트남	18.8	40.6	21.9	18.8	100.0	32	
	조선족	68.4	13.4	13.9	4.3	100.0	187	
	기 타	26.9	23.1	38.5	11.5	100.0	26	
	합 계	33.7	9.2	53.6	3.5	100.0	599	
결혼시점	1995년 이전	21.1	3.9	73.7	1.3	100.0	76	X <sup>2</sup> =74.15, p<.001
	1995-1999	30.1	5.5	60.7	3.7	100.0	219	
	2000년 이후	40.2	13.1	42.8	3.9	100.0	306	
	합 계	34.1	9.2	53.2	3.5	100.0	601	
연령	20대	46.3	18.8	29.5	5.4	100.0	149	X <sup>2</sup> =75.75, p<.001
	30대 초반	40.0	7.2	50.0	2.8	100.0	180	
	39대 후반	28.2	7.7	62.8	1.3	100.0	156	
	40대	17.9	2.4	74.8	4.9	100.0	21	
합 계		34.0	9.2	53.3	3.5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47.6	20.2	28.2	4.0	100.0	124	X <sup>2</sup> =72.76, p<.001
	고등학교	36.5	9.2	49.6	4.6	100.0	260	
	전문대학	21.6	4.3	72.4	1.7	100.0	116	
	대학교이상	25.2	1.9	71.0	1.9	100.0	107	
합 계		33.9	9.2	53.4	3.5	100.0	607	
종교	종교없음	65.3	17.4	13.2	4.1	100.0	121	X <sup>2</sup> =293.01, p<.001
	개신기독교	44.5	5.1	48.2	2.2	100.0	137	
	불원불교	35.8	28.3	26.4	9.4	100.0	53	
	통일교	3.7	1.4	94.5	.5	100.0	219	
	기타	53.6	12.5	25.0	8.9	100.0	56	
합 계		33.6	9.0	54.1	3.2	100.0	586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교제기간이 매우 짧고, 서로 만나는 기회 또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을 <표 4-17>은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사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27.7%를 차지하였으며, 단지 1-2회 만나고 결혼한 경우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3-4회 한국 남성과 만났거나 5회 이상 만난 여성은 각각 10.0%와 12.9%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 배우자와 만나는 회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일본 국적의 여성과 베트남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와 만날 기회도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의 경우, 그리고 베트남 여성의 경우 1- 2회 만난 상태에서 배우자와 결혼하였다. 5회 이상 배우자를 만난 경우는 태국이나 구소련 등과 같은 기타 국적을 가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배우자를 소개 매체에 따라 배우자를 만나는 횟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결혼업체와 기관의 소개를 통해 결혼하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이 결혼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1-2회 배우자와 만난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도 결혼업체와 기관 소개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적 소개를 통해 만난 경우는 58.5%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배우자와 비교적 오랫동안 만난 상태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사적인 소개를 통해서 결혼했거나 기타의 경우가 52.3%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및 배우자 소개별 만남 횟수 분석

단위 : 명, %

배우자 만남 횟수		만남 적이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합 계	
변수	범 주					비율	빈도
국적	일 본	54.5	28.3	5.5	11.8	100.0	145
	필리핀	22.0	55.0	11.5	11.5	100.0	209
	베트남	37.5	43.8	6.3	12.5	100.0	32
	조선족	11.8	62.6	12.8	12.8	100.0	187
	기 타	26.9	34.6	7.7	30.7	100.0	26
	합 계	27.7	49.4	10.0	12.9	100.0	599
배우자 소개	사적 소개	13.0	58.5	13.5	15.0	100.0	207
	결혼업체 소개	28.6	50.0	14.3	7.2	100.0	56
	기관 소개	36.7	45.7	7.4	10.2	100.0	324
	기 타	28.6	9.5	9.5	52.3	100.0	21
	합 계	27.6	49.2	10.2	13.0	100.0	608

<표 4-18>에 의하면 국제결혼의 경우 초혼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본 연구가 농촌지역의 표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배우자의 결혼 유형에서 초혼 비율이 50% 수준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약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초혼 비율이 약 9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그 초혼 비율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91.8%로 그 남성 배우자 87.3%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4-18>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배우자의 결혼 유형

단위 : 명, %

결혼 유형	남편 및 배우자의 사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초 혼	534	87.8	558	91.8
재 혼	74	12.2	50	8.2
합 계	608	100.0	608	100.0

## 2. 국제결혼의 원인과 금전 지불 분석

최근 국제결혼에서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결혼이 매매혼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본국 가정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찾아 국제결혼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종교기관 및 결혼정보업체의 알선을 통해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한국 남성의 경우 결혼비용을 비롯하여 선물비, 외국인 여성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혹은 약속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적잖은 금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제결혼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19>와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적하고 있는 결혼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종교적 원인을 비롯하여 남편에 대한 사랑과 경제적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종교적 이유에서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과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한 한국사회에서 살기 위해 결혼한 여성이 각각 25.5%와 22.9%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본국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한 여성과 가족과 친척의 권유로 결혼을 한 경우가 각각 7.9%와 5.9%를 차지하였다.

<표 4-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원인 분석

단위 : 명, %

결혼 원인	빈도	비율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139	22.9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101	1.6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48	7.9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7	1.2
가족과 친척의 권유로	36	5.9
현재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155	25.5
종교적인 이유로	179	29.4
기 타	34	5.6
합 계	608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결혼 원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20>과 같이 모든 변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에 따라 결혼 사유가 차이를 보이는데 최근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경제적 지위향상을 비롯하여 가족지원,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결혼한 반면 오래 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종교적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결혼한 여성의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가 약 30% 정도로 10년 이상된 여성의 16.5%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반면 종교적 이유에서 결혼한 여성 중에는 거주기간이 10년된 여성이 51.8%로 2년 및 5년 이하의 여성 6-2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즉 나이가 적은 여성일수록 경제적 지위향상이나 가족지원, 그리고 사랑 때문에 결혼한 반면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종교적 이유에서 결혼하는 성향이 높았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과 결혼 원인 관계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경제적 지위향상이나 본국에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 남편을 사랑하거나 혹은 종교적 이유에서 결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이나 종교에 따라서 결혼 이유에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조선족 및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이나 필리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교적 이유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갖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혹은 본국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기독교/개신교를 갖고 있는 여성과 통일교를 갖고 있는 여성은 각각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혹은 종교적 이유에서 결혼한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결혼 이유 차이 분석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결혼이유의 범주					합계		검증
		경제 향상	가족 지원	남편 사랑	종교 이유	기타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9.2	18.1	36.1	6.9	9.7	100.0	144	X <sup>2</sup> =108.0, p<.001
	2-5년 이하	29.9	5.4	32.0	20.4	12.2	100.0	147	
	6-9년 이하	22.5	5.1	20.8	37.6	14.0	100.0	178	
	10년 이상	16.5	3.6	13.7	51.8	14.4	100.0	139	
합 계		24.5	7.9	25.5	29.4	12.7	100.0	608	
연령	20대	32.9	14.1	32.9	10.7	9.4	100.0	149	X <sup>2</sup> =96.90, p<.001
	30대 초반	31.1	6.7	28.3	17.2	16.7	100.0	180	
	39대 후반	17.9	5.8	19.9	43.6	12.8	100.0	156	
	40대	13.0	4.9	19.5	52.0	10.6	100.0	123	
합 계		24.5	7.9	25.5	29.4	12.7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36.3	21.0	18.5	7.3	16.9	100.0	124	X <sup>2</sup> =99.94, p<.001
	고등학교	28.1	5.4	24.2	28.8	13.5	100.0	260	
	전문대학	12.1	2.6	29.3	47.4	8.6	100.0	116	
	대학교이상	15.9	3.7	32.7	37.4	10.3	100.0	107	
합 계		24.5	7.7	25.5	29.5	12.7	100.0	607	
국적	일본	1.4		10.3	80.7	7.6	100.0	145	X <sup>2</sup> =372.54, p<.001
	필리핀	14.8	4.8	44.5	24.9	11.0	100.0	209	
	베트남	37.5	18.8	37.5		6.3	100.0	32	
	조선족	49.7	13.9	13.9	3.2	19.3	100.0	187	
	기타	38.5	15.4	26.9	11.5	7.7	100.0	26	
합 계		24.7	7.7	25.5	29.7	12.4	100.0	599	
종교	종교없음	50.4	15.7	17.4	.8	15.7	100.0	121	X <sup>2</sup> =326.249, p<.001
	개신기독교	17.5	8.0	46.7	14.6	13.1	100.0	137	
	불원불교	49.1	17.0	20.8	1.9	11.3	100.0	53	
	통일교	5.0	.5	17.4	67.6	9.6	100.0	219	
	기타	42.9	7.1	25.0	10.7	14.3	100.0	56	
합 계		24.9	7.5	25.3	30.0	12.3	100.0	586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여성이 어느 정도 인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21>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한국 남성 배우자로부터 결혼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가 20.4%를 차지한 반면에 나머지 79.6%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남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여부

단위 : 명, %

경제적 지원 여부	빈도	비율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124	20.4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484	79.6
합 계	608	100.0

본 연구는 또한 한국 남성 배우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분석하였는데 먼저 금전적 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응답자가 20명을 차지하였고, 104명만이 그 규모를 밝히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은 <표 4-22>와 같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남성 배우자로부터 받은 평균 금액은 243만원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을 지원 받은 여성의 경우 9.6%로 많지 않았고, 100-199만원을 지원받은 여성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299만원 지원받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16.4%, 300-499만원을 지원받은 여성이 15.2%, 그리고 5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여성이 14.4%를 차지하였다.

<표 4-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받은 금전적 지원 규모 분석

단위 : 명, %

금전적 지원 규모	빈도	비율
100만원 미만	10	9.6
100 - 199	46	44.2
200 - 299	17	16.4
300 - 499	16	15.2
500만원 이상	15	14.4
합 계	104	100.0

<표 4-23>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한국 남성 배우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인데 본 연구가 도입하고 있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최근 결혼한 여성일수록

결혼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즉 국내에 거주한지 2년이 아직 되지 않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30.6%가 금전적 지원을 받은 반면 6-9년 혹은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 중에는 각각 19.1%와 8.6%로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적은 여성이 나이가 많은 여성에 비해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즉 20대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32.9%가 금전적 지원을 받은 반면, 40대 후반 여성 중에는 7.3%로 낮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금전적 지원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력수준이 낮은 여성인 경우 상대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여성이 30.6%를 차지한 반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중에는 15.0%로 1/2 수준에 불과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 금전적 지원 여부는 차이를 보이는데 베트남과 조선족 출신의 여성이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즉 남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베트남 여성과 조선족 여성이 각각 31.3%와 28.3%로 일본의 6.2%나 필리핀 여성의 20.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여성이 30.6%로 가장 많은 반면 통일교를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9.6%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현재 경제상황에 따라서도 금전적 지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에 있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족경제생활이 부유한 여성 가운데 결혼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34.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다소 부유하게 살고 있는 가정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27.9%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가족경제생활이 어렵다고 평가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12.8%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않은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과정에서 금전 지원이 쉽지 않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이유에 따른 금전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와 본국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 사람 때문에 결혼한 경우에 금전적 지원을 더 받은 반면 종교적 이유에서 결혼한 경우 가장 적게 받았다. 예를 들면, 경제

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혼한 여성의 경우 33.6%가 결혼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반면에 종교적 이유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7.8%로 낮게 나타났다.

<표 4-2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결혼과정에서 금전적 지원 관계 분석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금전적 지원 여부		합계		검증
		받았다	받지 않았다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30.6	69.4	100.0	144	X <sup>2</sup> =21.861, p<.001
	2-5년 이하	23.1	76.9	100.0	147	
	6-9년 이하	19.1	80.9	100.0	178	
	10년 이상	8.6	91.4	100.0	139	
합	계	20.4	79.6	100.0	608	
연령	20대	32.9	67.1	100.0	149	X <sup>2</sup> =28.982, p<.001
	30대 초반	22.2	77.8	100.0	180	
	39대 후반	16.7	83.3	100.0	156	
	40대	7.3	92.7	100.0	123	
합	계	20.4	79.6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30.6	69.4	100.0	124	X <sup>2</sup> =11.394, p<.01
	고등학교	19.2	80.8	100.0	260	
	전문대학	16.4	83.6	100.0	116	
	대학교이상	15.0	85.0	100.0	107	
합	계	20.3	79.7	100.0	607	
국적	일본	6.2	93.8	100.0	145	X <sup>2</sup> =28.290, p<.001
	필리핀	20.6	79.4	100.0	166	
	베트남	31.3	68.8	100.0	32	
	조선족	28.3	71.7	100.0	187	
합	계	20.4	79.6	100.0	599	
종교	종교 없음	30.6	69.4	100.0	121	X <sup>2</sup> =28.793, p<.001
	개신기독교	25.5	74.5	100.0	137	
	불원불교	28.3	71.7	100.0	53	
	통일교	9.6	90.4	100.0	219	
합	계	20.0	80.0	100.0	586	
가족생활	매우 부유하다	34.6	65.4	100.0	26	X <sup>2</sup> =12.914, p<.01
	부유하다	27.9	72.1	100.0	129	
	보통수준	19.6	80.4	100.0	312	
	살기 어렵다	12.8	87.2	100.0	141	
합	계	20.4	79.6	100.0	608	
결혼 이유	경제적 지위향상	36.9	63.1	100.0	149	X <sup>2</sup> =26.34, p<.001
	본국 가족지원	20.8	79.2	100.0	48	
	남편 사랑	20.6	79.4	100.0	155	
	종교적 이유	7.8	92.2	100.0	179	
합	기 타	16.9	83.1	100.0	77	
합	계	20.4	79.6	100.0	608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식한 배우자 관련 정보 분석

결혼과정에서 증시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의 조건에 관한 것인데 국제결혼의 경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서로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남성 및 결혼알선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 제공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4-2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결혼 직전 한국 남성 배우자 혹은 결혼을 주선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정보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남성 배우자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연령 등이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관련된 정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정확하다고 평가한 내용과 그 비율을 보면, 배우자의 건강(72.4%), 나이(72.4%), 가족관계(71.9%) 학력(66.3%), 직업(65.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본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성격, 소득이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경제적 지원 약속이 다르다고 평가한 여성이 50.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다르다고 평가한 여성이 46.4%, 배우자의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한 여성이 41.9%, 배우자의 재산상태가 다르다고 평가한 여성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과정에서 한국 남성 혹은 결혼을 매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외국인 여성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과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 동안의 보고가 결코 틀리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데, 남편의 개인적 신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최소 30%에서 최고 50% 정도까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표 4-24> 한국 남성 배우자 관련 정보의 정확도 차이 분석

단위 : 명, %

남편 관련 정보 내용	평가 정확하다	약간 다르다	크게 다르다	합 계	
				비율	빈도
가족(자녀) 관계	71.9	21.4	6.7	100.0	608
재산(토지, 주택)	61.7	26.6	11.7	100.0	608
직업	65.3	23.7	11.0	100.0	608
나이	72.4	18.8	8.9	100.0	608
학력	66.3	23.8	9.9	100.0	608
소득	53.6	34.2	12.2	100.0	608
건강	72.4	20.2	7.4	100.0	608
성격	58.1	30.8	11.2	100.0	608
경제적 지원 약속	49.2	27.1	23.7	100.0	608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배우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현상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정보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배우자 가족 정보가 얼마나 정확 혹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25>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 거주기간, 연령, 교육수준, 국적,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남편 배우자의 가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한 여성이나 혹은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남편 가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남편 배우자의 가족 정보가 정확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90.6%로 5년 이하 거주 여성 60%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후반 여성이 80% 수준으로서 20대 여성 60%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 가족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70-80% 정도가 남편의 가족 정보가 정확하다고 평가한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는 60% 수준으로 약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남편의 가족 정보가 기대한만큼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의 경우 조선족이나 일본 국적의 여성과 종교가 없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갖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편 가족정보가 정확하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족 및 일본 국적의 여성 가운데 약 90%가 남편 가족 정보가 정확했다고 평가한 반면 필리핀 여성은 44%로 가장 낮았으며 베트남 여성도 78%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가 없거나 불교 및 원불교를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80% 이상이 남편의 가족 정보가 정확했다고 평가한 반면 기독교/개신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경우 4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배우자의 직업 정보와 관련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25>와 같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 연령에 따라 남편 배우자 가족 정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남편의 직업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거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85%가 배우자 직업에 대한 정보가 정확했다고 응답한 반면 2년 이하의 경우 64%로 낮게 나타났고, 40대 여성의 경우 74.8%인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55.0%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배우자의 직업 정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낮거나 혹은 높은 여성에 비해 중간 정도도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 직업정보가 비교적 정확하였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력과 전문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직업정보가 정확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각각 73.8%와 65.5%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과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 58.9%와 51.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도 배우자의 직업정보에 대한 평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국적 여성의 경우 남편 배우자의 직업정보가 상대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본 국적 여성의 경우 배우자 직업정보가 정확하다고 평가한 여성이 86.2%로 필리핀 여성의 41.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국가의 여성에 비해서도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의 경우 불교와 원불교 및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남편 배우자의 직업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이들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들 중에 70% 이상이 남편의 직업 정보가 정확했다고 평가한 반면에 기독교 및 개신교를 믿고

있는 여성은 42.3%가, 종교를 믿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68.6%만이 남편 배우자의 직업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남편 직업정보가 결혼 전에 들었던 것과 결혼 후 확인했을 때 차이가 없이 정확했다고 평가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으며, 교육수준이 중간 정도인, 그리고 일본 국적이나 조선족 여성과 통일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표 4-2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남편 가족 정보 차이 분석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남편 가족 정보 차이			합계		검증
		거의 없다	약간이다	매우 크다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64.6	27.8	7.6	100.0	144	X <sup>2</sup> =40.78, p<.001
	2-5년 이하	59.9	29.9	10.2	100.0	147	
	6-9년 이하	73.0	21.9	5.1	100.0	178	
	10년 이상	90.6	5.0	4.3	100.0	139	
합 계		71.9	21.4	6.7	100.0	608	
연령	20대	62.4	28.2	9.4	100.0	149	X <sup>2</sup> =11.75, p<.06
	30대 초반	71.7	22.2	6.1	100.0	180	
	39대 후반	75.0	17.9	7.1	100.0	156	
	40대	79.7	16.3	4.1	100.0	123	
합 계		71.9	21.4	6.7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70.2	21.0	8.9	100.0	124	X <sup>2</sup> =29.88, p<.001
	고등학교	81.5	13.5	5.0	100.0	260	
	전문대학	66.4	28.4	5.2	100.0	116	
	대학교이상	56.1	33.6	10.3	100.0	107	
합 계		71.8	21.4	6.8	100.0	607	
국적	일본	87.6	6.2	6.2	100.0	145	X <sup>2</sup> =154.52, p<.001
	필리핀	44.0	45.0	11.0	100.0	209	
	베트남	78.1	6.3	15.6	100.0	32	
	조선족	92.5	6.4	1.1	100.0	187	
	기타	61.5	34.6	3.8	100.0	26	
합 계		72.3	21.0	6.7	100.0	599	
종교	종교 없음	88.4	9.1	2.5	100.0	121	X <sup>2</sup> =82.18, p<.001
	개신기독교	43.8	43.8	12.4	100.0	137	
	불원불교	83.0	13.2	3.8	100.0	53	
	통일교	75.8	17.4	6.8	100.0	219	
	기타	85.7	12.5	1.8	100.0	56	
합 계		72.5	21.0	6.5	100.0	586	

<표 4-2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 직업 정보 차이 분석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남편의 직업 정보 차이			합계		검증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크다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63.9	26.4	9.7	100.0	144	X <sup>2</sup> =41.11, p<.001
	2-5년 이하	49.7	32.7	17.7	100.0	147	
	6-9년 이하	65.2	26.4	8.4	100.0	178	
	10년 이상	83.5	7.9	8.6	100.0	139	
합 계		65.3	23.7	11.0	100.0	608	
연령	20대	55.0	30.9	14.1	100.0	149	X <sup>2</sup> =17.39, p<.01
	30대 초반	61.1	27.8	11.1	100.0	180	
	39대 후반	72.4	17.9	9.6	100.0	156	
	40대	74.8	16.3	8.9	100.0	123	
합 계		65.3	23.7	11.0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58.9	26.6	14.5	100.0	124	X <sup>2</sup> =21.33, p<.01
	고등학교	73.8	18.8	7.3	100.0	260	
	전문대학	65.5	21.6	12.9	100.0	116	
	대학교이상	51.4	34.6	14.0	100.0	107	
합 계		65.2	23.7	11.0	100.0	607	
국적	일본	86.2	7.6	6.2	100.0	145	X <sup>2</sup> =105.92, p,.001
	필리핀	41.1	45.0	13.9	100.0	209	
	베트남	78.1	9.4	12.5	100.0	32	
	조선족	75.4	15.0	9.6	100.0	187	
	기타	57.7	19.2	23.1	100.0	26	
합 계		65.4	23.5	11.0	100.0	599	
종교	종교없음	68.6	15.7	15.7	100.0	121	X <sup>2</sup> =54.45, p<.001
	개신기독교	42.3	43.8	13.9	100.0	137	
	불원불교	75.5	18.9	5.7	100.0	53	
	통일교	72.1	19.2	8.7	100.0	219	
	기타	80.4	12.5	7.1	100.0	56	
합 계		65.5	23.5	10.9	100.0	586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소득정보에 관해 결혼 전에 들었던 정보와 결혼 후에 알게 된 사실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27>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으며, 중간 정도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으며, 일본 및 베트남 국적의 여성, 그리고 통일교 및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편 배우자 소득에 관한 정보가 결혼 전에 들었던 것과 결혼 후에 알게 된 것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71.9%로 2-5년 정도의 여성 38.1%보다 30% 이상 많았으며, 40대 여성이 66.7%로 20대 여성의 45.0%에 비해 20% 이상 많았으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이 63.5%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39.3%보다 25% 정도 많았고, 일본 국적의 여성이 80.7%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 34.4%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그리고 통일교 및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60% 이상으로 종교가 없는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35.0%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남편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정보가 결혼 전에 들었던 것과 결혼 후에 알게 된 것 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16.8%로 40대 여성의 9.8%에 비해 7% 정도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17.8%로 고등학교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7.7%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기타 국적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각각 30.8%와 15.6%로서 일본 국적의 여성 7.6%에 비해 2-4배 정도 많았고, 종교가 없는 여성이 17.4%로 기타 종교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7.1%와 10.5%에 비해 많았다.

<표 4-2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배우자 소득 정보 차이 분석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남편 배우자 소득 정보의 차이			합계		검증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크다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50.7	36.1	13.2	100.0	144	X <sup>2</sup> =36.34, p<.001
	2-5년 이하	38.1	47.6	14.3	100.0	147	
	6-9년 이하	54.5	34.8	10.7	100.0	178	
	10년 이상	71.9	17.3	10.8	100.0	139	
합 계		53.6	34.2	12.2	100.0	608	
연령	20대	45.0	38.3	16.8	100.0	149	X <sup>2</sup> =16.68, p<.01
	30대 초반	49.4	39.4	11.1	100.0	180	
	39대 후반	56.4	32.7	10.9	100.0	156	
	40대	66.7	23.6	9.8	100.0	123	
합 계		53.6	34.2	12.2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45.2	40.3	14.5	100.0	124	X <sup>2</sup> =24.77, p<.001
	고등학교	63.5	28.8	7.7	100.0	260	
	전문대학	53.4	31.9	14.7	100.0	116	
	대학교이상	39.3	43.0	17.8	100.0	107	
합 계		53.5	34.3	12.2	100.0	607	
국적	일본	80.7	11.7	7.6	100.0	145	X <sup>2</sup> =90.09, p<.001
	필리핀	34.4	51.2	14.4	100.0	209	
	베트남	65.6	18.8	15.6	100.0	32	
	조선족	54.0	35.8	10.2	100.0	187	
	기타	50.0	19.2	30.8	100.0	26	
합 계		54.1	33.7	12.2	100.0	599	
종교	종교없음	52.1	30.6	17.4	100.0	121	X <sup>2</sup> =40.20, p<.001
	개신기독교	35.0	52.6	12.4	100.0	137	
	불원불교	54.7	34.0	11.3	100.0	53	
	통일교	63.5	26.0	10.5	100.0	219	
	기타	69.6	23.2	7.1	100.0	56	
합 계		54.3	33.6	12.1	100.0	586	

끝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결혼 전에 배우자가 약속했던 여성의 본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결혼 이후 실제 지원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2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거주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으며, 중간 정도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으며, 일본이나 조선족, 그리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 기독교와 개신교를 제외한 기타 종교를 믿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가 지원에 대한 남편 배우자의 지원약속과 실제 지원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편 배우자의 결혼 전 본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약속과 결혼 후 실제 지원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55.1%로 2년 이하의 여성 43.1%에 비해 12% 정도 많았으며, 30-40대 여성이 50% 수준으로 20대 여성 43%에 비해 많았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이 57.3%로 대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의 37.4%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그리고 일본이나 조선족 여성이 60% 정도로서 필리핀 국적의 여성 31.6%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기타 종교를 믿고 있거나 원불교, 불교,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이 50-75% 수준으로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29%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결혼 전 남편 배우자가 약속한 본가에 대한 경제적 약속과 실제 결혼 후 지원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35.3%로서 2년 이하 여성의 20.1%에 비해 15% 정도 많았으며, 40대의 이주여성이 33.3%로 20대 여성 22.8%에 비해 10%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31.8%로 중학교 학력의 여성 21.8%보다 10% 많았다. 그리고 기타 국적의 여성과 일본 국적의 여성이 30% 이상으로서 조선족 여성의 1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8.8%로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 10.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4-2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본국 경제적 지원 인식 분석

단위 : 명, %

변수	범 주	본가 경제적 지원 정보 차이			합계		검증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크다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43.1	36.8	20.1	100.0	144	X <sup>2</sup> =44.16, p<.001
	2-5년 이하	40.1	36.7	23.1	100.0	147	
	6-9년 이하	56.7	25.3	18.0	100.0	178	
	10년 이상	55.4	9.4	35.3	100.0	139	
합 계		49.2	27.1	23.7	100.0	608	
연령	20대	43.0	34.2	22.8	100.0	149	X <sup>2</sup> =34.33, p<.001
	30대 초반	47.8	37.2	15.0	100.0	180	
	39대 후반	55.1	17.9	26.9	100.0	156	
	40대	51.2	15.4	33.3	100.0	123	
합 계		49.2	27.1	23.7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44.4	33.9	21.8	100.0	124	X <sup>2</sup> =16.95, p<.01
	고등학교	57.3	21.5	21.2	100.0	260	
	전문대학	46.6	29.3	24.1	100.0	116	
	대학교이상	37.4	30.8	31.8	100.0	107	
합 계		49.1	27.2	23.7	100.0	607	
국적	일본	60.0	9.0	31.0	100.0	145	X <sup>2</sup> =72.19, p<.001
	필리핀	31.6	43.5	24.9	100.0	209	
	베트남	53.1	25.0	21.9	100.0	32	
	조선족	59.4	25.7	15.0	100.0	187	
	기타	46.2	15.4	38.5	100.0	26	
합 계		48.9	27.4	23.7	100.0	599	
종교	종교없음	53.7	24.0	22.3	100.0	121	X <sup>2</sup> =55.27, p<.001
	개신기독교	29.2	47.4	23.4	100.0	137	
	불원불교	54.7	26.4	18.9	100.0	53	
	통일교	51.1	20.1	28.8	100.0	219	
	기타	75.0	14.3	10.7	100.0	56	
합 계		49.1	27.3	23.5	100.0	586	



# 제 5 장

## 이주여성의 국내입국과 적응과정 분석

- 제 1 절 국내 입국을 위한 사전준비 현황 분석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적응노력 분석
- 제 3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의 지원 실태
- 제 4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 실태



## 제 5 장 이주여성의 국내입국과 적응과정 분석

### 제 1 절 국내 입국을 위한 사전준비 현황 분석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적 네트워크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기 전에 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사적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며, 국내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준비는 어느 정도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5-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형태의 사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적 네트워크를 살펴 보았는데, 전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40.8%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59.2%는 부모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사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사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주여성 가운데 친구 형태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 15.8%, 그리고 부모가 국내에 살고 있는 경우와 이웃이 살고 있는 경우가 각각 4.1%와 2.8%를 차지하였다.

<표 5-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입국 전 사적 네트워크 실태 분석

단위 : 명, %

사적 네트워크 유형	부모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아무도 없음
빈 도	25	96	243	17	19	248
비 율	4.1	15.8	40.0	2.8	3.1	40.8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갖고 있는 사적 네트워크 형태를 부모와 가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나머지 친구, 이웃, 기타를 하나로 묶어서 부모가족

네트워크(14.4%)와 친구이웃 네트워크(44.4%)로 크게 분류하였고, 이들 2가지 네트워크 각각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표 5-2>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들의 부모가족 네트워크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응답자의 거주기간(결혼시점) 변수를 제외하고 국적, 종교, 한국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입국 이전에 부모나 가족 등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 3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여성이 17.2%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국가의 여성도 19.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일본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각각 6.9%와 6.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에 따라서도 부모가족 네트워크 소유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모가족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종교가 없는 여성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과 개신교/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각각 28.6%와 20.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불교와 원불교를 믿거나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각각 18.9%와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서 국내에 부모가족 네트워크 소유 여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부모가족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2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적을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이 20.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한국 국적 취득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은 6.1%로 매우 낮았다.

<표 5-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부모가족 사적 네트워크 분석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부모가족 네트워크		합 계		검 증
		없음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82.6	17.4	100.0	144	X <sup>2</sup> =5.30, p>.05
	2-5년 이하	81.6	18.4	100.0	147	
	6-9년 이하	75.8	24.2	100.0	178	
	10년 이하	85.6	14.4	100.0	139	
합 계		81.1	18.9	100.0	608	
국적	일본	93.1	6.9	100.0	145	X <sup>2</sup> =37.17, p<.001
	필리핀	82.8	17.2	100.0	209	
	베트남	93.8	6.3	100.0	32	
	조선족	68.4	31.6	100.0	187	
	기 타	80.8	19.2	100.0	26	
합 계		81.3	18.7	100.0	599	
종교	종교 없음	70.2	29.8	100.0	121	X <sup>2</sup> =25.27, p<.001
	개신기독교	79.6	20.4	100.0	137	
	불원불교	81.1	18.9	100.0	53	
	통일교	90.4	9.6	100.0	219	
	기 타	71.4	28.6	100.0	56	
합 계		81.1	18.9	100.0	586	
한국 국적 취득계획	국적 있음	76.4	23.6	100.0	267	X <sup>2</sup> =16.10, p<.001
	계획 있음	79.8	20.2	100.0	198	
	계획 없음	93.9	6.1	100.0	114	
합 계		81.0	19.0	100.0	579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친척이웃 네트워크 소유 여부에 대한 분석은 <표 5-3>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결혼시점) 변수를 제외하고 국적, 종교,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친척이웃

네트워크 소유 여부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친구이웃 사적 네트워크 소유 차이를 보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국내에 친구이웃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 및 기타 국적의 여성이 각각 66.2%와 4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조선족 및 필리핀 여성이 각각 38.5%와 38.3%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베트남 여성의 경우 2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에 따른 친구이웃 사적 네트워크 차이를 보면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경우 국내에 친구이웃 사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5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타 종교를 믿는 이주여성이 42.9%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개신교/기독교 및 불교/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국내에 친구이웃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약 30-35%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서도 국내 친구이웃 네트워크 소유 여부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국내에 친구이웃 사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여성 가운데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없는 여성이 69.3%로 많은 반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혹은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은 약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친구이웃 사적 네트워크 분석

단위 : 명, %

변 수	범 주	친구이웃 네트워크		합 계		검 증
		없음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59.7	40.3	100.0	144	X <sup>2</sup> =2.26, p>.05
	2-5년 이하	57.1	42.9	100.0	147	
	6-9년 이하	55.6	44.4	100.0	178	
	10년 이하	51.1	48.9	100.0	139	
합	계	55.9	44.1	100.0	608	
국적	일본	33.8	66.2	100.0	145	X <sup>2</sup> =40.31, p<.001
	필리핀	61.7	38.3	100.0	209	
	베트남	78.1	21.9	100.0	32	
	조선족	61.5	38.5	100.0	187	
	기 타	53.8	46.2	100.0	26	
합	계	55.4	44.6	100.0	599	
종교	종교 없음	64.5	35.5	100.0	121	X <sup>2</sup> =28.09, p<.001
	개신기독교	63.5	36.5	100.0	137	
	불원불교	69.8	30.2	100.0	53	
	통일교	42.0	58.0	100.0	219	
	기 타	57.1	42.9	100.0	260	
합	계	55.6	44.4	100.0	586	
한국 국적 취득 계획	국적 있음	61.8	38.2	100.0	267	X <sup>2</sup> =33.47, p<.001
	계획 있음	59.1	40.9	100.0	198	
	계획 없음	30.7	69.3	100.0	114	
합	계	54.7	45.3	100.0	579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문화) 준비 상황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사적 네트워크는 국내생활 적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제 결혼 이주여성이 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준비를 어느 정도 했으며, 실제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표 5-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문화나 남편 가족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에 대한 준비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문화와 남편 가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한국어 준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먼저 한국문화를 비롯하여 남편가족에 대한 이해, 한국어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여성이 각각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고, 준비를 약간 한 경우 또한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문화와 남편의 가족에 대한 이해 준비와 한국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 여성은 14-17% 수준에 불과하여 많지 않았다.

<표 5-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입국에 앞서 한국문화 및 한국어 준비 실태

단위 ; %, 명

내 용	준비 상황	많이 준비	약간 준비	준비 못함	합 계	
					비율	빈도
한국문화 이해		14.1	44.9	41.0	100.0	608
남편 가족 이해		17.4	41.0	41.6	100.0	608
한국어		16.9	42.8	40.3	100.0	608

이상의 3가지 내용에 대한 준비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어에 대한 준비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5>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결혼시점), 본국에서의 직업, 그리고 국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학력과 종교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 준비 차이를 보면 최근 결혼한 여성의 경우 준비를 많이 한 반면 오래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국어 준비를 많이 했다고 응답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서는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여성이 20% 이상으로 6 - 9년 혹은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 10%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어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10년 전에 입국한 여성이 48.9%로 최근(1-2년 전) 입국한 여성 31.3%에 비해 17.6%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준비 상황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국에서 임금노동자였거나 혹은 공무원 및 사무직에 종사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한국어 준비를 하지 못한 반면 가사 및 가족무급 종사자의 경우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국어 준비를 많이 한 여성 중에는 가족무급 및 가사노동에 종사한 여성이 약 22%로서 임금노동자 및 공무원/사무직 종사자의 1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를 준비하지 못한 여성 중에는 임금노동자 및 공무원/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실직자를 포함하여 기타 범주의 여성이 약 45%로서 가족무급 종사자와 가사노동 종사 여성의 27-28%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서도 한국어 준비 상황이 차이를 보이는데, 필리핀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어 준비를 많이 한 반면 일본이나 조선족 그리고 기타 국적의 여성은 한국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국어를 많이 준비한 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 여성이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22.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 국적의 여성은 9.0%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한국어를 준비하지 않은 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의 여성이 4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선족 및 기타 국적의 여성이 40% 이상으로 많은 반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21.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5-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 준비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한국어 준비 상황			합 계		검 증
		많이 준비	약간 준비	준비 못함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1.5	47.2	31.3	100.0	144	X <sup>2</sup> =16.01, p<.01
	2-5년 이하	22.4	40.1	37.4	100.0	147	
	6-9년 이하	12.9	43.8	43.3	100.0	178	
	10년 이상	11.5	39.6	48.9	100.0	139	
합	계	16.9	42.8	40.3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16.9	41.9	41.1	100.0	124	X <sup>2</sup> =.606, p>.05
	고등학교	15.8	43.8	40.4	100.0	260	
	전문대학	18.1	43.1	38.8	100.0	116	
	대학교이상	17.8	41.1	41.1	100.0	107	
합	계	16.8	42.8	40.4	100.0	607	
본국에서 직업	가족무급	22.2	50.5	27.3	100.0	99	X <sup>2</sup> =15.98, p<.05
	임금노동	14.0	40.3	45.7	100.0	129	
	공직사무	13.6	42.0	44.4	100.0	169	
	가사	22.1	48.5	29.4	100.0	68	
	기타실직	17.5	37.8	44.8	100.0	143	
합	계	16.9	42.8	40.3	100.0	608	
국적	일본	9.0	44.1	46.9	100.0	145	X <sup>2</sup> =20.27, p<.01
	필리핀	22.0	43.1	34.9	100.0	209	
	베트남	31.3	46.9	21.9	100.0	32	
	조선족	15.0	41.2	43.9	100.0	187	
	기타	11.5	46.2	42.3	100.0	26	
합	계	16.7	43.1	40.2	100.0	599	
종교	종교 없음	18.2	46.3	35.5	100.0	121	X <sup>2</sup> =10.08, p>.05
	개신기독교	21.9	40.9	37.2	100.0	137	
	불원불교	18.9	43.4	37.7	100.0	137	
	통일교	13.2	45.2	41.6	100.0	219	
	기타	12.5	33.9	53.6	100.0	56	
합	계	16.7	43.2	40.1	100.0	586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할 당시 한국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6>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1/4 수준에 불과하였고, 약간 이해한 경우는 3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 반면에 40% 이상은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어에 대한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리고 쓰기 내용을 합하여 전체 한국어 능력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앞의 분석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입국 당시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 편이고, 그런 까닭에 이들의 국내생활 적응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5-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입국 당시 한국어 이해 수준 실태

단위 : %, 명

한국어 내용 구분	이해 수준	대체로 이해	약간 이해	이해 못함	합 계	
					비율	빈도
한국어 말하기		24.7	34.5	40.8	100.0	608
한국어 듣기		24.8	33.9	41.3	100.0	608
한국어 읽기		24.3	33.6	42.1	100.0	608
한국어 쓰기		22.4	31.3	46.4	100.0	608
한국어 능력(합)		25.0	28.5	46.5	100.0	608

다른 한편, 본 연구는 한국어 능력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7>과 같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한국어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 연령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긴 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능력이 낮은 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여성이 54.0%로서 국내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여성의 경우 약 35%에 비해 약 20% 정도 높았다. 반면 한국어 능력이 높은 여성의 경우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슷하였지만 보통 수준인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여성이 10년 이상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990년 중반 이후 결혼한 여성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좋은 반면 199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국어 능력이 낮은 여성 중에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여성이 45-55% 수준인 반면 30대 초반 이하는 30-37% 수준으로 그 차이가 상당하였다. 반면에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는 30대 초반 여성이 31.1%로서 40대 여성 13.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한국어 능력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국어 능력이 낮은 여성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약 50% 정도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약 30%에 비해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여성 중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30% 이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약 9%에 비해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본국 직업에 따라서도 한국어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임금노동자를 비롯하여 가족무급 종사자 및 가사노동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직을 비롯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한 여성이나 공무원 및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도 한국어 능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족의 경우 다른 국적의 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조선족 여성의 경우 69.0%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국적 여성의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매우 컸다. 반면에 국내 입국 당시 한국어 능력이 열악한 여성 중에는 일본 여성이 7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국적의 여성이 69.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거나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과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입국 당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여성 중에는 종교가 없는 여성과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각각 57.9%와 53.6%를 차지한 반면 개신교 및 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과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경우 각각 10.2%와 6.4%로 매우 낮았다.

<표 5-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어 능력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한국어 능력 수준			합 계		검증
		우 수	보 통	열 약	비율	빈도	
거주 기간	2년 이하	19.4	41.7	38.9		144	X <sup>2</sup> =21.88, p<.001
	2-5년 이하	24.5	38.1	37.4	100.0	147	
	6-9년 이하	28.1	37.1	34.8	100.0	178	
	10년 이상	25.9	20.1	54.0	100.0	139	
합 계		24.7	34.5	40.8	100.0	608	
연령	20대	22.8	39.6	37.6	100.0	149	X <sup>2</sup> =25.28, p<.001
	30대 초반	31.1	38.3	30.6	100.0	180	
	39대 후반	27.6	27.6	44.9	100.0	156	
	40대	13.8	31.7	54.5	100.0	123	
합 계		24.7	34.5	40.8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36.3	35.5	28.2	100.0	124	X <sup>2</sup> =53.89, p<.001
	고등학교	32.3	31.9	35.8	100.0	260	
	전문대학	8.6	33.6	57.8	100.0	116	
	대학교이상	9.3	41.1	49.5	100.0	107	
합 계		24.5	34.6	40.9	100.0	607	
직업	가족무급	26.3	48.5	25.3	100.0	99	X <sup>2</sup> =52.26, p<.001
	임금노동	34.1	27.9	38.0	100.0	129	
	공직사무	23.1	24.3	52.7	100.0	169	
	가사	27.9	52.9	19.1	100.0	68	
	기타실직	15.4	34.3	50.3	100.0	143	
합 계		24.7	34.5	40.8	100.0	608	
국적	일본	2.1	20.7	77.2	100.0	145	X <sup>2</sup> =371.06, p<.001
	필리핀	4.3	51.2	44.5	100.0	209	
	베트남	6.3	68.8	25.0	100.0	32	
	조선족	69.0	23.5	7.5	100.0	187	
	기타	15.4	15.4	69.2	100.0	26	
합 계		24.5	34.6	40.9	100.0	599	
종교	종교 없음	57.9	33.1	9.1	100.0	121	X <sup>2</sup> =188.06, p<.001
	개신기독교	10.2	48.2	41.6	100.0	137	
	불원불교	30.2	34.0	35.8	100.0	53	
	통일교	6.4	30.1	63.5	100.0	219	
	기타	53.6	23.2	23.2	100.0	56	
합 계		24.6	34.6	40.8	100.0	586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적응노력 분석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 참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원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사소통의 원활한 능력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사회 및 가족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래 8가지 프로그램들 가운데 한 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특히 직업기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는 82.6%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 및 가족관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이 7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은 50-54%로 가장 낮았지만 여전히 과반수로서 높은 비율이다.

반면에 1-2회 교육을 받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문화 이해를 비롯하여 한국어 교육 및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기술교육이나 가족 및 자녀관계 증진 관련 교육을 받은 여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과 한국음식 만들기, 그리고 한국문화 이해 교육이 각각 27.3%와 18.3%, 그리고 17.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기술 교육이나 취미 여가 교육을 3회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각각 6.4%와 10.5%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가족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자녀교육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는 약 11%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5-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입국 이후 한국사회 이해 교육참여 실태

단위 : %, 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정도	경험 없음	1-2회 받음	3회 이상	합 계	
					비율	빈도
한국어 교육		54.1	18.6	27.3	100.0	608
한국문화 이해		50.8	31.4	17.8	100.0	608
한국음식 만들기		61.8	19.9	18.3	100.0	608
직업기술 교육		82.6	11.0	6.4	100.0	608
가족관계 증진 교육		75.8	12.5	11.7	100.0	608
자녀교육 관련 교육		76.0	12.8	11.2	100.0	608
취미/여가 교육		72.9	16.6	10.5	100.0	608
부부 동시참여 교육		67.6	20.6	11.8	100.0	608

다른 한편, 본 연구는 8가지 교육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비롯하여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자녀지도 교육 관련 교육, 부부 공동참여 교육, 그리고 직업기술 교육의 참여 등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해 보았다.

<표 5-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참여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응답자의 현재 연령을 제외하면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 교육 참여 차이를 검토해 보면,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은 비슷하였지만 받은 빈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어 교육을 3회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최근 이주한 여성과 10년 전에 국내에 들어온 여성이 각각 34-35%로서 국내에 6-9년 거주한 여성 18.0%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은 이주여성일수록 한국어 교육 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이 36.4%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17.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여성의 종교에 따른 한국어 교육 경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3회 이상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통일교를 믿고 있거나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43.4%와 28.5%로 종교가 없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주여성 8%에 비해 4-5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불교와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경우 22.6%로 중간수준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국적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경험 차이를 분석하면, 조선족의 경우 한글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탓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기타 국적의 여성과 일본 국적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예를 들면, 3회 이상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는 기타 국적의 여성이 6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본 국적의 여성이 46.2%, 필리핀 여성이 30.6%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한국어 교육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10>과 같다. 즉 국내에 입국 당시 한글 능력이 낮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으며, 현재 전업주부 및 기타 업무를 갖고 있는 여성이, 현재 노동시간이 적은 여성이, 가사노동시간이 많지 않은 여성이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을 3회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입국당시 한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여성이 38.5%로 이해가 높은 여성의 3.9%에 비해 9배 정도 많았고, 전업주부가 31.7%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19.1%에 비해 13% 정도 많았고, 현재 노동시간이 없는 여성이 32.3%로 하루 9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여성 24.0%에 비해 8.3% 많았으며, 그리고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적은 여성이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어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한국어 교육 경험			합 계		검 증
		없 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52.1	13.9	34.0	100.0	144	X <sup>2</sup> =18.71, p<.01
	3 - 5	54.4	21.1	24.5	100.0	147	
	6 - 9	58.4	23.6	18.0	100.0	178	
	10년 이상	50.4	14.4	35.3	100.0	139	
합 계		54.1	18.6	27.3	100.0	608	
현재나이	20대	57.0	17.4	25.5	100.0	149	X <sup>2</sup> =8.03, p>.05
	30 - 34	59.4	16.1	24.4	100.0	180	
	35 -39	51.9	21.8	26.3	100.0	156	
	40대 이상	45.5	19.5	35.0	100.0	123	
합 계		54.1	18.6	27.3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73.4	8.9	17.7	100.0	124	X <sup>2</sup> =52.45, p<.001
	고등학교	60.4	15.4	24.2	100.0	260	
	전문대학	37.1	27.6	35.3	100.0	116	
	대학교이상	35.5	28.0	36.4	100.0	107	
합 계		54.2	18.6	27.2	100.0	607	
종교	종교 없음	87.6	4.1	8.3	100.0	121	X <sup>2</sup> =117.15, p<.001
	개신기독교	43.8	27.7	28.5	100.0	137	
	불원불교	66.0	11.3	22.6	100.0	53	
	통일교	33.8	22.8	43.4	100.0	219	
	기타	73.2	17.9	8.9	100.0	56	
합 계		53.9	18.6	27.5	100.0	586	
국적	일본	31.7	22.1	46.2	100.0	145	X <sup>2</sup> =182.70 p<.001
	필리핀	38.8	30.6	30.6	100.0	209	
	베트남	62.5	9.4	28.1	100.0	32	
	조선족	91.4	4.8	3.7	100.0	187	
	기타	23.1	15.4	61.5	100.0	26	
합 계		54.1	18.7	27.2	100.0	599	

<표 5-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한국어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한국어 교육 경험			합 계		검 증
		없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입국당시한글 능력	이해 높음	89.5	6.6	3.9	100.0	152	X <sup>2</sup> =107.64, p<.001
	이해중간	47.4	23.1	29.5	100.0	173	
	이해부족	39.2	22.3	38.5	100.0	283	
합 계		54.1	18.6	27.3	100.0	608	
현재 직업	농업	63.8	17.1	19.1	100.0	152	X <sup>2</sup> =16.89, p<.01
	전업주부	47.1	21.1	31.7	100.0	331	
	취업임금	64.0	13.3	22.7	100.0	75	
	기타	56.0	14.0	30.0	100.0	50	
합 계		54.1	18.6	27.3	100.0	608	
현재 노동시간	0	47.0	20.7	32.3	100.0	319	X <sup>2</sup> =15.35, p<.001
	1-8시간	61.1	18.1	20.7	100.0	193	
	9시간 이상	63.5	12.5	24.0	100.0	96	
합 계		54.1	18.6	27.3	100.0	608	
가사노동 참여시간	0	50.8	20.8	28.4	100.0	183	X <sup>2</sup> =13.45, p<.05
	1-3시간	51.0	17.9	31.0	100.0	145	
	4-6시간	62.8	12.2	25.0	100.0	180	
	7시간 이상	49.0	27.0	24.0	100.0	100	
합 계		54.1	18.6	27.3	100.0	608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참여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5-1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긴 여성이, 나이가 많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개신교/기독교와 통일교를 믿는 여성이, 그리고 일본, 필리핀, 다른 국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 이해 교육에 3회 이상 참여한 이주여성 중에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28.8%로 다른 여성의 15% 수준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40세 이상 여성이 26.8%로 20대 여성의 11.4%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29.0%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9.7%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3회 이상 한국문화 교육에 참여한 이주여성 중에는 통일교를 믿고 있거나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주여성이 각각 31.1%와 16.8%로서 종교를 믿지 않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5% 수준에 비해 각각 6배와 5배 이상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 한국문화 교육참여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족 여성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높은 탓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에 3회 이상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의 여성과 기타 국적 여성이 각각 32.4%와 26.9%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12.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에 관한 <표 5-12>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할 당시 한글능력과 현재의 직업, 현재의 노동시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3회 이상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에 입국할 당시 한글능력이 부족한 여성이 23.7%로 이해가 높은 여성 5.3%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13.2%로 가장 적었으며, 노동시간이 짧은 여성이 노동시간이 긴 여성에 비해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한국문화 이해 교육 참여			합 계		검 증
		없 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63.9	20.8	15.3	100.0	144	X <sup>2</sup> =32.09 p<.001
	3 - 5	55.8	30.6	13.6	100.0	147	
	6 - 9	47.2	38.2	14.6	100.0	178	
	10년 이상	36.7	34.5	28.8	100.0	139	
합	계	50.8	31.4	17.8	100.0	608	
현재나이	20대	63.1	25.5	11.4	100.0	149	X <sup>2</sup> =26.81 p<.001
	30 - 34	56.1	30.6	13.3	100.0	180	
	35 -39	43.6	34.6	21.8	100.0	156	
	40대	37.4	35.8	26.8	100.0	123	
합	계	50.8	31.4	17.8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68.5	21.8	9.7	100.0	124	X <sup>2</sup> =33.40 p<.001
	고등학교	50.8	33.8	15.4	100.0	260	
	전문대학	38.8	40.5	20.7	100.0	116	
	대학교이상	43.9	27.1	29.0	100.0	107	
합	계	50.9	31.5	17.6	100.0	607	
종교	종교 없음	68.6	25.6	5.8	100.0	121	X <sup>2</sup> =69.98 p<.001
	개신기독교	51.1	32.1	16.8	100.0	137	
	불원불교	64.2	28.3	7.5	100.0	53	
	통일교	31.5	37.4	31.1	100.0	219	
	기타	60.7	33.9	5.4	100.0	56	
합	계	49.5	32.6	17.9	100.0	586	
국적	일본	28.3	39.3	32.4	100.0	145	X <sup>2</sup> =89.20 p<.001
	필리핀	45.5	33.0	21.5	100.0	209	
	베트남	78.1	9.4	12.5	100.0	32	
	조선족	69.5	28.3	2.1	100.0	187	
	기타	38.5	34.6	26.9	100.0	26	
합	계	50.3	31.9	17.9	100.0	599	

<표 5-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한국문화 이해 교육 참여 경험			합 계		검 증
		없 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입국당시한글 능력	이해높음	64.5	30.3	5.3	100.0	152	X <sup>2</sup> =26.90, p<.001
	이해중간	48.0	32.9	19.1	100.0	173	
	이해부족	45.2	31.1	23.7	100.0	283	
합 계		50.8	31.4	17.8	100.0	608	
현재직업	농업	53.3	33.6	13.2	100.0	152	X <sup>2</sup> =13.71, p<.05
	전업주부	47.1	34.4	18.4	100.0	331	
	취업임금	62.7	20.0	17.3	100.0	75	
	기타	50.0	22.0	28.0	100.0	50	
합 계		50.8	31.4	17.8	100.0	608	
현재노동시간	0	47.0	33.2	19.7	100.0	319	X <sup>2</sup> =10.92, p<.05
	1-8시간	50.3	34.2	15.5	100.0	193	
	9시간 이상	64.6	19.8	15.6	100.0	96	
합 계		50.8	31.4	17.8	100.0	608	
가사노동 참여시간	0	56.3	25.1	18.6	100.0	183	X <sup>2</sup> =7.48, p>.05
	1-3시간	47.6	33.8	18.6	100.0	145	
	4-6시간	52.2	32.8	15.0	100.0	180	
	7시간 이상	43.0	37.0	20.0	100.0	100	
합 계		50.8	31.4	17.8	100.0	608	

그리고 본 연구는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들의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표 5-13>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 연령, 학력수준, 국적, 그리고 종교에 따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1회 이상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에 참여한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47.5%로 2년 이하인 여성 29.2%에 비해 20% 정도 많았고,

40세 이상 여성이 48.6%로 20대 여성 31.5%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48.6%로 중학교 이하의 여성 24.2%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에 따라서도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참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3회 이상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통일교 및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0% 이상으로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 10% 이하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국적의 경우 조선족 여성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기타 국적의 여성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여성이 각각 20% 수준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14>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직업이나 노동시간,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국내 입국 당시 한글 능력에 따라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3회 이상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에 참여한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 입국 당시 한글 능력수준이 낮은 여성이 24.0%로 한글 능력이 우수한 여성 5.3%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표 5-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참여 경험			합 계		검 증
		없 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70.8	10.4	18.8	100.0	144	X <sup>2</sup> =21.59, p<.001
	3 - 5	63.3	16.3	20.4	100.0	147	
	6 - 9	60.7	26.4	12.9	100.0	178	
	10년 이상	52.5	25.2	22.3	100.0	139	
합	계	61.8	19.9	18.3	100.0	608	
현재나이	20대	68.5	16.8	14.8	100.0	149	X <sup>2</sup> =15.05, P<.05
	30 - 34	65.0	15.0	20.0	100.0	180	
	35 -39	60.9	24.4	14.7	100.0	156	
	40대	50.4	25.2	24.4	100.0	123	
합	계	61.8	19.9	18.3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75.8	12.9	11.3	100.0	124	X <sup>2</sup> =26.30, p<.001
	고등학교	65.8	17.3	16.9	100.0	260	
	전문대학	48.3	28.4	23.3	100.0	116	
	대학교이상	51.4	25.2	23.4	100.0	107	
합	계	61.9	19.9	18.1	100.0	607	
종교	종교없음	81.0	11.6	7.4	100.0	121	X <sup>2</sup> =42.52, p<.001
	개신기독교	59.9	19.0	21.2	100.0	137	
	불원불교	69.8	18.9	11.3	100.0	53	
	통일교	47.9	25.6	26.5	100.0	219	
	기타	64.3	25.0	10.7	100.0	56	
합	계	61.1	20.5	18.4	100.0	586	
국적	일본	51.7	22.1	26.2	100.0	145	X <sup>2</sup> =65.54, p<.001
	필리핀	53.1	23.0	23.9	100.0	209	
	베트남	71.9	6.3	21.9	100.0	32	
	조선족	79.7	18.2	2.1	100.0	187	
	기타	38.5	19.2	42.3	100.0	26	
합	계	61.4	20.2	18.4	100.0	599	

<표 5-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참여 경험			합 계		검 증
		없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입국당시 한글 능력	이해높음	73.7	21.1	5.3	100.0	152	X <sup>2</sup> =24.51, p<.001
	이해중간	59.5	20.2	20.2	100.0	173	
	이해부족	56.9	19.1	24.0	100.0	283	
합	계	61.8	19.9	18.3	100.0	608	
현재직업	농업	65.8	22.4	11.8	100.0	152	X <sup>2</sup> =9.82, p>.05
	전업주부	59.8	18.4	21.8	100.0	331	
	취업임금	68.0	17.3	14.7	100.0	75	
	기타	54.0	26.0	20.0	100.0	50	
합	계	61.8	19.9	18.3	100.0	608	
현재노동시간	0	60.2	19.1	20.7	100.0	319.	X <sup>2</sup> =3.55, p>.05
	1-8시간	62.7	22.3	15.0	100.0	193	
	9시간 이상	65.6	17.7	16.7	100.0	96	
합	계	61.8	19.9	18.3	100.0	608	
현재 가사노동	0	66.7	14.8	18.6	100.0	183	X <sup>2</sup> =7.76, p>.05
	1-3시간	57.2	20.7	22.1	100.0	145	
	4-6시간	62.2	23.3	14.4	100.0	180	
	7시간 이상	59.0	22.0	19.0	100.0	100	
합	계	61.8	19.9	18.3	100.0	608	

<표 5-1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녀교육과 관련된 교육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 연령, 교육 수준, 국적과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한 여성, 나이가 많은 여성,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통일교와 개신교/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다른 여성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예를 들면, 자녀지도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37.4%로 2년 이하 거주한 여성 26.0%에 비해 10% 이상 많았으며, 40대 이상 여성이 35.8%에 비해 20대 여성의 14.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33.6%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12.9%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와 국적에 따라서도 자녀지도 관련 교육참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는 통일교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각각 39.4%와 29.9%로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5.7%와 8.9%에 비해 3-6배 이상 많았으며,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30% 이상으로 베트남이나 기타 국적의 여성 15%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자녀지도 관련 교육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표 5-16>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노동시간이나 가사노동 시간을 제외한 국내 입국 당시 한글 능력과 현재의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내 입국당시 한글 능력이 열악한 여성이 한글 능력이 우수한 여성보다 자녀지도 관련 교육참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상태에 있거나 기타 범주의 여성이 농업이나 전업주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지도 관련 교육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자녀지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입국 당시 한글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중간 수준이 여성이 약 30% 수준으로 한글 능력이 우수한 여성 10% 이하보다 3배 정도 많았고, 임금노동자 혹은 기타 범주의 여성이 30%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15% 수준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5-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지도 관련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자녀지도 관련 교육 참여 경험			합 계		검 증
		1	2	3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84.0	4.9	11.1	100.0	144	X <sup>2</sup> =25.11 p<.001
	5	78.2	14.3	7.5	100.0	147	
	9	78.1	12.9	9.0	100.0	178	
	10	62.6	19.4	18.0	100.0	139	
합	계	76.0	12.8	11.2	100.0	608	
현재나이	20	85.9	6.7	7.4	100.0	149	X <sup>2</sup> =23.65, p<.001
	30	80.6	11.7	7.8	100.0	180	
	39	70.5	14.1	15.4	100.0	156	
	40	64.2	20.3	15.4	100.0	123	
합	계	76.0	12.8	11.2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87.1	5.6	7.3	100.0	124	X <sup>2</sup> =27.97, p<.001
	고등학교	80.0	10.4	9.6	100.0	260	
	전문대학	63.8	22.4	13.8	100.0	116	
	대학교이상	66.4	16.8	16.8	100.0	107	
합	계	75.9	12.9	11.2	100.0	607	
종교	종교없음	94.2	4.1	1.7	100.0	121	X <sup>2</sup> =71.98, p<.001
	개신기독교	70.1	16.1	13.9	100.0	137	
	불원불교	96.2		3.8	100.0	53	
	통일교	60.7	21.5	17.8	100.0	219	
	기타	91.1	5.4	3.6	100.0	56	
합	계	75.9	13.1	10.9	100.0	586	
국적	일본	61.4	1.9	19.3	100.0	145	X <sup>2</sup> =71.66, p<.001
	필리핀	67.0	19.6	13.4	100.0	209	
	베트남	87.5	3.1	9.4	100.0	32	
	조선족	94.7	4.3	1.1	100.0	187	
	기타	84.6		15.4	100.0	26	
합	계	76.1	13.0	10.9	100.0	599	

<표 5-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자녀지도 관련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자녀지도 관련 교육 참여 경험			합 계		검 증
		없 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입국당시한글 능력	이해높음	91.4	3.9	4.6	100.0	152	X <sup>2</sup> =34.51, p<.001
	이해중간	68.8	20.8	10.4	100.0	173	
	이해부족	72.1	12.7	15.2	100.0	283	
합 계		76.0	12.8	11.2	100.0	608	
현재직업	농업	84.9	8.6	6.6	100.0	152	X <sup>2</sup> =12.52 p<.05
	전업주부	74.9	13.0	12.1	100.0	331	
	취업임금	69.3	18.7	12.0	100.0	75	
	기타	66.0	16.0	18.0	100.0	50	
합 계		76.0	12.8	11.2	100.0	608	
현재노동시간	0	74.6	13.5	11.9	100.0	319	X <sup>2</sup> =2.57, p>.05
	1-8시간	75.6	14.0	10.4	100.0	193	
	9시간 이상	81.3	8.3	10.4	100.0	96	
합 계		76.0	12.8	11.2	100.0	608	
현재 가사노동	0	76.0	13.1	10.9	100.0	183	X <sup>2</sup> =7.06, p>.05
	1-3시간	72.4	15.2	12.4	100.0	145	
	4-6시간	82.2	9.4	8.3	100.0	180	
	7시간 이상	70.0	15.0	15.0	100.0	100	
합 계		76.0	12.8	11.2	100.0	608	

<표 5-17>은 부부가 함께 하는 교육 참여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 연령, 학력수준, 국적과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된 이주여성이 45.3%로 국내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여성 22.9%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40대 이상

여성이 48.9%로 20대 여성의 20.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40% 이상으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1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50%로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에 비해 2-4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일본 국적의 여성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40% 이상으로 조선족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 13% 수준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부부가 함께하는 교육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18>과 같다.

분석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재 직업이나 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시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국내 입국 당시 한글 능력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입국 당시 한글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중간 정도인 여성이 35% 이상으로서 이해 수준이 높은 여성의 15.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5-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부부가 함께 하는 교육 참여 경험			합 계		검 증
		없 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77.1	11.1	11.8	100.0	144	X <sup>2</sup> =20.07, p<.001
	5	68.7	21.8	9.5	100.0	147	
	9	69.1	20.8	10.1	100.0	178	
	10	54.7	28.8	16.5	100.0	139	
합	계	67.6	20.6	11.8	100.0	608	
현재나이	20	79.2	10.7	10.1	100.0	149	X <sup>2</sup> =36.38, p<.001
	30	75.6	17.8	6.7	100.0	180	
	39	60.3	26.3	13.5	100.0	156	
	40	51.2	29.3	19.5	100.0	123	
합	계	67.6	20.6	11.8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83.1	10.5	6.5	100.0	124	X <sup>2</sup> =35.34, p<.001
	고등학교	70.4	20.4	9.2	100.0	260	
	전문대학	51.7	31.9	16.4	100.0	116	
	대학교이상	59.8	20.6	19.6	100.0	107	
합	계	67.5	20.6	11.9	100.0	607	
종교	종교없음	88.4	9.9	1.7	100.0	121	X <sup>2</sup> =68.24, p<.001
	개신기독교	67.9	20.4	11.7	100.0	137	
	불원불교	81.1	13.2	5.7	100.0	53	
	통일교	49.3	29.7	2.1	100.0	219	
	기타	75.0	21.4	3.6	100.0	56	
합	계	67.1	21.2	11.8	100.0	586	
국적	일본	51.0	32.4	16.6	100.0	145	X <sup>2</sup> =76.21, p<.001
	필리핀	56.9	25.4	17.7	100.0	209	
	베트남	87.5	3.1	9.4	100.0	32	
	조선족	87.2	11.8	1.1	100.0	187	
	기타	73.1	7.7	19.2	100.0	26	
합	계	67.3	20.9	11.9	100.0	599	

<표 5-1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부부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부부가 함께 하는 교육참여 경험			합 계		검 증
		없 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입국당시한글 능력	이해높음	84.9	11.8	3.3	100.0	152	X <sup>2</sup> =32.40, p<.001
	이해중간	60.7	27.2	12.1	100.0	173	
	이해부족	62.5	21.2	16.3	100.0	283	
합	계	67.6	20.6	11.8	100.0	608	
현재직업	농업	73.7	18.4	7.9	100.0	152	X <sup>2</sup> =9.20, p>.05
	전업주부	64.7	23.3	12.1	100.0	331	
	취업임금	70.7	16.0	13.3	100.0	75	
	기타	64.0	16.0	20.0	100.0	50	
합	계	67.6	20.6	11.8	100.0	608	
현재 노동시간	0	65.8	22.3	11.9	100.0	319	X <sup>2</sup> =4.23, p>.05
	1-8시간	66.3	20.2	13.5	100.0	193	
	9시간 이상	76.0	15.6	8.3	100.0	96	
합	계	67.6	20.6	11.8	100.0	608	
현재 가사노동	0	66.7	21.3	12.0	100.0	183	X <sup>2</sup> =4.52, p>.05
	1-3시간	65.5	20.0	14.5	100.0	145	
	4-6시간	72.8	18.3	8.9	100.0	180	
	7시간 이상	63.0	24.0	13.0	100.0	100	
합	계	67.6	20.6	11.8	100.0	608	

끝으로 본 연구는 직업기술 관련 교육 참여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5-19>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 수준과 국적 및 종교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직업기술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25% 수준으로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10%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개신기독교를 믿거나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약 20% 이상으로서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5-10%에 비해 2-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30% 이상으로 다른 국적의 여성 6-12% 수준에 비해 2-5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직업기술 관련 교육 참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5-20>에 의하면, 응답자의 국내 입국 당시 한글 능력과 현재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직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입국 당시 한글능력이 중간 수준이거나 부족한 여성이 각각 28.3%와 15.5%로서 이해가 높은 여성 8.6%에 비해 2-3배 정도 많았으며, 가사노동참여시간이 매우 짧거나 혹은 긴 여성이 중간 수준의 여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직업기술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직업기술 교육 참여 경험			합 계		검 증
		없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84.0	8.3	7.6	100.0	144	X <sup>2</sup> =6.78, p>.05
	3-5년	76.9	14.3	8.8	100.0	147	
	6-9년	84.8	11.2	3.9	100.0	178	
	10년 이상	84.2	10.1	5.8	100.0	139	
합 계		82.6	11.0	6.4	100.0	608	
현재나이	20	85.9	8.7	5.4	100.0	149	X <sup>2</sup> =3.86, p>.05
	30	81.7	11.1	7.2	100.0	180	
	39	79.5	12.2	8.3	100.0	156	
	40	83.7	12.2	4.1	100.0	123	
합 계		82.6	11.0	6.4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89.5	6.5	4.0	100.0	124	X <sup>2</sup> =12.35, p<.05
	고등학교	84.2	9.2	6.5	100.0	260	
	전문대학	76.7	17.2	6.0	100.0	116	
	대학교이상	76.6	14.0	9.3	100.0	107	
합 계		82.5	11.0	6.4	100.0	607	
종교	종교 없음	95.9	2.5	1.7	100.0	121	X <sup>2</sup> =31.26, p<.001
	개신기독교	71.5	17.5	10.9	100.0	137	
	불원불교	86.8	9.4	3.8	100.0	53	
	통일교	79.9	13.7	6.4	100.0	219	
	기 타	89.3	5.4	5.4	100.0	56	
합 계		82.8	11.1	6.1	100.0	586	
국적	일본	86.9	8.3	4.8	100.0	145	X <sup>2</sup> =54.29, p<.001
	필리핀	68.4	20.6	11.0	100.0	209	
	베트남	84.4	3.1	12.5	100.0	32	
	조선족	94.1	4.8	1.1	100.0	187	
	기타	88.5	3.8	7.7	100.0	26	
합 계		82.6	11.0	6.3	100.0	599	



<표 5-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직업기술 교육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직업기술 교육 참여 경험			합 계		검 증
		없음	1-2회	3회 이상	비율	빈도	
입국당시 한글능력	이해 높음	91.4	5.3	3.3	100.0	152	X <sup>2</sup> =25.28, p<.001
	이해중간	71.7	19.7	8.7	100.0	173	
	이해 부족	84.5	8.8	6.7	100.0	283	
합	계	82.6	11.0	6.4	100.0	608	
현재직업	농업	85.5	9.2	5.3	100.0	152	X <sup>2</sup> =6.20, p>.05
	전업주부	83.1	10.0	6.9	100.0	331	
	취업임금	76.0	18.7	5.3	100.0	75	
	기타	80.0	12.0	8.0	100.0	50	
합	계	82.6	11.0	6.4	100.0	608	
노동참여 시간	0	83.1	8.8	8.2	100.0	319	X <sup>2</sup> =6.26, p>.05
	1-8시간	81.9	13.5	4.7	100.0	193	
	9시간 이상	82.3	13.5	4.2	100.0	96	
합	계	82.6	11.0	6.4	100.0	608	
가사노동 참여시간	0	76.5	13.1	10.4	100.0	183	X <sup>2</sup> =20.38 p<.01
	1-3시간	80.7	11.7	7.6	100.0	145	
	4-6시간	92.2	6.1	1.7	100.0	180	
	7시간 이상	79.0	15.0	6.0	100.0	100	
합	계	82.6	11.0	6.4	100.0	608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교육 불참 원인 분석

앞의 분석에서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국내생활과 가족생활 적응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 참여가 방해받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분석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21>과 같으며, 특히 분석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수 응답에 기초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주변에 없어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되었다. 특히 본 연구가 농촌지역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인구 분산성 때문에 교육시설이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쉽게 개설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이나 읍지역에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 접근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여성이 지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은 농촌지역의 바쁜 일과와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우지 못하는 문제였다. 즉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여성 가운데 24.2%와 18.6%는 각각 바쁜 농사일과 아이들 양육관계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특히 아이들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으로 밝혀지고 있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시간에 어린이 및 유아를 돌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함께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밖에도 일부 여성은 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 남편이나 가족이 외부 교육 참여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가운데 6.1%는 교육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5.4%는 남편과 가족이 반대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5-2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 불참 원인 분석

단위 : %, 명

교육 프로그램 불참 원인	빈도	비율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다	277	45.6
바쁜 생활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	147	24.2
남편이나 가족이 참여하는 것을 싫어해서	33	5.4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워 둘 수가 없다	113	18.6
교육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37	6.1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16	2.6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각종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지적하고 있는 주변에 교육기관 부재, 농촌지역의 바쁜 생활, 그리고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사람 부재 등을 사용하여 어떤 특성의 여성에게서 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5-22>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각종 교육 프로그램 불참 이유에 있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불참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주변에 교육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렵다고 인식한 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혹은 오래된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바쁜 생활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렵다고 인식한 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식한 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여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촌 생활의 바쁜 일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리고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는 30대 초반을 비롯하여 40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른 교육 불참 이유를 살펴보면, 불교와 통일교를 비롯하여 불교와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베트남과 일본 국적의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주변에서 교육기관이 없어 참여가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농촌의 바쁜 일과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조선족 여성의 경우 타 국적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자녀문제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과 일본 국적 및 필리핀 국적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재 직업과 노동시간에 따라 교육 불참 원인의 경우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어 참여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의 바쁜 일정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그리고 노동시간이 비교적 긴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녀양육이나 돌봄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성 중에는 현재 전업주부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교육 불참 원인 차이를 분석하면,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 참여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여성이 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양육이나 돌봄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가사노동시간이 긴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가구구성에 따라 교육 불참 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주변에서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여성과 부부끼리 살고 있는 여성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특히 자녀양육과 돌봄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의 경우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동시에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에게서 21.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가구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표 5-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 불참 원인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교육 프로그램 불참 이유		
		주변에 교육기관 부재	농촌의 바쁜 생활 때문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거주기간	2년 이하	55.6	18.1	9.0
	2-5년 이하	37.4	22.4	23.8
	6-9년 이하	41.6	26.4	19.7
	10년 이상	48.9	29.5	21.6
현재나이	20대	50.3	18.1	8.1
	30대 초반	36.1	22.2	26.1
	39대 후반	48.1	30.8	17.9
	40대	50.4	26.0	21.1
종교	종교 없음	49.6	26.4	9.1
	개신기독교	35.0	23.4	23.4
	불원불교	54.7	22.6	9.4
	통일교	53.0	25.1	24.2
	기타	21.4	26.8	17.9
국적	일본	56.6	24.1	24.8
	필리핀	37.8	22.5	22.0
	베트남	71.9	9.4	3.1
	조선족	41.2	29.9	13.9
	기타	53.8	19.2	7.7
현재직업	농업	44.1	32.9	15.1
	전업주부	48.6	14.5	23.3
	취업임금	37.3	50.7	9.3
	기타	42.0	22.0	12.0
노동참여 시간	0	47.0	16.0	21.3
	1-8시간	44.6	31.6	17.6
	9시간 이상	42.7	36.5	11.5
가사노동 참여시간	0	52.5	22.4	14.8
	1-3시간	50.3	22.8	17.9
	4-6시간	38.9	31.1	20.6
	7시간 이상	38.0	17.0	23.0
가족구성	여성가구주	35.9	23.1	7.2
	부부	50.6	24.1	-
	부부+자녀(핵가족)	44.7	22.3	23.8
	부부 +부모(부모동거)	56.6	18.1	15.7
	부부+ 부모+ 자녀(확대가족)	41.6	28.9	21.3
합 계		45.6	24.2	18.6

### 제 3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의 지원 실태

#### 1. 배우자 가족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해 노력 실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배우자 가족의 이해를 비롯한 지원체계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새로운 국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힘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을 비롯하여 가족의 지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할 당시 가족과 지역 주민의 환대를 비롯하여 가족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에 어느 정도 지지해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할 당시 남편의 가족이나 마을과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23>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크게 환대를 받은 여성은 7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경우는 그 보다 낮은 60% 수준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마을 주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크게 환대를 받은 경우는 4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더욱이 가족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남편의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경우는 약 5% 수준으로 낮았지만, 마을 주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느낌을 갖게 된 여성은 10% 이상으로 나타나 10명 가운데 1명은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표 5-2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 불참 원인 분석

단위 : %, 명

대상 구분	환대 수준	크게 반겨줌	약간 반겨줌	무시하였다	합 계	
					비율	빈도
남편의 가족		71.7	22.7	5.6	100.0	608
남편의 친척		63.2	30.4	6.4	100.0	608
남편의 마을 주민		46.4	42.4	11.2	100.0	608
남편의 지역사회 주민		39.5	47.2	13.3	100.0	608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남편의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받은 환대가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2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남편 가족의 환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 종교, 그리고 국적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즉 최근 결혼한 여성이 과거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남편 가족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경우 또한 거주기간이 짧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종교를 믿지 않거나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환대를 크게 받았고, 반대로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여성의 경우는 개신교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의 경우 일본과 조선족 여성이 다른 국적으로 여성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환대를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필리핀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이나 학력수준, 그리고 직업 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5-2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 가족의 환대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남편 가족의 환대			합 계		검증
		크게 반겨줌	약간 반겨줌	무시당함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68.8	26.4	4.9	100.0	144	X <sup>2</sup> =20.701, p<.01
	2-5년 이하	59.9	29.9	10.2	100.0	147	
	6-9년 이하	77.5	18.5	3.9	100.0	178	
	10년 이상	79.9	16.5	3.6	100.0	139	
합 계		71.7	22.7	5.6	100.0	608	
연령	20대	67.1	24.8	8.1	100.0	149	X <sup>2</sup> =6.677, p>.05
	30대 초반	70.0	25.6	4.4	100.0	180	
	39대 후반	75.0	18.6	6.4	100.0	156	
	40대	75.6	21.1	3.3	100.0	123	
합 계		71.7	22.7	5.6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67.7	25.8	6.5	100.0	124	X <sup>2</sup> =11.624, p>.05
	고등학교	78.1	18.5	3.5	100.0	260	
	전문대학	69.0	25.0	6.0	100.0	116	
	대학교이상	63.6	27.1	9.3	100.0	107	
합 계		71.7	22.7	5.6	100.0	607	
직업	가족무급	68.7	26.3	5.1	100.0	99	X <sup>2</sup> =8.315, p>.05
	임금노동	76.7	20.2	3.1	100.0	129	
	공직사무	75.1	17.8	7.1	100.0	169	
	가사	64.7	29.4	5.9	100.0	68	
	기타실직	68.5	25.2	6.3	100.0	143	
합 계		71.7	22.7	5.6	100.0	608	
종교	종교없음	80.2	14.9	5.0	100.0	121	X <sup>2</sup> =47.451, p<.001
	개신기독교	51.1	38.0	10.9	100.0	137	
	불원불교	64.2	32.1	3.8	100.0	53	
	통일교	78.5	18.7	2.7	100.0	219	
	기타	83.9	10.7	5.4	100.0	56	
합 계		71.7	22.9	5.5	100.0	586	
국적	일본	87.6	9.7	2.8	100.0	145	X <sup>2</sup> =71.300, p<.001
	필리핀	53.6	37.8	8.6	100.0	209	
	베트남	68.8	21.9	9.4	100.0	32	
	조선족	82.9	13.4	3.7	100.0	187	
	기타	57.7	42.3		100.0	26	
합 계		72.0	22.7	5.3	100.0	599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남편 배우자 마을 주민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환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25>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과 교육수준, 그리고 국적 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마을 주민의 환대를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크게 환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의 환대를 크게 받은 여성 중에는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54.7%로 2년 이하의 여성 41.7%에 비해 13%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무시를 당한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중간 정도 되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편 마을 주민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느낌을 받은 여성 중에는 3-5년 거주한 여성이 18.4%로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이거나 10년 넘는 여성 7%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교육수준이 낮거나 혹은 높은 여성이 중간 정도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여성에 비해 더 무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여성 중에는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과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각각 14.5%와 17.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서도 마을 주민의 환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과 베트남, 그리고 조선족 여성이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환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으로부터 크게 환대를 받은 여성 중에는 일본과 베트남, 그리고 조선족 여성이 약 55% 수준으로 필리핀 여성이나 기타 국적 여성의 30%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마을 주민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인식한 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기타 국적의 여성이 각각 16.3%와 23.1%로서 다른 국적의 여성 5-10%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이나, 직업, 그리고 종교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까지 크지 않았다.

<표 5-2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마을 주민의 환대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 수	범 주	마을 주민의 환대			합 계		검증
		크게 반겨줌	약간 반겨줌	무시당함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41.7	50.7	7.6	100.0	144	X <sup>2</sup> =17.83, p<.001
	3-5년 이하	40.1	41.5	18.4	100.0	147	
	6-9년 이하	48.9	39.9	11.2	100.0	178	
	10년 이상	54.7	38.1	7.2	100.0	139	
합 계		46.4	42.4	11.2	100.0	608	
연령	20대	47.0	39.6	13.4	100.0	149	X <sup>2</sup> =10.22, p>.05
	30대 초반	42.2	43.3	14.4	100.0	180	
	39대 후반	51.9	38.5	9.6	100.0	156	
	40대	44.7	49.6	5.7	100.0	123	
합 계		46.4	42.4	11.2	100.0	608	
학력수준	중학이하	42.7	42.7	14.5	100.0	124	X <sup>2</sup> =18.76, p<.01
	고등학교	54.6	38.5	6.9	100.0	260	
	전문대학	42.2	46.6	11.2	100.0	116	
	대학교이상	35.5	46.7	17.8	100.0	107	
합 계		46.5	42.3	11.2	100.0	607	
직업	가족무급	40.4	49.5	10.1	100.0	99	X <sup>2</sup> =6.75, p>.05
	임금노동	51.9	38.8	9.3	100.0	129	
	공직사무	49.1	41.4	9.5	100.0	169	
	가사	42.6	44.1	13.2	100.0	68	
	기타실직	44.1	41.3	14.7	100.0	143	
합 계		46.4	42.4	11.2	100.0	608	
종교	종교 없음	47.9	40.5	11.6	100.0	121	X <sup>2</sup> =11.09, p>.05
	개신기독교	35.8	49.6	14.6	100.0	137	
	불원불교	52.8	35.8	11.3	100.0	53	
	통일교	48.9	42.5	8.7	100.0	219	
	기타	55.4	33.9	10.7	100.0	56	
합 계		46.6	42.3	11.1	100.0	586	
국적	일본	55.9	39.3	4.8	100.0	145	X <sup>2</sup> =36.47, p<.001
	필리핀	32.5	51.2	16.3	100.0	209	
	베트남	56.3	37.5	6.3	100.0	32	
	조선족	54.5	36.4	9.1	100.0	187	
	기타	34.6	42.3	23.1	100.0	26	
합 계		46.4	42.6	11.0	100.0	599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배우자 남편과 가족의 이해 노력을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남편의 배우자 국가의 언어를 비롯하여 문화이해 노력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 방문과 가족의 한국방문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가의 언어에 대한 남편 배우자의 이해 노력을 분석하면 <표 5-26>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편 배우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어에 대한 이해가 우수한 남편 배우자 비율은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약간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15% 수준으로 나타나 남편 배우자 10명 가운데 2명만이 여성 배우자 모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80% 이상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배우자 모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5-26> 남편 배우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어에 대한 이해 노력 분석

단위 : %, 명

노력 정도 모국어 내용	이해 정도				합 계	
	매우 우수	약간	약간 부족	매우 부족	비율	빈도
말하기	4.3	16.3	23.0	56.4	100.0	608
듣기	4.3	15.6	23.0	57.1	100.0	608
읽기	3.8	14.8	22.0	59.4	100.0	608
쓰기	2.8	12.2	23.7	61.3	100.0	608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가의 문화에 대한 남편 배우자 이해 노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25>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거의 비슷하게 양분되어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 배우자의 비율은 51.1%로 노력하지 않은 남편 배우자의 48.9%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는 단지 12.0%에 불과한 반면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경우가 26.0%로 나타나 오히려 2배 이상 많았다.

<표 5-27> 남편 배우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 문화 이해 노력 분석

단위 : 명, %

노력 정도	구분	빈 도	비 율
많이 노력하는 편이다		73	12.0
대체로 노력하는 편이다		238	39.1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139	22.9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58	26.0
합 계		608	100.0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 배우자의 지원체계로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방문과 그 가족의 한국방문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5-2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그 동안 자신의 모국을 어느 정도 방문하였는지 분석한 것이다. 즉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모국방문 경험이 어느 정도 분석한 것인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6%는 아직 한 번도 자신의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37.3%는 1회 방문하였으며, 2-3회 방문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은 30.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4회 이상 방문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13.3%로 나타났다.

<표 5-2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 방문 경험 분석

단위 : %, 명

방문 빈도	구분	빈도	비율
방문 경험 없음		113	18.6
1회		227	37.3
2-3회		187	30.8
4회 이상		81	13.3
합 계		608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방문 경험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29>와 같다.

분석에 의하면, 응답자 가정의 경제생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응답자의 국내 거주기간과 연령, 국적, 종교, 그리고 가족 구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즉 최근에 결혼해서 국내에 들어온 여성의 경우 아직 방문기회를 갖지 못한 탓에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가 4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6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즉 2000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6%만이 아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나이가 적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국 방문 경험이 적은 반면 나이가 많은 여성은 방문경험이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최근 결혼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모국방문경험이 높았고, 일본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모국방문 경험이 비교적 많았다. 종교의 경우는 특히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에 비해 모국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모국을 4회 이상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 가운데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은 28.8%로 다른 종교의 5% 수준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가족구성에 따라 여성의 모국방문 경험은 차별적인데, 자녀가 없이 부부와 부모로 구성된 가족의 여성과 부부가구의 여성, 그리고 여성가구주 중심의 여성이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 모국방문 경험이 낮았다. 반면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정의 여성과 부부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모국방문 경험이 많았는데, 이들의 경우 4회 이상 방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18.9%와 15.2%로 다른 가족에 비해 매우 많았다.

<표 5-2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모국 방문 경험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방문 경험				합 계		검증
		없음	1회	2-3회	4회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45.8	42.4	10.4	1.4	100.0	144	X <sup>2</sup> =24.1 p<.001
	3-5년	17.7	49.7	31.3	1.4	100.0	147	
	6-9년	6.7	41.6	38.2	13.5	100.0	178	
	10년 이상	6.5	13.7	41.7	38.1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35.6	44.3	18.8	1.3	100.0	149	X <sup>2</sup> =100.0 p<.001
	20-30세	18.3	41.1	33.9	6.7	100.0	180	
	31-39세	12.2	34.0	32.1	21.8	100.0	156	
	40세 이상	6.5	27.6	39.0	26.8	100.0	123	
국적	일본	4.8	19.3	33.8	42.1	100.0	145	X <sup>2</sup> =183.9 p<.001
	필리핀	20.6	41.6	34.0	3.8	100.0	209	
	베트남	53.1	40.6	6.3	-	100.0	32	
	조선족	18.2	46.0	30.5	5.3	100.0	187	
	기타	34.6	38.5	23.1	3.8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24.8	44.6	28.1	2.5	100.0	121	X <sup>2</sup> =94.7 p<.001
	개신기독교	24.8	39.4	32.1	3.6	100.0	137	
	불원불교	24.5	49.1	20.8	5.7	100.0	53	
	통일교	7.3	29.2	34.7	28.8	100.0	219	
	기타	25.0	37.5	26.8	10.7	100.0	56	
가족생활	부유	20.6	41.9	29.0	8.4	100.0	155	X <sup>2</sup> =6.6 p>.05
	보통	17.9	35.3	30.8	16.0	100.0	312	
	살기어려움	17.7	36.9	32.6	12.8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23.1	43.6	28.2	5.1	100.0	39	X <sup>2</sup> =50.8 p<.001
	부부가구	26.5	42.2	28.9	2.4	100.0	83	
	핵가족	9.7	33.5	37.9	18.9	100.0	206	
	부모동거	36.1	31.3	22.9	9.6	100.0	83	
	확대가족	16.2	40.6	27.9	15.2	100.0	197	

그리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방문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원의 한국방문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표 5-3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원 가운데 한국을 어느 정도 방문경험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한국을 방문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가족원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가 56.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27.1%는 본국 가족원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1회 초청하였고, 16.8%는 2회 이상 초청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표 5-30>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 분석

단위 : %, 명

가족원의 한국방문 경험 빈도	빈도	비율
경험 없음	341	56.1
1회	165	27.1
2회 이상	102	16.8
합 계	608	100

<표 5-3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본국 가족원의 한국방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의 가족, 나이가 많은 여성 가족, 일본이나 조선족 국적 여성의 가족, 종교가 없거나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의 가족이, 핵가족을 이루고 있는 여성의 가족이 다른 사람에 비해 국내 방문 경험이 많았다.

예를 들면, 본국에 있는 가족이 2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이주여성이 30.9%로 2년 이하의 여성 5.6%에 비해 6배 정도 많았지만, 경험이 없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이주여성이 81.9%로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37.4%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마찬가지로 2회 이상 본국 가족의 한국 방문이 있었던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40대 이상의 이주여성이 24.4%로 20대 여성의 5.4%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반대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 중에는 20대 여성이 73.2%로 40세 이상 여성의 55.3%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이 또한 크게 나타나는데, 2회 이상 본국가족의 한국방문이 있었던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의 이주여성이 31.0%로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에 비해 매우 많았으며, 반대로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각각 96.9%와 80.9%로 조선족 및 일본 국적의 이주여성 27.3%와 44.1%에 비해 2-3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종교의 경우 통일교를 믿고 있는 이주여성과 종교가 없는 이주여성이 다른 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국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가족경제생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가족생활이 부유한 경우 오히려 모국 가족원의 한국방문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가정생활이 부유한 가정에서 모국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가 67.7%로 가족생활이 어려운 경우의 49.6%보다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난 특징은 부부와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나 부부가구의 경우 모국 가족의 한국방문이 적었고, 반대로 부부자녀 가구와 여성 가구인 경우 모국 가족의 한국방문이 상대적으로 보다 활발하였다.



<표 5-3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본국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			합 계		검증
		없 음	1회	2회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81.9	12.5	5.6	100.0	144	X <sup>2</sup> =90.1 p<.001
	3-5년	66.0	25.9	8.2	100.0	147	
	6-9년	41.6	36.5	21.9	100.0	178	
	10년 이상	37.4	31.7	30.9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73.2	21.5	5.4	100.0	149	X <sup>2</sup> =37.5 p<.001
	20-30세	52.8	30.6	16.7	100.0	180	
	31-39세	44.2	34.0	21.8	100.0	156	
	40세 이상	55.3	20.3	24.4	100.0	123	
국적	일본	44.1	24.8	31.0	100.0	145	X <sup>2</sup> =178.2 p<.001
	필리핀	80.9	10.0	9.1	100.0	209	
	베트남	96.9	3.1		100.0	32	
	조선족	27.3	54.0	18.7	100.0	187	
	기타	76.9	15.4	7.7	100.0	26	
종교	종교없음	27.3	54.5	18.2	100.0	121	X <sup>2</sup> =91.3 p<.001
	개신기독교	74.5	10.9	14.6	100.0	137	
	불원불교	64.2	20.8	15.1	100.0	53	
	통일교	58.4	20.1	21.5	100.0	219	
	기타	51.8	42.9	5.4	100.0	56	
가족생활	부유	67.7	21.3	11.0	100.0	155	X <sup>2</sup> =13.8 p<.01
	보통	53.2	27.2	19.6	100.0	312	
	살기어려움	49.6	33.3	17.0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59.0	20.5	20.5	100.0	39	X <sup>2</sup> =88.1 p<.001
	부부가구	78.3	10.8	10.8	100.0	83	
	핵가족	36.9	38.3	24.8	100.0	206	
	부모동거	89.2	8.4	2.4	100.0	83	
	확대가족	52.3	31.5	16.2	100.0	197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 가족이 아직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어떤 원인 때문인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32>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부모나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초청을 망설이는 경우와 초청하는데 필요한 경비 문제로 초청을 하지 않은, 이른바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초청하지 못한 경우가 58.7%(각각 24.0%와 34.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아직 초청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초청하지 못한 경우가 12.5%를 차지하였고, 현재 초청상태에 있는 여성이 14.8%, 그리고 기타가 13.9%를 차지하였다.

<표 5-3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 가족원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원인 분석

단위 ; %, 명

한국방문을 하지 않은 원인	빈도	비율
초청하고 싶지 않아서	81	24.0
초청할 비용이 없어서	117	34.7
아직 초청 자격이 부족해서	42	12.5
현재 초청한 상태이다	50	14.8
기 타	47	13.9
합 계	337	100.0

본 연구는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모국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33>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모국 가족을 초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여성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나이가 적은 여성, 베트남 및 필리핀 여성, 종교가 없는 여성, 부부 가족 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초청 경비가 문제가 있어서 초청하지 못한 경우는 국내 거주기간이 3-5년 정도인 여성, 필리핀 국적의 여성, 개신/기독교 및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성, 부부와 부모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직 초청 자격이 부족한 경우는 최근

국내에 시집은 여성과 연령이 낮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 불교와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부부가구로 구성된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현재 초청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한 여성, 나이가 많고, 일본과 조선족 여성,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그리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5-3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모국 가족 한국방문 못한 원인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모국 가족의 한국방문 못한 원인					합 계		검증
		초청 원지 없음	경비 부족	자격 부족	초청 상태	기 타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8.2	26.4	25.5	9.1	10.9	100.0	110	X <sup>2</sup> =84.6 p<.001
	3-5년	30.9	52.1	5.3	6.4	5.3	100.0	94	
	6-9년	21.3	35.0	7.5	18.8	17.5	100.0	80	
	10년 이상	7.5	20.8	5.7	35.8	30.2	100.0	53	
연령	20세미만	27.3	36.4	18.2	9.1	9.1	100.0	99	X <sup>2</sup> =23.0 p<.05
	20-30세	26.7	37.6	13.9	10.9	10.9	100.0	101	
	31-39세	18.3	35.2	7.0	19.7	19.7	100.0	71	
	40세 이상	21.2	27.3	7.6	24.2	19.7	100.0	66	
국적	일본	7.8	14.1	4.7	46.9	26.6	100.0	64	X <sup>2</sup> =129.0 p<.001
	필리핀	29.1	46.2	10.4	3.8	10.4	100.0	182	
	베트남	46.7	20.0	23.3	10.0		100.0	30	
	조선족	15.0	22.5	15.0	22.5	25.0	100.0	40	
	기타	11.1	44.4	33.3	5.6	5.6	100.0	18	
종교	종교 없음	34.5	20.7	10.3	17.2	17.2	100.0	29	X <sup>2</sup> =53.4 p<.001
	개신기독교	26.2	44.9	13.1	1.9	14.0	100.0	107	
	불원불교	24.2	27.3	33.3	12.1	3.0	100.0	33	
	통일교	20.1	35.1	6.0	25.4	13.4	100.0	134	
	기타	20.0	20.0	16.0	20.0	24.0	100.0	25	
가족생활	부유	26.7	39.0	14.3	6.7	13.3	100.0	105	X <sup>2</sup> =20.4 p<.01
	보통	24.0	35.9	12.6	18.0	9.6	100.0	167	
	살기어려움	20.0	24.6	9.2	20.0	26.2	100.0	65	
가족구성	여성가구	24.0	40.0	12.0	8.0	16.0	100.0	25	X <sup>2</sup> =36.1 p<.01
	부부가구	31.1	29.5	21.3	4.9	13.1	100.0	61	
	핵가족	16.5	34.2	7.6	22.8	19.0	100.0	79	
	부모동거	20.5	43.8	19.2	6.8	9.6	100.0	73	
	확대가족	28.3	30.3	6.1	22.2	13.1	100.0	99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관련 가족 지지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각종 외부활동에 관여하고자 할 경우 가족이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표 5-34>와 같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으로 모임(마을행사와 본국 출신 여성의 자조모임) 교육(여성 및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 가족연락(본국 가족과의 전화 및 편지하기 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남편 배우자와 가족은 3가지 유형 중에 본국 가족과의 연락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즉 응답자의 47.4%는 자신이 본국의 가족과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쓸 때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모임에 참석하거나 혹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여성은 1/3 수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반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은 여성이 외부 모임이나 교육에 참석하고자 할 경우 싫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모임에 참석할 경우 싫어하는 가족 비율이 2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이 17.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싫어하는 가족은 12.8%로 가장 낮았다.

<표 5-3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각종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분석

단위 : %, 명

가족의 지지 수준	활동 구분	각종 외부활동 유형		
		모임 참석	교육 참석	본가 가족 연락
적극적으로 지지		38.0	32.7	47.4
약간 지지		39.0	49.3	39.8
좋아하지 않음		23.0	17.9	12.8
합 계		100.0(608)	100.0(608)	100.0(608)

다른 한편, 본 연구는 남편 배우자와 그 가족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에 대한 지지 정도가 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3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남편 배우자와 그 가족이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보활동을 지지하는데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과 가족생활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아주 길거나 혹은 짧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고 있었고, 나이가 많은 여성이 또한 다른 여성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반면에 거주기간이 3-5년 정도 혹은 나이가 적은 여성의 경우 외부 모임에 참석하고자 할 경우 남편이나 가족이 싫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의 경우 일본 국적의 여성과 조선족 여성, 그리고 통일교와 불교/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또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반면에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의 경우 외부 모임에 참석하고자 할 경우 남편이나 그 가족이 싫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구성과 관련해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여성이 다른 가족 형태의 여성보다 남편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반면 부부 가족 및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 여서의 외부 모임 참여를 상대적으로 더 싫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남편의 이해 노력에 따라서도 여성의 외부 모임 참여 지지에 차이를 보이는데, 남편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가 적극적이었다. 반면에 남편의 노력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의 외부활동 참여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외부활동 참여 지지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외부 모임 참석에 대한 가족 지지			합 계		검증
		적극지지	보통지지	싫어함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39.6	36.8	23.6	100.0	144	X <sup>2</sup> =33.3 p<.001
	3-5년	32.0	36.1	32.0	100.0	147	
	6-9년	28.7	49.4	21.9	100.0	178	
	10년 이상	54.7	30.9	14.4	100.0	139	
연령	20세미만	33.6	38.3	28.2	100.0	149	X <sup>2</sup> =9.2 p>.05
	20-30세	33.3	42.2	24.4	100.0	180	
	31-39세	41.0	39.7	19.2	100.0	156	
	40세 이상	46.3	34.1	19.5	100.0	123	
국적	일본	51.7	35.2	13.1	100.0	145	X <sup>2</sup> =51.3 p<.001
	필리핀	24.9	38.3	36.8	100.0	209	
	베트남	37.5	34.4	28.1	100.0	32	
	조선족	41.2	43.3	15.5	100.0	187	
	기타	42.3	50.0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38.0	39.7	22.3	100.0	121	X <sup>2</sup> =28.3 p<.001
	개신기독교	23.4	40.1	36.5	100.0	137	
	불원불교	41.5	45.3	13.2	100.0	53	
	통일교	43.8	36.1	20.1	100.0	219	
	기타	42.9	44.6	12.5	100.0	56	
가족생활	부유	33.5	35.5	31.0	100.0	155	X <sup>2</sup> =9.1 p>.05
	보통	40.4	41.0	18.6	100.0	312	
	살기어려움	37.6	38.3	24.1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41.0	20.5	38.5	100.0	39	X <sup>2</sup> =31.4 p<.001
	부부가구	28.9	38.6	32.5	100.0	83	
	핵가족	44.2	44.2	11.7	100.0	206	
	부모동거	31.3	37.3	31.3	100.0	83	
	확대가족	37.6	38.1	24.4	100.0	197	
남편이해 노력	매우 크다	50.7	35.6	13.7	100.0	73	X <sup>2</sup> =33.7 p<.001
	약간 있다	44.5	35.3	20.2	100.0	238	
	거의 없다	40.3	38.8	20.9	100.0	139	
	전혀 없다	20.3	46.2	33.5	100.0	158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 참여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가족의 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면 <표 5-36>과 같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 국적, 종교, 가족생활, 가족구성, 남편의 이해 노력 등에 의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주여성 중에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년 이하의 여성이 36.1%로 많았다. 반면에 3-9년 정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25% 수준으로 낮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였는데,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활동 참여가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는 30-40대 여성이 37% 이상으로서 30대 미만의 여성 28% 수준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른 교육활동 참여 지지도 차이를 보이는데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의 여성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조선족 및 기타 국적의 여성이 37-38%를 차지하였고 반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25% 이하로 낮았다. 반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활동 참여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필리핀과 베트남 국적 여성이 25% 수준으로 조선족(14.4%)이나 기타 국적의 여성(7.7%)에 비해 2-3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기타 종교를 갖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반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생활과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주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핵가족의 여성이 39.8%로 부부가구의 20.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남편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교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남편의 이해가 높은 여성이 43.8%로 남편의 이해가 전혀 없는 여성의 24.1%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표 5-3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외부 교육 참여 지지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지지 정도			합 계		검증
		적극 지지	보통 지지	싫어함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36.1	51.4	12.5	100.0	144	X <sup>2</sup> =22.5 p<.001
	3-5년	25.2	50.3	24.5	100.0	147	
	6-9년	26.4	53.4	20.2	100.0	178	
	10년 이상	45.3	41.0	13.7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8.2	51.7	20.1	100.0	149	X <sup>2</sup> =8.8 p>.05
	20-30세	27.8	51.1	21.1	100.0	180	
	31-39세	39.1	46.8	14.1	100.0	156	
	40세 이상	37.4	47.2	15.4	100.0	123	
국적	일본	42.1	47.6	10.3	100.0	145	X <sup>2</sup> =29.1 p<.001
	필리핀	22.0	52.6	25.4	100.0	209	
	베트남	25.0	50.0	25.0	100.0	32	
	조선족	37.4	48.1	14.4	100.0	187	
	기타	38.5	53.8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36.4	44.6	19.0	100.0	121	X <sup>2</sup> =21.9 p<.01
	개신기독교	19.7	54.0	26.3	100.0	137	
	불원불교	30.2	58.5	11.3	100.0	53	
	통일교	35.2	50.2	14.6	100.0	219	
	기타	44.6	41.1	14.3	100.0	56	
가족생활	부유	28.4	49.0	22.6	100.0	155	X <sup>2</sup> =13.0 p<.05
	보통	33.3	53.5	13.1	100.0	312	
	살기어려움	36.2	40.4	23.4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30.8	25.6	43.6	100.0	39	X <sup>2</sup> =32.9 p<.001
	부부가구	20.5	60.2	19.3	100.0	83	
	핵가족	39.8	48.5	11.7	100.0	206	
	부모동거	32.5	50.6	16.9	100.0	83	
	확대가족	31.0	49.7	19.3	100.0	197	
남편이해 노력	매우 크다	43.8	45.2	11.0	100.0	73	X <sup>2</sup> =21.2 p<.01
	약간 있다	34.0	51.7	14.3	100.0	238	
	거의 없다	34.5	49.6	15.8	100.0	139	
	전혀 없다	24.1	47.5	28.5	100.0	158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과의 연락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이주여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5-37>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종교, 그리고 남편의 이해 정도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국내 거주기간이나 연령, 가족생활 수준이나 가족구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 이주여성이 본국 가족과 연락하는데 있어 가족의 지지를 받는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데,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의 여성(62.1%)과 기타 국적의 여성(50.0%)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베트남 국적의 여성(28.1%)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에 가족 지지가 전혀 없는 경우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25.0%로서 일본 국적의 여성의 8.3%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국의 가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통일교(57.1%)와 기타 종교(48.2%)를 믿고 있는 여성이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32.1%)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본국 가족간의 연락에 대한 가족의 지지 또한 남편의 이해 노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편의 이해가 큰 경우 가족의 지지 또한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남편의 이해 노력이 큰 경우 67.1%로 남편의 이해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의 27.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본국 가족과의 연락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이주여성 중에는 남편의 이해 노력이 전혀 없었던 여성이 24.7%로 이해노력이 컸던 여성의 2.7%에 비해 9배 정도 많았다.

<표 5-3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본국 가족 연락 지지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본국 가족 연락 지지 수준			합 계		검증
		적극지지	보통지지	지지부족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52.8	36.1	11.1	100.0	144	X <sup>2</sup> =7.0 p>.05
	3-5년	40.8	43.5	15.6	100.0	147	
	6-9년	44.4	41.6	14.0	100.0	178	
	10년 이상	52.5	37.4	10.1	100.0	139	
연령	20세미만	40.9	42.3	16.8	100.0	149	X <sup>2</sup> =7.9 p>.05
	20-30세	47.2	38.9	13.9	100.0	180	
	31-39세	48.1	39.7	12.2	100.0	156	
	40세 이상	54.5	38.2	7.3	100.0	123	
국적	일본	62.1	29.7	8.3	100.0	145	X <sup>2</sup> =27.5 p<.001
	필리핀	40.7	45.5	13.9	100.0	209	
	베트남	28.1	46.9	25.0	100.0	32	
	조선족	47.1	39.0	13.9	100.0	187	
	기타	50.0	50.0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41.3	39.7	19.0	100.0	121	X <sup>2</sup> =24.0 p<.01
	개신기독교	43.1	42.3	14.6	100.0	137	
	불원불교	32.1	60.4	7.5	100.0	53	
	통일교	57.1	33.8	9.1	100.0	219	
	기타	48.2	41.1	10.7	100.0	56	
가족생활	부유	49.0	38.1	12.9	100.0	155	X <sup>2</sup> =3.9 p>.05
	보통	48.7	40.4	10.9	100.0	312	
	살기어려움	42.6	40.4	17.0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41.0	35.9	23.1	100.0	39	X <sup>2</sup> =9.7 p>.05
	부부가구	44.6	42.2	13.3	100.0	83	
	핵가족	51.0	39.8	9.2	100.0	206	
	부모동거	39.8	47.0	13.3	100.0	83	
	확대가족	49.2	36.5	14.2	100.0	197	
남편이해 노력	매우 크다	67.1	30.1	2.7	100.0	73	X <sup>2</sup> =53.1 p<.001
	약간 있다	55.0	36.1	8.8	100.0	238	
	거의 없다	46.0	42.4	11.5	100.0	139	
	전혀 없다	27.8	47.5	24.7	100.0	158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 배우자 및 가족이 이주여성의 본국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5-3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 가족이 이주여성 본국 가정에 선물이나 돈을 보낸 적이 있는가를 분석한 것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경우가 19.6%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80% 정도는 한 번 이상 보낸 경험을 갖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1-2회 본국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0%를 차지하였고, 3-4회가 15.0%, 그리고 5회 이상 보낸 경험이 있는 여성은 31.4%를 차지하였다.

<표 5-3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에 대한 남편 가족의 물질적 지원 분석

단위 : %, 명

구분	빈도	비율
지원 빈도		
지원한 적이 없다	119	19.6
1-2회	207	34.0
3-4회	91	15.0
5회 이상	191	31.4
합 계	608	100.0

<표 3-3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가족이 여성 본국 가족에게 제공한 물질적 지원 빈도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가족구성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본국 가족에서 물질적 지원을 5회 이상 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주여성이 38.1%로 2년 이하의 여성 21.5%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40세 이상 여성이 41.5%로서 30세 미만 여성의 27%에 비해 약 14% 정도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차이로 뚜렷하였는데, 베트남 국적의 이주여성을 제외하면 다른 국적의 여성은 물질적인 지원 경험을 다수 갖고 있었다. 특히 5회 이상 본국 가정에 물질적인 지원을 한 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의 여성과 필리핀 국적 여성이 각각 46.2%와 36.8%로 많았으며,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나 조선족의 경우 9.4%와

16.6%로 비교적 적었다. 그리고 종교에 따른 차이도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지금까지 본국에 물질적 지원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종교가 없거나 불교 및 원불교, 그리고 기타 종교를 믿는 여성이 약 30% 수준으로 개신기독교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10%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5회 이상 본국 가족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준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는 통일교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각각 43.8%와 37.2%로 종교가 없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비롯하여 기타 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15% 이하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가족생활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성의 경우 본국 가족에 대한 물질적 지원 빈도가 많았는데, 5회 이상 물질적 지원을 해준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38.1%로 어려운 여성의 19.1%에 비해 2배 많았다.

그리고 본국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 빈도는 남편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편의 이해가 높을수록 지원 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본국 가정에 물질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없는 여성 중에는 남편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여성의 경우 29.1%로 남편의 이해가 큰 여성의 15.1%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지만, 5회 이상 물질적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남편의 이해가 큰 여성의 경우 29.7%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여성의 21.5%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았다.

<표 5-3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본국 가족에 대한 지원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본국 가족에 대한 물질적 지원 빈도				합 계		검증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9.2	38.9	10.4	21.5	100.0	144	X <sup>2</sup> =29.7 p<.001
	3-5년	19.7	31.3	11.6	37.4	100.0	147	
	6-9년	15.7	38.2	16.9	29.2	100.0	178	
	10년 이상	14.4	26.6	20.9	38.1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4.2	38.9	10.7	26.2	100.0	149	X <sup>2</sup> =26.7 p<.01
	20-30세	25.0	36.1	11.1	27.8	100.0	180	
	31-39세	14.7	31.4	21.2	32.7	100.0	156	
	40세 이상	12.2	28.5	17.9	41.5	100.0	123	
국적	일본	9.0	22.8	22.1	46.2	100.0	145	X <sup>2</sup> =90.1 p<.001
	필리핀	15.3	31.1	16.7	36.8	100.0	209	
	베트남	53.1	37.5		9.4	100.0	32	
	조선족	26.7	45.5	11.2	16.6	100.0	187	
	기타	19.2	38.5	7.7	34.6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31.4	43.0	9.9	15.7	100.0	121	X <sup>2</sup> =77.8 p<.001
	개신기독교	16.1	29.9	16.8	37.2	100.0	137	
	불원불교	30.2	45.3	9.4	15.1	100.0	53	
	통일교	10.0	26.5	19.6	43.8	100.0	219	
	기타	28.6	48.2	10.7	12.5	100.0	56	
가족생활	부유	16.8	29.0	16.1	38.1	100.0	155	X <sup>2</sup> =16.8 p<.01
	보통	20.8	32.4	13.1	33.7	100.0	312	
	살기어려움	19.9	43.3	17.7	19.1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17.9	33.3	12.8	35.9	100.0	39	X <sup>2</sup> =11.7 p>.05
	부부가구	25.3	25.3	14.5	34.9	100.0	83	
	핵가족	18.4	35.4	13.1	33.0	100.0	206	
	부모동거	26.5	32.5	18.1	22.9	100.0	83	
	확대가족	15.7	37.1	16.2	31.0	100.0	197	
남편이해 노력	매우 크다	15.1	27.4	17.8	39.7	100.0	73	X <sup>2</sup> =25.5 p<.01
	약간 있다	14.7	32.4	16.4	36.6	100.0	238	
	거의 없다	19.4	34.5	16.5	29.5	100.0	139	
	전혀 없다	29.1	39.2	10.1	21.5	100.0	158	

## 제 4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 실태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단체 참여 실태

본 연구는 또한 이주여성이 사회단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40>과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참여하는 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로는 종교단체로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40%가 종교단체 참여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같은 출신 국가 여성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여성이 28.3%를 차지하였으며, 여성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은 14.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이 11.7%를 차지하였다.

<표 5-40>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

단위 : %, 명

참여 여부	각종 사회단체 유형			
	여성단체	종교단체	같은 국적여성모임	기타
참여하지 않는다	85.4	60.0	71.7	88.3
참여하고 있다	14.6	40.0	28.3	11.7
합 계	100.0(608)	100.0(608)	100(608)	100(608)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사회단체 활동이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단체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5-4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여성단체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을 제외한 연령, 학력, 국적,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은 이주여성,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 그리고 통일교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여성단체 참여가 활발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40세 이상 여성이 24.4%로 20세 미만 여성의 10.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21.5%로 중학교 이하의 여성 5.6%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서도 여성단체 참여는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의 여성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각각 22.1%와 21.5%로 베트남이나 조선족 여성의 5% 수준에 비해 4배 정도 많았고, 개신/기독교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0% 이상으로 종교가 없거나 혹은 원불교 및 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2.5%와 5.7%에 비해 각각 8배와 3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표 5-4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여성단체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생활과 노동시간 변수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의 경우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족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20.0%로 가족생활이 어려운 여성 10.6%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노동시간이 거의 없는 여성이 16.9%로 9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 7.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구성이나 직업,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한국어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일부 변수의 경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17.4%로 열악한 여성 10.9%에 비해 약간 많았으며, 하루 7시간 이상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 19.0%로서 가사노동시간이 없는 여성 14.2%에 비해 약간 많았다.

<표 5-4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여성단체 참여 여부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여성단체 참여		합 계		검증
		참여 없음	참여하고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88.9	11.1	100.0	144	X <sup>2</sup> =3.583 p>.05
	3-5년	84.4	15.6	100.0	147	
	6-9년	86.5	13.5	100.0	178	
	10년 이상	81.3	18.7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89.9	10.1	100.0	149	X <sup>2</sup> =12.525 p<.001
	20-30세	87.2	12.8	100.0	180	
	31-39세	86.5	13.5	100.0	156	
	40세 이상	75.6	24.4	100.0	123	
국적	일본	77.9	22.1	100.0	145	X <sup>2</sup> =32.599 p<.001
	필리핀	78.5	21.5	100.0	209	
	베트남	93.8	6.3	100.0	32	
	조선족	95.2	4.8	100.0	187	
	기타	96.2	14.9	100.0	26	
학력	중학이하	94.4	5.6	100.0	124	X <sup>2</sup> =13.149 p<.01
	고등학교	85.4	14.6	100.0	260	
	전문대학	81.9	18.1	100.0	116	
	대학교이상	78.5	21.5	100.0	107	
종교	종교 없음	97.5	2.5	100.0	121	X <sup>2</sup> =29.158 p<.001
	개신기독교	78.8	21.2	100.0	137	
	불원불교	94.3	5.7	100.0	53	
	통일교	79.5	20.5	100.0	219	
	기타	89.3	10.7	100.0	56	



<표 5-4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성단체 참여 여부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여성단체 참여		합 계		검증
		참여 없음	참여하고 있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80.0	20.0	100.0	155	X <sup>2</sup> =5.555 p<.06
	보통	86.2	15.8	100.0	312	
	살기어려움	89.4	10.6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79.5	20.5	100.0	39	X <sup>2</sup> =2.294 p>.05
	부부가구	88.0	12.0	100.0	83	
	핵가족	86.9	13.1	100.0	206	
	부모동거	83.1	16.9	100.0	83	
	확대가족	84.8	15.2	100.0	197	
직업	농업	87.5	12.5	100.0	152	X <sup>2</sup> =2.321 p>.05
	전업주부	83.7	16.3	100.0	331	
	취업임금	89.3	10.7	100.0	75	
	기타	84.0	16.0	100.0	50	
노동시간	없다	83.1	16.9	100.0	319	X <sup>2</sup> =5.488 p<.06
	1-8시간	85.5	14.5	100.0	193	
	9시간이상	92.7	7.3	100.0	96	
가사노동	없다	85.8	14.2	100.0	183	X <sup>2</sup> =2.051 p>.05
	1-3시간	85.5	14.5	100.0	145	
	4-6시간	87.2	12.8	100.0	180	
	7시간이상	81.0	19.0	100.0	100	
한글수준	우수하다	82.6	17.4	100.0	247	X <sup>2</sup> =3.728 p>.05
	보통이다	85.0	15.0	100.0	160	
	열약하다	89.1	10.9	100.0	201	

다음으로 본 연구는 종교단체 참여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43>과 같이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이 긴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종교단체 참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은 여성이, 일본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학력이 높은 여성이, 통일교 및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종교단체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61.9%로 2년 이하의 18.8%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으며, 40대 이상 여성이 64.2%로 20세 미만 여성의 17.4%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교육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대학교 혹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55% 이상으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8.1%에 비해 7배 정도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의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의 여성이 90.3%로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마찬가지로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8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개신 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5.5%를 차지하였고,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11.3%로 많지 않았다.

다른 한편, <표 5-4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종교단체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현재의 직업과 노동시간, 가사노동, 그리고 한글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기타 범주에 속하는 여성이 5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농업 및 전업주부가 각각 38%와 41%를 차지하였지만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29.3%로 가장 적었으며, 7시간 이상 가사노동 하는 여성이 56%로 다른 여성 40% 이하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그리고 한국어 수준의 경우 중간 수준에 있는 여성의 종교단체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는데,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한국어 능력이 중간 정도인 여성이 58.1%로 능숙하거나 혹은 서툰 여성의 26.7%와 41.8%에 비해 각각 2배와 15% 이상 많았다.

<표 5-4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교단체 참여 여부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종교단체 참여		합 계		검증
		참여 없음	참여하고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81.3	18.8	100.0	144	X <sup>2</sup> =62.09, p<.001
	3-5년	68.0	32.0	100.0	147	
	6-9년	53.4	46.6	100.0	178	
	10년 이상	38.1	61.9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82.6	17.4	100.0	149	X <sup>2</sup> =74.48, p<.001
	20-30세	67.8	32.2	100.0	180	
	31-39세	48.7	51.3	100.0	156	
	40세 이상	35.8	64.2	100.0	123	
국적	일본	9.7	90.3	100.0	145	X <sup>2</sup> =257.6, p<.001
	필리핀	56.5	43.5	100.0	209	
	베트남	93.8	6.3	100.0	32	
	조선족	92.5	7.5	100.0	187	
	기타	84.6	15.4	100.0	26	
학력수준	중학이하	91.9	8.1	100.0	124	X <sup>2</sup> =78.28, p<.001
	고등학교	58.8	41.2	100.0	260	
	전문대학	42.2	57.8	100.0	116	
	대학교이상	44.9	55.1	100.0	107	
종교	종교 없음	99.2	0.8	100.0	121	X <sup>2</sup> =285.97, p<.001
	개신기독교	74.5	25.5	100.0	137	
	불원불교	88.7	11.3	100.0	53	
	통일교	16.0	84.0	100.0	219	
	기타	73.2	26.8	100.0	56	

<표 5-4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교단체 참여 여부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종교단체 참여		합 계		검증
		참여 않음	참여하고 있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61.9	38.1	100.0	155	X <sup>2</sup> =.63, p>.05
	보통	60.3	39.7	100.0	312	
	살기어려움	57.4	42.6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66.7	33.3	100.0	39	X <sup>2</sup> =8.08, p>.05
	부부가구	66.3	33.7	100.0	83	
	핵가족	56.3	43.7	100.0	206	
	부모동거	69.9	30.1	100.0	83	
	확대가족	55.8	44.2	100.0	197	
현재직업	농업	61.8	38.2	100.0	152	X <sup>2</sup> =8.09, p<.05
	전업주부	58.9	41.1	100.0	331	
	취업임금	70.7	29.3	100.0	75	
	기타	46.0	54.0	100.0	50	
노동시간	없다	54.9	45.1	100.0	319	X <sup>2</sup> =7.56, p<.05
	1-8시간	66.3	33.7	100.0	193	
	8시간이상	64.6	35.4	100.0	96	
가사노동	없다	61.2	38.8	100.0	183	X <sup>2</sup> =13.33, p<.01
	1-3시간	64.8	35.2	100.0	145	
	4-6시간	63.9	36.1	100.0	180	
	7시간이상	44.0	56.0	100.0	100	
한글수준	능숙하다	73.3	26.7	100.0	247	X <sup>2</sup> =40.39, p<.001
	보통이다	41.9	58.1	100.0	160	
	서툰 편이다	58.2	41.8	100.0	201	

그리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같은 국적의 여성들로 구성된 자조모임 참여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45>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과 학력수준을 제외한 국내 거주기간, 국적과 종교에 따라 자조모임 참여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36.0%로 2년 이하의 여성 25.7%보다 10% 이상 많았다.

그리고 국적과 종교에 의한 차이를 보면,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기타 국적의 여성과 조선족이 각각 50.0%와 41.2%로 비교적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국적의 여성이 27.6%로 전자에 비해 1/2 수준으로 적었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경우 약 15% 수준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종교의 경우는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이주여성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13.9%로 가장 적었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조모임 참여 여부는 <표 5-46>과 같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생활, 가족구성, 그리고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중간 정도인 여성이 3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24.8%, 반면에 부유한 여성의 경우는 18.7%로 가장 적었다. 가족구성의 경우에는 핵가족의 여성이 35.4%로 부부로 구성된 가족의 16.9%와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성의 21.7%에 비해 각각 2배 이상 및 15% 정도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자조모임 참여 여부를 검토하면,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이 34.8%로 한국어가 서툰 여성 17.9%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많았으며, %에 비해 즉 가정생활이 중간 수준이거나 어려운 여성이 부유한 여성보다 자조모임에 적극 참여하였고, 부부자녀 가족의 여성이나 혹은 확대가족의 여성이 다른 가족의 여성에 비해, 그리고 한글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각각 자조모임에 적극적이었다.

<표 5-4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자조모임 참여 여부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자조모임의 참여 여부		합 계		검증
		참여 없음	참여하고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74.3	25.7	100.0	144	X <sup>2</sup> =8.06, p<.06
	3-5년	77.6	22.4	100.0	147	
	6-9년	70.8	29.2	100.0	178	
	10년 이상	64.0	36.0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71.1	28.9	100.0	149	X <sup>2</sup> =1.28, p>.05
	20-30세	71.1	28.9	100.0	180	
	31-39세	69.9	30.1	100.0	156	
	40세 이상	75.6	24.4	100.0	123	
국적	일본	72.4	27.6	100.0	145	X <sup>2</sup> =37.56, p<.001
	필리핀	83.3	16.7	100.0	209	
	베트남	84.4	15.6	100.0	32	
	조선족	58.8	41.2	100.0	187	
	기타	50.0	50.0	100.0	26	
학력수준	중학이하	64.5	35.5	100.0	124	X <sup>2</sup> =4.71, p>.05
	고등학교	73.1	26.9	100.0	260	
	전문대학	72.4	27.6	100.0	116	
	대학교이상	71.8	23.4	100.0	107	
종교	종교 없음	59.5	40.5	100.0	121	X <sup>2</sup> =27.78, p<.001
	개신기독교	86.1	13.9	100.0	137	
	불원불교	58.5	41.5	100.0	53	
	통일교	73.1	26.9	100.0	219	
	기타	69.6	30.4	100.0	56	

<표 5-4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조모임 참여 여부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자조모임 참여 여부		합 계		검증
		참여 없음	참여하고 있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81.3	18.7	100.0	155	X <sup>2</sup> =14.02, p<.001
	보통	65.4	34.6	100.0	312	
	살기어려움	75.2	24.8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76.9	23.1	100.0	39	X <sup>2</sup> =12.96, p<.01
	부부가구	83.1	16.9	100.0	83	
	핵가족	64.6	35.4	100.0	206	
	부모동거	78.3	21.7	100.0	83	
	확대가족	70.6	29.4	100.0	197	
현재직업	농업	67.8	32.2	100.0	152	X <sup>2</sup> =2.24, p>.05
	전업주부	74.0	26.0	100.0	331	
	취업임금	69.3	30.7	100.0	75	
	기타	72.0	28.0	100.0	50	
노동시간	없다	75.9	24.1	100.0	319	X <sup>2</sup> =5.72, p>.05
	1-8시간	66.8	33.2	100.0	193	
	8시간이상	67.7	32.3	100.0	96	
가사노동	없다	76.5	23.5	100.0	183	X <sup>2</sup> =6.17, p>.05
	1-3시간	65.5	34.5	100.0	145	
	4-6시간	69.4	30.6	100.0	180	
	7시간이상	76.0	24.0	100.0	100	
한글수준	능숙하다	65.2	34.8	100.0	247	X <sup>2</sup> =16.55, p<.001
	보통이다	68.8	31.3	100.0	160	
	서툰 편이다	82.1	17.9	100.0	201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결합시켜 ‘종합적인 사회단체 참여’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이들 여성이 어느 정도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47>과 같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어떤 형태의 사회단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27.3%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70% 이상은 어떤 형태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17.4%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55.1%는 여성단체, 종교단체, 자조단체, 그리고 위에서 분석하지 않은 기타 사회단체 가운데 최소 1개 단체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7>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합적 참여 실태

단위 : %, 명

구분	빈도	비율
사회단체 참여 여부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	167	27.3
1개 단체에 참여	335	55.1
2개 단체 이상 참여	106	17.4
합 계	608	100

위에서 분석한 종합적인 사회단체 활동참여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48>과 <표 5-49>와 같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종합적인 사회단체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거나, 일본 국적의 여성이, 그리고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단체 참여가 활성화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30.2%로 2년 이하의 여성 7.6%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어떤 사회단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 중에는 국내에 2년



이하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47.9%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 12.2%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여성의 경우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는데, 2개 이상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40세 이상의 이주여성이 28.5%로 20세 미만 여성의 6.0%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22.4%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4.0%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국적과 종교의 경우 일본 국적과 필리핀, 그리고 조선족 여성이 사회단체 참여에 활발하였고, 통일교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회단체 참여에 활발하였다.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의 여성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16.7%를 차지하지만 조선족의 경우 7.0%로 매우 낮았고, 베트남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4.7%로 종교가 없는 여성의 3.3%에 비해 10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사회단체 참여 차이를 분석한 <표 5-48>에 의하면, 가족구성, 노동시간, 가사시간, 한글 능력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핵가족 및 확대가족 여성이, 노동시간이 짧은 여성이, 가사노동 시간이 긴 여성이, 그리고 한글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1개 이상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핵가족 및 확대가족 여성이 약 80% 수준으로 다른 가족의 여성의 60% 수준에 비해 20% 정도 많았고, 직업활동의 경우는 현재 임금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이 긴 여성의 경우 짧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단체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가사노동시간이 긴 경우도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에 의한 차이를 보면, 한국어 실력이 중간 정도인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면, 1개 이상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수준이 중간 정도인 여성이 82.5%로 서툰 편인 여성 63.2%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표 5-4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합적 사회단체 참여 실태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종합적 사회단체 참여			합 계		검증
		참여 없음	1개 참여	2개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47.9	44.4	7.6	100.0	144	X <sup>2</sup> =69.44, p<.001
	3-5년	33.3	53.7	12.9	100.0	147	
	6-9년	18.0	62.9	19.1	100.0	178	
	10년 이상	12.2	57.6	30.2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43.0	51.0	6.0	100.0	149	X <sup>2</sup> =44.45, p<.001
	20-30세	28.9	55.6	15.6	100.0	180	
	31-39세	19.2	59.0	21.8	100.0	156	
	40세 이상	17.1	54.5	28.5	100.0	123	
국적	일본	3.4	58.6	37.9	100.0	145	X <sup>2</sup> =116.1, p<.001
	필리핀	30.1	53.1	16.7	100.0	209	
	베트남	71.9	28.1		100.0	32	
	조선족	34.2	58.8	7.0	100.0	187	
	기타	23.1	65.4	11.5	100.0	26	
학력수준	중학이하	41.1	54.8	4.0	100.0	124	X <sup>2</sup> =37.84, p<.001
	고등학교	28.8	52.7	18.5	100.0	260	
	전문대학	23.3	51.7	25.0	100.0	116	
	대학교이상	13.1	64.5	22.4	100.0	107	
종교	종교없음	45.5	51.2	3.3	100.0	121	X <sup>2</sup> =122.6, p<.001
	개신기독교	41.6	48.9	9.5	100.0	137	
	불원불교	34.0	58.5	7.5	100.0	53	
	통일교	6.4	58.9	34.7	100.0	219	
	기타	23.2	62.5	14.3	100.0	56	

<표 5-4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사회단체 참여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종합적인 사회단체 참여			합 계		검증
		참여 없음	1개 참여	2개 이상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34.2	51.0	14.8	100.0	155	X <sup>2</sup> =8.11, p>.05
	보통	22.8	57.7	19.6	100.0	312	
	살기어려움	30.5	53.9	15.6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38.5	43.6	17.9	100.0	39	X <sup>2</sup> =29.94, p<.001
	부부가구	44.6	43.4	12.0	100.0	83	
	핵가족	19.9	60.2	19.9	100.0	206	
	부모동거	38.6	48.2	13.3	100.0	83	
	확대가족	21.3	59.9	18.8	100.0	197	
현재직업	농업	23.7	64.5	11.8	100.0	152	X <sup>2</sup> =13.95, p<.05
	전업주부	28.7	51.7	19.6	100.0	331	
	취업임금	33.3	54.7	12.0	100.0	75	
	기타	22.0	50.0	28.0	100.0	50	
노동시간	없다	26.6	53.3	20.1	100.0	319	X <sup>2</sup> =9.53, p<.05
	1-8시간	29.0	52.8	18.1	100.0	193	
	8시간이상	27.1	65.6	7.3	100.0	96	
가사노동	없다	30.1	56.8	13.1	100.0	183	X <sup>2</sup> =13.79, p<.05
	1-3시간	31.7	46.2	22.1	100.0	145	
	4-6시간	25.6	60.0	14.4	100.0	180	
	7시간이상	20.0	56.0	24.0	100.0	100	
한글수준	능숙하다	26.3	57.1	16.6	100.0	247	X <sup>2</sup> =18.14, p<.001
	보통이다	17.5	60.0	22.5	100.0	160	
	서툰 편이다	36.8	148.8	14.4	100.0	201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실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아직 사적 및 공적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지 못한 탓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같은 국가 출신끼리 결성한 자조모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조모임의 결성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혹은 교환할 수 있으며, 특히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자 집단이나 새로운 환경에 이주한 사람은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비공식 조직’을 결성하여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자조모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개인에 따라서 그 활성화가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여성단체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5-5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규모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한 것인데, 자조모임이 없는 여성이 51.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응답자의 49%는 자조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규모에 따라 참여 비율은 보면 우선 10인 미만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이 22.7%를 차지하였고, 20인 미만의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은 16.0%, 그리고 20명 이상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도 10.4%나 되었다.

<표 5-5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참여 수의 범주

단위 : %, 명

자조모임 규모	빈도	비율
없음	310	51.0
10인 미만	138	22.7
20인 미만	97	16.0
20인 이상	63	10.4
합계	608	100.0

다른 한편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참여가 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51>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변수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의 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길거나 혹은 짧은 여성이,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이, 종교가 없고 혹은 개신/기독교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족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노동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가사노동 시간이 짧은 여성이, 그리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낮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인 미만의 작은 규모의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로 짧은 여성이 24-28%로 10년 이상의 여성 15.7%에 비해 10% 정도 많았으며, 20세 미만 여성이 28.2%로 40세 이상 여성 13.0%에 비해 15% 많았고,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30.6%로 대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20.6%에 비해 10% 많았고,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종교가 없는 여성이 29.8%, 그밖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은 20% 이하로 낮았다. 이주여성의 가족생활과 관련해서 가족생활이 부유하거나 보통 수준인 여성이 24-27% 수준으로 가족생활이 어려운 여성 12.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9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는 여성이 31.3%로 노동시간이 없는 여성 17.2%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그리고 한국어 사용 능력이 중간 정도인 여성이 28.8%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 18.9%에 비해 10% 많았다.

그렇지만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교적 규모가 큰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30대 후반 이상 여성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사노동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긴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보통이거나 혹은 우수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5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조모임 참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자조모임참여의 수의 범주				합 계		검증
		없음	10인 미만	20인미만	20인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59.7	23.6	13.9	2.8	100.0	144	X <sup>2</sup> =23.647 p<.01
	3-5년	49.0	27.9	14.3	8.8	100.0	147	
	6-9년	44.4	23.0	18.5	14.0	100.0	178	
	10년 이상	52.5	15.7	16.5	15.1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51.7	28.2	16.1	4.0	100.0	149	X <sup>2</sup> =25.543 p<.001
	20-30세	48.9	26.1	17.8	7.2	100.0	180	
	31-39세	50.6	21.2	14.1	14.1	100.0	156	
	40세 이상	53.7	13.0	15.4	17.9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48.4	30.6	17.7	3.2	100.0	124	X <sup>2</sup> =53.861 p<.001
	고등학교	60.4	20.0	14.2	5.4	100.0	260	
	전문대학	47.4	21.6	15.5	15.5	100.0	116	
	대학교 이상	35.5	20.6	18.7	25.2	100.0	107	
종교	종교 없음	58.7	29.8	10.7	0.8	100.0	121	X <sup>2</sup> =64.069 p<.001
	개신기독교	56.2	19.7	13.9	10.2	100.0	137	
	불원불교	43.4	35.8	20.8		100.0	53	
	통일교	42.5	19.6	17.4	20.5	100.0	219	
	기타	57.1	12.5	26.8	3.6	100.0	56	
가족생활	부유	54.2	23.9	11.0	11.0	100.0	155	X <sup>2</sup> =17.246 p<.01
	보통	44.9	26.6	18.3	10.3	100.0	312	
	살기어려움	61.0	12.8	16.3	9.9	100.0	141	
노동시간	없다	57.1	17.2	14.7	11.0	100.0	319	X <sup>2</sup> =15.906 p<.01
	1-8시간	43.5	27.5	18.7	10.4	100.0	193	
	9시간이상	45.8	31.3	14.6	8.3	100.0	96	
가사노동	없다	56.3	24.6	10.4	8.7	100.0	183	X <sup>2</sup> =20.658 p<.01
	1-3시간	42.1	29.0	18.6	10.3	100.0	145	
	4-6시간	55.0	17.2	19.4	8.3	100.0	180	
	7시간이상	47.0	20.0	16.0	17.0	100.0	100	
한글수준	능숙하다	50.6	21.9	19.8	7.7	100.0	319	X <sup>2</sup> =19.085 p<.01
	보통이다	41.3	28.8	15.0	15.0	100.0	193	
	서툰 편이다	59.2	18.9	11.9	10.0	100.0	96	
가족지지	적극지지	53.1	22.6	13.5	10.8	100.0	288	X <sup>2</sup> =13.950 p<.05
	보통지지	47.5	21.9	21.9	8.7	100.0	242	
	지지부족	53.8	25.6	6.4	14.1	100.0	78	

<표 5-52>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이 각종 지역사회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를 분석한 것인데,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전체 298명 가운데 116명, 즉 38%만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9.9%를 차지하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3.6%, 그리고 지역의 청년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2.3%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기타 사회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12.2%를 차지하였다.

<표 5-5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지원단체 현황

단위 : %, 명

지원단체 및 기관 분류	빈도	비율
지역여성단체지원	60	9.9
지역행정조직지원	22	3.6
지역청년단체지원	14	2.3
기타 단체 및 개인 지원	74	12.2
소 계	116	19.1
단체 지원이 없는 여성	182	29.9
자조모임이 없는 여성	310	51.0
합 계	608	100.0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지역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 <표 5-53>에 의하면,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가운데 19.8%가 지역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8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5-5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의 지역사회단체와 자매결연 실태

단위 : %, 명

구분	빈도	비율
없음	239	80.2
있음	59	19.8
합 계	298	100.0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제 상담 자원 실태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아직 사적 및 공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지 못한 상태충분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담자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상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동원 가능한 상담 인적자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본국 출신, 한국인, 그리고 타 국적의 사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5-5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자원을 3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본국 출신의 상담원이 있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으로 40% 수준, 그리고 타국 출신은 약 20%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각종 다양한 상담 자원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경우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사람이 없는 여성이 여전히 20.9%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10명 가운데 2명은 그 누구와도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경우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의미한 것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80% 정도는 상담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인 미만인 경우가 43.6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5-9인이 17.4%, 그리고 10인 이상인 경우도 18.1%를 차지하였다.



<표 5-5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자원 실태 분석

단위 : %, 명

상담원 규모	구분	상담 자원 형태			합 계
		자국 출신	한국인	타국 출신	
상담자 없음		26.5	57.6	79.8	20.9
5인 미만		44.1	26.3	11.3	43.6
5인 - 9인		29.4	16.1	8.9	17.4
10인 이상		-	-	-	18.1
합 계		100.0(608)	100.0(608)	100.0(608)	100.0(608)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국 출신의 상담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국 출신 상담원 규모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검토하였다.

<표 5-55>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 학력수준, 종교에 따라 본국 출신 상담원 규모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본국 출신 상담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2년 이하 거주하였거나 혹은 6-년 동안 거주한 여성이 30% 이상으로 다른 여성 20% 수준에 비해 10% 정도 많았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이 30% 이상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17.8%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그리고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40.5%와 50.0%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 20%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5명 이상의 본국 출신 상담자원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30% 이상으로 3년 미만 여성의 20.1%에 비해 10% 이상 많았고,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40% 이상으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21.8%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그리고 개신/기독교를 믿거나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40% 수준으로 종교가 없는 여성 9.9%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불교 혹은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17.0%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5-5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자국 상담 규모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본국 출신 상담 자원 규모			합 계		검증
		없음	5인 미만	5인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30.6	49.3	20.1	100.0	144	X <sup>2</sup> =18.986 p<.001
	3-5년	20.4	42.2	37.4	100.0	147	
	6-9년	33.1	37.6	29.2	100.0	178	
	10년 이상	20.1	48.9	30.9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8.2	43.0	28.9	100.0	149	X <sup>2</sup> =3.430 p>.05
	20-30세	27.2	45.6	27.2	100.0	180	
	31-39세	26.9	45.5	27.6	100.0	156	
	40세 이상	22.8	41.5	35.8	100.0	123	
학력	중학이하	33.9	44.4	21.8	100.0	124	X <sup>2</sup> =24.332 p<.001
	고등학교	39.6	46.9	23.5	100.0	260	
	전문대학	19.8	39.7	40.5	100.0	116	
	대학교이상	17.8	42.1	40.2	100.0	107	
종교	종교 없음	40.5	49.6	9.9	100.0	121	X <sup>2</sup> =81.689 p<.001
	개신기독교	18.2	39.4	42.3	100.0	137	
	불원불교	22.6	60.4	17.0	100.0	53	
	통일교	14.6	46.1	39.3	100.0	219	
	기타	50.0	37.5	12.5	100.0	56	

다음으로 <표 5-5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국 상담 자원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가족생활 수준, 가구구성,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본국 출신 상담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 중에는 가족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32.6%로 부유한 여성 21.9%보다 10% 이상 많았으며, 여성이 가구주를 구성하거나 혹은 확대가족이 약 30% 수준

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성 16.9%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가사노동시간이 없거나 혹은 4-6시간 하고 있는 여성이 30% 이상으로 다른 여성 15% 수준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본국 출신 상담 자원을 5명 이상 갖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는 가족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39.4%로 가난한 여성 24.7%에 비해 15% 정도 많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성이 44.6%로 다른 가족형태의 여성 25% 수준에 비해 20% 이상 많았고, 9시간 이상 혹은 1-3시간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5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국 상담 규모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본국 출신 상담 자원 규모			합 계		검증
		없음	5인미만	5인이상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21.9	38.7	39.4	100.0	155	X <sup>2</sup> =12.186 p<.01
	보통	26.0	47.4	26.6	100.0	312	
	살기어려움	32.6	42.6	24.7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30.8	30.8	38.5	100.0	39	X <sup>2</sup> =16.712 p<.05
	부부가구	25.3	44.6	30.1	100.0	83	
	핵가족	27.7	48.1	24.3	100.0	206	
	부모동거	16.9	38.6	44.6	100.0	83	
	확대가족	28.9	44.7	26.4	100.0	197	
현재직업	농업	27.0	44.7	28.3	100.0	152	X <sup>2</sup> =7.015 p>.05
	전업주부	24.2	43.5	32.3	100.0	331	
	취업임금	32.0	49.3	18.7	100.0	75	
	기타	32.0	38.0	30.0	100.0	50	
노동시간	없다	27.6	41.1	31.3	100.0	319	X <sup>2</sup> =4.885 p>.05
	1-8시간	23.3	46.6	30.1	100.0	193	
	9시간이상	29.2	49.0	21.9	100.0	96	
가사노동	없다	32.8	37.7	29.5	100.0	183	X <sup>2</sup> =30.404 p<.001
	1-3시간	15.9	46.9	37.2	100.0	145	
	4-6시간	35.0	44.4	20.6	100.0	180	
	7시간이상	15.0	51.0	34.0	100.0	100	
한글수준	능숙하다	30.0	41.7	28.3	100.0	247	X <sup>2</sup> =4.539 p>.05
	보통이다	20.6	48.8	30.6	100.0	160	
	서툰 편이다	26.9	43.3	29.9	100.0	201	

<표 5-5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한국인 상담 자원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인 상담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그리고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5인 이상 한국 상담 자원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40세 이상 여성이 20세 미만 여성에 비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31.8%로 중학교 이하의 여성 15.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4.3%로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10% 미만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표 5-5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인 상담 자원 규모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한국인 상담 자원 규모			합 계		검증
		없음	5인 미만	5인 이상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62.5	25.7	11.8	100.0	144	X <sup>2</sup> =8.418 p>.05
	3-5년	53.7	26.5	19.7	100.0	147	
	6-9년	57.3	23.0	19.7	100.0	178	
	10년 이상	56.8	30.9	12.2	100.0	139	
연령	20세미만	68.5	18.1	13.4	100.0	149	X <sup>2</sup> =12.650 p<.05
	20-30세	53.3	28.9	17.8	100.0	180	
	31-39세	55.8	30.8	13.5	100.0	156	
	40세 이상	52.8	26.8	20.3	100.0	123	
학력	중학이하	72.6	15.3	12.1	100.0	124	X <sup>2</sup> =41.805 p<.001
	고등학교	61.2	26.9	11.9	100.0	260	
	전문대학	52.6	31.9	15.5	100.0	116	
	대학교이상	37.4	30.8	31.8	100.0	107	
종교	종교 없음	72.7	24.0	3.3	100.0	121	X <sup>2</sup> =66.794 p<.001
	개신기독교	39.4	26.3	34.3	100.0	137	
	불원불교	69.8	18.9	11.3	100.0	53	
	통일교	52.1	32.4	15.5	100.0	219	
	기타	73.2	19.6	7.1	100.0	56	

그리고 <표 5-5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한국인 상담 자원 규모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직업과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 상담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67.8%로 취업 임금노동자의 46.7%에 비해 20% 이상 많았고, 가사노동시간이 없거나 혹은 4-6시간 정도 하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한국인 상담 자원을 5명 이상 갖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기타 직업 범주에 속하는 여성이 28.0%로 다른 직업 범주에 속하는 여성 13-16%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7시간 이상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22.0%로서 가사노동 시간이 없는 여성 13.1%에 비해 10% 정도 많았다.

<표 5-5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한국인 상담 자원 규모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한국인상담원의 범주			합 계		검증
		없음	5인 미만	5인 이상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55.5	24.5	20.0	100.0	155	X <sup>2</sup> =6.904 p>.05
	보통	55.4	29.8	14.7	100.0	312	
	살기어려움	64.5	20.6	14.9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56.4	17.9	25.6	100.0	39	X <sup>2</sup> =13.777 p>.05
	부부가구	48.2	31.3	20.5	100.0	83	
	핵가족	55.3	28.2	16.5	100.0	206	
	부모동거	53.0	28.9	18.1	100.0	83	
	확대가족	66.0	22.8	11.2	100.0	197	
현재직업	농업	67.8	19.1	13.2	100.0	152	X <sup>2</sup> =19.202 p<.01
	전업주부	56.8	26.9	16.3	100.0	331	
	취업임금	46.7	40.0	13.3	100.0	75	
	기타	48.0	24.0	28.0	100.0	50	
노동시간	없다	60.8	23.8	15.4	100.0	319	X <sup>2</sup> =3.150 p>.05
	1-8시간	54.4	28.5	17.1	100.0	193	
	9시간이상	53.1	30.2	16.7	100.0	96	
가사노동	없다	62.3	24.6	13.1	100.0	183	X <sup>2</sup> =13.458 p<.05
	1-3시간	49.7	31.7	18.6	100.0	145	
	4-6시간	64.4	21.7	13.9	100.0	180	
	7시간이상	48.0	30.0	22.0	100.0	100	
한글수준	능숙하다	56.3	28.7	15.0	100.0	247	X <sup>2</sup> =2.872 p>.05
	보통이다	55.0	26.3	18.8	100.0	160	
	서툰 편이다	61.2	23.4	15.4	100.0	201	

끝으로 위에서 살펴본 상담 자원 모두를 합하여 종합적인 상담 자원으로 규정하여 이런 결과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표5-5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상담 자원규모를 분석한 것인데, 응답자의 국내 거주기간, 연령, 학력수준,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종합적인 상담 자원을 보다 풍부하게 갖고 있으며, 나이가 많거나 혹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그리고 통일교나 개신/기독교를 믿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상담 자원을 보다 풍부하게 갖고 있었다.

<표 5-5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합적 상담자원 규모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종합적 상담 자원 규모				합 계		검증
		없음	5명 미만	10명 미만	10명 이상	비율	빈도	
거주 기간	2년 이하	25.7	45.8	14.6	13.9	100.0	144	$X^2=23.65,$ $p<.01$
	3-5년	17.7	41.5	14.3	26.5	100.0	147	
	6-9년	24.2	39.3	16.9	19.7	100.0	178	
	10년이상	15.1	48.9	24.5	11.5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5.5	45.6	12.8	16.1	100.0	149	$X^2=6.90,$ $p>.05$
	20-30세	21.1	41.7	17.2	20.0	100.0	180	
	31-39세	19.2	44.2	19.9	16.7	100.0	156	
	40세이상	17.1	43.1	20.3	19.5	100.0	123	
학력	중학이하	26.6	50.0	11.3	12.1	100.0	124	$X^2=37.58,$ $p<.001$
	고등학교	24.2	45.4	17.7	12.7	100.0	260	
	전문대학	14.7	43.1	19.8	22.4	100.0	116	
	대학교이상	13.1	32.7	21.5	32.7	100.0	107	
종교	종교 없음	29.8	58.7	8.3	3.3	100.0	121	$X^2=118.0,$ $p<.001$
	개신기독교	15.3	27.0	20.4	37.2	100.0	137	
	불원불교	20.8	64.2	3.8	11.3	100.0	53	
	통일교	11.0	43.4	26.0	19.6	100.0	219	
	기타	39.3	44.6	10.7	5.4	100.0	56	

다른 한편, <표 5-6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상담자원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응답자의 가족생활 수준, 가족구성, 현재 직업,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생활수준이 부유한 여성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에 비해 종합적인 상담 자원을 보다 많이 갖고 있었으며, 부부가족이나 부부부모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의 여성이, 전업주부 및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그리고 가사노동시간이 약간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 각각에 비해 종합적인 상담 자원을 보다 많이 갖고 있었다.

<표 5-6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상담자원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종합적인 상담 규모			합 계		검증
		없음	5인 미만	5인 이상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71.6	14.2	14.2	100.0	155	X <sup>2</sup> =12.064 p<.01
	보통	81.4	11.9	6.7	100.0	312	
	살기어려움	85.1	7.1	7.8	100.0	141	
가족구성	여성가구	74.4	17.9	7.7	100.0	39	X <sup>2</sup> =36.433 p<.001
	부부가구	69.9	16.9	13.3	100.0	83	
	핵가족	85.9	7.3	6.8	100.0	206	
	부모동거	65.1	18.1	16.9	100.0	83	
	확대가족	84.8	9.1	6.1	100.0	197	
현재직업	농업	79.6	12.4	7.9	100.0	152	X <sup>2</sup> =14.358 p<.05
	전업주부	77.9	11.8	10.3	100.0	331	
	취업임금	84.0	14.7	1.3	100.0	75	
	기타	86.0	-	14.0	100.0	50	
노동시간	없다	80.9	9.7	9.4	100.0	319	X <sup>2</sup> =2.751 p>.05
	1-8시간	77.2	13.5	9.3	100.0	193	
	9시간이상	81.3	12.5	6.3	100.0	96	
가사노동	없다	81.4	9.3	9.3	100.0	183	X <sup>2</sup> =13.738 p<.05
	1-3시간	69.7	17.9	12.4	100.0	145	
	4-6시간	85.0	8.3	6.7	100.0	180	
	7시간이상	82.0	11.0	7.0	100.0	100	
한글수준	능숙하다	81.4	9.3	9.3	100.0	247	X <sup>2</sup> =3.985 p>.05
	보통이다	80.6	10.0	9.4	100.0	160	
	서툰 편이다	77.1	14.9	8.0	100.0	201	





# 제 6 장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

-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 출산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돌봄과 교육문제



## 제 6 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

###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출산

#### 1.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실태

한국사회가 2000년 노인인구 7.3%를 기록한 이후 매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일부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처럼 농촌지역사회가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가속화시켰고, 더욱이 지역 혹은 국내적으로 배우자를 찾지 못한 농촌 남성의 경우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출산을 또한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사회의 심각한 노령화와 저출산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농촌지역 남성의 국제결혼 추진은 농촌지역사회 인력 재생산을 비롯하여 노령화를 완화시키는 완충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표 6-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실태를 분석한 것인데,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의 가정이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22.7%를 차지한 반면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의 가정은 77.3%를 차지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평균 자녀는 1.525명으로 한국사회 전체 출산율 1.16명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결혼한 여성이 27.1%에 이르고 있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실태 분석

단위 : 명, %

자녀 존재 여부	구분	빈 도	비 율	평균
자녀가 없는 가정		138	22.7	1.535
자녀가 있는 가정		470	77.3	
합 계		608	100.0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유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아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과 자녀 규모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6-2>에 의하면,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여성이 58.3%로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5-17%에 비해 3-10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자녀 수가 1명인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인 이주여성이 67.4%로 6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32.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2명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경우 국내에 6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70-80% 수준으로 국내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이주여성 10.4%에 비해 7-8배 정도 많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에 따라서 자녀 규모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서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 53.3%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24.0%에 비해 2배 정도 많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표 6-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 자녀 수 관계 분석

단위 : %, 명

국내 거주기간 자녀 수	2년 이하	3-5년	6-9년	10년 이상	합 계	
					비율	빈도
자녀가 없다	58.3	17.0	11.8	5.8	22.7	138
1명	31.3	36.1	15.1	15.1	24.0	146
2명 이상	10.4	46.9	73.8	79.1	53.3	32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608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녀를 두고 있는 470명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경우 각각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 자녀 수에 따른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6-3>에 의하면, 앞의 분석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77.3%가 첫 번째 아이를 두고 있었지만, 몇 사람이 응답하지 첫 번째 아이의 연령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결국 75.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51.3%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절반이 자녀 2명 이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24.5%는 현재 자녀 1명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가정은 17.9%를 차지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자녀 2명만을 두고 있는 여성은 33.4%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녀 4명 이상을 두고 있는 이주여성은 3.1%로 나타났고, 그런 의미에서 자녀 3명만을 두고 있는 이주여성은 14.8%를 차지하였다.

<표 6-3>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출생 순서에 의한 자녀 실태 분석

단위 : 명, %

자녀 존재 여부	자녀 수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이상
자녀 없음/ 무응답		24.2(147)	48.7(296)	82.1(449)	96.9(589)
자녀가 있는 가정		75.8(461)	51.3(312)	17.9(159)	3.1(19)
합 계		100.0(698)	100.0(608)	100.0(608)	100.0(608)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를 연령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즉 아동의 연령을 유아기와 아동기, 초등학교 단계, 그리고 초등학교 이상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4>와 같다.

먼저 첫째 아이의 경우 유아기 연령의 아동이 38.7%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동기와 초등학교 단계가 각각 14.8%와 20.9%를 차지하였다. 반면 중학교 이상 학력에 해당되는 14세 이상 자녀의 경우 1.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아동의 경우는 유아기 연령의 아동이 25.5%를 차지하였고, 아동기와 초등학교 단계의 아동이 각각 11.2%와 14.1%를 차지하였으며, 3번째 아동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18.9%가 3번째 아동을 갖고 있었지만 그 연령은 유아기 아동이 25.5%를 차지하였고, 아동기와 초등학교 단계의 아동이 각각 11.2%와 14.1%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4번째 아동이 있는 여성은 3.1%를 차지하였고, 이들 아동 모두는 초등학교 이하의 단계에 있었다.

<표 6-4>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자녀의 연령 실태 분석

단위 : 명, %

자녀 수 자녀 존재 여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이상 합 계
자녀 없음/ 무응답	24.2(147)	48.7(296)	82.1(449)	96.9(589)
1- 5세	38.7	25.5	9.5	1.8
6-7세	14.8	11.2	3.1	0.1
8-13세	20.9	14.1	4.9	1.2
14세 이상	1.5	0.5	0.3	-
합 계	100.0(698)	100.0(608)	100.0(608)	100.0(608)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 관련 행위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출산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에서 아래 <표 6-5>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출산 관련 각종 행위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응답자 가운데 1/3 수준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나,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 의사의 설명 이해, 출산 후 산후조리, 그리고 출산 후 자녀돌보기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출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병원 찾아가는 경우와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경우가 각각 과반수인 52.8%와 53.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45.9%, 그리고 산후조리 및 자녀 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주여성이 각각 36.7%와 31.7%를 차지하였다.

<표 6-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행위 분석

단위 : 명, %

출산 관련 행위	어려움 정도 어렵지 않음	약간의 어려움	큰 어려움	합 계	
				비율	빈도
병원가는 어려움	52.8	19.6	27.6	100.0	608
진찰행위 어려움	52.5	19.7	27.8	100.0	608
진찰이해 어려움	45.9	25.5	28.6	100.0	608
산후조리 어려움	36.7	29.1	34.2	100.0	608
자녀 돌봄 어려움	31.6	34.2	34.2	100.0	608

이상과 같이 출산과정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출산 후 산후조리 및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컸으며, 다음은 진찰에 대한 의사의 어려움이 컸으며, 병원에 찾아가는 것과 의사 진찰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 않았다.

다른 한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출산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행위 내용 가운데 아래와 같이 몇 가지만 선택하여 그 어려움의 정도가 이주여성의 개인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병원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6>과 같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이나 연령, 그리고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이나 필리핀 및 일본 국적의 여성이 각각 60%에서 70% 수준으로 많았지만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33.3%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에 병원을 찾아가는데 있어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50.0%로 다른 국적의 여성 10% 수준에 비해 5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종교가 없거나 혹은 통일교를 비롯하여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19.2%로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7.3%보다 3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병원방문과 관련된 어려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한국어 능력 수준, 외부활동참여에 대한 가족지지,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그리고 부부 만족도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병원을 찾아 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혹은 보통인 여성이 68% 이상으로서 열악한 여성 56.5%에 비해 12% 정도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70% 수준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55% 수준에 비해 약 15% 정도 많았고, 부부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81.0%로 그렇지 않은 여성 60.3%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열악한 여성이 19.1%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 7.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17% 이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 이주여성 10% 미만에 비해 7 이상 많았으며,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20.5%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 6.3%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

<표 6-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병원 찾아가기 어려움 차이 분석

단위 : 명, %

변수	범주	병원 찾아가는 어려움 정도			합 계		검증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비율	빈도	
거주 기간	2년 이하	65.0	23.3	11.7	100.0	144	X <sup>2</sup> =8.66, p>.194
	3-5년	61.5	20.5	18.0	100.0	147	
	6-9년	70.1	24.8	5.1	100.0	178	
	10년 이상	63.4	23.7	13.0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64.3	21.4	14.3	100.0	149	X <sup>2</sup> =6.73, p>.347
	20-30세	66.0	22.9	11.1	100.0	180	
	31-39세	65.4	25.0	9.6	100.0	156	
	40세 이상	64.9	22.7	12.4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63.8	23.2	13.0	100.0	124	X <sup>2</sup> =6.18 p>.404
	고등학교	65.7	22.1	12.2	100.0	260	
	전문대학	61.2	26.5	12.2	100.0	116	
	대학교 이상	70.0	22.2	7.8	100.0	107	
국적	일본	62.2	26.8	11.0	100.0	145	X <sup>2</sup> =50.77 p<.001
	필리핀	64.4	23.3	12.3	100.0	209	
	베트남	33.3	16.7	50.0	100.0	32	
	조선족	70.6	19.4	10.0	100.0	187	
	기타	61.5	30.8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68.4	17.3	14.3	100.0	121	X <sup>2</sup> =24.54 p<.001
	개신기독교	64.1	22.3	13.6	100.0	137	
	불원불교	42.3	38.5	19.2	100.0	53	
	통일교	67.0	25.7	7.3	100.0	219	
	기타	66.7	22.2	11.1	100.0	56	

<표 6-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병원 찾아가기 어려움 차이 분석

단위 : 명, %

변수	범주	병원 찾아가는 어려움 정도			합 계		검증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63.9	24.4	11.8	100.0	155	X <sup>2</sup> =2.91 p>.05
	보통	67.8	22.0	10.2	100.0	312	
	살기어려움	61.7	24.3	13.9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62.9	24.2	12.9	100.0	152	X <sup>2</sup> =1.04 p>.05
	전업주부	66.4	23.2	10.4	100.0	331	
	취업임금	64.8	18.5	16.7	100.0	75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62.0	25.7	12.3	100.0	244	X <sup>2</sup> =3.44 p>.05
	약간	68.2	21.7	10.1	100.0	335	
	많음	58.3	20.8	20.8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68.1	24.1	7.9	100.0	247	X <sup>2</sup> =17.47 p<.001
	보통이다	69.9	20.3	9.8	100.0	160	
	서툰편이다	56.5	24.4	19.1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71.5	19.7	8.8	100.0	288	X <sup>2</sup> =34.83 p<.001
	보통지지	61.3	26.3	12.4	100.0	242	
	지지부족	53.6	26.8	19.6	100.0	78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69.5	19.5	11.0	100.0	199	X <sup>2</sup> =27.15 p<.001
	보통지지	65.0	25.2	9.8	100.0	300	
	지지부족	58.5	24.4	17.1	100.0	109	
외부모임 참여수준	모임없음	50.5	29.9	19.6	100.0	167	X <sup>2</sup> =4.61 p>.05
	1개 참여	70.6	19.1	10.3	100.0	335	
	2개 참여	67.0	27.5	5.5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68.8	20.4	10.8	100.0	127	X <sup>2</sup> =6.08 p>.05
	5명 미만	62.2	23.4	14.4	100.0	265	
	10명 미만	72.4	19.5	8.0	100.0	106	
	10명 이상	61.7	29.6	8.6	100.0	110	
부부 만족수준	매우만족	81.0	12.7	6.3	100.0	105	X <sup>2</sup> =68.09 p<.001
	약간만족	64.1	29.4	6.5	100.0	216	
	보통	60.8	23.6	15.5	100.0	191	
	불만족	60.3	19.2	20.5	100.0	96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의사로부터 진찰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 의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족과 일본 국적의 여성 및 종교가 없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지 않았다. 예를 들면, 임신부 진찰과정에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 7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일본 국적의 여성이 56.7%를 차지하였고, 그밖의 다른 나라 국적의 여성은 30-40% 수준으로 낮았으며, 그리고 종교가 없는 여성이 7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61.5%로 많았지만,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의 경우 45.6%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이나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임신부 진찰과정에서 의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표 6-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의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가족생활, 한국어 사용능력, 외부활동에 참여할 경우 가족의 지지 수준, 그리고 부부생활 만족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임신부 진찰과정에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가족생활 수준이 보통인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국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72.7%로 서툰 여성의 38.9%보다 30% 이상 많았으며, 외부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받고 있는 여성이 60.5%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50.0%에 비해 10% 정도 많았고, 2개 이상 외부모임에 참여하는 여성이 60.4%로 모임이 전혀 없는 여성 49.5%에 비해 10% 이상 많았으며, 부부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78.5%로 불만족 상태에 있는 여성 42.5%에 비해 25% 이상 많았다.

반면에 의사의 진찰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 중에는 가족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부유한 여성이 17% 수준으로 가족생활이 보통 수준인 여성 8.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한국어 사용 능력이 서툰 여성이 25.2%로 우수한 여성 6.9%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외부 모임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21.5%로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7.7%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그리고 부부생활에 불만

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21.9%로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여성 5.1%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직업이나 개인적 네트워크,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 정도에 따른 임신부 진찰과정에서 의사설명을 이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의사의 진찰설명 이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의사의 진찰설명 이해 어려움			합 계		검증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비율	빈도	
거주 기간	2년 이하	51.7	35.0	13.3	100.0	144	X <sup>2</sup> =8.66, p>.05
	3-5년	53.3	30.3	16.4	100.0	147	
	6-9년	61.8	29.3	8.9	100.0	178	
	10년이상	59.5	27.5	13.0	100.0	139	
연령	20세미만	52.4	35.7	11.9	100.0	149	X <sup>2</sup> =6.73, p>.05
	20-30세	60.1	27.5	12.4	100.0	180	
	31-39세	59.6	29.4	11.0	100.0	156	
	40세이상	55.7	28.9	15.5	100.0	123	
학력	중학이하	62.3	26.1	11.6	100.0	124	X <sup>2</sup> =6.18 p>.05
	고등학교	62.4	24.4	13.1	100.0	260	
	전문대학	48.0	38.8	13.3	100.0	116	
	대학교이상	53.3	35.6	11.1	100.0	107	
국적	일본	56.7	31.5	11.8	100.0	145	X <sup>2</sup> =50.77 p<.001
	필리핀	44.2	40.5	15.3	100.0	209	
	베트남	33.3	16.7	50.0	100.0	32	
	조선족	74.4	17.5	8.1	100.0	187	
	기타	46.2	38.5	15.4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70.4	16.3	13.3	100.0	121	X <sup>2</sup> =24.54 p<.01
	개신기독교	45.6	38.8	15.5	100.0	137	
	불원불교	61.5	23.1	15.4	100.0	53	
	통일교	57.6	33.0	9.4	100.0	219	
	기타	60.0	26.7	13.3	100.0	56	

<표 6-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의사의 진찰설명 이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의사의 진찰설명 이해 어려움			합 계		검증
		1.00	2.00	3.00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50.4	32.8	16.8	100.0	155	X <sup>2</sup> =29.91 p<.001
	보통	61.9	29.7	8.5	100.0	312	
	살기어려움	56.5	27.0	16.5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57.3	28.2	14.5	100.0	152	X <sup>2</sup> =6.04 p<.05
	전업주부	57.2	31.6	11.2	100.0	331	
	취업임금	53.7	31.5	14.8	100.0	75	
	기타	66.7	21.4	11.9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51.4	36.3	12.3	100.0	244	X <sup>2</sup> =0.031 p>.05
	약간	62.2	25.5	12.4	100.0	335	
	많음	54.2	29.2	16.7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72.7	20.4	6.9	100.0	247	X <sup>2</sup> =17.47 p<.01
	보통이다	51.2	39.8	8.9	100.0	160	
	서툰 편이다	38.9	35.9	25.2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60.5	28.9	10.5	100.0	288	X <sup>2</sup> =34.83 p<.001
	보통지지	56.5	29.6	14.0	100.0	242	
	지지부족	50.0	33.9	16.1	100.0	78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61.7	26.0	12.3	100.0	199	X <sup>2</sup> =4.61 p>.05
	보통지지	54.3	32.9	12.8	100.0	300	
	지지부족	59.8	28.0	12.2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49.5	29.0	21.5	100.0	167	X <sup>2</sup> =27.15 p<.001
	1개 참여	59.9	29.4	10.7	100.0	335	
	2개 참여	60.4	31.9	7.7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61.3	25.8	12.9	100.0	127	X <sup>2</sup> =16.08 p<.05
	5명 미만	57.4	27.8	14.8	100.0	265	
	10명 미만	57.5	33.3	9.2	100.0	106	
	10명이상	54.3	35.8	9.9	100.0	110	
부부생활 만족	매우 만족	78.5	16.5	5.1	100.0	105	X <sup>2</sup> =68.09 p<.001
	약간 만족	55.9	33.5	10.6	100.0	216	
	보통	56.1	29.7	14.2	100.0	191	
	불만족	42.5	35.6	21.9	100.0	96	

그리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출산 이후 산후조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 출산 이후 산후조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출산 이후 산후조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과 기타 국적의 여성이 각각 55.0%와 46.2%로 가장 많았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각각 33.3%와 37.4%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출산 이후 산후조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50.0%로 조선족을 비롯하여 일본 및 필리핀 국적 여성 20% 미만에 비해 2.5배 이상 많았다.

다음으로 종교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였는데, 출산 이후 산후조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주여성 중에는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각각 53% 수준으로 개신기독교 및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38% 수준에 비해 약 15% 정도 많았다. 반면에 출산 이후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50% 수준으로 다른 국적의 여성 20% 이하에 비해 2.5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출산 이후 산후조리 어려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어 사용능력이나, 외부활동이나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 모임 참여 수준, 그리고 부부생활 만족도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출산 이후 산후조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61.1%로 한국어가 서툰 여성 31.3%보다 2배 정도 많았으며, 외부 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이 50% 이상으로 지지가 부족한 여성 40% 미만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그리고 1개 이상의 외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45-50%로 외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의 35%에 비해 10-15% 이상 많았고, 부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여성이 69.6%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 27.4%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출산 이후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능력이 서툰 여성이 29.0%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여성 11.1%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외부의 활동이나 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각각 28.6%와 23.2%

로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14.5%와 16.9%에 비해 2배와 7% 정도 많았다.

마찬가지로 출산 이후 산후조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외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29.0%로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 12.1%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부부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27.4%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여성 7.6%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표 6-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산후조리 어려움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출산 후 산후조리 어려움			합 계		검증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43.3	33.3	23.3	100.0	144	X <sup>2</sup> =6.61, p>.05
	3-5년	43.4	36.1	20.5	100.0	147	
	6-9년	48.4	36.9	14.6	100.0	178	
	10년 이상	47.3	34.4	18.3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45.2	38.1	16.7	100.0	149	X <sup>2</sup> =4.73, p>.05
	20-30세	48.4	35.9	15.7	100.0	180	
	31-39세	46.3	35.3	18.4	100.0	156	
	40세 이상	43.3	33.0	23.7	100.0	123	
학력	중학이하	50.7	29.0	20.3	100.0	124	X <sup>2</sup> =3.18 p>.05
	고등학교	48.4	34.3	17.4	100.0	260	
	전문대학	41.8	36.7	21.4	100.0	116	
	대학교이상	42.2	42.2	15.6	100.0	107	
국적	일본	47.2	33.1	19.7	100.0	145	X <sup>2</sup> =40.87 p<.001
	필리핀	37.4	42.9	19.6	100.0	209	
	베트남	33.3	16.7	50.0	100.0	32	
	조선족	55.0	31.3	13.8	100.0	187	
	기타	46.2	30.8	23.1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53.1	28.6	18.4	100.0	121	X <sup>2</sup> =13.67 p<.05
	개신기독교	37.9	38.8	23.3	100.0	137	
	불원불교	38.5	42.3	19.2	100.0	53	
	통일교	46.6	38.2	15.2	100.0	219	
	기타	53.3	31.1	15.6	100.0	56	

<표 6-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상담자원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출산 후 산후조리 어려움			합 계		검증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47.1	33.6	19.3	100.0	155	X <sup>2</sup> =3.22 p>.05
	보통	49.2	34.3	16.5	100.0	312	
	살기어려움	39.1	40.0	20.9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46.0	35.5	18.5	100.0	152	X <sup>2</sup> =2.04 p>.05
	전업주부	47.2	35.2	17.6	100.0	331	
	취업임금	42.6	35.2	22.2	100.0	75	
	기타	45.2	38.1	16.7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40.8	36.9	22.3	100.0	244	X <sup>2</sup> =5.31 p>.05
	약간	49.4	35.2	15.4	100.0	335	
	많음	50.0	29.2	20.8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61.1	27.8	11.1	100.0	247	X <sup>2</sup> =19.71 p<.001
	보통이다	35.8	44.7	19.5	100.0	160	
	서툰 편이다	31.3	39.7	29.0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52.6	32.9	14.5	100.0	288	X <sup>2</sup> =18.24 p<.001
	보통지지	41.9	38.2	19.9	100.0	242	
	지지부족	33.9	37.5	28.6	100.0	78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54.5	28.6	16.9	100.0	199	X <sup>2</sup> =17.25 p<.01
	보통지지	43.2	39.3	17.5	100.0	300	
	지지부족	39.0	37.8	23.2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35.5	35.5	29.0	100.0	167	X <sup>2</sup> =25.61 p<.001
	1개 참여	50.7	33.1	16.2	100.0	335	
	2개 참여	45.1	42.9	12.1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45.2	39.8	15.1	100.0	127	X <sup>2</sup> =4.08 p>.05
	5명 미만	44.5	34.0	21.5	100.0	265	
	10명 미만	47.1	34.5	18.4	100.0	106	
	10명 이상	50.6	35.8	13.6	100.0	110	
부부생활 만족	매우 만족	69.6	22.8	7.6	100.0	105	X <sup>2</sup> =48.45 p<.001
	약간 만족	50.6	34.1	15.3	100.0	216	
	보 통	37.8	39.2	23.0	100.0	191	
	불만족	27.4	45.2	27.4	100.0	96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돌봄과 교육 문제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돌봄 문제

<표 6-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77.3% (470명)은 자녀가 있었고, 자녀를 갖고 있는 이주여성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은 81.1%(381명)를 차지한 반면에 나머지 18.9%(89명)는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12>와 같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과반수에 가까운 46.7%는 본인이나 가족이 집에서 돌보고 있으며, 집에서 혼자 놓고 있는 경우는 1.8%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경우가 각각 19.4%와 19.7%를 차지하였고 한글학교에서 돌보는 경우는 1.3%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경우 이주여성이나 가족 혹은 집에서 노는 경우가 약 1/2를 차지한 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 어린이를 돌봐주는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약 1/2에 미치지 못하는 40% 수준을 차지하였다.

<표 6-12>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돌봄 분석

단위 : 명, %

자녀를 돌보는 사람	빈 도	비 율
본인 및 가족	178	46.7
보육 시설	74	19.4
유치원	75	19.7
본국 출신 친구	4	1.0
아이 혼자서 논다	7	1.8
한글 학교	5	1.3
기 타	38	10.0
합 계	381	100.0

## 2.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 분석

<표 6-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77.3% (470명)은 자녀가 있었다. 그런데 <표 6-13>에 의하면, 자녀와 대화가 가능한 경우는 418명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52명은 자녀가 아직 어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화가 가능한 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9.8%는 자녀와 대화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약 40% 정도는 자녀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36.4%는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3.8%는 어려워져서 자녀와 대화를 망설이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6-13>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 사이의 대화 어려움 실태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전혀 어려움이 없다	250	59.8
약간 어려움을 느낀다	152	36.4
어려워서 망설여진다	16	3.8
합 계	418	100.0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이나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연구는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6-1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녀와 대화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이나 국적,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와 대화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76.3%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49.3%에 비해 25%

이상 많았으며, 조선족 여성이 89.9%로 필리핀이나 일본 국적의 여성 약 40%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종교가 없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80% 수준으로 통일교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45% 수준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자녀와 대화가 어려워서 망설이는 여성 중에는 중학교 이하의 여성의 6.8%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2.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필리핀이나 일본 국적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른 한편, <표 6-1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을 분석한 것인데, 한국어 능력 수준과 외부모임 참여 정도와 부부생활 만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자녀와 대화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80.7%로 한국어 능력이 열악한 여성의 34.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부부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68.1%로 불만족 상태에 있는 여성 48.5%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반면에 자녀와 대화가 어려워서 망설여진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능력이 열악한 여성이 11.3%로 우수한 여성 0.5%에 비해 매우 많았다.

그렇지만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주여성의 직업인데, 예를 들며, 자녀와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여성 중에는 농업이나 취업 노동자 여성이 67% 수준으로 전업주부의 54%에 비해 13% 정도 많았고, 외부교육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이 67.2%로 중간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54%에 비해 13% 정도 많았으며, 상담자를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70% 수준으로 상담자를 많이 갖고 있는 여성 50%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표 6-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 분석

단위 : 명, %

변수	범주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 정도			합 계		검증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67.5	32.4	-	100.0	37	X <sup>2</sup> =6.08, p>.05
	3-5년	54.2	38.5	7.3	100.0	96	
	6-9년	60.3	35.6	4.1	100.0	146	
	10년이상	62.0	35.5	2.5	100.0	121	
연령	20세미만	64.1	31.3	4.7	100.0	64	X <sup>2</sup> =4.651, p>.05
	20-30세	65.4	31.5	3.1	100.0	127	
	31-39세	56.7	38.3	5.0	100.0	120	
	40세이상	53.9	42.7	3.4	100.0	89	
학력	중학이하	76.3	16.9	6.8	100.0	59	X <sup>2</sup> =22.628, p<.001
	고등학교	65.1	31.7	3.2	100.0	186	
	전문대학	46.4	48.8	4.8	100.0	84	
	대학교이상	49.3	47.9	2.8	100.0	71	
국적	일본	43.9	51.8	4.4	100.0	114	X <sup>2</sup> =97.095, p<.001
	필리핀	36.9	55.7	7.4	100.0	122	
	베트남	75.0	25.0	-	100.0	4	
	조선족	89.9	8.7	2.0	100.0	149	
	기타	70.0	30.0	-	100.0	10	
종교	종교 없음	85.3	10.5	4.2	100.0	95	X <sup>2</sup> =159.584, p<.001
	개신기독교	48.8	46.3	5	100.0	80	
	불원불교	78.3	17.4	4.3	100.0	23	
	통일교	43.1	53.1	3.8	100.0	160	
	기타	76.3	21.1	2.6	100.0	38	

<표 6-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자녀와 대화 어려움 정도			합 계		검증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60.5	36.0	3.5	100.0	86	X <sup>2</sup> =913, p>.05
	보통	60.0	36.6	3.4	100.0	205	
	살기어려움	59.6	34.9	5.5	100.0	109	
현재직업	농업	67	31.1	1.9	100.0	103	X <sup>2</sup> =9.098, p>.05
	전업주부	54.4	39.7	5.9	100.0	24	
	취업임금	67.3	32.7	-	100.0	52	
	기타	61.0	34.1	4.9	100.0	41	
입국한 사람총합	없 다	53.0	41.6	5.4	100.0	149	X <sup>2</sup> =7.650, p>.05
	1명 있음	65.2	31.3	3.5	100.0	230	
	2명 이상	52.4	47.6	-	100.0	21	
한글수준	능숙하다	80.7	18.8	5	100.0	197	X <sup>2</sup> =81.119, p<.001
	보통이다	45.4	51.5	3.1	100.0	97	
	서툰 편이다	34.9	53.8	11.3	100.0	106	
가족지지	적극지지	62.6	32.6	4.7	100.0	190	X <sup>2</sup> =4.259, p>.05
	보통지지	55.9	39.8	4.3	100.0	161	
	지지부족	63.3	36.7	-	100.0	49	
교육참석	적극지지	67.2	28.4	4.5	100.0	134	X <sup>2</sup> =6.404, p>.05
	보통지지	54.4	41.5	4.1	100.0	195	
	지지부족	62.8	35.2	2.0	100.0	71	
전체모임	모임없음	59.3	36	4.7	100.0	86	X <sup>2</sup> =7.622 p>.05
	1개참여	63.4	31.9	4.7	100.0	232	
	2개참여	51.2	47.6	1.2	100.0	82	
상담자 합의	없음	69.9	24.1	6.0	100.0	83	X <sup>2</sup> =10.720 p>.05
	5명미만	62.1	34.5	3.4	100.0	174	
	10명미만	52.0	44.0	4.0	100.0	75	
	10명이상	51.5	45.6	2.9	100.0	68	
종합적 부부만족	매우만족	68.1	26.1	5.8	100.0	69	X <sup>2</sup> =17.744, p<.01
	만족	62.2	35.0	2.8	100.0	143	
	그저 그렇다	59.2	36.7	4.2	100.0	120	
	불만족	48.5	47.1	4.4	100.0	68	

### 3. 자녀와의 학습 지원 및 학교생활 분석

<표 6-1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이나 숙제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29.7%(140명)는 아직 자녀가 어려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70.3%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매일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은 27.8%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은 50.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자녀의 학습활동을 거의 지원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은 15.7%를 차지하였으며, 1달에 1-2회 정도 지원하는 경우도 4.2%를 차지하였다.

<표 6-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숙제 도움 분석

단위 : 명, %

자녀의 학습지원	빈 도	비 율
학교 및 유치원 학생 없음	140	29.7
거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74	15.7
1달에 1-2회 정도	20	4.2
1주일에 1-2회 정도	64	13.6
1주일에 3-4회 정도	43	9.1
거의 매일	131	27.8
합 계	472	100.0

<표 6-1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분석한 것인데,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주여성이 33.1%를 차지한 반면에 30.7%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3.2%는 자녀의 숙제가 너무 어려워 지원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기타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 여성은 13.0%를 차지하였다.

<표 6-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학습 지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원인

단위 : 명, %

어려움을 겪는 원인	빈 도	비 율
한국어를 이해하기 힘들다	99	30.7
숙제 내용이 너무 어렵다	75	23.2
어려움이 별로 없다	107	33.1
기 타	42	13.0
합 계	323	100.0

<표 6-1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녀의 학습지원활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을 비롯하여 연령과 교육수준, 국적, 그리고 종교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자녀의 학습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여성이 오래된 여성에 비해, 20세 미만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필리핀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그리고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숙제 내용이 어려워 자녀 학습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이 짧은 여성에 비해, 나이가 많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그리고 통일교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자녀의 학습지원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아직 학교에 보내는 아동이 없는 국내 거주기간이 아주 짧은 여성이나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과 20-30대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조선족 여성이, 그리고 불교나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1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 학습지원 어려움 분석

단위 : 명, %

변수	범주	자녀 학습지원의 어려움				합 계		검증
		한국어 이해 어려움	숙제 내용의 어려움	어려움 없음	기타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33.3	6.7	40.0	20.0	100.0	15	X <sup>2</sup> =19.117 p<.05
	3-5년	47.5	20.3	20.3	11.9	100.0	59	
	6-9년	29.5	24.2	37.9	8.3	100.0	132	
	10년이상	23.1	25.6	33.3	17.9	100.0	117	
연령	20세미만	52.9	14.7	29.4	2.9	100.0	34	X <sup>2</sup> =22.619 p<.01
	20-30세	28.9	20.6	38.1	12.4	100.0	97	
	31-39세	26.4	19.1	35.5	19.1	100.0	110	
	40세이상	29.3	35.4	25.6	9.8	100.0	82	
학력	중학이하	24.4	13.3	51.1	11.1	100.0	45	X <sup>2</sup> =20.723, p<.05
	고등학교	26.0	21.2	37.0	15.8	100.0	146	
	전문대학	35.2	26.8	28.2	9.9	100.0	71	
	대학교이상	41.0	31.1	16.4	11.5	100.0	61	
국적	일본	25.2	28.2	33.0	13.6	100.0	103	X <sup>2</sup> =73.511 p<.001
	필리핀	54.6	27.8	8.2	9.3	100.0	97	
	베트남	50.0	50.0	0.0	0.0	100.0	2	
	조선족	14.8	15.7	53.0	16.5	100.0	115	
	기타	33.3	0.0	66.7	0.0	100.0	6	
종교	종교 없음	20.5	13.7	47.9	17.8	100.0	73	X <sup>2</sup> =31.459 p<.01
	개신기독교	42.1	24.6	22.8	10.5	100.0	57	
	불원불교	11.8	11.8	64.7	11.8	100.0	17	
	통일교	33.8	29.7	26.2	10.3	100.0	145	
	기타	30.8	15.4	34.6	19.2	100.0	26	



다음으로 <표 6-1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녀 학습 지원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비롯하여 외부모임 참여 정도와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외부 상담 자원의 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자녀의 학습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46.2%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 17.8%에 비해 3배 정도 많았고, 10명 이상의 외부 상담자원을 갖고 있는 여성이 47.5%로 상담 자원이 없는 여성 27.1%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그리고 숙제 내용이 어려워 자녀의 학습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참여하고 있는 외부 모임이 없거나 혹은 1개 있는 여성이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자녀의 학습지원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48.0%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 17.9%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참여하고 있는 외부 모임이 없거나 혹은 1개 있는 여성이 2개 이상 갖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담자원을 약간 갖고 있는 여성이 많이 갖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녀 학습지원 어려움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자녀 학습지원의 어려움				합 계		검증
		한국어 이해 어려움	숙제 내용의 어려움	어려움 없음	기타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32.4	23.9	35.5	8.5	100.0	71	X <sup>2</sup> =7.164 p>.05
	보통	30.7	27.0	30.1	12.3	100.0	163	
	살기어려움	29.2	15.7	37.1	18.0	100.0	89	
현재직업	농업	24.2	26.4	34.1	15.4	100.0	91	X <sup>2</sup> =11.178 p>.05
	전업주부	34.9	20.8	34.9	9.4	100.0	149	
	취업임금	32.6	15.2	34.8	17.4	100.0	46	
	기타	27.0	35.1	21.6	16.2	100.0	37	
입국한 사람총합	없 다	35.8	25.4	26.9	11.9	100.0	134	X <sup>2</sup> =11.604 p>.05
	1명 있음	24.4	22.1	39.0	14.5	100.0	172	
	2명 이상	52.9	17.6	23.5	5.9	100.0	17	
한글수준	능숙하다	17.8	17.8	48.0	16.4	100.0	152	X <sup>2</sup> =44.481 p<.001
	보통이다	38.7	32.3	21.5	7.5	100.0	93	
	서툰 편이다	46.2	23.1	17.9	12.8	100.0	78	
외부모임 참여	적극지지	28.4	23.1	35.1	13.4	100.0	134	X <sup>2</sup> =7.020 p>.05
	보통지지	28.7	20.5	37.7	13.1	100.0	122	
	지지부족	38.8	28.4	20.9	11.9	100.0	67	
외부교육 참여	적극지지	29.6	19.1	39.1	12.2	100.0	115	X <sup>2</sup> =7.504 p>.05
	보통지지	29.3	24.5	34.0	12.2	100.0	147	
	지지부족	36.1	27.9	19.7	16.4	100.0	61	
전체모임	모임없음	26.3	22.8	31.6	19.3	100.0	57	X <sup>2</sup> =14.782 p<.05
	1개참여	32.1	20.9	38.3	8.7	100.0	196	
	2개참여	30.0	30.0	20.0	20.0	100.0	70	
상담자 합의	없음	27.1	28.8	28.8	15.3	100.0	59	X <sup>2</sup> =19.304 p<.05
	5명미만	26.4	18.6	42.1	12.9	100.0	140	
	10명미만	27.7	27.7	33.8	10.8	100.0	65	
	10명이상	47.5	23.7	15.3	13.6	100.0	59	

그리고 <표 6-2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76%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동료로부터 자녀의 따돌림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24%는 자녀가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자녀의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5.1%,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당한 경우가 4.8%, 그리고 외국인 출신이라는 점과 기타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각각 9.3%와 4.8%를 차지하였다.

<표 6-20>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따돌림 당한 원인 분석

단위 : 명, %

따돌림 원인	빈 도	비 율
따돌림 당한 경험이 없다	345	76.0
자녀의 외모가 달라서	23	5.1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22	4.8
외국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42	9.3
기 타	22	4.8
합 계	454	100.0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동료에 의한 자녀의 따돌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6-21>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이 85% 이상으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 63.7%에 비해 20% 이상 많았으며, 종교가 없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90% 정도로 개신 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64.3%에 비해 25% 정도 많았다.

반면에 외모에 의한 차이 때문에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그리고 개신 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국적이나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는 일본 국적의 여성이나 통일교 및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엄마

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녀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겪은 경우는 필리핀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많았고, 개신기독교를 믿거나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표 6-22>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녀의 따돌림 경험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한국어 사용능력과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 외부모임 참여 정도, 그리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외부 상담자원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녀의 따돌림 경험이 없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81.1%로 보통 수준인 여성 67.2%에 비해 14% 정도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85% 수준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60% 수준에 비해 25% 정도 많았고, 외부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그리고 외부 상담자원이 없거나 혹은 아주 적게 갖고 있는 여성이 많이 갖고 있는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외모의 차이 때문에 따돌림을 경험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외부에 상담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는 한국어 사용이 서툰 여성이 우수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외부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많았고, 외부 상담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갖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녀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우는 외부활동이나 외부 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에 비해 많았고, 외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성에 비해, 그리고 외부 상담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2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의 따돌림경험 분석

단위 : 명, %

변수	범주	자녀의 따돌림 경험 이유					합 계		검증
		경험 없음	외모 차이	의사 소통	엄마가 외국인	기타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89.6	3.0	1.5	3.0	3.0	100.0	67	X <sup>2</sup> =17.406 p>.05
	3-5년	74.2	7.5	5.0	10.8	2.5	100.0	120	
	6-9년	73.8	6.2	3.4	10.3	6.2	100.0	145	
	10년이상	73.0	2.5	8.2	9.3	6.6	100.0	454	
연령	20세미만	81.6	4.6	1.1	6.9	5.7	100.0	87	X <sup>2</sup> =15.034 p>.05
	20-30세	76.9	5.4	2.0	10.9	4.8	100.0	147	
	31-39세	75.8	5.5	6.3	7.8	4.7	100.0	128	
	40세이상	76.0	5.1	4.8	9.3	4.3	100.0	92	
학력	중학이하	81.9	4.2	2.8	6.9	4.2	100.0	72	X <sup>2</sup> =8.907 p>.05
	고등학교	78.8	3.9	4.9	7.4	4.9	100.0	203	
	전문대학	73.9	5.4	5.4	12.0	3.3	100.0	92	
	대학교이상	66.7	8.0	5.7	12.6	6.9	100.0	87	
국적	일본	73.9	0.8	9.2	11.8	4.2	100.0	119	X <sup>2</sup> =55.092 p<.001
	필리핀	63.7	12.1	4.5	13.4	6.4	100.0	157	
	베트남	85.7	0.0	0.0	14.3	0.0	100.0	7	
	조선족	89.8	1.9	2.5	2.5	3.2	100.0	157	
	기타	76.9	0.0	0.0	7.7	15.4	100.0	13	
종교	종교 없음	90.5	2.1	1.1	2.1	4.2	100.0	95	X <sup>2</sup> =32.152 p<.01
	개신기독교	64.3	9.2	6.1	14.3	6.1	100.0	98	
	불원불교	88.5	0.0	0.0	7.7	3.8	100.0	26	
	통일교	70.9	5.5	6.6	11.5	5.5	100.0	182	
	기타	86.7	2.2	6.7	2.2	2.2	100.0	45	

<표 6-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녀의 따돌림 경험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자녀의 따돌림 경험 이유					합 계		검증
		경험 없음	외모 차이	의사 소통	엄마가외 국인	기타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66.7	5.3	7.0	14.9	6.1	100.0	114	X <sup>2</sup> =11.140 p>.05
	보통	80.2	5.6	3.9	6.0	4.3	100.0	232	
	살기어려움	76.9	3.7	4.6	10.2	4.6	100.0	108	
현재직업	농업	77.9	7.1	4.4	8.0	2.7	100.0	113	X <sup>2</sup> =7.486 p>.05
	전업주부	76.4	4.0	5.6	9.2	4.8	100.0	250	
	취업임금	76.5	3.9	3.9	9.8	5.9	100.0	51	
	기타	67.5	7.5	2.5	12.5	10.0	100.0	40	
입국한 사람총합	없 다	70.2	5.8	4.7	13.5	5.8	100.0	171	X <sup>2</sup> =8.524 p>.05
	1명 있음	79.4	5.0	5.0	6.5	4.2	100.0	262	
	2명 이상	81.0	0.0	4.8	9.5	4.8	100.0	21	
한글수준	능숙하다	81.1	4.4	3.4	8.3	2.9	100.0	206	X <sup>2</sup> =15.264 p<.05
	보통이다	67.2	9.2	5.0	12.6	5.9	100.0	119	
	서툰 편이다	76.0	2.3	7.0	7.8	7.0	100.0	129	
외부활동 참여	적극지지	83.5	2.4	3.5	7.6	2.9	100.0	170	X <sup>2</sup> =28.212 p<.001
	보통지지	76.6	3.2	6.4	9.0	4.8	100.0	188	
	지지부족	61.5	13.5	4.2	12.5	8.3	100.0	96	
외부교육 참여	적극지지	85.4	2.1	2.1	6.3	4.2	100.0	144	X <sup>2</sup> =21.842 p<.01
	보통지지	74.9	4.8	6.5	10.0	3.9	100.0	231	
	지지부족	62.0	11.4	5.1	12.7	8.9	100.0	79	
전체모임	모임없음	86.7	2.9	2.9	3.8	3.8	100.0	105	X <sup>2</sup> =17.867 p<.05
	1개참여	72.9	6.5	4.6	9.5	6.5	100.0	262	
	2개참여	72.4	3.4	8.0	14.9	1.1	100.0	87	
상담자 합의	없음	77.2	1.1	8.7	8.7	4.3	100.0	92	X <sup>2</sup> =63.968 p<.001
	5명미만	82.7	1.5	3.1	8.2	4.6	100.0	196	
	10명미만	76.5	3.5	7.1	4.7	8.2	100.0	85	
	10명이상	58.0	19.8	2.5	17.3	2.5	100.0	81	

# 제 7 장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생활 분석

-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웃과 가족관계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분석





## 제 7 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생활 분석

### 제 1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과 가족관계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관계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외부인으로서 우선 부딪치는 사람이 바로 이웃사람인 점을 고려하여 이주여성과 이웃주민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한지 분석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이웃 주민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 7-1>과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웃과 가장 빈번하게 혹은 자주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으로는 경조사 참석하기(44.6%)를 비롯하여 생활필수품을 빌려 사용하기(34.8%)로 나타났다. 반면에 돈을 빌리거나 비려주는 경우와 아이들 돌봐주기 등이 각각 21.8%와 26.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 돌봐주기는 아직 돌봐 줄 수 있는 아이가 없는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서로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을 만큼 친근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금전유통이나 아이 돌봐주기,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논 상대자로서 이웃관계는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관계 분석

단위 : %, 명

이웃관계 평가 이웃관계 내용	매우 자주	가끔	별로 없음	전혀 없음	합 계	
					비율	빈도
아이들 돌봐주기	4.4	22.2	23.0	50.3	100.0	608
경조사 참여하기	7.6	37.0	23.0	32.4	100.0	608
생필품 빌리기	3.5	31.3	29.6	35.7	100.0	608
금전 유통	2.5	19.4	32.2	45.9	100.0	608
문제 의논하기	4.9	29.1	25.8	40.1	100.0	608

본 연구는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관계가 그들의 개인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위에서 검토한 내용 가운데 아이들 돌봐주기, 경조사 참여하기, 생필품 빌리기, 그리고 문제 논의하기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7-2>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아이들 돌봐주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 연령, 학력수준, 국적 및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서로 바쁜 일이 있을 경우 아이를 돌봐주기 경험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3-9년 정도 거주한 여성이 거주기간이 짧거나 혹은 긴 여성에 비해서, 20-30대 여성이 나이가 많거나 혹은 적은 여성에 비해서, 조선족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다른 국적 여성에 비해, 그리고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종교가 없는 여성이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생활이 바쁜 경우 자녀 돌봐주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혹은 2년 이하 거주 여성이 3-9년 거주한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40세 이상 여성이 61.8%로 다른 여성의 50% 미만에 비해 10% 이상 많았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56.1%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37.9%에 비해 20% 정도 많았으며, 일본 국적의 여성이나 기타 국적의 여성이 60% 수준으로서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의 45%에 비해 15% 이상 많았고,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59.8%로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39.4%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표 7-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 돌봐주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생활이 바쁠 경우 자녀 돌봐주기			합 계		검증
		자주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1.5	22.2	56.3	100.0	144	$\chi^2=13.07,$ $p<.05$
	3-5년	30.6	27.2	42.2	100.0	147	
	6-9년	32.6	20.2	47.2	100.0	178	
	10년 이상	20.1	23.0	56.8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1.5	29.5	49.0	100.0	149	$\chi^2=15.43,$ $p<.01$
	20-30세	32.8	20.6	46.7	100.0	180	
	31-39세	30.1	23.1	46.8	100.0	156	
	40세 이상	19.5	18.7	61.8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29.8	32.3	37.9	100.0	124	$\chi^2=12.67,$ $p<.05$
	고등학교	27.3	19.2	53.5	100.0	260	
	전문대학	25.9	22.4	51.7	100.0	116	
	대학교 이상	22.4	21.5	56.1	100.0	107	
국적	일본	15.2	18.6	66.2	100.0	145	$\chi^2=32.10,$ $p<.001$
	필리핀	32.1	23.4	44.5	100.0	209	
	베트남	18.8	21.9	59.4	100.0	32	
	조선족	33.2	25.1	41.7	100.0	187	
	기타	7.7	34.6	5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22.3	29.8	47.9	100.0	121	$\chi^2=20.51,$ $p<.01$
	개신기독교	37.2	23.4	39.4	100.0	137	
	불원불교	26.4	24.5	49.1	100.0	53	
	통일교	20.5	19.6	59.8	100.0	219	
	기타	26.8	23.2	50.0	100.0	56	

그리고 <표 7-3>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녀 돌봐주기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응답자의 가족생활 수준, 한글 사용 능력,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쁜 생활에도 서로 자녀를 돌봐주는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족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34.8%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16.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30.4%로 한국어 능력이 열악한 여성의

19.4%에 비해 10% 이상 많았으며,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자원을 10명 이상 갖고 있는 여성이 40.9%로 상담 자원이 없는 여성 22.8%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많았다.

<표 7-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녀 돌봐주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자녀 돌봐주기			합 계		검증
		자주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34.8	24.5	40.6	100.0	155	X <sup>2</sup> =23.25, p<.001
	보통	27.2	25.0	47.8	100.0	312	
	살기어려움	16.3	17.0	66.7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32.2	26.3	41.4	100.0	152	X <sup>2</sup> =6.91, p>.05
	전업주부	24.2	22.1	53.8	100.0	331	
	취업임금	25.3	22.7	52.0	100.0	75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25.0	25.0	50.0	100.0	244	X <sup>2</sup> =2.81, p>.05
	약간	26.9	22.1	51.0	100.0	335	
	많음	37.9	17.2	44.8	100.0	29	
한글수준	능숙하다	30.4	26.7	42.9	100.0	247	X <sup>2</sup> =14.85, p<.01
	보통이다	30.0	16.9	53.1	100.0	160	
	서툰 편이다	19.4	23.4	57.2	100.0	201	
가족의 외부활동 지원	적극 지원	26.7	19.4	53.8	100.0	288	X <sup>2</sup> =5.58, p<.05
	보통 수준	28.1	25.6	46.3	100.0	242	
	지원 부족	21.8	28.2	50.0	100.0	78	
외부 교육 참여지지	적극 지지	29.6	19.6	50.8	100.0	199	X <sup>2</sup> =5.26, p>.05
	보통 지지	26.7	52.7	47.7	100.0	300	
	지지 부족	21.1	22.0	56.9	100.0	109	
외부모임 참여정도	모임 없음	22.8	21.6	55.7	100.0	167	X <sup>2</sup> =4.10, p>.05
	1개 참여	29.0	22.4	48.7	100.0	335	
	2개 참여	25.5	27.4	47.2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22.8	22.0	55.1	100.0	127	X <sup>2</sup> =19.53, p<.01
	5명 미만	23.8	24.9	51.3	100.0	265	
	10명 미만	23.6	17.9	58.5	100.0	106	
	10명 이상	40.9	24.5	34.5	100.0	110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 경조사에 참여하는 행위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먼저 <표 7-4>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모두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국내 거주기간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중간 수준이거나, 조선족 및 일본 국적의 여성이, 그리고 통일교 및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웃 경조사 참여가 빈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경조사에 자주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66.2%로 2년 이하 거주한 여성 25.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30대 여성이 58.2%로 20대 여성 28.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40% 이상으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30% 수준에 비해 10% 이상 많았고, 조선족 및 일본 국적의 여성이 55% 이상으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18.8%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통일교 및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50-60% 수준으로 개신기독교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30% 수준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이웃과의 경조사 참여가 전혀 없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2년 이하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43.8%로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 22.3%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20세 미만의 여성이 38.9%로 30대 연령의 여성 23.7%에 비해 15% 이상 많았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41.1%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28.2%에 비해 13% 정도 많았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56.3%로 조선족 여성의 21.4%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7-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경조사 참여하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경조사참여하기			합 계		검증
		자주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5.7	30.6	43.8	100.0	144	X <sup>2</sup> =57.25, p<.001
	3-5년	34.7	27.2	38.1	100.0	147	
	6-9년	51.1	22.5	26.4	100.0	178	
	10년 이상	66.2	11.5	22.3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8.2	32.9	38.9	100.0	149	X <sup>2</sup> =32.10, p<.001
	20-30세	42.8	23.3	33.9	100.0	180	
	31-39세	58.3	17.9	23.7	100.0	156	
	40세 이상	49.6	17.1	33.3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32.3	39.5	28.2	100.0	124	X <sup>2</sup> =28.76, p<.001
	고등학교	49.6	18.8	31.5	100.0	260	
	전문대학	48.3	20.7	31.0	100.0	116	
	대학교 이상	43.0	15.9	41.1	100.0	107	
국적	일본	55.2	13.1	31.7	100.0	145	X <sup>2</sup> =52.79, p<.001
	필리핀	34.9	26.8	38.3	100.0	209	
	베트남	18.8	25.0	56.3	100.0	32	
	조선족	56.1	22.5	21.4	100.0	187	
	기타	19.2	50.0	30.8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41.3	28.1	30.6	100.0	121	X <sup>2</sup> =36.97, p<.001
	개신기독교	33.6	32.1	34.3	100.0	137	
	불원불교	35.8	37.7	26.4	100.0	53	
	통일교	50.7	16.0	33.3	100.0	219	
	기타	66.1	5.4	28.6	100.0	56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이웃 경조사 참여하기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7-5>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 직업과 한글사용 능력, 가족의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외부 교육참여에 대한 가족 지지,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외부모임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웃의 경조사에 자주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농업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55% 수준으로 전업주부 41.0%에 비해 15% 정도 많았으며,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50.6%로 서툰 여성 29.4%에 비해 20% 이상

많았으며,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외부모임이나 외부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이 각각 50% 이상으로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30% 수준에 비해 15% 이상 많았고, 2개 이상의 외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54.7%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 28.7%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7-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경조사 참여하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경조사 참여하기			합 계		검증
		자주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40.0	26.5	33.5	100.0	155	X <sup>2</sup> =6.86, p>.05
	보통	48.7	22.4	28.8	100.0	312	
	살기어려움	40.4	20.6	39.0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55.3	24.3	20.4	100.0	152	X <sup>2</sup> =20.09, p<.01
	전업주부	39.0	24.5	36.6	100.0	331	
	취업임금	41.3	17.3	41.3	100.0	75	
	기타	54.0	18.0	28.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41.8	20.9	37.3	100.0	244	X <sup>2</sup> =7.14, p>.05
	약간	45.4	25.4	29.3	100.0	335	
	많음	58.6	13.8	27.6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50.6	25.5	23.9	100.0	247	X <sup>2</sup> =37.21, p<.001
	보통이다	54.4	17.5	28.1	100.0	160	
	서툰 편이다	29.4	24.4	46.3	100.0	201	
외부활동가족지지	적극지지	50.7	17.4	31.9	100.0	288	X <sup>2</sup> =21.85, p<.001
	보통지지	38.8	31.8	29.3	100.0	242	
	지지부족	39.7	16.7	43.6	100.0	78	
외부 교육 참여지지	적극지지	55.3	18.1	26.6	100.0	199	X <sup>2</sup> =18.14, p<.001
	보통지지	41.7	26.0	32.3	100.0	300	
	지지부족	33.0	23.9	43.1	100.0	109	
외부모임 참여수준	모임 없음	28.7	27.5	43.7	100.0	167	X <sup>2</sup> =25.33, p<.001
	1개 참여	49.3	22.4	28.4	100.0	335	
	2개 참여	54.7	17.9	27.4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42.5	18.9	38.6	100.0	127	X <sup>2</sup> =7.69, p>.05
	5명 미만	43.8	23.4	32.8	100.0	265	
	10명 미만	50.9	19.8	29.2	100.0	106	
	10명 이상	42.7	30.0	27.3	100.0	110	

그리고 <표 7-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웃과의 생필품을 빌려 사용하기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거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교육수준이 중간이거나 일본 국적 혹은 조선족 여성이거나 그리고 통일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웃과 생활필수품을 빈번하게 빌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이웃과 생활필수품을 서로 빌려 사용한 경험이 많았던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50.4%로 2년 이하의 여성 22.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30대 여성이 44.2%로 20대 미만의 여성 20.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일본 국적의 여성과 조선족 여성이 45% 수준으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18.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통일교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40% 이상으로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18.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이웃과 생활필수품을 빌려 사용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여성이 43.8%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 26.6%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20세 미만의 여성이나 40세 이상의 여성이 40% 수준으로 30대 여성의 28.2%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48.6%로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30.6%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45% 이상으로 조선족 여성의 20%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개신기독교 및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40% 수준으로 종교를 믿지 않고 있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 28% 수준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표 7-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생활필수품 빌려 사용하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생활필수품 빌리기			합 계		검증
		자주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2.9	33.3	43.8	100.0	144	X <sup>2</sup> =29.58, p<.001
	3-5년	27.2	31.3	42.5	100.0	147	
	6-9년	38.2	30.3	31.5	100.0	178	
	10년 이상	50.4	23.0	26.6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0.1	39.6	40.3	100.0	149	X <sup>2</sup> =30.09, p<.001
	20-30세	34.4	31.1	34.4	100.0	180	
	31-39세	44.2	27.6	28.2	100.0	156	
	40세 이상	40.7	17.9	41.5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31.5	37.9	30.6	100.0	124	X <sup>2</sup> =15.91, p<.001
	고등학교	36.9	28.8	34.2	100.0	260	
	전문대학	42.2	25.0	32.8	100.0	116	
	대학교 이상	25.2	26.2	48.6	100.0	107	
국적	일본	43.4	22.1	34.5	100.0	145	X <sup>2</sup> =52.49, p<.001
	필리핀	24.4	30.6	45.0	100.0	209	
	베트남	18.8	31.3	50.0	100.0	32	
	조선족	46.5	32.6	20.9	100.0	187	
	기타	3.8	46.2	50.0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39.7	33.1	27.3	100.0	121	X <sup>2</sup> =34.05, p<.001
	개신기독교	24.1	34.3	41.6	100.0	137	
	불원불교	18.9	50.9	30.2	100.0	53	
	통일교	40.6	20.1	39.3	100.0	219	
	기타	41.1	30.4	28.6	100.0	56	

다른 한편, <표 7-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이웃과의 생활필수품 빌려 사용하기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개인 네트워크 수준이나 한국어 사용 능력, 그리고 외부모임 참여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웃과 자주 생활필수품을 빌려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주 여성 중에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 55.2%로 개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은 여성 29.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한국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41.3%로 한국어 사용이 서툰 여성 25.4%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그리고 2개

이상의 외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45.3%로 모임이 없는 여성 24.0%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표 7-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활필수품 빌리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생활필수품 빌리기			합 계		검증
		자주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30.3	32.3	37.4	100.0	155	X <sup>2</sup> =6.42, p>.05
	보통	38.8	29.2	32.1	100.0	312	
	살기어려움	30.5	27.7	41.8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38.2	33.6	28.3	100.0	152	X <sup>2</sup> =8.16, p>.05
	전업주부	32.3	30.5	37.2	100.0	331	
	취업임금	37.3	24.0	38.7	100.0	75	
	기타	36.0	20.0	44.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29.5	26.2	44.3	100.0	244	X <sup>2</sup> =19.23, p<.001
	약간 있음	36.7	33.4	29.9	100.0	335	
	많음	55.2	13.8	31.0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41.3	33.6	25.1	100.0	247	X <sup>2</sup> =25.18, p<.001
	보통이다	36.3	24.4	39.4	100.0	160	
	서툰 편이다	25.4	28.9	45.8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36.5	27.8	35.8	100.0	288	X <sup>2</sup> =4.62, p>.05
	보통지지	33.5	33.5	33.1	100.0	242	
	지지부족	32.1	24.4	43.6	100.0	78	
외부교육 참여지지	적극지지	36.2	30.7	33.2	100.0	199	X <sup>2</sup> =6.82, p>.05
	보통지지	34.7	31.7	33.7	100.0	300	
	지지부족	32.1	22.0	45.9	100.0	109	
외부모임 참여정도	모임 없음	24.0	31.7	44.3	100.0	167	X <sup>2</sup> =15.57, p<.01
	1개 참여	36.7	30.1	33.1	100.0	335	
	2개 참여	45.3	24.5	30.2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31.5	32.3	36.2	100.0	127	X <sup>2</sup> =6.64, p>.05
	5명 미만	34.0	30.9	35.1	100.0	265	
	10명 미만	39.6	19.8	40.6	100.0	106	
	10명 이상	35.5	32.7	31.8	100.0	110	

끝으로 <표 7-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웃과 논의하기 정도를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수준과 국적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이웃과 문제를 자주 논의한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38.3%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29.8%에 비해 10% 정도 많았고,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39.7%로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21.9%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기타 국적 여성의 7.7%에 비해 5배 정도 많았다.

<표 7-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문제 논의하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문제의논 하기			합 계		검증
		자주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7.8	26.4	45.8	100.0	144	$X^2=5.24,$ $p>.05$
	3-5년	35.4	25.9	38.8	100.0	147	
	6-9년	38.2	23.0	38.8	100.0	178	
	10년 이상	33.8	28.8	37.4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9.5	28.9	41.6	100.0	149	$X^2=6.03,$ $p>.05$
	20-30세	31.1	27.8	41.1	100.0	180	
	31-39세	40.4	23.7	35.9	100.0	156	
	40세 이상	35.8	22.0	42.3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29.8	41.1	29.0	100.0	124	$X^2=22.24,$ $p<.001$
	고등학교	33.1	21.2	45.8	100.0	260	
	전문대학	37.1	25.0	37.9	100.0	116	
	대학교 이상	38.3	20.6	41.1	100.0	107	
국적	일본	29.7	22.8	47.6	100.0	145	$X^2=28.69,$ $p<.001$
	필리핀	39.7	21.5	38.8	100.0	209	
	베트남	21.9	18.8	59.4	100.0	32	
	조선족	36.9	32.1	31.0	100.0	187	
	기타	7.7	46.2	46.2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28.9	35.5	35.5	100.0	121	$X^2=12.51,$ $p>.05$
	개신기독교	40.1	21.9	38.0	100.0	137	
	불원불교	22.6	30.2	47.2	100.0	53	
	통일교	34.7	22.8	42.5	100.0	219	
	기타	33.9	26.8	39.3	100.0	56	

다른 한편, <표 7-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문제를 이웃과 논의하는 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 가정의 경제생활 수준, 한국어 사용 능력 수준,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 모임에 참여하는 수준, 그리고 상담자 규모 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웃과 자주 논의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39.4%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23.4%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외부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37.2%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32.1%에 비해 5% 정도 많았으며, 2개 이상의 외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41.5%로 모임이 없는 여성 22.8%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10명 이상의 상담 자원을 갖고 있는 여성이 46.4%로 상담 자원이 없는 여성 26.0%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과 논의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54.6%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36.1%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51.2%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 31.6%에 비해 20% 정도 많았고,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50.5%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의 34.7%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외부 모임이 없는 여성이 47.3%로 외부모임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여성 32.1%에 비해 15% 정도 많았고, 그리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46.5%로 10명 이상 자원을 갖고 있는 여성 32.7%에 비해 15% 정도 많았다.

<표 7-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제 논의하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문제의논 하기			합 계		검증
		자주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39.4	24.5	36.1	100.0	155	X <sup>2</sup> =17.59, p .001
	보통	36.2	28.2	35.6	100.0	312	
	살기어려움	23.4	22.0	54.6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35.5	28.9	35.5	100.0	152	X <sup>2</sup> =3.16, p>.05
	전업주부	32.3	24.8	42.9	100.0	331	
	취업임금	36.0	24.0	40.0	100.0	75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35.2	23.0	41.8	100.0	244	X <sup>2</sup> =3.65, p>.05
	약간	32.2	28.1	39.7	100.0	335	
	많음	44.8	24.1	31.0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33.6	34.8	31.6	100.0	247	X <sup>2</sup> =26.16, p<.001
	보통이다	36.9	23.8	39.4	100.0	160	
	서툰 편이다	32.3	16.4	51.2	100.0	201	
외부모임에 가족 지지	적극지지	36.5	24.7	38.9	100.0	288	X <sup>2</sup> =3.61, p>.05
	보통지지	31.0	28.9	40.1	100.0	242	
	지지부족	34.6	20.5	44.9	100.0	78	
외부교육 참석에 지지	적극지지	37.2	28.1	34.7	100.0	199	X <sup>2</sup> =8.89, p<.06
	보통지지	32.7	27.3	40.0	100.0	300	
	지지부족	32.1	17.4	50.5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22.8	29.9	47.3	100.0	167	X <sup>2</sup> =14.74, p<.01
	1개 참여	37.3	23.6	39.1	100.0	335	
	2개 참여	41.5	26.4	32.1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26.0	27.6	46.5	100.0	127	X <sup>2</sup> =12.88, p<.05
	5명 미만	31.3	27.2	41.5	100.0	265	
	10명 미만	37.7	25.5	36.8	100.0	106	
	10명 이상	46.4	20.9	32.7	100.0	110	

그리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목적에서 위에서 검토한 이웃관계 내용 모두를 합하여 종합적인 이웃관계 변수를 만들었으며, 그 결과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이나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표 7-10>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관계는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이웃과 거래가 없는

여성이 40.1%로 거래가 자주 있었던 여성 34.0%에 비해 많았으며, 25.9%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합적인 이웃관계는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국내 거주기간이나 연령, 그리고 학력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웃과 자주 거래를 갖고 있어 이웃관계가 비교적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조선족 여성이 34% 수준으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 6.7%에 비해 5배 정도 많았고, 일본 국적의 여성 11.7%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았다. 종교의 경우에도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교를 믿지 않은 여성이 26.4%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개신기독교를 믿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은 10% 수준으로 비교적 적었다.

반면에, 이웃과 거래가 거의 없어 이웃관계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나 일본 국적의 여성이 각각 23.4%와 21.4%로 조선족 여성이나 기타 국적의 여성 8% 수준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개신기독교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0% 이상으로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7.5%에 비해 3배 정도 많았고, 종교가 없는 여성 9.1%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많았다.

<표 7-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합적인 이웃관계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이웃과의 거래 빈도			합 계		검증
		자주	보 통	거의 없음	비율	빈도	
합 계		34.0	25.9	40.1	100.0	608	-
거주기간	2년 이하	20.1	65.3	14.6	100.0	144	X <sup>2</sup> =8.68, p>.05
	3-5년	12.2	63.9	23.8	100.0	147	
	6-9년	21.3	62.4	16.3	100.0	178	
	10년 이상	19.4	64.7	15.8	100.0	139	
연령	20세 미만	18.8	62.4	18.8	100.0	149	X <sup>2</sup> =3.56, p>.05
	20-30세	14.4	67.2	18.3	100.0	180	
	31-39세	20.5	64.1	15.4	100.0	156	
	40세 이상	21.1	61.0	17.9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21.0	61.3	17.7	100.0	124	X <sup>2</sup> =9.44, p>.05
	고등학교	21.2	62.7	16.2	100.0	260	
	전문대학	18.1	64.7	17.2	100.0	116	
	대학교 이상	8.4	70.1	21.5	100.0	107	
국적	일본	11.7	66.9	21.4	100.0	145	X <sup>2</sup> =70.15, p<.001
	필리핀	6.7	69.9	23.4	100.0	209	
	베트남	34.4	50.0	15.6	100.0	32	
	조선족	34.2	57.8	8.0	100.0	187	
	기 타	15.4	76.9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26.4	64.5	9.1	100.0	121	X <sup>2</sup> =42.85, p<.001
	개신기독교	10.2	65.7	24.1	100.0	137	
	불원불교	20.8	71.7	7.5	100.0	53	
	통일교	12.8	67.1	20.1	100.0	219	
	기 타	39.3	48.2	12.5	100.0	56	

그리고 <표 7-1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이웃관계의 정도를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생활 수준, 한국어 수준,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수준, 그리고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웃과 거래가 자주 있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26.7%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 11.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25% 이상으로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10%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웃과의 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가족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24.8%로 가족생활이 보통 수준인 여성 14.7%에 비해 10% 정도 많았으며, 한국어 능력 수준이 낮은 여성이 23.9%로 한국어 능력 수준이 우수한 여성 13.8%에 비해 10% 정도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참여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30% 수준으로 가족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았던 여성 13%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이웃관계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이웃과의 거래 빈도			합 계		검증
		자 주	보 통	거의 없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12.9	70.3	16.8	100.0	155	X <sup>2</sup> =11.78, p<.01
	보통	21.5	63.8	14.7	100.0	312	
	살기어려움	17.7	57.4	24.8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24.3	58.6	17.1	100.0	152	X <sup>2</sup> =8.79, p>.05
	전업주부	15.7	65.0	19.3	100.0	331	
	취업임금	21.3	68.0	10.7	100.0	75	
	기타	14.0	68.0	18.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17.6	62.3	20.1	100.0	244	X <sup>2</sup> =4.81, p>.05
	약간	17.9	66.0	16.1	100.0	335	
	많음	31.0	55.2	13.8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26.7	59.5	13.8	100.0	247	X <sup>2</sup> =24.51, p<.001
	보통이다	13.8	70.6	15.6	100.0	160	
	서툰 편이다	11.9	64.2	23.9	100.0	201	
외부활동에 가족 지지	적극지지	25.7	60.8	13.5	100.0	288	X <sup>2</sup> =30.32, p<.001
	보통지지	12.0	70.2	17.8	100.0	242	
	지지부족	11.5	56.4	32.1	100.0	78	
외부교육 참여지지	적극지지	28.6	58.8	12.6	100.0	199	X <sup>2</sup> =29.73, p<.001
	보통지지	14.7	68.3	17.0	100.0	300	
	지지부족	10.1	61.5	28.4	100.0	109	
외부 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18.0	63.5	18.6	100.0	167	X <sup>2</sup> =6.54, p>.05
	1개 참여	21.2	61.8	17.0	100.0	335	
	2개 참여	10.4	71.7	17.9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22.0	57.5	20.5	100.0	127	X <sup>2</sup> =10.87, p>.05
	5명 미만	21.5	61.1	17.4	100.0	265	
	10명 미만	15.1	72.6	12.3	100.0	106	
	10명 이상	15.0	65.0	20.0	100.0	110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과 부부관계 만족 분석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와 친척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12>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 및 친척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주여성이 비교적 많았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은 75% 수준으로 많았으며, 친척관계 또한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관계와 친척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주여성은 각각 25%와 30%로 낮게 나타났다.

<표 7-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 분석

단위 : %, 명

만족 수준 가족관계 내용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매우 불만	합 계	
					비율	빈도
가족관계 만족	24.3	51.2	16.8	7.7	100.0	608
친척관계 만족	20.4	59.4	15.8	4.4	100.0	608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및 친척관계가 여성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7-13>과 같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 수준은 그들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국내의 거주기간이나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에서 가족관계 만족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30% 이상으로서 필리핀 국적의 여성 12.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기타 종교를 믿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이 각각 27.3%와 42.9%로서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14.6%에 비해 2배와 3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32.1%로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15.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4.3%로 기타 종교를 믿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15% 수준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7-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가족관계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7.8	54.2	18.1	100.0	144	X <sup>2</sup> =9.79, p>.05
	3-5년	17.0	52.4	30.6	100.0	147	
	6-9년	25.3	50.0	24.7	100.0	178	
	10년 이상	27.3	48.2	24.5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5.5	53.7	20.8	100.0	149	X <sup>2</sup> =2.42, p>.05
	20-30세	22.8	50.6	26.7	100.0	180	
	31-39세	23.7	49.4	26.9	100.0	156	
	40세 이상	26.0	51.2	22.8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28.2	50.0	21.8	100.0	124	X <sup>2</sup> =5.04, p>.05
	고등학교	26.2	51.2	22.7	100.0	260	
	전문대학	20.7	52.6	26.7	100.0	116	
	대학교 이상	19.6	50.5	29.9	100.0	107	
국적	일본	26.9	51.7	21.4	100.0	145	X <sup>2</sup> =31.08, p<.001
	필리핀	12.9	55.0	32.1	100.0	209	
	베트남	31.3	53.1	15.6	100.0	32	
	조선족	34.2	46.0	19.8	100.0	187	
	기타	23.1	61.5	15.4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27.3	47.9	24.8	100.0	121	X <sup>2</sup> =25.21, p<.001
	개신기독교	14.6	51.1	34.3	100.0	137	
	불원불교	22.6	58.5	18.9	100.0	53	
	통일교	24.7	53.4	21.9	100.0	219	
	기타	42.9	44.6	12.5	100.0	56	

그리고 <표 7-1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가족생활 수준, 한국어 능력 수준,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 교육참여에 대한 가족 지지, 외부 모임 참여 수준, 그리고 상담자 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25.8%로 가정생활이 가난한 여성 16.3%에 비해 10% 정도 많았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30.8%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 12.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외부모임이나 외부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이 36-37% 수준으로서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10% 수준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1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29.0%로 2개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17.0%에 비해 10% 이상 많았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을 5-10명 정도 갖고 있는 여성이 25% 이상으로 10명 이상 갖고 있는 여성 15.5%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반면에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족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39.7%로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21.9%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많았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여성이 28.4%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 23.1%에 비해 약간 많았다. 그리고 외부모임이나 외부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40-50% 수준으로서 가족의 지지를 적극 받은 여성 15% 수준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외부모임이 없거나 혹은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상담자를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외부모임을 갖고 있거나 혹은 상담자를 갖고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모임을 갖고 있거나 혹은 외부 상담자를 갖고 있는 경우 외부와의 의견교류가 활발하여 오히려 자기 자신이 처한 가정생활에 비해 보다 이상적인 가정생활 모델을 보다 많이 목격한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한다.

<표 7-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족관계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가족관계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25.8	52.3	21.9	100.0	155	X <sup>2</sup> =24.56, p<.001
	보통	27.2	53.8	18.9	100.0	312	
	살기어려움	16.3	44.0	39.7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29.6	50.0	20.4	100.0	152	X <sup>2</sup> =7.78, p>.05
	전업주부	21.8	54.1	24.2	100.0	331	
	취업임금	26.7	45.3	28.0	100.0	75	
	기타	22.0	44.0	34.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23.8	50.4	25.8	100.0	244	X <sup>2</sup> =.79, p>.05
	약간	25.1	51.6	23.3	100.0	335	
	많음	20.7	51.7	27.6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30.8	46.2	23.1	100.0	247	X <sup>2</sup> =21.63, p<.001
	보통이다	28.8	49.4	21.9	100.0	160	
	서툰 편이다	12.9	58.7	28.4	100.0	201	
외부활동 가족 지지	적극지지	36.1	47.2	16.7	100.0	288	X <sup>2</sup> =54.62, p<.001
	보통지지	15.3	57.0	27.7	100.0	242	
	지지부족	9.0	47.4	43.6	100.0	78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37.7	46.7	15.6	100.0	199	X <sup>2</sup> =69.95, p<.001
	보통지지	20.7	58.3	21.0	100.0	300	
	지지부족	10.1	39.4	50.5	100.0	109	
외부 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19.8	49.1	31.1	100.0	167	X <sup>2</sup> =13.02, p<.01
	1개 참여	29.0	49.2	21.8	100.0	335	
	2개 참여	17.0	60.4	22.6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23.6	48.0	28.3	100.0	127	X <sup>2</sup> =13.53, p<.05
	5명 미만	26.8	52.5	20.7	100.0	265	
	10명 미만	28.3	52.8	18.9	100.0	106	
	10명 이상	15.5	50.0	34.5	100.0	110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사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애로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15>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부모와 별로 어려움이 없는 여성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시부모와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아예 시부모가 없거나 혹은 독립해서 살고 있는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약 70% 정도는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시부모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26.5%로 가장 많아 이주여성 자신이 한국어 이해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시부모와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비롯하여 생활방식이나 습관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각각 15.5%와 1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일부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시부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으며(4.6%), 그리고 5.8%는 기타 범주로 분류되었다.

<표 7-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시부모 관계 평가

단위 : %, 명

구분	빈도	비율
시부모 관계 평가		
별 어려움이 없다	198	32.6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161	26.5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크게 다르다	94	15.5
생활방식이나 습관이 너무 다르다	92	15.1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	28	4.6
기 타	35	5.8
합 계	608	100.0

본 연구는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시부모 관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7-1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시부모 관계 만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학력수준을 제외한 국내 거주기간과 연령,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시부모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2년 이하 거주한 여성이 41.7%로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 18.0%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가 적거나 혹은 많은 여성이 30-36% 수준으로 30대 여성 19.9%에 비해 10-15% 정도 많았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40-50% 수준으로 조선족이나 일본 국적의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8.0%로 종교가 없는 여성 9.9%에 비해 4배 정도 많았고,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 16.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다음으로 사고가치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 나이가 적은 여성에 비해 많았고, 일본 국적이나 조선족 여성이 34-40% 정도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6.3%에 비해 5배 이상 많았고,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6.5%로서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 25.0%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그리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기타 이유 때문에 시부모와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각각 16.6%와 11.0%로 일본 국적의 여성 3.4%에 비해 4배와 3배 정도 많았으며, 베트남 국적 여성의 6.2%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많았고, 기타 종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 15% 이상에 비해 통일교를 믿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5-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7-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시부모 관계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시부모관계 어려움				합 계		검증
		어려움 없음	의사소통 문제	사고가치 차이	인격 기타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9.2	41.7	20.1	9.0	100.0	144	X <sup>2</sup> =27.49, p<.001
	3-5년	30.6	24.5	33.3	11.6	100.0	147	
	6-9년	32.0	22.5	35.4	10.1	100.0	178	
	10년 이상	38.8	18.0	32.4	10.8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9.5	36.9	26.8	6.7	100.0	149	X <sup>2</sup> =16.93, p<.05
	20-30세	34.4	21.1	33.3	11.1	100.0	180	
	31-39세	35.3	19.9	33.3	11.5	100.0	156	
	40세 이상	30.1	30.1	27.6	12.2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34.7	25.8	29.8	9.7	100.0	124	X <sup>2</sup> =14.14, p>.05
	고등학교	38.5	23.5	27.3	10.8	100.0	260	
	전문대학	22.4	34.5	34.5	8.6	100.0	116	
	대학교 이상	27.1	26.2	34.6	21.1	100.0	107	
국적	일본	31.0	25.5	40.0	3.4	100.0	145	X <sup>2</sup> =104.83, p<.001
	필리핀	22.5	40.2	26.3	11.0	100.0	209	
	베트남	37.5	50.0	6.3	6.2	100.0	32	
	조선족	46.0	3.7	33.7	16.6	100.0	187	
	기타	26.9	38.5	26.9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43.0	9.9	31.4	15.7	100.0	121	X <sup>2</sup> =49.04, p<.001
	개신기독교	23.4	38.0	26.3	12.4	100.0	137	
	불원불교	32.1	32.1	28.3	7.5	100.0	53	
	통일교	30.1	27.9	36.5	5.5	100.0	219	
	기타	39.3	16.1	25.0	19.6	100.0	56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시부모 관계에 있어 만족 차이를 분석한 <표 7-17>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생활 수준, 직업, 한국어 사용능력 수준,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그리고 외부 모임참여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시부모와 의사소통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전업주부가 다른 여성에 비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우수한 여성에 비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가치에 있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31.2%로 가정생활이 어렵지 않은 여성 21.9%에 비해 10% 많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39.5%로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의 24%에 비해 15% 정도 많았다.

반면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지 않거나 기타 이유 때문에 시부모 관계에 어렵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17.0%로 가정생활이 보통이거나 혹은 부유한 여성 6-12%에 비해 많았으며, 취업임금노동자 혹은 기타 여성의 18% 수준에 비해 농업이나 전업주부의 9% 이하 수준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30% 수준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5-8% 수준에 비하 4배 정도 많았으며, 외부모임이 없는 여성이 14.4%로 2개 이상의 외부모임을 갖고 있는 여성 6.6%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다.

<표 7-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시부모 관계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시부모관계 어려움				합 계		검증
		어려움 없음	의사소통 문제	사고가치 차이	인격 기타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35.5	30.3	21.9	12.3	100.0	155	X <sup>2</sup> =19.79, p<.001
	보통	33.7	25.3	34.6	6.4	100.0	312	
	살기어려움	27.0	24.8	31.2	17.0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28.3	26.3	39.5	5.9	100.0	152	X <sup>2</sup> =30.35, p<.001
	전업주부	31.1	29.9	29.6	9.4	100.0	331	
	취업임금	45.3	12.0	24.0	18.7	100.0	75	
	기타	36.0	26.0	20.0	18.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33.6	27.9	32.0	6.6	100.0	244	X <sup>2</sup> =7.56, p>.05
	약간	32.2	26.0	29.0	12.8	100.0	335	
	많음	27.6	20.7	37.9	13.8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44.9	9.7	32.8	12.6	100.0	247	X <sup>2</sup> =76.11, p<.001
	보통이다	28.1	30.0	33.1	8.8	100.0	160	
	서툰 편이다	20.9	44.3	25.9	9.0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39.6	24.0	31.3	5.2	100.0	288	X <sup>2</sup> =25.03, p<.001
	보통지지	27.7	27.7	30.2	15.4	100.0	242	
	지지부족	21.8	32.1	29.5	16.7	100.0	78	
외부교육 참여 지지	적극지지	43.2	19.6	29.1	8.0	100.0	199	X <sup>2</sup> =22.78, p<.001
	보통지지	30.3	28.3	31.0	10.3	100.0	300	
	지지부족	19.3	33.9	32.1	14.7	100.0	109	
외보 모임 참여 정도	모임 없음	29.9	32.3	23.4	14.4	100.0	167	X <sup>2</sup> =15.74, p<.05
	1개 참여	34.9	21.8	33.7	9.6	100.0	335	
	2개 참여	29.2	32.1	32.1	6.6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38.6	25.2	23.6	12.6	100.0	127	X <sup>2</sup> =16.43, p>.05
	5명 미만	35.1	23.8	32.5	8.7	100.0	265	
	10명 미만	33.0	29.2	29.2	8.5	100.0	106	
	10명 이상	19.1	31.8	35.5	13.6	100.0	110	

그리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친척 관계 만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표 7-18>과 <표 7-19>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전자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과 국적 그리고 종교 변수에 따라서 친척관계 만족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친척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길거나 혹은 아주 짧은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국적의 여성이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에 비해, 그리고 기타 종교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믿는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친척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3-5년 거주한 여성이 27.2%로 2년 이하 거주한 여성 15.3%에 비해 12% 정도 많았으며,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25.4%로 기타 국적의 여성 3.3%에 비해 6배 이상, 베트남 국적의 여성 12.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8.5%로 불교 혹은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11.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1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친척관계 만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가족생활 수준, 한국어 능력 수준,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그리고 외부 모임 참여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친척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보통이거나 혹은 부유한 여성이 가난한 여성에 비해 10% 정도 많았으며,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26.3%로 사용능력이 낮은 여성 12.9%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외부모임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이 30% 이상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10% 미만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친척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36.9%로 가정생활이 보통이거나 부유한 여성 15%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외부모임이나 외부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40% 수준으로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 15% 미만에 비해 3배 정도 많았고, 외부 모임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28.1%로서 2개 이상의 외부모임을 갖고 있는 여성 14.2%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7-1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친척관계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친척관계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6.4	58.3	15.3	100.0	144	X <sup>2</sup> =14.95, p<.05
	3-5년	11.6	61.2	27.2	100.0	147	
	6-9년	20.2	59.0	20.8	100.0	178	
	10년 이상	23.7	59.0	17.3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2.8	57.7	19.5	100.0	149	X <sup>2</sup> =4.52, p>.05
	20-30세	16.1	63.9	20.0	100.0	180	
	31-39세	21.8	55.1	23.1	100.0	156	
	40세 이상	22.0	60.1	17.9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25.8	54.0	20.2	100.0	124	X <sup>2</sup> =6.71, p>.05
	고등학교	21.9	58.8	19.3	100.0	260	
	전문대학	16.4	62.9	20.7	100.0	116	
	대학교 이상	14.0	63.6	22.4	100.0	107	
국적	일본	20.0	61.4	18.6	100.0	145	X <sup>2</sup> =31.56, p<.001
	필리핀	10.0	64.6	25.4	100.0	209	
	베트남	34.4	53.1	12.5	100.0	32	
	조선족	28.4	54.0	17.6	100.0	187	
	기타	30.8	65.4	3.8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22.3	57.0	20.7	100.0	121	X <sup>2</sup> =23.99, p<.01
	개신기독교	13.9	57.7	28.5	100.0	137	
	불원불교	26.4	62.3	11.3	100.0	53	
	통일교	17.4	64.8	17.8	100.0	219	
	기타	37.5	48.2	14.3	100.0	56	

<표 7-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친척관계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친척관계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불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20.0	63.2	16.8	100.0	155	X <sup>2</sup> =32.49, p<.001
	보통	23.1	62.5	14.4	100.0	312	
	살기어려움	14.9	48.2	36.9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24.3	61.2	14.5	100.0	152	X <sup>2</sup> =10.33, p>.05
	전업주부	19.9	60.2	19.9	100.0	331	
	취업임금	18.7	50.7	30.6	100.0	75	
	기타	14.0	62.0	24.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18.4	58.2	23.4	100.0	244	X <sup>2</sup> =2.87, p>.05
	약간	21.8	60.0	18.2	100.0	335	
	많음	20.7	62.1	17.2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26.3	55.1	18.6	100.0	247	X <sup>2</sup> =13.08, p<.01
	보통이다	20.6	61.3	18.1	100.0	160	
	서툰 편이다	12.9	63.2	23.9	100.0	201	
외부활동 가족 지지	적극지지	31.9	53.8	14.2	100.0	288	X <sup>2</sup> =63.52, p<.001
	보통지지	11.2	68.2	20.7	100.0	242	
	지지부족	6.4	52.6	41.0	100.0	78	
외부교육 참여 지지	적극지지	34.7	52.3	13.1	100.0	199	X <sup>2</sup> =62.40, p<.001
	보통지지	15.0	67.0	18.0	100.0	300	
	지지부족	9.2	51.4	39.4	100.0	109	
외부 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18.6	53.3	28.1	100.0	167	X <sup>2</sup> =13.99, p<.01
	1개 참여	23.0	58.8	18.2	100.0	335	
	2개 참여	15.1	70.8	14.2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22.0	50.4	27.6	100.0	127	X <sup>2</sup> =7.74, p>.05
	5명 미만	21.1	60.8	18.1	100.0	265	
	10명 미만	19.8	60.4	19.8	100.0	106	
	10명 이상	17.3	65.5	17.2	100.0	110	

그리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결혼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래 <표 7-20>와 같이 부부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부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대체로 만족스럽게 평가되었다. 즉 부부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52.8%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47.2%는 부부생활이 그저 그렇거나 혹은 불만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평가를 보면, 남편의 이주여성 이해 만족이 6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간의 친밀감 만족이 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부부간의 대화와 여가생활의 경우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많았는데, 특히 여가생활이 그저 그렇거나 혹은 불만족스럽게 생각한 여성이 57.2%로 높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관계 평가

단위 : %, 명

부부관계 평가 부부관계 내용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	매우 불만	합 계	
						비율	빈도
남편의 아내 이해 만족	30.8	35.4	23.0	6.3	4.6	100.0	608
부부사이 친밀감 만족	25.7	35.0	29.6	5.8	3.9	100.0	608
부부 대화 만족	19.4	33.6	31.1	10.5	5.4	100.0	608
부부 성생활 만족	23.0	32.6	34.9	4.9	4.6	100.0	608
부부 여가생활 만족	14.3	28.5	31.4	14.3	11.5	100.0	608
부부생활 전반 만족	17.3	35.5	31.4	9.2	6.6	100.0	608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관계 만족과 관련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표 7-2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이들의 남편에 대한 이해 만족 수준 관련성을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고 있을 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이나 연령, 국적, 종교 등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남편의 이해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40.2%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19.4%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남편의 이해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18.5%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10.3%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22>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 이해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주여성의 가정생활 수준을 비롯하여 한국어 능력 수준, 가족의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와 외부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그리고 외부모임 참여 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이해를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36.1%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24.1%에 비해 12% 많았고, 한국어 능력수준이 우수한 여성이 34.4%로 한국어 능력이 서툰 여성 22.4%에 비해 12% 정도 많았으며, 외부활동이나 외부 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약 45% 수준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10% 수준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외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31.7%로 2개 이상의 외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22.6%로 10% 정도 많았다. 반면에 남편의 이해를 매우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20.6%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7.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한국어 능력이 낮은 여성이 15.4%로 우수한 여성 8.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에 있어 가족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20% 이상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5% 수준에 비해 5배 정도 많았고, 외부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15.6%로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여성 8.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7-2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 이해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이해 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31.9	32.6	25.0	10.4	100.0	144	X <sup>2</sup> =2.11, p>.05
	3-5년	28.6	38.1	23.8	9.5	100.0	147	
	6-9년	31.5	36.0	20.8	11.8	100.0	178	
	10년 이상	30.9	34.5	23.0	11.5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6.2	40.3	24.2	9.4	100.0	149	X <sup>2</sup> =4.20, p>.05
	20-30세	33.9	34.4	20.6	11.1	100.0	180	
	31-39세	31.4	33.3	24.4	10.9	100.0	156	
	40세 이상	30.9	33.3	23.6	12.2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19.4	42.7	19.4	18.5	100.0	124	X <sup>2</sup> =27.72, p<.001
	고등학교	33.1	36.5	24.2	6.2	100.0	260	
	전문대학	28.4	31.0	26.7	13.8	100.0	116	
	대학교 이상	40.2	29.0	20.6	10.3	100.0	107	
국적	일본	33.8	30.3	26.2	9.7	100.0	145	X <sup>2</sup> =13.73, p>.05
	필리핀	29.2	32.1	27.8	11.0	100.0	209	
	베트남	28.1	43.8	18.8	9.4	100.0	32	
	조선족	32.1	41.2	16.0	10.7	100.0	187	
	기타	26.9	38.5	30.8	3.8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27.3	41.3	19.0	12.4	100.0	121	X <sup>2</sup> =17.46 p>.05
	개신기독교	30.7	30.7	27.0	11.7	100.0	137	
	불원불교	22.6	45.3	28.3	3.8	100.0	53	
	통일교	31.5	33.8	25.1	9.6	100.0	219	
	기타	44.6	33.9	12.5	8.9	100.0	56	



<표 7-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 이해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이해 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36.1	35.5	20.6	7.7	100.0	155	X <sup>2</sup> =20.94, p<.01
	보통	31.1	37.2	23.7	8.0	100.0	312	
	살기어려움	24.1	31.2	24.1	20.6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31.6	41.4	19.1	7.9	100.0	152	X <sup>2</sup> =12.93, p>.05
	전업주부	31.4	32.9	25.7	10.0	100.0	331	
	취업임금	28.0	30.7	25.3	16.0	100.0	75	
	기타	28.0	40.0	14.0	18.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30.3	33.2	22.1	14.3	100.0	244	X <sup>2</sup> =6.71, p>.05
	약간	31.0	36.1	23.9	9.0	100.0	335	
	많음	31.0	44.8	20.7	3.4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34.4	40.9	16.2	8.5	100.0	247	X <sup>2</sup> =25.42, p<.001
	보통이다	35.6	30.0	25.6	8.8	100.0	160	
	서툰 편이다	22.4	32.8	29.4	15.4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44.1	34.4	17.0	4.5	100.0	288	X <sup>2</sup> =79.60, p<.001
	보통지지	22.3	38.0	26.9	12.8	100.0	242	
	지지부족	7.7	30.8	33.3	28.2	100.0	78	
외부교육 참여지지	적극지지	46.2	33.7	14.1	6.0	100.0	199	X <sup>2</sup> =69.37, p<.001
	보통지지	27.7	39.0	23.7	9.7	100.0	300	
	지지부족	11.0	28.4	37.6	22.9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31.7	32.9	19.8	15.6	100.0	167	X <sup>2</sup> =13.06, p<.05
	1개 참여	32.8	33.1	24.8	9.3	100.0	335	
	2개 참여	22.6	46.2	22.6	8.5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32.3	37.8	15.0	15.0	100.0	127	X <sup>2</sup> =11.74, p>.05
	5명 미만	28.3	37.7	24.2	9.8	100.0	265	
	10명 미만	34.9	33.0	24.5	7.5	100.0	106	
	10명 이상	30.9	29.1	28.2	11.8	100.0	110	

다음으로 <표 7-23>은 부부간의 대화에 대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가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교육수준과 국적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부부간의 대화를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이 22% 이상으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12.1%에 비해 10% 이상 많았으며,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기독교를 믿는 여성이 14.6%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남편과의 대화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18.7%로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11.3%에 비해 7%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24>는 부부간의 대화 만족에 대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응답자의 가족생활 수준을 비롯하여 한글사용 능력,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수준, 그리고 외부 교육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과의 대화를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22.6%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9.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23.9%로 서툰 여성 11.9%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외부 모임이나 외부 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30% 수준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10% 미만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남편과의 대화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 수준이 어려운 여성이 31.9%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10.3%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외부모임이나 외부 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30% 수준으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 12-13%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낮은 여성이 18.4%로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 13.0%에 비해 5% 정도 많았다.

<표 7-2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대화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부부대화 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3.6	32.6	31.9	11.8	100.0	144	X <sup>2</sup> =9.32, p>.05
	3-5년	15.6	30.6	36.7	17.0	100.0	147	
	6-9년	19.1	38.2	25.8	16.9	100.0	178	
	10년 이상	19.4	31.7	30.9	18.0	100.0	139	
연령	20세미만	21.5	31.5	34.9	12.1	100.0	149	X <sup>2</sup> =10.28, p>.05
	20-30세	17.2	38.3	28.3	16.1	100.0	180	
	31-39세	23.1	32.1	26.3	18.6	100.0	156	
	40세 이상	15.4	30.9	36.6	17.1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12.1	37.9	35.5	14.5	100.0	124	X <sup>2</sup> =16.18, p<.06
	고등학교	23.5	33.8	26.9	15.8	100.0	260	
	전문대학	14.7	27.6	40.5	17.2	100.0	116	
	대학교 이상	22.4	34.6	26.2	16.8	100.0	107	
국적	일본	20.0	29.0	31.0	20.0	100.0	145	X <sup>2</sup> =18.44, p>.05
	필리핀	14.8	31.6	36.8	16.7	100.0	209	
	베트남	25.0	37.5	34.4	3.1	100.0	32	
	조선족	23.0	38.5	24.6	13.9	100.0	187	
	기타	23.1	38.5	30.8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19.8	37.2	28.9	14.0	100.0	121	X <sup>2</sup> =27.12, p<.01
	개신기독교	14.6	30.7	40.1	14.6	100.0	137	
	불원불교	17.0	30.2	41.5	11.3	100.0	53	
	통일교	18.3	33.3	29.7	18.7	100.0	219	
	기타	37.5	37.5	12.5	12.5	100.0	56	

<표 7-2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부대화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부부대화 만족				합 계		검증
		1.00	2.00	3.00	4.00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22.6	36.8	30.3	10.3	100.0	155	X <sup>2</sup> =40.97, p<.001
	보통	22.4	34.3	31.7	11.5	100.0	312	
	살기어려움	9.2	28.4	30.5	31.9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21.1	42.1	22.4	14.5	100.0	152	X <sup>2</sup> =13.80, p>.05
	전업주부	19.3	29.9	35.3	15.4	100.0	331	
	취업임금	14.7	36.0	32.0	17.3	100.0	75	
	기타	22.0	28.0	28.0	22.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18.4	31.1	32.2	17.2	100.0	244	X <sup>2</sup> =3.16, p>.05
	약간	20.3	35.2	29.0	15.5	100.0	335	
	많음	17.2	34.5	37.9	10.3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23.9	38.5	24.7	13.0	100.0	247	X <sup>2</sup> =24.07, p<.001
	보통이다	21.9	31.9	28.8	17.5	100.0	160	
	서툰 편이다	11.9	28.9	40.8	18.4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28.8	34.0	26.0	11.1	100.0	288	X <sup>2</sup> =52.04, p<.001
	보통지지	12.4	36.8	34.3	16.5	100.0	242	
	지지부족	6.4	21.8	39.7	32.1	100.0	78	
외부교육 참여 지지	적극지지	31.7	33.7	22.1	12.6	100.0	199	X <sup>2</sup> =50.71, p<.001
	보통지지	15.0	37.3	34.0	13.7	100.0	300	
	지지부족	9.2	22.9	39.4	28.4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19.2	26.9	36.5	17.4	100.0	167	X <sup>2</sup> =10.24, p>.05
	1개 참여	20.9	33.7	30.4	14.9	100.0	335	
	2개 참여	15.1	43.4	24.5	17.0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24.4	30.7	29.1	15.7	100.0	127	X <sup>2</sup> =5.38, p>.05
	5명 미만	18.9	33.6	32.5	15.1	100.0	265	
	10명 미만	18.9	37.7	29.2	14.2	100.0	106	
	10명 이상	15.5	32.7	31.8	20.0	100.0	110	

끝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 전반적인 <표 7-25>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만 전반적인 부부생활 만족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국내 거주기간이나 연령, 그리고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부부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31.3%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 11.5%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19.6%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9.4%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 차이를 분석한 <표 7-26>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생활 수준, 현재 직업,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한글능력 수준,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모임 수준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상담자 규모 등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반적인 부부관계를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18.7%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5.7%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35.5%로 사용능력이 낮은 여성 19.0%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 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 30% 수준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5%에 비해 6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전반적인 부부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31.9%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13.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30.7%로 농업이나 전업주부 여성의 15% 미만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17.8%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 7.4%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에 있어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40% 수준으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 10% 이하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외부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여성이 22.2%로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여성 14.2%에 비해 8% 정도 많았다.

<표 7-2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전반적 부부생활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 수준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22.9	31.9	30.6	14.6	100.0	144	X <sup>2</sup> =14.93, p>.05
	3-5년	12.2	33.3	38.1	16.3	100.0	147	
	6-9년	16.3	40.4	24.2	19.1	100.0	178	
	10년 이상	18.0	35.3	34.5	12.2	100.0	139	
연령	20세미만	18.8	35.6	27.5	18.1	100.0	149	X <sup>2</sup> =8.80, p>.05
	20-30세	15.6	35.6	31.1	17.8	100.0	180	
	31-39세	18.6	30.1	37.8	13.5	100.0	156	
	40세 이상	16.3	42.3	28.5	13.0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13.7	34.7	33.1	18.5	100.0	124	X <sup>2</sup> =4.91, p>.05
	고등학교	18.8	38.1	29.6	13.5	100.0	260	
	전문대학	15.5	32.8	33.6	18.1	100.0	116	
	대학교 이상	18.7	33.6	31.8	15.9	100.0	107	
국적	일본	20.7	35.2	33.1	11.0	100.0	145	X <sup>2</sup> =22.15, p<.05
	필리핀	11.5	33.0	35.9	19.6	100.0	209	
	베트남	31.3	28.1	31.3	9.4	100.0	32	
	조선족	18.2	39.0	26.2	16.6	100.0	187	
	기타	23.1	46.2	26.9	3.8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21.5	29.8	28.1	20.7	100.0	121	X <sup>2</sup> =28.13, p<.01
	개신기독교	10.2	29.9	40.1	19.7	100.0	137	
	불원불교	11.3	45.3	35.8	7.5	100.0	53	
	통일교	18.3	38.4	31.1	12.3	100.0	219	
	기타	26.8	41.1	19.6	12.5	100.0	56	

<표 7-2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전반적 부부생활 만족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 수준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18.7	39.4	28.4	13.5	100.0	155	X <sup>2</sup> =48.39, p<.001
	보통	21.8	35.9	32.7	9.6	100.0	312	
	살기어려움	5.7	30.5	31.9	31.9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19.7	37.5	28.3	14.5	100.0	152	X <sup>2</sup> =18.01, p<.05
	전업주부	16.6	37.5	32.9	13.0	100.0	331	
	취업임금	14.7	22.7	32.0	30.7	100.0	75	
	기타	18.0	36.0	30.0	16.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17.6	31.6	32.0	18.9	100.0	244	X <sup>2</sup> =7.81, p>.05
	약간	17.3	37.6	31.9	12.8	100.0	335	
	많음	13.8	14.4	20.7	24.1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35.5	43.8	13.3	7.4	100.0	247	X <sup>2</sup> =37.32, p<.001
	보통이다	34.3	31.3	24.8	9.6	100.0	160	
	서툰 편이다	19.0	32.4	30.8	17.8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27.4	37.2	27.1	8.3	100.0	288	X <sup>2</sup> =91.98, p<.001
	보통지지	9.1	38.8	36.4	15.7	100.0	242	
	지지부족	5.1	19.2	32.1	43.6	100.0	78	
외보교육 참여지지	적극지지	30.2	37.2	22.6	10.1	100.0	199	X <sup>2</sup> =88.76, p<.001
	보통지지	13.3	40.0	35.0	11.7	100.0	300	
	지지부족	4.6	20.2	37.6	37.6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14.4	27.5	35.9	22.2	100.0	167	X <sup>2</sup> =18.57, p<.01
	1개 참여	20.0	35.8	31.0	13.1	100.0	335	
	2개 참여	13.2	47.2	25.5	14.2	100.0	106	
상당자 규모	없음	16.5	33.9	29.9	19.7	100.0	127	X <sup>2</sup> =14.58, p>.05
	5명 미만	15.8	34.7	34.0	15.5	100.0	265	
	10명 미만	27.4	35.8	27.4	9.4	100.0	106	
	10명 이상	11.8	39.1	30.9	18.2	100.0	110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불합리한 행위 분석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또한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이면에는 바로 한국 남성 배우자의 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는 한국 남성이 그 배우자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 일차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 국민이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남성, 즉 배우자로부터 불합리한 행위에 있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7-2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그 남편으로부터 일부 불합리한 행위에 있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인데, 일부 여성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불합리한 행위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약 30%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경우로 24.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밀치거나 넘어뜨리기와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각각 약 15%를 차지하였으며,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약 10%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외부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혹은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그리고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는 경우가 5-10%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는 약 50%에서 80% 수준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부터 흉기 사용 위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이 8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이나 성행위, 그리고 출입금지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이 65% 이상으로 많았으며, 욕설이나 모욕을 듣기 혹은 물건을 던진 경우 등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은 50% 수준을 차지하였다.



<표 7-2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관계 평가

단위 : %, 명

경험 여부 남편행위 내용	전혀 없음	간혹 경험	약간 경험	가끔 경험	자주 경험	합 계	
						비율	빈도
욕설/모욕 듣기	46.9	23.4	14.8	8.6	6.4	100.0	608
물건 던지기	52.1	23.8	11.0	8.4	4.6	100.0	608
밀거나 넘어뜨리기	62.8	21.7	8.1	3.1	4.3	100.0	608
폭력행사 위협	66.0	20.6	7.1	2.8	3.6	100.0	608
실제 폭력 행위	67.9	20.7	5.1	2.6	3.6	100.0	608
성행위 강요	67.4	20.6	6.6	1.6	3.8	100.0	608
출입금지 위협	65.6	21.4	4.8	3.5	4.8	100.0	608
휴기 사용 위협	80.4	13.0	2.5	0.3	3.8	100.0	608

본 연구는 이상의 여러 가지 남편에 의한 불합리한 행위 내용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7-28>은 남편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내용으로서 욕설이나 모욕을 들었던 경험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이나 연령, 국적,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이 전혀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2년 이하 거주한 여성이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20대 미만 여성이 40대 이상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베트남 국적 여성과 필리핀 국적 여성이 71.9%와 63.2%로 조선족 여성 32.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63.5%로 종교가 없는 여성 36.4%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가끔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41.0%로 2년 이하 거주하고 있는 여성 20.1%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40세 이상 여성이 36.6%로 20세 미만 여성 16.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조선족 여성이나 기타 국적의 여성이 35% 수준으로 베트남 국적 여성의 18.8%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7.7%로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26.5%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다음으로 <표 7-2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남편의 욕설이나 모욕 경험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가족생활 수준이나 직업,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그리고 상담자 규모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들은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67.7%로 가정생활이 가난한 여성 22.7%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전업주부가 53.8%로 기타 직업이나 취업임금 노동자 여성 35% 수준에 비해 15% 정도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이 55% 수준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40% 수준에 비해 15% 이상 많았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외부 상담원을 10명 정도 갖고 있는 여성이 50% 이상으로 상담원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5인 미만으로 갖고 있는 여성 40% 수준에 비해 10% 정도 많았다.

반면에 남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가끔 경험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56.0%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16.2%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취업임금 노동자 여성이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40%로서 전업주부 24.5%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40% 수준으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 20% 수준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7-2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욕설 듣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 욕설듣기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간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63.2	16.7	20.1	100.0	144	X <sup>2</sup> =38.07, p<.001
	3-5년	55.1	20.4	24.5	100.0	147	
	6-9년	38.8	28.1	33.1	100.0	178	
	10년 이상	31.7	27.3	41.0	100.0	139	
연령	20세미만	62.4	20.8	16.8	100.0	149	X <sup>2</sup> =29.28, p<.001
	20-30세	48.9	23.3	27.8	100.0	180	
	31-39세	35.9	25.0	39.1	100.0	156	
	40세 이상	39.0	24.4	36.6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52.4	17.7	29.8	100.0	124	X <sup>2</sup> =5.93, p>.05
	고등학교	42.3	27.3	30.4	100.0	260	
	전문대학	50.0	21.6	28.4	100.0	116	
	대학교 이상	47.7	22.4	29.9	100.0	107	
국적	일본	37.2	33.1	29.7	100.0	145	X <sup>2</sup> =57.43, p<.001
	필리핀	63.2	12.4	24.4	100.0	209	
	베트남	71.9	9.4	18.8	100.0	32	
	조선족	32.6	31.6	35.8	100.0	187	
	기타	46.2	19.2	34.6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36.4	30.6	33.1	100.0	121	X <sup>2</sup> =31.62, p<.001
	개신기독교	63.5	11.7	24.8	100.0	137	
	불원불교	43.4	18.9	37.7	100.0	53	
	통일교	45.2	28.3	26.5	100.0	219	
	기타	39.3	19.6	41.1	100.0	56	

<표 7-2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의 욕설 듣기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 욕설듣기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간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67.7	16.1	16.2	100.0	155	X <sup>2</sup> =83.53, p<.001
	보통	47.4	27.9	24.7	100.0	312	
	살기어려움	22.7	21.3	56.0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40.8	27.6	31.6	100.0	152	X <sup>2</sup> =19.96, p<.01
	전업주부	53.8	21.8	24.5	100.0	331	
	취업임금	38.7	18.7	42.7	100.0	75	
	기타	32.0	28.0	40.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49.2	20.9	29.9	100.0	244	X <sup>2</sup> =2.01, p>.05
	약간	45.4	25.4	29.3	100.0	335	
	많음	44.8	20.7	34.5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43.3	23.9	32.8	100.0	247	X <sup>2</sup> =3.45, p>.05
	보통이다	51.3	23.8	25.0	100.0	160	
	서툰 편이다	47.8	22.4	29.9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55.2	25.0	19.8	100.0	288	X <sup>2</sup> =27.24, p<.001
	보통지지	40.1	21.5	38.4	100.0	242	
	지지부족	37.2	23.1	39.7	100.0	78	
외부교육 참여 지지	적극지지	55.8	22.1	22.1	100.0	199	X <sup>2</sup> =26.58, p<.001
	보통지지	43.0	28.0	29.0	100.0	300	
	지지부족	41.3	12.8	45.9	100.0	109	
외보 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50.3	16.2	33.5	100.0	167	X <sup>2</sup> =7.20, p>.05
	1개 참여	46.3	25.4	28.4	100.0	335	
	2개 참여	43.4	28.3	28.3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45.7	23.6	30.7	100.0	127	X <sup>2</sup> =13.58, p<.05
	5명 미만	40.8	27.9	31.3	100.0	265	
	10명 미만	58.5	18.9	22.6	100.0	106	
	10명 이상	51.8	16.4	31.8	100.0	110	

그리고 <표 7-3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남편의 폭력적 사용 위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수준이나 국적,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적 사용 위협을 경험하지 못한 이주여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76.6%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60.5%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일본이나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70% 이상으로 조선족 국적의 여성 50% 수준에 비해 20% 이상 많았고, 통일교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70% 이상으로서 종교가 없는 여성 50% 미만에 비해 20% 이상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적 사용 위협을 가끔 경험한 이주여성 중에는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이 20%로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7.5%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조선족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15% 이상으로서 일본 국적의 여성 8.3%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여성이 19.8%로서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9.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3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남편의 폭력사용 위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가족생활 수준이나 현재의 직업, 한글사용 능력 수준,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및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부터 폭력적인 사용 위협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하거나 혹은 보통 수준인 여성이 70% 이상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45.4%에 비해 30% 정도 많았으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전업주부인 여성이 60-70%로서 취업임금근로자 여성 50%에 비해 10-20% 이상 많았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70%로서 능숙한 여성 60%에 비해 10% 이상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 교육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이 70% 이상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55% 수준에 비해 15% 정도 많았다. 반면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적 사용 위협을 가끔 받았던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24.8%로 부유한 여성 10%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25.3%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전업주부의 11%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가족의 지지를 받은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표 7-3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폭력 위협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 폭력위협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가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72.9	13.9	13.2	100.0	144	X <sup>2</sup> =8.00, p>.05
	3-5년	68.0	20.4	11.6	100.0	147	
	6-9년	63.5	21.9	14.6	100.0	178	
	10년 이상	59.7	25.9	14.4	100.0	139	
연령	20세미만	73.8	14.1	12.1	100.0	149	X <sup>2</sup> =8.87, p>.05
	20-30세	65.0	23.3	11.7	100.0	180	
	31-39세	62.8	23.7	13.5	100.0	156	
	40세 이상	61.8	20.3	17.9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60.5	19.4	20.2	100.0	124	X <sup>2</sup> =11.72, p<.05
	고등학교	65.4	22.3	12.3	100.0	260	
	전문대학	62.9	22.4	14.7	100.0	116	
	대학교 이상	76.6	15.9	7.5	100.0	107	
국적	일본	70.3	21.4	8.3	100.0	145	X <sup>2</sup> =41.21, p<.001
	필리핀	76.1	12.4	11.5	100.0	209	
	베트남	71.9	12.5	15.6	100.0	32	
	조선족	49.7	32.6	17.6	100.0	187	
	기타	80.8	7.7	11.5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47.9	32.2	19.8	100.0	121	X <sup>2</sup> =28.40, p<.001
	개신기독교	75.2	14.6	10.2	100.0	137	
	불원불교	62.3	22.6	15.1	100.0	53	
	통일교	72.1	18.3	9.6	100.0	219	
	기타	67.9	16.1	16.0	100.0	56	

<표 7-3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의 폭력 위험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 폭력 위험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가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76.1	13.5	10.3	100.0	155	X <sup>2</sup> =39.44, p<.001
	보통	70.2	19.9	9.9	100.0	312	
	살기 어려움	45.4	29.8	24.8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63.2	25.0	11.8	100.0	152	X <sup>2</sup> =18.85, p<.01
	전업주부	71.6	16.9	11.5	100.0	331	
	취업임금	49.4	25.3	25.3	100.0	75	
	기타	62.0	24.0	14.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67.6	18.4	13.9	100.0	244	X <sup>2</sup> =2.64, p>.05
	약간	65.4	22.1	12.5	100.0	335	
	많음	58.6	20.7	20.7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59.9	23.5	16.6	100.0	247	X <sup>2</sup> =10.72, p<.05
	보통이다	72.5	20.0	7.5	100.0	160	
	서툰 편이다	68.2	17.4	14.4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75.0	19.1	5.9	100.0	288	X <sup>2</sup> =34.56, p<.001
	보통지지	59.5	22.3	18.2	100.0	242	
	지지부족	52.6	20.5	26.9	100.0	78	
외부교육 참석지지	적극지지	72.9	19.6	7.5	100.0	199	X <sup>2</sup> =14.10, p<.01
	보통지지	64.3	21.3	14.3	100.0	300	
	지지부족	57.8	20.2	22.0	100.0	109	
외부모임 참석 수준	모임 없음	61.7	19.8	18.6	100.0	167	X <sup>2</sup> =5.66, p>.05
	1개 참여	67.5	21.5	11.0	100.0	335	
	2개 참여	67.9	18.9	13.2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64.6	22.0	13.4	100.0	127	X <sup>2</sup> =11.43, p>.05
	5명 미만	60.8	24.9	14.3	100.0	265	
	10명 미만	77.4	12.3	10.4	100.0	106	
	10명 이상	69.1	16.4	14.5	100.0	110	

그리고 <표 7-32>는 실제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력 경험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학력수준이나 국적,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의 폭력 사용을 경험하지 않은 이주여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75.7%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63%에 비해 12% 정도 많았으며,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70% 이상으로서 조선족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 60% 수준에 비해 10% 이상 많았고,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76.7%로서 종교가 없는 여성 53.7%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반면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적 사용을 가끔 경험한 이주여성 중에는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이 17.7%로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7.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21.9%로 일본 국적의 여성 2.8%에 비해 7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33>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실제 남편 폭력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가족생활 수준을 비롯하여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실제 외부 모임 참여 수준, 그리고 상담자 규모 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74.8%로 가정생활이 가난한 여성 53.2%에 비해 20% 이상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80% 수준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50%에 비해 약 30% 정도 많았으며, 2개 이상의 외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72.6%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 64.1%에 비해 8% 정도 많았으며, 그리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담자원 10명 정도 갖고 있는 여성이 75% 수준으로서 상담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 64%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반면에 가끔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17.7%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10.0%에 비해 7% 이상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참여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25% 수준으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 5% 수준에 비해 5배 정도 많았고, 외부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 18.6%에 비해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여성 8.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그리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담자원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전혀 없는 여성이 중간 정도 갖고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7-3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폭력 행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의 폭력 행사(때리거나 발길)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가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73.6	14.6	11.8	100.0	144	$X^2=8.21,$ $p>.05$
	3-5년	66.7	19.7	13.6	100.0	147	
	6-9년	66.3	21.9	11.8	100.0	178	
	10년 이상	65.5	26.6	7.9	100.0	139	
연령	20세미만	72.5	17.4	10.1	100.0	149	$X^2=2.78,$ $p>.05$
	20-30세	65.0	23.3	11.7	100.0	180	
	31-39세	67.3	21.8	10.9	100.0	156	
	40세 이상	67.5	19.5	13.0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62.9	19.4	17.7	100.0	124	$X^2=12.16,$ $p<.05$
	고등학교	69.2	22.3	8.5	100.0	260	
	전문대학	62.9	22.4	14.7	100.0	116	
	대학교 이상	75.7	16.8	7.5	100.0	107	
국적	일본	75.9	21.4	2.8	100.0	145	$X^2=44.18,$ $p<.001$
	필리핀	72.2	13.4	14.4	100.0	209	
	베트남	65.6	12.5	21.9	100.0	32	
	조선족	56.1	32.6	11.2	100.0	187	
	기타	84.6	3.8	11.5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53.7	33.1	13.2	100.0	121	$X^2=24.24,$ $p<.01$
	개신기독교	67.9	17.5	14.6	100.0	137	
	불원불교	64.2	22.6	13.2	100.0	53	
	통일교	76.7	16.9	6.4	100.0	219	
	기타	69.6	17.9	12.5	100.0	56	

<표 7-3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의 폭력 행사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의 폭력(때리거나 발길)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가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74.8	14.8	10.3	100.0	155	X <sup>2</sup> =20.27, p<.001
	보통	71.2	19.9	9.0	100.0	312	
	살기어려움	53.2	29.1	17.7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65.8	23.0	11.2	100.0	152	X <sup>2</sup> =10.96, p>.05
	전업주부	72.5	18.1	9.4	100.0	331	
	취업임금	54.7	26.7	18.7	100.0	75	
	기타	64.0	22.0	14.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66.0	19.3	14.8	100.0	244	X <sup>2</sup> =7.07, p>.05
	보통	69.6	20.9	9.6	100.0	335	
	많음	65.5	31.0	3.4	100.0	29	
한글능력수준	능숙하다	63.2	23.5	13.4	100.0	247	X <sup>2</sup> =8.52, p>.05
	보통이다	75.0	18.8	6.3	100.0	160	
	서툰 편이다	68.2	18.9	12.9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78.1	16.3	5.6	100.0	288	X <sup>2</sup> =36.98, p<.001
	보통지지	62.0	24.0	14.0	100.0	242	
	지지부족	48.7	26.9	24.4	100.0	78	
외부교육참석지지	적극지지	77.4	17.6	5.0	100.0	199	X <sup>2</sup> =37.90, p<.001
	보통지지	67.3	22.7	10.0	100.0	300	
	지지부족	52.3	21.1	26.6	100.0	109	
외부모임 참석수준	모임 없음	64.1	17.4	18.6	100.0	167	X <sup>2</sup> =13.19, p<.01
	1개 참여	68.4	23.0	8.7	100.0	335	
	2개 참여	72.6	18.9	8.5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63.8	22.0	14.2	100.0	127	X <sup>2</sup> =15.67, p<.05
	5명 미만	64.5	25.7	9.8	100.0	265	
	10명 미만	75.5	17.0	7.5	100.0	106	
	10명 이상	73.6	10.9	15.5	100.0	110	

<표 7-34>는 남편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출입금지 위협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종교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부터 출입금지 위협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기타 국적의 여성이 9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국적 및 일본 국적의 여성이 70% 이상으로 조선족 여성 57.8%에 비해 13% 이상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75.0%로 가장 많았고, 불교와 원불교를 믿거나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70% 수준으로 종교가 없는 여성 56.2%에 비해 14% 정도 많았다. 반면에 남편으로부터 가끔 출입금지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 중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15% 이상으로서 일본 국적의 여성 6.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18.3%로 불교나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9.4%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3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는 출입금지 위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가족생활 수준과 직업,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부터 출입금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72.3%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52.5%에 비해 20% 정도 많았으며, 전업주부 혹은 기타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70% 이상으로 취업임금노동자 혹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50-60%에 비해 10-20% 정도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이 75% 이상으로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50% 미만에 비해 25% 이상 많았다. 반면에 남편의 출입금지 위협을 가끔 듣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23.4%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9.0%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25% 정도로 전업주부 8.8%에 비해 3배 정도 많았으며, 외부생활이나 외부 교육참여에 관해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30% 수준으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7% 미만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표 7-3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출입금지 위협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의 출입입금 위협 정도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가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72.9	16.0	11.1	100.0	144	X <sup>2</sup> =6.74, p>.05
	3-5년	62.6	21.8	15.6	100.0	147	
	6-9년	64.0	21.9	14.0	100.0	178	
	10년 이상	63.3	25.9	10.8	100.0	139	
연령	20세미만	67.8	20.1	12.1	100.0	149	X <sup>2</sup> =1.77, p>.05
	20-30세	65.0	23.3	11.7	100.0	180	
	31-39세	63.5	21.2	15.4	100.0	156	
	40세 이상	66.7	20.3	13.0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65.3	18.5	16.1	100.0	124	X <sup>2</sup> =6.37, p>.05
	고등학교	66.2	23.8	10.0	100.0	260	
	전문대학	61.2	23.3	15.5	100.0	116	
	대학교 이상	69.2	16.8	14.0	100.0	107	
국적	일본	71.0	22.1	6.9	100.0	145	X <sup>2</sup> =36.25, p<.001
	필리핀	64.6	16.7	18.7	100.0	209	
	베트남	75.0	9.4	15.6	100.0	32	
	조선족	57.8	31.0	11.2	100.0	187	
	기타	96.2	3.8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56.2	30.6	13.2	100.0	121	X <sup>2</sup> =14.95, p<.06
	개신기독교	63.5	18.2	18.3	100.0	137	
	불원불교	69.8	20.8	9.4	100.0	53	
	통일교	69.9	19.6	10.5	100.0	219	
	기타	75.0	16.1	8.9	100.0	56	

<표 7-3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의 출입금지 위협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의 출입금지 위협 정도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가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72.3	18.7	9.0	100.0	155	X <sup>2</sup> =21.52, p<.001
	보통	68.3	21.5	10.3	100.0	312	
	살기어려움	52.5	24.1	23.4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59.2	24.3	16.4	100.0	152	X <sup>2</sup> =31.80, p<.001
	전업주부	71.0	20.2	8.8	100.0	331	
	취업임금	50.7	24.0	25.3	100.0	75	
	기타	72.0	16.0	12.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66.0	18.9	15.1	100.0	244	X <sup>2</sup> =3.89, p>.05
	약간	66.0	22.4	11.6	100.0	335	
	많음	58.6	31.0	10.4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62.3	23.5	14.2	100.0	247	X <sup>2</sup> =2.00, p>.05
	보통이다	68.1	20.0	11.9	100.0	160	
	서툰 편이다	67.7	19.9	12.4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75.3	17.4	7.3	100.0	288	X <sup>2</sup> =35.59, p<.001
	보통지지	61.2	23.6	15.3	100.0	242	
	지지부족	43.6	29.5	26.9	100.0	78	
외부교육 참여지지	적극지지	76.4	18.1	5.5	100.0	199	X <sup>2</sup> =50.92, p<.001
	보통지지	64.7	24.3	11.0	100.0	300	
	지지부족	48.6	19.3	31.1	100.0	109	
외부모임 참여수준	모임 없음	62.3	20.4	17.3	100.0	167	X <sup>2</sup> =5.24, p>.05
	1개 참여	67.5	20.6	11.9	100.0	335	
	2개 참여	65.1	25.5	9.4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63.8	22.8	13.4	100.0	127	X <sup>2</sup> =7.16, p>.05
	5명 미만	65.7	24.2	10.1	100.0	265	
	10명 미만	68.9	17.0	14.1	100.0	106	
	10명 이상	64.5	17.3	8.2	100.0	110	

끝으로 <표 7-3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남편의 흥기 사용 위협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이나 국적 그리고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부터 흥기 사용 위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이주여성 중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86% 이상으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70%에 비해 15% 이상 많았고, 일본이나 기타 국적의 여성이 90% 이상으로 조선족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 70-75%에 비해 15-20% 이상 많았으며,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90%로 종교가 없는 여성 64.5%에 비해 25% 정도 많았다. 반면에 가끔 남편으로부터 흥기 사용 위협을 경험한 이주여성 중에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12.9%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5%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베트남 국적의 여성 15.6%에 비해 일본국적의 여성 2.8%에 비해 5배 이상 많았고, 조선족이나 필리핀 국적 여성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3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남편의 흥기사용 위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응답자의 가족생활 수준과 직업 한글능력 수준,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상담자 규모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의 흥기사용 위협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86%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67%에 비해 20% 정도 많았고, 전업주부가 86%로서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의 60% 수준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한국어 사용능력이 중간 수준인 여성이 90%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 72%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그리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85% 수준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70% 수준에 비해 15% 정도 많았고, 의논 상담자를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 의논 상담자가 없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가끔 남편으로부터 흥기 사용 위협을 받았던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11.3%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4.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취업 임금노동자 여성이 16.0%로 전업주부 3% 수준에 비해 5배 정도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10% 이상으로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3-4%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7-3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남편의 흥기사용 위협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 흥기 사용 위협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가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81.3	10.4	8.3	100.0	144	$X^2=2.88,$ $p>.05$
	3-5년	82.3	11.6	6.1	100.0	147	
	6-9년	78.7	11.2	6.2	100.0	178	
	10년 이상	79.9	14.4	5.8	100.0	139	
연령	20세미만	80.5	12.8	6.7	100.0	149	$X^2=7.55,$ $p>.05$
	20-30세	81.1	14.4	4.5	100.0	180	
	31-39세	80.8	14.1	5.1	100.0	156	
	40세 이상	78.9	9.8	11.3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70.2	16.9	12.9	100.0	124	$X^2=20.55,$ $p<.01$
	고등학교	79.6	15.8	4.6	100.0	260	
	전문대학	86.2	8.6	5.2	100.0	116	
	대학교 이상	87.9	6.5	5.6	100.0	107	
국적	일본	91.7	5.5	2.8	100.0	145	$X^2=58.87,$ $p<.001$
	필리핀	85.6	7.2	7.2	100.0	209	
	베트남	75.0	9.4	15.6	100.0	32	
	조선족	66.8	27.3	5.9	100.0	187	
	기타	92.4	3.8	3.8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64.5	28.9	6.6	100.0	121	$X^2=48.66,$ $p<.001$
	개신기독교	84.7	8.0	7.3	100.0	137	
	불원불교	69.8	22.6	7.5	100.0	53	
	통일교	90.0	5.5	4.5	100.0	219	
	기타	83.9	10.7	5.4	100.0	56	

<표 7-3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남편의 흥기사용 위협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남편의 흥기사용 위협			합 계		검증
		전혀 없음	가혹 있음	가끔 있음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86.5	9.0	4.5	100.0	155	X <sup>2</sup> =20.56, p<.001
	보통	83.3	11.2	5.4	100.0	312	
	살기어려움	67.4	21.3	11.3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77.0	15.8	7.2	100.0	152	X <sup>2</sup> =33.58, p<.001
	전업주부	86.4	9.7	3.9	100.0	331	
	취업임금	58.7	25.3	16.0	100.0	75	
	기타	84.0	8.0	8.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80.7	12.3	7.0	100.0	244	X <sup>2</sup> =3.85, p>.05
	약간	79.1	14.0	6.9	100.0	335	
	많음	93.1	6.9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72.9	18.6	8.5	100.0	247	X <sup>2</sup> =20.06, p<.001
	보통이다	90.0	7.5	2.5	100.0	160	
	서툰 편이다	82.1	10.4	7.5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86.5	9.4	4.1	100.0	288	X <sup>2</sup> =15.05, p<.01
	보통지지	76.9	14.9	8.2	100.0	242	
	지지부족	69.2	20.5	10.3	100.0	78	
외부교육 참여 수준	적극지지	84.9	11.6	3.5	100.0	199	X <sup>2</sup> =11.01, p<.05
	보통지지	80.0	13.7	6.3	100.0	300	
	지지부족	73.4	13.8	12.8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75.4	15.6	9.0	100.0	167	X <sup>2</sup> =18.74, p<.06
	1개 참여	80.0	13.7	6.3	100.0	335	
	2개 참여	89.6	6.6	3.8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74.0	19.7	6.3	100.0	127	X <sup>2</sup> =17.34, p<.01
	5명 미만	78.5	15.5	6.0	100.0	265	
	10명 미만	89.6	4.7	5.7	100.0	106	
	10명 이상	83.6	7.3	9.1	100.0	110	



그리고 본 연구는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배우자 사이의 부부싸움 빈도를 분석한 것인데, 그 결과는 <표 7-3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32.4%로 약 1/3를 차지하였다. 반면 나머지 2/3 정도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1년에 한 두 차례 이하 정도의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17.4%를 차지하였고, 1달에 1-2회 정도 이하로 간혹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35.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주일에 1-2회 이상 부부싸움을 하는 비교적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여성이 14.4%를 차지하였다.

<표 7-38>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배우자의 부부싸움 빈도 분석

단위 : %, 명

부부싸움 빈도	구 분	빈 도	비 율
거의 하지 않는다		197	32.4
1년에 1-2회 정도		106	17.4
6개월에 1-2회 정도		71	11.7
1달에 1-2회 정도		146	24.0
1주일에 1-2회 정도		75	12.3
자주 한다		13	2.1
합 계		608	100.0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비교적 빈번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어떤 여성의 경우 부부싸움을 보다 빈번하게 하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부부싸움 원인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이다.

<표 7-3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부부싸움 정도가 얼마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를 제외한 국내 거주 기간과 연령, 학력 수준, 그리고 국적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2년 이하 거주한

여성이 43.1%로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 28.8%에 비해 15% 정도 많았고, 20세 미만의 여성이 37.6%로 40세 이상의 28.5%에 비해 10% 정도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35.5%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29.0%에 비해 7% 정도 많았으며,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56.3%로 조선족 여성의 29.4%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부부싸움을 빈번하게 자주 하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3-5년 정도 거주한 여성이 20.4%로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 6.5%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으며, 20세 미만 여성이 20.1%로 40세 이상 여성의 8.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23.4%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8.3%에 비해 3배 정도 많았고,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19.1%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6.3%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4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부부싸움 빈도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생활 수준을 비롯하여 직업,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 경험이 거의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36.1%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24.1%에 비해 12% 정도 많았으며, 전업주부가 35.0%로 기타 범주의 여성 24%에 비해 10% 이상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40% 정도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20%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부부싸움을 비교적 자주 하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22.0%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11.0%에 비해 2배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24-28% 수준으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8% 수준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표 7-3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싸움 정도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부부싸움 정도				합 계		검증
		거의 없음	약간	간혹	자주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43.1	13.2	30.6	13.2	100.0	144	X <sup>2</sup> =25.28, p<.01
	3-5년	25.9	17.7	36.1	20.4	100.0	147	
	6-9년	32.0	15.7	35.4	16.9	100.0	178	
	10년 이상	28.8	23.7	41.0	6.5	100.0	139	
연령	20세미만	37.6	10.7	31.5	20.1	100.0	149	X <sup>2</sup> =18.06, p<.05
	20-30세	33.3	18.9	35.6	12.2	100.0	180	
	31-39세	29.5	19.9	34.0	16.7	100.0	156	
	40세 이상	28.5	20.3	43.1	8.1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29.0	13.7	33.9	23.4	100.0	124	X <sup>2</sup> =22.01, p<.01
	고등학교	35.8	20.4	35.8	8.1	100.0	260	
	전문대학	25.9	17.2	38.8	18.1	100.0	116	
	대학교 이상	35.5	14.0	34.6	15.9	100.0	107	
국적	일본	35.2	19.3	37.2	8.3	100.0	145	X <sup>2</sup> =25.61, p<.01
	필리핀	31.1	13.4	36.4	19.1	100.0	209	
	베트남	56.3	9.4	28.1	6.3	100.0	32	
	조선족	29.4	23.5	35.3	11.8	100.0	187	
	기타	26.9	11.5	42.3	19.2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26.4	22.3	33.1	18.2	100.0	121	X <sup>2</sup> =18.77, p>.05
	개신기독교	27.0	14.6	39.4	19.0	100.0	137	
	불원불교	45.3	15.1	34.0	5.7	100.0	53	
	통일교	35.2	16.9	37.9	10.0	100.0	219	
	기타	33.9	19.6	33.9	12.5	100.0	56	

<표 7-4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부싸움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부부싸움정도의 범주				합 계		검증
		거의 없음	약간	간혹	자주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36.1	19.4	33.5	11.0	100.0	155	X <sup>2</sup> =12.93, p<.05
	보통	34.3	15.7	37.2	12.8	100.0	312	
	살기어려움	24.1	19.1	34.8	22.0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30.3	23.7	28.3	17.8	100.0	152	X <sup>2</sup> =17.71, p<.05
	전업주부	35.0	13.3	39.9	11.8	100.0	331	
	취업임금	30.7	20.0	33.3	16.0	100.0	75	
	기타	24.0	22.0	34.0	20.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34.4	18.4	34.0	13.1	100.0	244	X <sup>2</sup> =2.83, p>.05
	약간	31.3	16.7	36.1	15.8	100.0	335	
	많음	27.6	17.2	44.8	10.3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29.6	22.3	32.0	16.2	100.0	247	X <sup>2</sup> =9.61, p>.05
	보통이다	34.4	15.0	38.8	11.9	100.0	160	
	서툰 편이다	34.3	13.4	37.8	14.4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39.6	19.8	32.6	8.0	100.0	288	X <sup>2</sup> =33.64, p<.001
	보통지지	27.3	14.9	40.1	17.8	100.0	242	
	지지부족	21.8	16.7	33.3	28.2	100.0	78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41.2	19.6	31.2	8.0	100.0	199	X <sup>2</sup> =28.69, p<.001
	보통지지	30.0	18.7	36.3	15.0	100.0	300	
	지지부족	22.9	10.1	42.2	24.8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 없음	32.9	14.4	36.5	16.2	100.0	167	X <sup>2</sup> =4.75, p>.05
	1개 참여	33.1	17.0	35.2	14.6	100.0	335	
	2개 참여	29.2	23.6	35.8	11.3	100.0	106	
종합적 부부만족	매우만족	37.0	15.0	36.2	11.8	100.0	127	X <sup>2</sup> =11.79, p>.05
	약간만족	33.6	16.6	36.6	13.2	100.0	265	
	그저 그렇다	34.0	21.7	31.1	13.2	100.0	106	
	불만족	22.7	18.2	37.3	21.8	100.0	110	

다른 한편, <표 7-4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배우자간의 부부싸움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즉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것인데, 배우자간의 성격 차이 혹은 생활습관의 차이가 각각 23.3%와 17.4%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성장배경과 문화가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로 부조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으로 경제문제 또한 중요한 부부싸움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16.6%를 차지하였고, 남편 배우자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가 각각 13.2%와 14.5%를 차지하였다.

<표 7-41>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배우자의 부부싸움 원인 분석

단위 : %, 명

구 분	빈 도	비 율
남편과의 성격 차이	111	23.3
남편과의 생활방식 차이	83	17.4
경제적 문제	79	16.6
자녀교육 문제	40	8.4
남편의 음주문제	60	12.6
부모와의 불화	29	6.1
남편의 외도	3	0.6
기 타	71	14.9
합 계	476	100.0

본 연구는 또한 아래에서 부부싸움 원인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7-42>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부부싸움 원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을 비롯하여 연령, 국적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성격이나 생활방식과 차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48.7%로 국내에 2년 이하 거주한 여성 35.8%에 비해

13% 정도 많았고, 30대 여성이 46%로 20대 여성 36%에 비해 10% 정도 많았고, 일본 국적의 여성이 51.8%로 베트남 국적 여성의 13.6%에 비해 4배 정도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여성이 53%로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32.7%에 비해 20.0% 이상 많았다. 반면에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여성 중에는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여성이 2년 이하 거주한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일본 국적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13-18% 수준으로 베트남 국적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 4% 이하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으며, 불교 혹은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4%로 종교가 없는 여성 16%에 비해 8% 정도 많았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이주여성 중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남편의 음주문제를 비롯한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이주여성 중에는 3-5년 국내 거주한 여성이 18.5%로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 8.8%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40세 이상 여성이 19.8%로 20대 이하 여성 12%에 비해 8% 정도 많았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20% 수준으로 일본이나 조선족 여성의 10% 이하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4.5%로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8.8%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다음으로 <표 7-43>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부부싸움 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모임 참여 정도를 비롯하여 부부간의 만족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남편과의 성격이나 생활방식의 차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2개 이상의 외부모임에 참여하는 여성이 46.4%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 30.9%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부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이 40% 이상으로 부부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여성 2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19%로 부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여성 10%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남편의 음주 및 외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는 외부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18.7%로 2개 이상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 7.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부모와의 불화를 비롯한 기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는 부부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여성이 30.7%로 다른 여성 10% 수준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표 7-4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싸움 원인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					합 계		검증
		성격 및 생활방식	경제문제	자녀교육	남편문제	기타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35.8	8.5	11.3	15.1	29.2	100.0	106	X <sup>2</sup> =34.75, p<.001
	3-5년	40.9	18.3	13	18.5	9.6	100.0	115	
	6-9년	38	19	18.3	11.3	13.4	100.0	142	
	10년 이상	48.7	19.5	14.2	8.8	8.8	100.0	113	
연령	20세미만	36.5	10.6	11.5	12.5	28.8	100.0	104	X <sup>2</sup> =33.65, p<.001
	20-30세	38.1	20.1	18	12.2	11.5	100.0	139	
	31-39세	46.5	14.2	16.5	9.4	13.4	100.0	127	
	40세 이상	41.5	20.8	10.4	19.8	7.5	100.0	106	
학력	중학 이하	36	19	13	12	20	100.0	100	X <sup>2</sup> =14.82, p>.05
	고등학교	41.2	13.9	16.5	10.8	17.5	100.0	194	
	전문대학	46.7	15.2	12	18.5	7.6	100.0	92	
	대학교 이상	38.2	21.3	14.6	14.6	11.2	100.0	89	
국적	일본	51.8	13.6	10.9	7.3	16.4	100.0	110	X <sup>2</sup> =55.91, p<.001
	필리핀	31.5	18.2	17.0	20	13.3	100.0	165	
	베트남	13.6	4.5	13.6	18.2	50	100.0	22	
	조선족	48	20	15.3	9.3	7.3	100.0	150	
	기타	45	15	10	20	10	100.0	20	
종교	종교 없음	53	16	14	11	6	100.0	100	X <sup>2</sup> =36.57, p<.01
	개신기독교	32.7	17.3	13.6	24.5	11.8	100.0	110	
	불원불교	29.7	24.3	10.8	13.5	21.6	100.0	37	
	통일교	48	14.6	14	8.8	14.6	100.0	171	
	기타	24.3	27	16.2	10.8	21.6	100.0	37	

<표 7-4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부싸움 원인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부부싸움정도의 범주					합 계		검증
		성격 및 생활방식	경제문제	자녀교육	남편문제	기타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34.2	15.0	16.7	20.0	14.2	100.0	120	$X^2=9.96,$ $p>.05$
	보통	44.4	15.5	13.4	10.9	15.9	100.0	239	
	살기어려움	40.2	20.5	14.5	11.1	13.7	100.0	117	
현재직업	농업	41.5	11.0	15.3	14.4	17.8	100.0	118	$X^2=15.25,$ $p>.05$
	전업주부	38.9	15.8	15.8	15.4	14.2	100.0	247	
	취업임금	41.5	26.2	12.3	9.2	10.8	100.0	65	
	기타	47.8	21.7	8.7	4.3	17.4	100.0	46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35.3	17.4	17.9	13.4	15.9	100.0	201	$X^2=10.43,$ $p>.05$
	약간	46.4	16.0	11.6	12.0	14.0	100.0	250	
	많음	28.0	16.0	16.0	24.0	16.0	100.0	25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37.6	19.6	18	12.7	12.2	100.0	189	$X^2=12.60,$ $p>.056$
	보통이다	45.7	18.6	10.1	10.1	15.5	100.0	129	
	서툰 편이다	40.5	11.4	13.9	16.5	17.7	100.0	158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38.5	13.2	14.6	16.1	17.6	100.0	205	$X^2=10.17,$ $p>.05$
	보통지지	39.3	19.9	15.4	11.9	13.4	100.0	201	
	지지부족	51.4	17.1	11.4	8.6	11.4	100.0	70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34.7	16	16	12.5	20.8	100.0	144	$X^2=7.64,$ $p>.05$
	보통지지	44.1	17.4	13.6	13.1	11.9	100.0	236	
	지지부족	41.7	15.6	14.6	14.6	13.5	100.0	96	
외부모임 참여수준	모임 없음	30.9	18.7	13.8	18.7	17.9	100.0	123	$X^2=11.41,$ $p<.01$
	1개 참여	43.5	16.4	14.1	12.6	13.4	100.0	269	
	2개 참여	46.4	14.3	16.7	7.1	15.5	100.0	84	
상담자 규모	없음	39.6	19.8	11	12.1	17.6	100.0	91	$X^2=10.75,$ $p>.05$
	5명 미만	41.5	14.1	16.1	14.1	14.1	100.0	205	
	10명 미만	43	11.6	14	11.6	19.8	100.0	86	
	10명 이상	38.3	23.4	14.9	13.8	9.6	100.0	94	
부부전반적 만족	1.00	26.7	10.7	18.7	13.3	30.7	100.0	75	$X^2=24.98,$ $p<.01$
	2.00	46	15.3	11.7	14.1	12.9	100.0	163	
	3.00	41	19.2	16	12.8	10.9	100.0	156	
	4.00	42.7	19.5	13.4	12.2	12.2	100.0	82	



다음으로 <표 7-4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가, 만일 고려하고 있으면서 이혼을 망설이는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한 것인데,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65.5%는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4.5%는 이혼을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11.7%(남편과의 성격 차이 7.2%, 남편의 가정폭력 2.6%, 기타 1.8%)를 차지하였으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22.8%(경제적 어려움 6.7%, 결혼 전의 약속과 다른 결혼생활 3.9%, 그리고 기타 12.0%)를 차지하였다.

<표 7-4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고려와 그 주요 원인 분석

단위 : %

이혼 여부 및 주요 원인	구분 빈도	비율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99	65.5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16	2.6
경제적 어려움 및 남편의 무능력	41	6.7
남편과의 성격 차이 때문에	44	7.2
결혼 전의 약속과 다른 결혼생활 때문에	24	3.9
성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2	0.3
남편의 외도	6	1.0
남편의 구속이 너무 심해서	3	0.5
기 타	73	12.0
합 계	608	100.0

다음에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이혼 여부와 그 원인이 이주여성의 개인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7-4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혼 고려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90%로서 가장 많은 반면 조선족 여성이 57%로 가장 적었으며,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76.3%로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56%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혼 전의 약속과 다른 생활 등 가정문제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3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조선족 여성이 20.9%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9.4%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2.1%로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17.8%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남편과의 성격차이 혹은 남편의 폭력 등 남편문제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 21.9%로 일본 국적의 여성 5.5%에 비해 4배 많았고,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5.9%를 제외하면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이 약 15% 수준으로 3배 정도 많았다.

다음으로 <표 7-4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혼 고려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한 것인데, 가족생활 수준과 직업, 개인적 네트워크, 한글사용능력 수준, 외부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외부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 외부모임 참여 수준, 그리고 부부생활 만족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전업주부 및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 외부활동과 외부교육 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에서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나 기타 범주의 여성이 30%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전업주부 여성 20% 수준에 비해 10% 이상 많았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33.8%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능숙한 여성 19%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외부활동이나 교육참여와 관련해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35% 수준으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17% 수준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으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외부 상담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많았고,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38.5%로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여성 10.5%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남편의 문제로 이혼을 고려한 여성 중에는 가정경제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외부활동과 외부 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 전반에 걸쳐 불만족 상태에 있는 여성이 만족상태에 있는 여성에 비해 많았다.

<표 7-4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이혼 고려와 그 원인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이혼고려 여부와 이혼 원인			합 계		검증
		생각 없음	가정문제	남편문제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68.8	25.7	5.6	100.0	144	$X^2=8.66,$ $p>.05$
	3-5년	60.5	24.5	15	100.0	147	
	6-9년	64.6	24.7	10.7	100.0	178	
	10년 이상	69.1	19.4	11.5	100.0	139	
연령	20세미만	69.8	23.5	6.7	100.0	149	$X^2=6.73,$ $p>.05$
	20-30세	66.7	24.4	8.9	100.0	180	
	31-39세	62.8	22.4	14.7	100.0	156	
	40세 이상	62.6	24.4	13	100.0	123	
학력	중학 이하	59.7	25	15.3	100.0	124	$X^2=6.18$ $p>.05$
	고등학교	68.8	21.2	10	100.0	260	
	전문대학	67.2	24.1	8.6	100.0	116	
	대학교 이상	62.6	28	9.3	100.0	107	
국적	일본	78	16.6	5.5	100.0	145	$X^2=50.77$ $p<.001$
	필리핀	63.2	30.1	6.7	100.0	209	
	베트남	90.6	9.4	-	100.0	32	
	조선족	57.2	20.9	21.9	100.0	187	
	기타	69.2	23.1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65.3	18.2	16.5	100.0	121	$X^2=24.54$ $p<.01$
	개신기독교	56.2	32.1	11.7	100.0	137	
	불원불교	62.3	22.6	15.1	100.0	53	
	통일교	76.3	17.8	5.9	100.0	219	
	기타	60.7	25	14.3	100.0	56	

<표 7-4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혼 고려와 그 원인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이혼고려 여부와 이혼 원인			합 계		검증
		생각 없음	가정문제	남편문제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72.9	23.2	3.9	100.0	155	X <sup>2</sup> =29.91 p<.001
	보통	68	23.1	9	100.0	312	
	살기어려움	52.5	25.5	22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67.8	22.4	9.9	100.0	152	X <sup>2</sup> =26.04 p<.001
	전업주부	71.3	21.1	7.6	100.0	331	
	취업임금	48	30.7	21.3	100.0	75	
개인적 네트워크	기타	48	34	18	100.0	50	X <sup>2</sup> =0.031 p>.05
	없음	66.0	23.4	10.7	100.0	244	
	약간	65.4	23.9	10.7	100.0	335	
한글능력 수준	많음	65.5	24.1	10.3	100.0	29	X <sup>2</sup> =17.47 p<.01
	능숙하다	68.8	19	12.1	100.0	247	
	보통이다	71.3	18.1	10.6	100.0	160	
외부활동 가족지지	서툰 편이다	57.2	33.8	9	100.0	201	X <sup>2</sup> =34.83 p<.001
	적극지지	75	17.4	7.6	100.0	288	
	보통지지	62.4	26.9	10.7	100.0	242	
외부교육 참석 지지	지지부족	41	37.2	21.8	100.0	78	X <sup>2</sup> =27.15 p<.001
	적극지지	75.9	17.6	6.5	100.0	199	
	보통지지	65.7	23.7	10.7	100.0	300	
외부모임 참여 수준	지지부족	46.8	34.9	18.3	100.0	109	X <sup>2</sup> =4.61 p>.05
	모임 없음	61.1	27.5	11.4	100.0	167	
	1개 참여	66	22.4	11.6	100.0	335	
상당자 규모	2개 참여	71.7	21.7	6.6	100.0	106	X <sup>2</sup> =16.08 p<.01
	없음	65.4	25.2	9.4	100.0	127	
	5명 미만	64.2	21.9	14	100.0	265	
	10명 미만	77.4	16	6.6	100.0	106	
전반적 부부 만족	10명 이상	58.2	33.6	8.2	100.0	110	X <sup>2</sup> =68.09 p<.001
	매우 만족	86.7	10.5	2.9	100.0	105	
	약간 만족	74.1	20.4	5.6	100.0	216	
	그저 그렇다	58.1	27.2	14.7	100.0	191	
	불만족	38.5	38.5	22.9	100.0	96	

## 제 2 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분석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내용으로서 농촌지역 거주생활, 주거환경, 전자제품 이용에 대한 만족, 건강상태, 심리적 안정감, 소비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감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한 아래 <표 7-47>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40% 이상은 만족스럽게 평가한 반면, 35% 이상은 중립적인, 그리고 나머지 20% 이하는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제품 사용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5% 이상이 만족스럽게 평가한 내용으로는 육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그리고 나머지는 40% 수준에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불만족스럽게 평가된 내용으로는 주거환경과 농촌생활이 각각 24.8%와 23.2%를 차지하였고, 소비생활과 전반적인 생활만족이 20%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나머지는 20% 이하를 차지하였다.

<표 7-4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내용 문항 분석

단위 : %, 명

만족정도 삶의 질 내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 계	
						비율	빈도
농촌거주만족	10.9	28.6	37.3	15.1	8.1	100.0	608
주거환경만족	11.2	30.3	33.7	16.1	8.7	100.0	608
전자제품만족	17.4	34.5	31.9	9.7	6.4	100.0	608
건강상태만족	13.5	32.4	39.1	8.2	6.7	100.0	608
심리상태만족	13.2	33.1	37.7	8.4	7.7	100.0	608
소비생활만족	10.0	30.4	36.0	16.4	7.1	100.0	608
전반생활만족	11.2	29.6	38.8	13.2	7.2	100.0	608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삶의 질 내용 가운데 본 연구는 농촌거주 생활에 대한 만족을 비롯하여 소비생활, 심리적 건강상태, 그리고 종합적인 삶의 질 만족 등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 분석하였다.

<표 7-48>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농촌거주 생활만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거주기간이나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면, 농촌거주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개신기독교를 믿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농촌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과 일본 국적의 여성이, 그리고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4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촌생활 만족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가정생활, 현재의 직업,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 여부, 그리고 부부생활 만족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전업주부, 외부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농촌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외부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7-4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농촌거주 만족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농촌거주 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10.4	31.9	38.2	19.4	100.0	144	$X^2=9.21,$ $p>.05$
	3-5년	10.9	31.3	37.4	20.4	100.0	147	
	6-9년	12.4	23.0	41.0	23.6	100.0	178	
	10년이상	9.4	29.5	31.7	29.5	100.0	139	
연령	20세미만	8.1	34.9	38.3	18.8	100.0	149	$X^2=15.29$ $p>.05$
	20-30세	10.6	25.0	38.3	26.1	100.0	180	
	31-39세	11.5	29.5	30.1	28.8	100.0	156	
	40세이상	13.8	25.2	43.9	17.1	100.0	123	
학력	중학이하	10.5	32.3	40.3	16.9	100.0	124	$X^2=7.33$ $p>.05$
	고등학교	9.6	25.8	37.7	26.9	100.0	260	
	전문대학	12.1	31.0	36.2	20.7	100.0	116	
	대학교이상	13.1	29.0	33.6	24.3	100.0	107	
국적	일본	12.4	26.2	39.3	22.1	100.0	145	$X^2=42.68$ $p<.001$
	필리핀	12.0	35.4	35.9	16.7	100.0	209	
	베트남	12.5	59.4	21.9	6.3	100.0	32	
	조선족	8.6	18.7	40.1	32.6	100.0	187	
	기타	11.5	26.9	50.0	11.5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7.4	29.8	38.8	24.0	100.0	121	$X^2=146.92$ $p<.05$
	개신기독교	12.4	31.4	37.2	19.0	100.0	137	
	불원불교	5.7	26.4	45.3	22.6	100.0	53	
	통일교	12.8	27.4	40.2	19.6	100.0	219	
	기타	12.5	21.4	26.8	39.3	100.0	56	

<표 7-4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농촌거주 만족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농촌거주 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14.8	46.5	26.5	12.3	100.0	155	X <sup>2</sup> =107.98 p<.001
	보통	11.9	29.2	42.0	17.0	100.0	312	
	살기어려움	4.3	7.8	39.0	48.9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6.6	27.0	36.2	30.3	100.0	152	X <sup>2</sup> =23.31 p<.001
	전업주부	13.0	33.2	35.6	18.1	100.0	331	
	취업임금	12.0	14.7	44.0	29.3	100.0	75	
	기타	8.0	24.0	42.0	26.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11.1	28.3	40.2	20.5	100.0	244	X <sup>2</sup> =4.07 p>.05
	약간	10.1	28.7	36.1	25.1	100.0	335	
	많음	17.2	31.0	27.6	24.1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11.3	23.5	37.2	27.9	100.0	247	X <sup>2</sup> =9.04 p>.05
	보통이다	11.3	34.4	35.6	18.8	100.0	160	
	서툰 편이다	10.0	30.3	38.8	20.9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12.8	30.2	34.7	22.2	100.0	288	X <sup>2</sup> =5.05 p>.05
	보통지지	9.5	28.5	38.4	23.6	100.0	242	
	지지부족	7.7	23.1	43.6	25.6	100.0	78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16.1	28.1	28.1	27.6	100.0	199	X <sup>2</sup> =20.50 p<.01
	보통지지	8.3	31.0	41.7	19.0	100.0	300	
	지지부족	8.3	22.9	42.2	26.6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없음	10.8	28.7	32.3	28.1	100.0	167	X <sup>2</sup> =5.77 p>.05
	1개참여	9.9	28.7	39.4	22.1	100.0	335	
	2개참여	14.2	28.3	38.7	18.9	100.0	106	
상당자 규모	없음	7.1	31.5	37.0	24.4	100.0	127	X <sup>2</sup> =11.978 p>.05
	5명미만	9.4	24.9	39.6	26.0	100.0	265	
	10명미만	16.0	31.1	34.0	18.9	100.0	106	
	10명이상	13.6	31.8	35.5	19.1	100.0	110	
전반적 부부만족	1.00	25.7	34.3	24.8	15.2	100.0	105	X <sup>2</sup> =71.65 p<.001
	2.00	7.9	37.5	36.6	18.1	100.0	216	
	3.00	8.9	24.6	42.4	24.1	100.0	191	
	4.00	5.2	10.4	42.7	41.7	100.0	96	



다음으로 <표 7-5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소비생활 만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 국적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2년 이하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50.0%로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 28.1%에 비해 20% 이상 많았고,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50-60% 수준으로서 조선족 여성이나 일본 국적의 여성 30% 수준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소비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30.2%로 2년 이하 거주하고 있는 여성 16.0%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조선족과 일본 국적의 여성이 약 30% 수준으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9.4%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5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비생활 만족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가정생활, 직업,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 여부, 그리고 부부생활 만족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65% 이상으로 가난한 여성의 10%에 비해 6배 이상 많았고, 전업주부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이 50% 수준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30% 수준에 비해 20% 이상 많았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상담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그리고 부부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소비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7-5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소비생활 만족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소비생활 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14.6	35.4	34.0	16.0	100.0	144	X <sup>2</sup> =18.98 p<.05
	3-5년	9.5	34.7	32.7	23.1	100.0	147	
	6-9년	8.4	30.9	36.0	24.7	100.0	178	
	10년이상	7.2	20.9	41.7	30.2	100.0	139	
연령	20세미만	8.7	34.2	37.6	19.5	100.0	149	X <sup>2</sup> =9.65 p>.05
	20-30세	11.1	32.8	31.7	24.4	100.0	180	
	31-39세	7.1	25.0	41.0	26.9	100.0	156	
	40세이상	13.0	30.1	34.1	22.8	100.0	123	
학력	중학이하	10.5	37.1	27.4	25.0	100.0	124	X <sup>2</sup> =11.32 p>.05
	고등학교	10.0	25.0	38.8	26.2	100.0	260	
	전문대학	8.6	31.9	39.7	19.8	100.0	116	
	대학교이상	9.3	35.5	35.5	19.6	100.0	107	
국적	일본	8.3	24.1	40.0	27.6	100.0	145	X <sup>2</sup> =44.65 p<.001
	필리핀	10.5	40.2	36.4	12.9	100.0	209	
	베트남	9.4	50.0	31.3	9.4	100.0	32	
	조선족	10.2	22.5	33.7	33.7	100.0	187	
	기타	15.4	30.8	46.2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10.7	33.1	29.8	26.4	100.0	121	X <sup>2</sup> =9.67 p>.05
	개신기독교	9.5	32.1	38.7	19.7	100.0	137	
	불원불교	5.7	26.4	47.2	20.8	100.0	53	
	통일교	10.5	31.1	37.0	21.5	100.0	219	
	기타	10.7	21.4	37.5	30.4	100.0	56	

<표 7-5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소비생활 만족

단위 : %, 명

변수	범주	소비생활 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16.1	51.6	23.9	8.4	100.0	155	X <sup>2</sup> =163.58 p<.001
	보통	9.9	30.1	44.2	15.7	100.0	312	
	살기어려움	2.8	8.5	31.2	57.4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6.6	28.9	38.8	25.7	100.0	152	X <sup>2</sup> =18.50 p<.05
	전업주부	11.5	33.5	36.0	19.0	100.0	331	
	취업임금	13.3	20.0	30.7	36.0	100.0	75	
	기타	4.0	32.0	36.0	28.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10.2	33.2	34.8	21.7	100.0	244	X <sup>2</sup> =5.95 p>.05
	약간	9.6	27.5	37.9	25.1	100.0	335	
	많음	10.3	44.8	24.1	20.7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11.3	26.7	36.0	25.9	100.0	247	X <sup>2</sup> =11.18 p>.05
	보통이다	10.6	38.8	33.8	16.9	100.0	160	
	서툰 편이다	7.5	28.9	37.8	25.9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14.9	34.4	31.6	19.1	100.0	288	X <sup>2</sup> =30.67 p<.001
	보통지지	5.0	28.5	42.1	24.4	100.0	242	
	지지부족	6.4	23.1	33.3	37.2	100.0	78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16.6	32.7	30.2	20.6	100.0	199	X <sup>2</sup> =27.75 p<.001
	보통지지	7.0	30.7	41.3	21.0	100.0	300	
	지지부족	5.5	26.6	32.1	35.8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없음	12.0	23.4	38.3	26.3	100.0	167	X <sup>2</sup> =9.64 p>.05
	1개참여	9.3	32.5	33.7	24.5	100.0	335	
	2개참여	8.5	35.8	39.6	16.0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5.5	25.2	40.9	28.3	100.0	127	X <sup>2</sup> =17.93 p<.05
	5명미만	9.1	29.8	34.7	26.4	100.0	265	
	10명미만	15.1	35.8	29.2	19.8	100.0	106	
	10명이상	11.8	33.6	40.0	14.5	100.0	110	
전반적 부부만족	1.00	33.3	34.3	24.8	7.6	100.0	105	X <sup>2</sup> =168.12 p<.001
	2.00	5.1	44.0	35.2	15.7	100.0	216	
	3.00	5.8	22.0	47.1	25.1	100.0	191	
	4.00	3.1	13.5	28.1	55.2	100.0	96	

그리고 <표 7-52>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 국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심리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2년 이하 거주한 여성이 52.1%로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 36%에 비해 15% 이상 많았고, 필리핀 혹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약 50% 수준으로 일본국적의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의 40% 이하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반면에 심리적 건강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조선족 여성이나 일본 국적의 여성이 기타 국적의 여성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53>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건강상태 만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가정생활, 외부활동 및 외부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가족의 지지 여부, 그리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담자원 규모와 부부생활 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심리적 건강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76.7%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17.1%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외부활동과 외부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50% 정도로 가족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30-40%에 비해 10-20% 이상 많았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담 자원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그리고 부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여성이 80% 이상으로 부부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는 여성 20%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심리적 건강상태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35.5%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7.7%에 비해 5배 정도 많았으며,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30% 이상으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 15% 이하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상담자원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적게 갖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부부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44.8%로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 2.9%에 비해 매우 많았다.

<표 7-5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만족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심리적 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18.8	33.3	31.9	16.0	100.0	144	X <sup>2</sup> =11.98 p<.05
	3-5년	14.3	39.5	34.7	11.6	100.0	147	
	6-9년	9.0	32.6	41.0	17.4	100.0	178	
	10년이상	11.5	25.2	43.9	19.4	100.0	139	
연령	20세미만	12.1	38.3	32.2	17.4	100.0	149	X <sup>2</sup> =14.97 p>.05
	20-30세	15.0	34.4	39.4	11.1	100.0	180	
	31-39세	12.8	23.1	42.9	21.2	100.0	156	
	40세이상	12.2	35.8	36.6	15.4	100.0	123	
학력	중학이하	12.1	38.7	29.8	19.4	100.0	124	X <sup>2</sup> =14.32 p>.05
	고등학교	14.2	26.9	43.1	15.8	100.0	260	
	전문대학	10.3	31.9	40.5	17.2	100.0	116	
	대학교이상	14.0	41.1	32.7	12.1	100.0	107	
국적	일본	11.0	26.2	44.1	18.6	100.0	145	X <sup>2</sup> =27.81 p<.01
	필리핀	15.3	42.6	32.1	10.0	100.0	209	
	베트남	9.4	43.8	34.4	12.5	100.0	32	
	조선족	12.3	26.7	41.7	19.3	100.0	187	
	기타	23.1	26.9	42.3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11.6	35.5	37.2	15.7	100.0	121	X <sup>2</sup> =8.57 p>.05
	개신기독교	16.8	36.5	35.0	11.7	100.0	137	
	불원불교	7.5	28.3	47.2	17.0	100.0	53	
	통일교	13.2	32.0	38.8	16.0	100.0	219	
	기타	14.3	25.0	42.9	17.9	100.0	56	

<표 7-5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심리적 만족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심리적 만족상태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20.6	56.1	15.5	7.7	100.0	155	X <sup>2</sup> =130.2 p<.001
	보통	13.1	30.4	44.9	11.5	100.0	312	
	살기어려움	5.0	12.1	47.5	35.5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8.6	32.2	41.4	17.8	100.0	152	X <sup>2</sup> =13.04 p>.05
	전업주부	14.8	35.6	36.6	13.0	100.0	331	
	취업임금	16.0	22.7	38.7	22.7	100.0	75	
	기타	12.0	30.0	36.0	22.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13.1	35.7	32.8	18.4	100.0	244	X <sup>2</sup> =7.57 p>.05
	약간	12.5	30.4	42.1	14.9	100.0	335	
	많음	20.7	34.5	34.5	10.3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15.4	30.4	37.7	16.6	100.0	247	X <sup>2</sup> =10.97 p>.05
	보통이다	15.0	39.4	33.1	12.5	100.0	160	
	서툰 편이다	9.0	30.3	42.3	18.4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18.4	35.4	33.3	12.8	100.0	288	X <sup>2</sup> =48.31 p<.001
	보통지지	8.7	31.8	45.9	13.6	100.0	242	
	지지부족	7.7	25.6	30.8	35.9	100.0	78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16.6	34.7	34.7	14.1	100.0	199	X <sup>2</sup> =25.69 p<.001
	보통지지	12.0	32.0	43.7	12.3	100.0	300	
	지지부족	10.1	31.2	28.4	30.3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없음	13.2	30.5	40.7	15.6	100.0	167	X <sup>2</sup> =1.14 p>.05
	1개참여	13.4	33.1	36.7	16.7	100.0	335	
	2개참여	12.3	34.9	37.7	15.1	100.0	106	
상당자 규모	없음	5.5	33.1	46.5	15.0	100.0	127	X <sup>2</sup> =17.78 p<.05
	5명미만	13.6	30.6	36.2	19.6	100.0	265	
	10명미만	18.9	37.7	33.0	10.4	100.0	106	
	10명이상	15.5	32.7	37.3	14.5	100.0	110	
전반적 부부만족	1.00	39.0	32.4	25.7	2.9	100.0	105	X <sup>2</sup> =176.39 p<.001
	2.00	9.3	47.7	34.3	8.8	100.0	216	
	3.00	8.9	22.0	51.8	17.3	100.0	191	
	4.00	2.1	20.8	32.3	44.8	100.0	96	

그리고 <표 7-54>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생활만족 평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여성의 국적과 종교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종합적인 생활 평가에서 만족스럽게 나타난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타 국적 및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각각 53.1%와 46.8%를 차지하였으며, 반면에 일본 국적 및 조선족 국적의 여성이 각각 36.5%와 32.6%로 낮았다. 그리고 여성의 종교와 관련해서는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30%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 나머지 종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 모두는 비슷하게 40% 수준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인 생활평가에서 불만족스럽게 나타난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 32.6%로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 11.5%와 9.4%에 비해 3배 정도 많았고, 기타 종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이 26-32% 수준으로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1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표 7-55>는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생활만족 평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이주여성의 가족생활, 직업, 한국어 능력,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 그리고 전반적인 부부생활만족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종합적인 생활 평가에서 만족스럽게 나타난 이주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60% 이상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10%에 비해 6배 정도 많았으며, 전업주부가 44% 정도로 취업임금노동자 여성 33%에 비해 11% 정도 많았고, 한국어 사용능력이 중간 수준인 여성이 서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이 45-50% 수준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 20-28% 수준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고, 전반적 부부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70% 수준으로 불만족 상태에 있는 여성 10% 수준에 비해 약 7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종합적인 생활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여성 중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취업임금노동자 여성,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7-5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종합적 생활만족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종합적 생활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거주기간	2년 이하	11.1	37.5	33.3	18.1	100.0	144	X <sup>2</sup> =13.67 p>.05
	3-5년	12.9	33.3	35.4	18.4	100.0	147	
	6-9년	11.2	25.8	42.7	20.2	100.0	178	
	10년이상	9.4	21.6	44.6	24.5	100.0	139	
연령	20세미만	10.1	35.6	33.6	20.8	100.0	149	X <sup>2</sup> =10.02 p>.05
	20-30세	11.1	31.1	36.7	21.1	100.0	180	
	31-39세	10.3	22.4	46.8	20.5	100.0	156	
	40세이상	13.8	28.5	39.8	17.9	100.0	123	
학력	중학이하	14.5	32.3	31.5	21.8	100.0	124	X <sup>2</sup> =11.89 p>.05
	고등학교	9.6	28.1	38.5	23.8	100.0	260	
	전문대학	12.1	27.6	47.4	12.9	100.0	116	
	대학교이상	10.3	30.8	41.1	17.8	100.0	107	
국적	일본	11.7	24.8	46.2	17.2	100.0	145	X <sup>2</sup> =48.21 p<.001
	필리핀	10.0	36.8	41.6	11.5	100.0	209	
	베트남	12.5	50.0	28.1	9.4	100.0	32	
	조선족	10.7	21.9	34.8	32.6	100.0	187	
	기타	23.1	30.8	38.5	7.7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9.1	32.2	32.2	26.4	100.0	121	X <sup>2</sup> =22.89 p>.05
	개신기독교	8.8	30.7	43.8	16.8	100.0	137	
	불원불교	11.3	28.3	37.7	22.6	100.0	53	
	통일교	12.8	30.6	43.4	13.2	100.0	219	
	기타	14.3	14.3	39.3	32.1	100.0	56	



<표 7-5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종합적 생활만족 분석

단위 : %, 명

변수	범주	종합적 생활만족				합 계		검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빈도	
가족생활	부유	16.1	48.4	23.9	11.6	100.0	155	X <sup>2</sup> =154.68 p<.001
	보통	11.9	30.4	47.1	10.6	100.0	312	
	살기어려움	4.3	6.4	38.3	51.1	100.0	141	
현재직업	농업	9.9	28.9	40.1	21.1	100.0	152	X <sup>2</sup> =18.65 p<.05
	전업주부	12.7	31.4	39.3	16.6	100.0	331	
	취업임금	12.0	21.3	30.7	36.0	100.0	75	
	기타	4.0	30.0	48.0	18.0	100.0	50	
개인적 네트워크	없음	10.2	34.8	36.5	18.4	100.0	244	X <sup>2</sup> =4.62 p>.05
	약간	11.3	24.8	42.4	21.5	100.0	335	
	많음	17.2	37.9	24.1	20.7	100.0	29	
한글능력 수준	능숙하다	13.0	25.1	35.2	26.7	100.0	247	X <sup>2</sup> =23.20 p<.001
	보통이다	10.6	39.4	39.4	10.6	100.0	160	
	서툰 편이다	9.5	26.9	43.8	19.9	100.0	201	
외부활동 가족지지	적극지지	14.6	34.7	35.4	15.3	100.0	288	X <sup>2</sup> =27.88 p<.001
	보통지지	8.7	26.9	43.4	21.1	100.0	242	
	지지부족	6.4	17.9	39.7	35.9	100.0	78	
외부교육 참석 지지	적극지지	16.1	30.2	32.2	21.6	100.0	199	X <sup>2</sup> =29.19 p<.001
	보통지지	8.3	33.3	43.3	15.0	100.0	300	
	지지부족	10.1	17.4	40.4	32.1	100.0	109	
외부모임 참여 수준	모임없음	11.4	25.1	37.7	25.7	100.0	167	X <sup>2</sup> =5.84 p>.05
	1개참여	11.0	30.7	39.1	19.1	100.0	335	
	2개참여	11.3	32.1	41.5	15.1	100.0	106	
상담자 규모	없음	5.5	25.2	45.7	23.6	100.0	127	X <sup>2</sup> =14.90 p>.05
	5명미만	11.7	29.1	36.6	22.6	100.0	265	
	10명미만	17.0	33.0	36.8	13.2	100.0	106	
	10명이상	10.9	31.8	40.0	17.3	100.0	110	
전반적 부부 만족	1.00	33.3	36.2	22.9	7.6	100.0	105	X <sup>2</sup> =169.34 p<.001
	2.00	7.9	44.0	33.8	14.4	100.0	216	
	3.00	6.8	18.8	55.5	18.8	100.0	191	
	4.00	3.1	10.4	36.5	50.0	100.0	96	



# 제 8 장

##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검토

- 제 1 절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프로그램 내용
- 제 2 절 여성사회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내용



## 제 8 장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검토

### 제 1 절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프로그램 내용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일부 인권단체의 지원과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급증하게 되면서 정부는 최근에서야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여성부와 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밖에 일부 관련 부처가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부와 여성부의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전라북도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검토하였다.

#### 1.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2004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용역 발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연구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목적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가 완성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개최한 제13차 ‘사회문화 정책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여성결혼 이민자 인권과 복지지원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부처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향후 추진할 방안을 아래 <표 8-1>과 같이 제시하였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8.16).

그밖에도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TF팀을 구성·운영하며, 추가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제2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추가하여 분야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하는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차원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표 8-1> 정부 부처별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추진방안

정부 부처	추진방안 내용
보건복지부 : 생계 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li> <li>○ 금년 8월중에 여성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수급신청시에는 여성이민자의 소득, 재산은 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토록 지침개정을 추진하고</li> <li>○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공공부조 적용 입법례, 운영사례, 외국사례를 파악하고,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긴급복지 지원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여부를 검토하기로 함</li> <li>○ 그리고, 법개정 전이라도 금년 8·9월에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여성이민자를 자활근로 사업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li> <li><input type="checkbox"/> 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li> <li>○ 금년 8월부터 여성 결혼이민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하고,</li> <li>○ '06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 중 영양위험이 있는 자에게 필수 영양소를 지원, 영양교육</li> <li>○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금년 9월부터 이민자 Community 요청시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10월부터는 무료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li> <li><input type="checkbox"/>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등 정부정책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각 출신국 언어로 번역, 배포할 계획임</li> </ul>
법무부 : 안정적 체류보장 및 인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이혼 등 별거사유 발생 이후에도 체류 및 경제활동을 허용함</li> <li>○ '금년 9월'부터 국내 2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자격 계속 유지시에는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 방침 단,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결혼의 경우 체류허가 불허</li> <li><input type="checkbox"/> 여성결혼 이민자와 성폭력·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가능한 외국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li> <li>○ 출입국, 체류, 국적관련 사항, 가정 및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금년 하반기에 제작하여 외국인 등록시 배포할 계획임</li> </ul>
문화관광부: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금년에는 관련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단계적 프로그램운동을 지원할 계획임</li> <li>○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지원 하고, 예술치유 시범사업을 운영</li> <li><input type="checkbox"/>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농촌지역부터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실시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한국어교육을 추진하고</li> <li>○ 내년부터 한국어 교재 개발 추진 및 요리·육아 등 한국생활정보를 제공할 계획임</li> </ul>
여성가족부 : 가족관계 증진 가정폭력피해 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li> <li>○ 국제결혼 부부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강화 -교육 이수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통역·외국어 강사, 자원봉사대로 활동 유도, 네트워크 형성 지원</li> <li>○ 한국어 교육과 출산도우미·산후가사도우미를 지원 - '생활속의 한글교육' 교재 및 임신·출산·자녀양육방법 등을 수록한 '모성보호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임</li> <li>○ 국제결혼가족 전국가구 기초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TV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임</li> <li><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li> <li>○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쉼터에 이주여성 수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10월에 상담원 보수교육과정에 이주여성 관련 교육내용을 신설할 계획임</li> <li>○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시 통역비 등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동시통역 서비스를 태국어와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 검토 (현재는 러, 중, 일, 영어 운영중)</li> </ul>
노동부 :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외국인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활용, 상담 또는 취업알선 사업실시</li> <li>※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소재 64개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허가제 전담창구 운영 중</li> <li>○ 취업희망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05.9), 고용안정전산망(Work-Net)을 활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할 계획</li> <li><input type="checkbox"/>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li> <li>○ 우선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임</li> </ul>

## 2.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2005년 들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방향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문화와 결혼생활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1)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이해, 부부사랑, 갈등해소 프로그램 실시와 2) 멘토(일명‘친정어머니’) 연계를 통해 한국문화 이해와 결혼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부부교육”을 거주지역(농촌/도시), 그리고 결혼기간(3년 미만/3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은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등의 여성과 결혼한 국제결혼 부부 160쌍을 대상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8회에 걸쳐 매회 1박2일 일정으로,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 익산시 소재)와 다산기념사업회(전남 강진군 소재) 두 곳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배우자의 가족문화 배우기, 부부갈등 해소, 가족미래 설계, 영상편지 쓰기 등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교육 첫시간에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회장 최돈숙)’의 자원봉사로 농촌 근교 도시여성 80인과 멘토(일명 ‘한국의 친정어머니’)를 맺어주는 행사가 포함되었으며, 멘토는 결연을 맺은 국제결혼부부 가정으로 찾아가 한국 가족문화의 이해를 돕고 한글교육, 육아기술, 자녀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문화와 결혼생활 정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표 8-7> 참조).

다음으로 여성가족부는 (주)태평양이 출연한 여성발전기금(2억원)을 이용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으로 ‘생활속의 한글교육’ 교재 개발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가족생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모성보호 가이드’ 제작과 출산 전·후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출산-가사도우미 파견 지원 등 이주여성의 한국생활과 가족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어려움 중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겪게 되는 가족구성원간 갈등, 언어 문제, 낯선 곳에서의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므로써 한국사회 구  
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을 강화시키고 가족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고,  
한국가족생활 및 문화 이해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재를 발간·  
배포하고,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방법 등을 수록한 모성보호가이드를 알기 쉽게 제  
작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번역 발간하였다(한국어  
교재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직접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생활 및 한국가족생활 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전·후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가사도우미를 2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는데,  
이를 위해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사업운영기관 선정하여 이주여성의  
원활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사)한국이주여  
성인권센터를 선정하여 서비스 이용방법 및 지역별 접근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8-2>와 같다.

<표 8-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및 가족생활 지원 사업기관 및 역할

지역구분	위탁기관명	역할
중앙 관리기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글교육교재 발간·배포 - 모성보호가이드 발간·배포 - 지역별 사업운영기관 관리 -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서울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지역별 서비스 제공 - 한글교육 - 한국문화교육 - 한국가족생활상담 - 출산도우미 피송
경기·인천·강원	인천여성의 전화	
충청·대전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광주·호남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대구·경상	창원여성의 전화	
부산·울산	부산여성회	



### 3.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원 내용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2004년과 2005년에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 8-3>은 2004년 전라북도 행정기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10개 사업을 각 시군이 직접 추진하였다. 각 지역별로 보면, 정읍시와 장수군이 각각 3개 사업과 2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부안군, 그리고 진안군이 각각 1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업 내용을 분류해 보면,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과 문화탐방 사업이 각각 3건으로 많았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생활예절교육, 전통음식 만들기 등이 제공되었는데, 이러한 교육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이주여성은 단순히 교육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와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함께 갖게 되어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지역인 정체성 향상과 한국문화 체험, 그리고 문화적 답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완전히 적응하는데 기여하는 이점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친 심신과 격려를 위한 행사로서 장기자랑대회를 비롯하여 전통요리 품평회가 2건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의 주요 목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달래주고,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의식과 연대감을 일깨워주며, 특히 자국 전통요리 품평회 사업은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한식조리교실이 있었는데 이들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즉 경제적 빈곤 상태와 본국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취업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 관련 특화 교육이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밖에 장수군의 경우는 군내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표 8-3> 2004년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내용

구 분	프로그램명	목 적	시행 회수	주 최
위안행사	의식교육과 장기자랑대회	외국인여성들의 지역사회인으로서 의식과 연대감 형성	년1회	정읍시
	외국인여성 전통요리 품평회	외국인여성 성혼가정을 대상으로 자국 전통요리 맛자랑 대회	년1회	장수군
사회적응능력향상	외국인여성 사회적응능력 교육	외국인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능력 향상 지원 - 한국어 교육	년1회	진안군
	외국인여성 생활예절교육	한국의 관습과 생활예절 습득	년1회	김제시
	전통음식 만들기	외국인여성들의 한국전통음식문화 체험과 실습	년1회	정읍시
문화탐방	의식교육 및 문화탐방	외국인여성들에게 지역인으로서의 의식향상과 한국문화체험 기회제공	년1회	정읍시
	외국인여성문화 유적답사	외국인여성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체험기회제공	년1회	익산시
	의식교육 및 유적지탐방	외국인여성들에게 지역인으로서의 의식향상과 한국문화체험 기회제공	년1회	군산시
취업기술교육	외국인주부대상 한식조리사교실	외국인여성들에게 한국음식조리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과정개설	년1회	부안군 여성회관
기타	외국인여성-농촌총각 결혼사업	농촌총각결혼지원	수시로	장수군

다른 한편, <표 8-4>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한 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200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몇 가지 사업,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마당, 의식교육과 장기자랑대회, 생활예절교실, 문화탐방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밖에 순창군의 경우 외국인여성 자국 전통요리에 대한 품평회가 있었다.

그리고 정읍, 완주, 무주군에서는 여성단체와 결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사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향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단체 중심으로 활성화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남원시, 고창군, 장수군에서는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주출입국관리소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및 국적 취득관련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각 시군 보건소의 경우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관련 질환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건강지도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8-4> 2005년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내용

구 분	프로그램명	목 적	시행 회수	주 최
위안행사	외국인여성 한마당	국제결혼 이주여성 격려 및 전문문화체험	년1회	각 시군
	의식교육과 장기자랑대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인으로서 의식과 연대감 형성	년1회	각 시군
	외국인여성 전통요리 품평회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국 전통요리 맛자랑대회 및 지역사회인의 이해도모	년1회	장수군, 순창예지원,
사회적응능력 향상	외국인여성 생활예절교실	한국의 관습과 전통생활예절 습득	년1회	각 시군
문화적응	의식교육 및 문화탐방	이주여성들에게 지역인으로서의 의식향상과 한국문화체험 기회제공	년1회	각 시군
취업기술교육	외국인주부대상 한식조리사교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음식조리사 자격증취득을 위한 과정개설	년1회	고창군 여성회관
정서지원	여성단체와 결연활동	여성단체와 이주여성들의 결연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과 정서지원	월1회	정읍시·완주군, 무주군
법률지원	출입국관리법 순회설명회	이주여성대상 출입국관리 및 국적취득에 대한 법률설명회	수시로	전주출입국관리소
건강 상담 및 지도	무료건강교육 프로그램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여성관련 질환예방 및 체크를 위한 건강검진, 건강지도교육	년중	각 시군 보건소
기타	외국인여성-농촌총각 결혼사업	농촌총각결혼지원	년1회	전라북도, 남원시, 고창군, 장수군

## 제 2 절 여성사회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내용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2005년 활성화되면서 전북지역 여성단체 또한 각종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부터 일부 여성단체의 경우 단체의 고유사업으로 계속해 온 경우도 있다.

<표 8-5>는 2004년 여성단체가 단독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정리한 것인데,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2개 사업을,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1개 사업을, 익산시·한중여성교류협회와 정읍시·여성단체가 1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체의 자조모임이 결성되어 수시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을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여성 한마당 행사와 중국인 출신 여성을 위한 위안행사 등 2개 사업이 있었고, 나머지 사업은 외국인여성 한글교실을 비롯하여 여성단체와 결연활동, 그리고 외국인부부대화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있었다.

<표 8-5> 2004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내용

구 분	프로그램명	목 적	시행 회수	주 최
위안행사	외국인여성 한마당	외국인여성 격려 및 전통문화체험	년1회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중국인위안잔치	중국출신 여성들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년1회	익산시·한중여성교류협회
사회적응능력향상 문화탐방 취업기술교육	외국인여성 한글교실	외국인여성들의 한글터득과 한국문화습득 지도	년1회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
정서지원	여성단체와 결연활동	여성단체와 외국인여성들의 결연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과 정서지원	월1회	정읍시·여성단체
가족지원	외국인부부대화프로그램 -양성평등 가족만들기-	외국인여성가족의 건강한 가족문화만들기	년1회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자조모임	지역별, 출신국가별, 교회별 소모임	친목도모,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 봉사활동	수시로	각 지역

다음으로 <표 8-6>은 2005년 전북지역 여성단체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할 목적에서 추진한 사업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2004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14개 시군 전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지원 사업의 양도 많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일차적으로 전북지역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 내용 중에는 기존의 지원사업 범위를 넘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도 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전북여성농민회는 이주여성 산후도우미 프로그램 사업, 여성의 전화와 여성긴급전화 1366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폭력상담 및 예방활동, 이주여성의 가족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 제공 등은 그 동안 국제결혼 이주가정에 내재되어 있던 인권문제를 공개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밖에도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여성부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여성단체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과 조사연구도 실시하였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을 위한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였다.

<표 8-6> 2005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내용

구 분	프로그램명	목 적	시행 회수	주 최
사회적응능력향상	외국인여성 한글교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글터득과 한국문화습득 지도	년중	각 여성회관, 여성의전화지부, 전북여성농민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한국어받아쓰기, OX퀴즈대회, 스피드게임, 한국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경험말하기대회	년1회	아시아 노동인권센터
문화적응	장수민들레문화 교육아카데미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체험형 프로그램	년중	논실마을사람들
	전통문화체험	이주여성들의 한국 전통문화체험	년1회	한옥생활체험관
취업기술교육	컴퓨터교실	국제결혼 이주여성대상 컴퓨터교실 개설	년중	진안여성단체협의회
가족지원	국제결혼부부를 위한 가족교육	국제결혼부부의 가족관계증진을 통한 가정안정성강화	년2회	원광대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부대화법	이주여성들의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방식의 터득을 통해 갈등해결방식 모색	년1회	전주여성의전화, 순창예지원
	외국인부부교육 프로그램	이주여성가족의 건강한 가족문화만들기	년1회	진안여성단체협의회
자조모임	필리핀자조모임	필리핀출신의 결혼이주여성 및 노동자들의 자조모임지원	년중	익산노동자의집
	지역별, 출신국가별, 교회별 소모임	친목도모,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 봉사활동	수시로	각 지역
임신·출산 자녀지도	이주여성 산후도우미 프로그램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의 출산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년중	전북여성농민회
	자녀성교육 프로그램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프로그램	수시로	전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여성상담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	년중	여성의전화 각지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폭력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년1회	전주여성의전화
웹터운영	웹터운영	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웹터이용지원	년중	여성긴급전화 1366, 아시아노동인권센터
법률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취득, 가정폭력, 가정문제 등 법률서비스 지원	년중	전주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연구 및 워크샵	조사연구활동	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조사연구활동	년1회	여성다시읽기
	이주여성차별개뜨리기 네트워크 구축마련을 위한 활동가 워크샵	지역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단체 및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문제해결 대안모색	년2회	전북여성단체연합

<표 8-7> 여성부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교육 내용

□ 교육운영기관별 교육일정

교육운영기관	교육대상	인원	일시	장소
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80쌍)	농촌부부(3년 이상)	20쌍	9.27~28(화,수)	무주리조트 무주리조트 임해수련원 임해수련원
	농촌부부(3년 미만)	20쌍	9.28~29(수,목)	
	도시부부(3년 이상)	20쌍	10.25~26(화,수)	
	도시부부(3년 미만)	20쌍	11. 9~10(수,목)	
다산기념사업회 (80쌍)	농촌부부(3년 이상)	20쌍	10.28~29(금,토)	성화테마파크텔 성화테마파크텔 성화테마파크텔 성화테마파크텔
	농촌부부(3년 미만)	20쌍	11. 4~ 5(금,토)	
	도시부부(3년 이상)	20쌍	11.11~12(금,토)	
	도시부부(3년 미만)	20쌍	11.18~19(금,토)	
계		160쌍		

□ 교육운영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안 : 원광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고
	농촌부부(무주리조트)		도시부부(임해수련원)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첫 째 날	14:00~16:10 (130분)				중(부부 소개서 사용)  버튼용지, 전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가워요</li> <li>- 친밀감 증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 100분(친정어머니 결연)</li> <li>- 동작으로 부부 표현하기(자기소개) : 30분</li> </ul>				
	16:20~18:00 (100분)		16:20~18:00 (10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가족 문화의 이해</li> <li>- 좋은관계맺기 : 관계증진을 위한 관계배(relationship) 꾸미기</li> <li>- 이심전심코너</li> <li>- 생활언어 배우기 (속담, 전래동화 등 문화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가족 문화의 이해</li> <li>- 좋은관계맺기 : 관계증진을 위한 관계배(relationship) 꾸미기</li> <li>- 이심전심코너</li> <li>- 생활언어 배우기 (인사말, 전화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가족 문화의 이해</li> <li>- 좋은관계맺기 : 관계증진을 위한 관계배(relationship) 꾸미기</li> <li>- 이심전심코너</li> <li>- 생활언어 배우기 (속담, 전래동화 등 문화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가족 문화의 이해</li> <li>- 좋은관계맺기 : 관계증진을 위한 관계배(relationship) 꾸미기</li> <li>- 이심전심코너</li> <li>- 생활언어 배우기 (인사말, 전화하기)</li> </ul>	
	18:00~19:00 (60분)				
	저녁식사 및 휴식				
19:00~20:20 (80분)				미술치료 명상음악, 미술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안으로의 여행</li> <li>• 나를 표현하고 부부의 갈등과 기쁨 찾아 조화 이루기</li> </ul>					
20:30~22:00 (90분)					사탕부케, 맛사지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 친밀감 증진을 위한 손·발 마사지 배우고 실천하기</li> <li>• 사탕부케 만들기</li> <li>• 영상편지 쓰기</li> </ul>					
둘 째 날	6:30~7:20 산책 및 자유시간				부부 성교육 희망나무재 료  프로젝터, 수 료증, 앨범 질문지
	7:20~8:20 (60분) 아침식사				
	8:20~9:20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한배를 탔어요. 함께 노를 저어가요.</li> </ul>				
	9:30~10:30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나무 만들기</li> <li>- 가족목표 세우고 함께 대안 찾기</li> </ul>					
10:40~12:00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편지 및 사탕부케 전달</li> <li>• 수료증 전달식</li> <li>• 사후 설문지 및 질문지 작성</li> </ul>					

□ 교육운영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안 : 다산기념사업회

구 분		농촌부부		도시부부		비고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첫 째 날	도입	반가와요 ·레크리에이션 ·난타				북,장구 앰프	
		석식 및 휴식					
	소통과 이해	19:00~20:50	배우자 가족문화 알기 ·자기소개 ·문화이해	배우자 가족 문화 알기 ·자기소개 ·이심전심	배우자 가족문화 알기 ·자기소개 ·문화이해	배우자 가족문화 알기 ·자기소개 ·이심전심	질문지
		21:00~21:50	내 마음 바라보기 ·감정트리 만들기 (갈등유형)	내 마음 바라보기 ·감정트리 만들기 (기쁨유형)	내 마음 바라보기 ·감정트리 만들기 (갈등유형)	내 마음 바라보기 ·감정트리 만들기 (기쁨유형)	유형별 개념 그림, 부직판
	22:00~	취침 및 영상편지 촬영					
둘 째 날		06:30~07:30 산책 및 자유타					
		07:30~08:20 조식 및 휴식					
	아름다 운 삶	08:30~10:20	우리가족 비전 세우기 ·내안으로의 여행 ·희망나무 만들기 ·친밀감 쌓기 (발맞사지)	다르지만 같은 우리 ·손익기 ·모국어 인사하기 ·친밀감 쌓기 (발맞사지)	우리가족 비전 세우기 ·내안으로의 여행 ·희망나무 만들기 ·친밀감 쌓기 (도자기성형)	다르지만 같은 우리 ·손익기 ·모국어 인사하기 ·친밀감 쌓기 (도자기 성형)	모국어 인사말 발봉, 버퍼, 물레
	체험	10:30~12:30	희망음식 만들기 · 오색송편 · 술알과자	희망음식 만들기 · 오색송편 · 유자청과자 (친정어머니 결 연)	희망음식 만들기 · 오색송편 · 술알과자	희망음식 만들기 · 오색송편 · 유자청과자 (친정어머니 결연)	체험 재료
		12:30~13:20	중식 및 휴식				
	마무리	13:30~14:30	영상편지				빔프로젝터 , 스크린
14:30~15:30		수료식					



# 제 9 장

##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제 2 절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 1) 연구의 목적

최근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과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주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과정 및 국내유입, 정착, 그리고 가족의 지원, 그리고 현지 적응생활 만족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 국내 유입과정 및 현지 적응과정,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입국을 위한 준비 실태, 현지 적응노력, 배우자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적응지원, 3) 이주여성 가족의 자녀양육과 교육, 4) 가정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적응,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사회단체의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연구방법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를 위한 분석틀과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전라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조사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13개 시군에서 이주여성의 규모와 국적을 고려하여 700명을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실제 608명에 대한 자료만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2005년 8월 17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사용 한계 때문에 질문지를 영어, 일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편집과 코딩을 거쳐 SPSS 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국제결혼 이주여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시점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결혼한 여성이 50.9%, 1990년대 후반 36.5%,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전이 12.6%를 차지하여 국제결혼이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의 현재 평균 연령은 34세이며, 결혼 당시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20대 초반에 결혼한 여성이 22.4%를 차지하였다.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80%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며, 종교가 없는 여성이 20%를 차지한 반면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은 80% 수준이었고, 이들 가운데 통일교가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3.4%, 불교와 원불교가 9.0%, 그리고 기타 종교가 9.6%를 차지하였다.

### 2) 경제적 및 국적 관련 특성

가정생활 평가에 의하면, 부유하다고 평가한 여성이 25.5%로 많은 반면 어렵다고 평가한 여성 23.2%에 비해 약간 많았다. 이런 결과는 본국생활과 현재의 생활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생활이 좋아졌다고 평가한 여성이 34.5%로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여성 28.5%보다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을 보면,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34.9%, 조선족 여성이 31.2%, 일본 국적의 여성이 24.2%, 그리고 베트남과 기타가 각각 5.3%와 4.3%를 차지하였다. 특히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많고 조선족 여성이 적은 것은 표집설계와 달리 조선족 여성에 대한 자료수집이 미진하였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관련해서 현재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46.1%, 향후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이 34.2%를 차지한 반면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없다고 밝힌 여성도 19.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거주문제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한국인으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이 72.4%를 차지한 반면 24.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심지어 3.2%는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과정 분석

#### 1) 남성 배우자와의 만남과 결혼과정

앞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그 시기를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일본 국적의 여성과 조선족 여성이 중심을 이루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기타 국적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 국제결혼 전체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한국 남성 배우자와의 만남 계기 분석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주선에 의한 만남이 50%를 차지하였고, 친구나 이웃 등 아는 사람에게 의한 소개가 21.5%, 부모 형제 친척에 의한 가족소개가 12.5%, 결혼정보업체의 소개가 9.2%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행정기관 주선이 3.1%, 배우자의 직접적인 만남이 2.3%를 차지하였다.

특히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배우자를 만난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 국적 및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2000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난 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나 종교가 없는 여성이, 2000년 이후 결혼한 여성이,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결혼업체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난 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불교나 원불교를 믿는 여성이, 2000년 이후 결혼한 여성이,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교제기간이 매우 짧았고, 특히 교제기간이 짧은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많았고, 기관의 소개나 결혼업체의 소개를 통해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 또한 많았다.

#### 2) 국제결혼의 원인과 금전 지불 여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원인 분석에 의하면, 29.4%는 종교적인 이유로, 25.5%는 남편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22.9%와 7.9%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살려고 혹은 본국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그밖에 5.9%는 가족과 친척의 권유로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종교적 이유에서 결혼한 이주여성 중에는 오래 전에 결혼한 나이 많은 여성, 일본 국적과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경제적 측면에서 결혼한 이주여성 중에는 최근 결혼한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고 나이가 적은 여성이, 베트남 및 조선족 여성과 종교가 없거나 혹은 불교와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많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이주여성 중에는 최근에 결혼 여성이, 필리핀 혹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나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남편 배우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여성은 20% 정도로 나타났고, 이들 여성 중에는 최근 결혼한 여성이,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조선족 여성이, 종교가 없거나 불교 혹은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족생활이 부유한 여성,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 결혼한 여성이 많았다.

### 3) 남편 배우자 정보의 정확성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결혼 전에 들었던 남편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결혼 이후에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하거나 혹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는 경제적 지원 약속과 소득에 관한 정보로 각각 50%와 54% 수준으로 나타났고, 남편 배우자의 성격과 재산도 약 40% 정도, 직업과 학력이 약 35%, 그리고 가족관계나 나이, 그리고 건강이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 가운데 본 연구가 분석한 남편의 가족관계나 재산, 남편의 성격, 소득, 그리고 본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약속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주여성 중에는 최근 결혼한 여성이, 나이가 적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비교적 많았다.

##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입국 준비와 국내 적응노력 실태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적 네트워크 실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하기 이전 국내에 먼저 입국한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0%는 아무도 없었고, 45%는 친구나

이웃 등 아는 사람이 있었고, 15%는 가족이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통일교를 믿는 여성, 그리고 국적 취득계획이 없는 여성이 많았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일본 국적의 여성이나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 국적 취득 계획이 없는 여성이 많았고, 가족이 있는 경우는 조선족 여성이나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많았다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준비 실태

국내에 입국하기 이전에 한국문화와 한국어 준비 분석에 의하면, 40% 정도는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정도는 많이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이주여성 중에는 오래 전에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여성과 일본 국적의 여성이 많았고, 준비를 많이 한 이주여성 중에는 최근 결혼한 여성과 베트남 국적 및 필리핀 국적의 여성, 그리고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내에 입국할 당시 한국어 사용 및 이해 수준 분석에 의하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한 여성은 15% 수준인 반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입국한 여성이 45% 수준으로 매우 많았다. 특히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입국한 이주여성 중에는 오래 전에 결혼하여 입국한 여성이,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그리고 일본 국적과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많았고, 한국어를 잘 이해한 이주여성 중에는 30대 여성이, 학력이 낮은 여성이, 조선족 여성이, 그리고 종교가 없거나 기타 종교를 믿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3)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국내 교육 참여 실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8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이주 여성이 과반수로 많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이 참여한 내용으로는 한국문화 이해 및 한국어 교육,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이 있으며, 반면에 직업기술 교육이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자녀교육 관련 교육의 경우 참여가 부족하였다.

이상의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참여가 없었던 이주여성 중에는 대체로 최근

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여성과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종교가 없거나 혹은 불교나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 한국 입국 당시 한국어 이해 수준이 높은 여성, 농업이나 취업임금 노동자 여성이, 노동시간이 긴 여성이 그리고 중간 수준의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비교적 많았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 각종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이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쁜 생활 때문이라고 응답한 여성과 아이들 돌봄 때문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각각 24.2%와 18.6%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일부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족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최근 결혼한 여성이, 불교나 원불교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사노동시간이 적은 여성이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농촌의 바쁜 생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오래 전에 결혼한 여성이, 나이가 많고, 조선족 여성이, 취업임금 노동자 여성이, 노동시간이 길고 확대가족의 여성이 많았고, 자녀의 돌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3-5년 전에 결혼한 여성이, 30대 초반 여성이, 개신기독교 및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 여성이, 전업주부가, 노동참여 시간이 적은 여성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여성이 많았다.

## 5.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의 지원 실태

### 1) 남편 배우자 가족의 이주여성 이해 노력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할 당시 남편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여성은 많았지만, 마을 주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이주여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환대를 크게 받은 이주여성 중에는 오래전에 결혼한 여성이, 나이가 많은 여성이, 종교가 없거나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그리고 일본 국적의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마을 주민으로부터 환대를 크게 받은 여성 중에는 오래 전에 결혼한 여성이, 일본이나 베트남 국적 여성과 조선족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른 한편, 남편 배우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국어에 대한 이해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방문 경험 분석에 의하면 1회 이상 방문한 여성이 80% 수준을 차지한 반면 18.6%는 아직 경험이 없었다. 특히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최근 결혼한 여성과 나이가 적은 여성,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성이, 그리고 통일교를 제외한 다른 여성이 비교적 많았다.

반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한국방문 분석에 의하면, 56.1%가 아직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4%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 가운데 국내를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최근 결혼한 이주여성, 나이가 적은 여성,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족의 한국방문이 없는 경우 그 원인분석에 의하면, 초청비용이 없거나 초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여성이 각각 34.7%와 24.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아직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한 경우가 12.5%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초청 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는 14.8%를 차지하였다. 먼저 초청할 비용 때문에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2-5년된 여성, 나이가 적은 여성, 필리핀 국적의 여성,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성이 많았고, 초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주여성은 최근 결혼한 여성,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현재 초청상태에 있는 여성 중에는 오래 전에 결혼한 여성, 나이가 많은 여성,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나 통일교를 믿는 여성,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 그리고 핵가족의 여성이 많았다.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관련 가족 지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외부활동이나 교육참여, 그리고 본국 가족과의 연락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는 평균 40% 수준이며, 외부모임이나 외부교육참여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20% 수준이며, 가족과 연락과정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13%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외부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최근 결혼한 여성,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 여성, 개신기독교를 믿는 있는 여성, 여성에 대한

남편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고, 반대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 일본 국적 여성이, 통일교나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핵가족의 여성이, 그리고 남편의 이해 노력이 많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3-5년된 여성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남편의 이해가 전혀 없는 여성이 많았고, 반대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이, 일본 국적이나 조선족 여성이, 종교가 없거나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핵가족의 여성이, 남편의 이해 많은 가정의 여성이 많았다.

##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 실태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단체 참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단체 활동참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단체 참여 경우 40%로 다소 많았고, 여성단체의 경우는 14.6%, 그리고 자조모임의 경우는 28.3%를 차지하였다.

여성단체에 참여하는 이주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일본이나 혹은 필리핀 국적 여성이, 그리고 개신기독교 혹은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노동시간이 적은 여성이 많았고,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여성이,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일본 국적 여성이, 통일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사노동시간이 긴 여성이, 한국어 능력이 중간 수준인 여성이 많았다. 그리고 자조모임의 경우 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한 여성이, 기타 국적이나 불교 및 원불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중간 수준인 여성이, 핵가족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많았다.

이들 단체를 종합하여 측정한 ‘종합적인 사회단체’ 참여 분석에 의하면, 사회단체 참여가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여성이,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나 종교가 없거나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

성이, 부부가족이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여성이,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실태

자국 이주여성의 모임인 자조모임 참여 실태에 의하면, 자조모임이 없는 여성이 51%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여성은 자조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여성이,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여성이, 종교가 없거나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노동시간이 없는 여성이, 가사노동시간이 없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구성한 자조모임이 국내 사회단체 및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19.1%인 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29.9%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가운데 지역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우는 19.8%를 차지한 반면 자매결연이 없는 경우가 80%를 차지하였다.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제 상담 지원 실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문제에 직면할 경우 상의할 수 있는 자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국 출신 상담자는 75% 수준으로 많은 반면 한국인의 경우 40%, 그리고 타국 출신의 경우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국 출신 상담자원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통일교나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국인 상담자원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많았다.

앞의 상담 자원 3가지를 합하여 만든 '종합적인 상담 자원' 분석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상담자원이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종교가 없거나 혹은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자녀가 있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실태

전체 국제결혼 이주여성 응답자 평균 자녀는 1.54명으로 나타났고, 이주여성 중에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77.3%를 차지한 반면, 22.7%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는 최근 결혼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이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행위내용 분석에 의하면, 병원에 가거나 혹은 진찰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이 50% 이상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산후조리나 혹은 자녀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여성은 30-35% 수준으로 적었다.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불교나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외부활동과 외부 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사의 진찰 설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참여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외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많았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나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참여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많았다.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돌봄과 학습지원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46.7%를 차지하였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각각 19.4%와 19.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자녀와 대화에서 어려움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여성이 59.8%를 차지하였지만, 나머지 40.2%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대화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통일교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학습 지원 실태 분석에 의하면, 거의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15.7%를 차지한 반면 자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은 35% 이상,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여성은 18% 정도 차지하였다.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30.7%, 숙제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23.2%를 차지하였고, 이주여성의 33.1%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 이해가 어려워져 자녀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최근 결혼한 여성이, 나이가 적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적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숙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오래 전에 결혼한 여성이, 나이가 많은 여성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통일교 혹은 개신기독교를 믿는 여성이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우는 24.0%를 차지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외모가 달라서 5.1%,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4.8%,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이 9.3%, 그리고 기타가 4.8%를 차지하였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자녀가 따돌림을 경험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그리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외부 상담자를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 및 가족관계

###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관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웃관계 내용으로 본 연구는 아이들 돌봐주기, 경조사 참여,

생필품 빌려 사용하기, 금전 유통, 문제 의논하기 등을 분석하였는데, 경조사 참여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생필품 빌려 사용하기 35%로 나타났고, 나머지 아이 돌봐주기나 금전 유통 등은 20-25% 수준으로 낮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이웃과의 거래를 합하여 ‘종합적인 이웃관계’ 변수를 만들었고,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웃과 거래가 없는 여성이 40.1%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60%는 거래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 34%는 이웃과 거래를 자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이주여성의 개인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웃과 거래를 자주 갖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이, 종교가 없거나 혹은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반대로 거래가 없는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외부활동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많았다.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 및 부부관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만족은 70%로 비교적 높았고, 30% 정도는 불만족 상태에 있었다. 특히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외부활동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외부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그리고 외부 상담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약 15%,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은 경우가 5%, 그리고 기타 6% 등으로 나타났고, 30% 이상은 문제가 없거나 혹은 시부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생활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응답자의 53%는 만족스럽게 평가한 반면 30% 정도는 그저 그렇다고, 17% 정도는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특히 부부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 여성과 조선족 여성이,

종교가 없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한국어 사용 능력이 열악한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외부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3) 남편 배우자의 이주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 실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남편 배우자로부터 당한 불합리한 행위 분석에 의하면, 남편 배우자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여성이 30%를 차지하였고,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24%, 밀치거나 넘어뜨리거나 혹은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험이 15%, 그리고 실제 폭력을 당한 경우가 10%, 그리고 외부출입 금지 위협이나 성행위 강요, 그리고 흉기 사용 위협이 5-10%를 차지하였다.

남편의 폭력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종교가 없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외부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많았으며, 남편의 출입 금지 위협을 받은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싸움 분석에 의하면, 거의 하지 않은 경우가 약 50% 정도 차지하였고, 가끔 하는 경우가 35% 정도 그리고 자주하는 경우가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싸움을 자주하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에 3-9년 정도 거주한 여성이, 나이가 적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아주 낮거나 혹은 아주 높은 여성이, 필리핀이나 기타 국적의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외부활동이나 외부교육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싸움 원인분석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성격이나 생활방식 차이가 50%를 차지하였고, 경제적 문제가 약 16% 정도, 배우자의 음주 및 가족문제가 약 20%를 차지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35%를 차지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 문제가 12%,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혼 이전과 다른 생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한 여성이 22%를 차지하였다. 특히

남편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 종교가 없거나 불교 및 원불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가정경제가 어려운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부부생활에 불만족 상태에 있는 여성이 많았고, 반면에 가정문제로 이혼을 고려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개신기독교를 믿고 있는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툰 여성이, 외부활동과 관련해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외부 상담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많았다.

## 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질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거주생활, 주거환경, 건강상태, 소비생활, 전반적인 생활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이주여성 가운데 40% 정도는 만족스럽게 평가한 반면 20%는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제품 사용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 여성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5% 이상이 만족스럽게 평가한 내용으로는 육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그리고 나머지는 40% 수준에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불만족스럽게 평가된 내용으로는 주거환경과 농촌생활이 각각 24.8%와 23.2%를 차지하였고, 소비생활과 전반적인 생활만족이 20% 수준을 차지하였고, 그밖에 나머지는 20% 이하를 차지하였다.

특히 종합적인 삶의 질 평가와 관련해서 불만족스럽게 나타난 이주여성 중에서는 조선족 여성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취업임금노동자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외부활동과 관련해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부부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여성이 많았다. 반면에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기타 국적의 여성이, 가정생활이 부유한 여성이,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이 많았다.

##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내용

2004년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5년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치가 도입되었고, 특히 여성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문화와 결혼생활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제결혼 부부교육”을 실시하였고, (주)태평양이 출연한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으로 생활속의 한글교재 개발하여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성보호 가이드 제작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60명에게 출산 전후 출산 기사도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문화탐방, 장기자랑과 본국 전통요리 품평회, 한식조리교실 등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2005년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모든 시군에서 위안행사와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문화 탐방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였고, 법률지원 및 건강관리 사업, 그리고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도 추진하였다.

## 2) 여성사회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내용

2004년 여성단체가 추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사업 대부분이 자체 사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실이나 여성단체와 결연활동, 중국인위안잔치가 있었고, 일부 여성단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2005년 여성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은 크게 활성화되었고, 특히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05년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 내용 중에는 기존의 지원사업 범위를 넘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도 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전북여성농민회는 이주여성 산후도우미 프로그램 사업, 여성의 전화와 여성긴급전화 1366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폭력상담 및 예방활동, 이주여성의 가족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 제공 등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에 내재된 인권문제를 공개적,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 제 2 절 정책제언 및 시사점

### 1. 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책

#### 1) 여성가족부에 이주여성전담 부서 설치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은 최근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결혼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국사회 성비 불균형 현상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결혼 기피내지 만혼으로 한국남성의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준비가 없이 입국하고 있어 자신의 적응문제를 비롯하여 자녀교육과 가족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주여성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문제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담당 국제이주(여성)종합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 2)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지원 강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 부여와 함께 재정적 부담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향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시적 국적 부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특히 국내 체류연장과정에서 남편의 동행이나 국적취득과정에서 남편의 신원보

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편 배우자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남편의 통제 하에서 실제 많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한시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귀화조건이 충족 되었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정부는 법률적 지원을 무료로 제공해 주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될 경우 이주여성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취업을 허용하는 특별조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우리사회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고, 수많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우리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외국인과 어울려 살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즉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 배타적인 의식을 넘어 차별적인 태도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많은 이주여성은 동네 주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느낌을 받았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홍보의 경우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다민족시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습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5) 국제결혼 성공 사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활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여 발간하며, 그 자료를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사전준비와 부부 및 가족원 사이에 특별한 노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듯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여성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여성 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강의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책

### 1) 지자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 강화 및 창구의 일원화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사업을 구상 추진한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확보와 함께 사업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전라북도는 국제결혼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조직하거나 혹은 지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제결혼이 상업화된 결혼정보업체 혹은 일부 종교단체에 의해서 중개되고 있으며, 일부는 매매혼 성격을 띠고 있어 국제결혼이 출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원센터 건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주체로서 기관을 선정할 경우 단체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경우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 인지원센터’를 각 군마다 설치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 노총각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국제결혼 성사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제결혼 남성의 가정생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성찰하고, 일회성 행사보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사업운영의 다각화 필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지리적인 분산성과 농촌의 바쁜 농사일, 자녀돌봄과 가족의 지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여성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주여성 지원 관련 각종 사업이나 행사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행사나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동교육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은 마을이나 혹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은 적응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주여성의 자조모임 필요성을 홍보하고, 자조모임을 구성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자조모임 활동 공간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이주여성 자신과 관련된 문제이며, 본 연구는 바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남편 배우자를 비롯한 가정문제,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 각종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교육과 한국사회 정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내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여성 자녀(코시안, Kosian)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각종 가족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 가정에 상담안내 책자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소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5) 저소득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지원 강화

많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 가운데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지역 빈민이거나 혹은 농촌지역 노총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의료시설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소 이동진료반’을 통하여 농촌지역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진료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여성시민사회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정책

#### 1) 지역사회단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확대

지역사회 여성시민단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가족을 위한 위안행사,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문화탐방, 취업기술교육, 정서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자조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지역사회단체의 활동은 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지역 공동체의식이나 정체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시민단체의 경우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모모임’을 주선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다 활발하게 이주여성 가정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남성 스스로가 이주여성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2) 지역사회단체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자매결연 확대

지역사회 시민단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정신적 지지를 비롯하여 이주여성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직면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해법을 모색하여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대외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권태환. 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2: 39-56.
- 김광기. 1998. “경제위기와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 45-17.
- 김동일·라선영. 1994. “재촌탈농 및 겸업화에 대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실시 방안”, 한국농촌사회학회 UR 이후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발표집.
- 김민정. 2004. “한국의 이중 문화가정 - 관심 문화적 차이 극복”, 『국내거주 외국인 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토론회』.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김상임. 2004. “상당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 인권센터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 김영기·박재규. 2000. “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직가능성과 삶의 질 변화”, 『보건과 사회과학』 6·7:71-112.
- 김영기·윤근섭. 1990. “농촌가구의 이출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 농촌사회발전 연구소, 『농촌사회연구』 창간호: 33-94.
- 김영정. 1989. 『현대 한국도시의 불균등 집적현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왕배. 1991. “자본축적과 지역불균등발전”, 『공간과 사회1』, 서울: 풀빛.
- 김혜경. 2004. “전북지역 국제 결혼가정의 통합과 적응, 그리고 센터”. 『국내거주 외국인 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토론회』.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김홍주. 2000. “가족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정책: 현실과 신화”,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년도 가을학술대회 발표문.
- 농림부. 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농촌생활연구소. 1999. 『농부증 실태에 관한 연구』.
- 농촌진흥청. 1988.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보고서』.
- \_\_\_\_\_. 1998. 『IMF 시대를 사는 전문 농업인의 지혜』.
- 박성재. 2000. “중장기 농가부채 대책방향”,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농가부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pp. 47-77.
- 박영의. 2003. “상당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 여성의 인권”. 『충남 거주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 모색 워크샵』.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박재규.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2005년 한국사회학 하계학술발표문.
- \_\_\_\_\_, 2003. 『전북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욕구 연구』,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박준식. 1997. “지역연구의 역사와 흐름”, 성경룡 외,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민음사.
- 설동훈. 2003. “국내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국내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토론회』.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소라미. 2004.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 송정기·박재규. 2000. “IMF관리체제 하에서의 농촌주민 삶의 질”, 『한국사회학』 34(가을호): 595-619.
- 여성부. 2005. 보도자료(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과 출산도우미지원사업).
- 양철호 외.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권: 127-149.
- 윤근섭. 1987. “농촌인구의 이출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미출간).
- 윤근섭·최낙필. 1994. “과소지역의 구조와 사회적 결속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8(겨울호):85-115.
- 윤일성. 2000. “노숙자 연구: 노숙생활의 공간간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34 (여름호): 417-444.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 실태와 전망』, 한울.
- 이금연. 2001. “국제결혼 가정의 현실과 문제”.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 이주여성인권연대.
- \_\_\_\_\_. 2003. “국제결혼과 그 이해 -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센터.
- 이윤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방안』.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이주재. 1992. “지역불균등발전과 농촌의 빈곤”, 『농촌사회』 2: 281-305.
- 이혜경. 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아시아이주여성포럼,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포럼」 자료집(2005.9.24-29).
- 장안성·오재균. 2000.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0: 129-165.
- 전라북도. 2003. 『전북여성통계연보』.
- \_\_\_\_\_. 1999. 『여성농업인 생활실태조사』.
- 정무성. 1999. “우리나라 노숙자 실체와 지원의 당위성”, 노숙자 지원사업 1년 평가 심포지움 『노숙자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 정현욱. 1999. “조선족 귀화여성들에 관한 연구 : 유입 배경, 수용환경 및 부적응에 관한 고찰”, 『정치정보연구』 제2권(3호), 한국정치정보학회.

- 최진영. 2004.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삶 들여다보기, 내다보기”.
- 통계청. 2005. 『인구통태조사』 .
- \_\_\_\_\_. 2005. 『인구동태조사』 .
- \_\_\_\_\_. 2003. 『2000 농업총조사 자료』 .
- \_\_\_\_\_. 2003. 『2002 농업 기본통계조사 결과』 .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 황만길. 2000. “농가부채 실태와 해결방안”,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농가부채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발표집』 .
- 황하연. 1987. “과밀·과소의 경제학적 고찰”, 『새마을연구』 1: 137-151, 한양대학교 새마을연구소
- Brenner, M.H. and L. Levi. 1987. "Long-term Unemployment among Women in Swede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5: 153-161.
- Choldin, Harvey M. 1985. *Cities and Suburbs: An Introduction to Urban Sociology*, NY: McGraw-Hill Book.
- Engels. F. *The Conditions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박준식·조효래 역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두레, 1988).
- Green, Sarah. 1978. "Migrant Adjustment in Seoul, Korea: Employment and Hous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2.
- Jahoda, M., P. Lazarsfeld, & U. Zeisel. 1971. *Marienthal: The Sociography of an Unemployed*
- Karasek, R. 1991.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Psychological Work Redesign: A Model of the Psychological Class Structure," in J.V. Johnson and G. Johnson, eds., *The Psychological Work Environment: Work Organization, Democratization and Health*, Amityville: Baywood Publishing Company.
- Kosa, John and Leon S. Robertson. 1975. The Social Aspect of Health and Illness, in *Poverty and Health: A Sociological Analysis* edited by John Kosa and Irving K. Zol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ellville, M.B. 1978. "Women to Adopt to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2.



# 부 록

- 전라북도 A군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자료



<전라북도 A군 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자료>

단위 : 명

읍 면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거주 및 이주 유형		
	현재 거주인원	가족 동시 이주	이혼, 도주 등
읍지역	12	6	
면지역1	2	1	1
면지역2	10	3	1
면지역3	8	2	1
면지역4	10	0	
면지역5			3
면지역6	5	1	
면지역7	4	2	
면지역8	6	5	
면지역9	12	3	1
면지역10	5	3	1
면지역11	11	1	
합 계	84	31	8

참고 : 지역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한 것으로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규모는 행정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약 21.7% 많은 것으로 차이가 매우 큰 편임





전발연 2005-R-13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063)286-9201 팩스:(063)286-9206

<http://www.jd.re.kr>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